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4년 2월  
박사학위 논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연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수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연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Curriculum and Textbooks for Foreign Workers in Korea

2024년 2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수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연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강희숙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수연

# 박수연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강 현 화 (인)

위 원      윤    영 (인)

위 원      유 해 준 (인)

위 원      정 해 권 (인)

위 원      강 희 속 (인)

2024년 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1.2. 선행 연구 .....	10
1.2.1. 사회통합프로그램 정책 관련 연구 .....	10
1.2.2.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개발 연구 .....	14
1.2.3.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관련 연구 .....	16
1.3. 연구 대상 및 방법 .....	18
1.3.1. 연구 대상 .....	18
1.3.2. 연구 내용 및 방법 .....	19
1.4. 논의의 구성 .....	21
2. 이론적 배경 .....	22
2.1.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과 사회통합프로그램 .....	22
2.1.1.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 .....	22
2.1.2. 한국과 외국의 사회 통합 교육 .....	25
2.2. 언어 교육과정과 교수요목 .....	43
2.2.1. 교육과정 개발 원리 및 절차 .....	43
2.2.2. 교수요목 및 유형 .....	48
2.3. 한국어 교육과정 .....	54
2.3.1.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	54
2.3.2.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	60

3.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 교재 .....	63
3.1.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배경 및 특성 .....	63
3.1.1.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배경 .....	63
3.1.2.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 .....	65
3.2.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 .....	68
3.2.1. 고용 허가제와 한국어 교육 .....	68
3.2.2. 입국 전 교육 .....	70
3.2.3. 입국 후 교육 .....	72
3.3.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재 .....	77
3.3.1. 한국어 표준 교재 .....	77
3.3.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 문화 .....	84
4.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101
4.1. 요구 조사 .....	102
4.1.1. 요구 조사 방법 및 절차 .....	102
4.1.2. 요구 분석 도구 .....	103
4.2. 요구 분석 결과 .....	107
4.2.1. 외국인 근로자 요구 분석 결과 .....	107
4.2.2. 고용주 및 관리자 요구 분석 결과 .....	136
4.2.3. 한국어 교사 요구 분석 결과 .....	143
4.2.4. 요구 분석 결과 시사점 .....	156
5.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의 방향.....	160

5.1.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	160
5.1.1. 교육과정 설계 원리 및 방향 .....	160
5.1.2. 교육과정 구성 .....	162
5.1.3. 교육 목적과 목표 .....	165
5.1.4. 단계별 총괄 목표 .....	167
5.2.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	168
5.2.1. 교육 내용 범주 설정 .....	168
5.2.2. 교육 내용 선정 .....	169
5.2.3. 교수요목의 실제 .....	179
5.3.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방향 ...	185
5.3.1. 교재의 기능 및 개발 원리 .....	185
5.3.2. 교재 개발 방향 .....	187
5.4.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의 실제 ...	188
5.4.1. 단원 구성의 모형 .....	188
5.4.2. 단원 구성의 실제 .....	189
6. 결론 .....	200
참고문헌 .....	203
부록 .....	217

## 표 목차

<표 1> 특수 목적 한국어의 분류 .....	24
<표 2> 일반 목적의 영어와 특수 목적 영어의 차이 .....	24
<표 3> 연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참여자 현황 .....	27
<표 4>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발전 과정 .....	28
<표 5>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	29
<표 6> 단계별 총괄 목표 .....	30
<표 7>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 종류 .....	31
<표 8>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교육 내용의 예(1단계) .....	36
<표 9> 독일 통합 과정의 유형 및 이수 시간 .....	37
<표 10> 덴마크어 강좌 및 이수 시간 .....	39
<표 11> AMEP 영어 강좌와 이수 시간 .....	41
<표 12> 다중 교수요목의 예 .....	52
<표 13> 내용 체계의 구성 요소 .....	57
<표 14>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총괄 목표 .....	58
<표 15> 언어기술별 목표와 성취기준 기술의 예(1급) .....	59
<표 16>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 .....	62
<표 17> 업종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현황 .....	64
<표 18> 입국 전 사전 취업 교육 내용 .....	71
<표 19> 입국 전 취업 교육 현황 .....	71
<표 20> 입국 후 취업 교육 내용 .....	72
<표 2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사업 내용 .....	75
<표 22>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현황 .....	76
<표 23> 한국어 표준교재 단원 구성 .....	78
<표 24> 한국어 표준교재 교수요목 .....	79

<표 25> 주제 비교 .....	81
<표 26> 특수 어휘 .....	83
<표 27> 교재 분석 기준 .....	85
<표 28>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분석 기준 .....	86
<표 29>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분석 교재 .....	87
<표 30>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의 단원별 주제 .....	89
<표 31>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의 문법 .....	93
<표 32> 교육과정 비교 .....	94
<표 33> 담화 예문 및 활동의 예 .....	95
<표 34> 연구 방법 및 절차 .....	102
<표 35> E-9 외국인 근로자(학습자용) 설문지 개요 .....	104
<표 36> 관리자용 설문지 개요 .....	105
<표 37> 한국어 교사용 설문지 개요 .....	105
<표 38> 면접 대상자 정보 .....	106
<표 39> 일상생활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학습자) .....	125
<표 40> 직장 생활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학습자) .....	127
<표 41> 한국어 주제(일과 직업)-학습자 .....	133
<표 42> 고용주 및 관리자의 의견 .....	140
<표 43> 한국어 수업에서 중요한 기술과 요소(교사) .....	150
<표 44> 일상생활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교사) .....	151
<표 45> 직장 생활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교사) .....	153
<표 46> 등급(단계) 체계 및 수업 기간 .....	163
<표 47> 한국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체계 .....	164
<표 48> 한국어 교육 목적 .....	166
<표 49> 한국어 교육 목표 .....	166
<표 50> 단계별 총괄 목표 .....	168
<표 51> 한국어 교육과정 주제 항목 .....	171

<표 52> 한국어 기능 및 과제 항목 .....	173
<표 53> 한국어 교육과정 어휘 항목 .....	175
<표 54> 한국어 교육과정 문법 항목 .....	177
<표 55> 한국어 교육과정 문화 항목 .....	178
<표 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초급1(1단계) ..	180
<표 57>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초급2(2단계) ..	181
<표 58>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중급1(3단계) ..	182
<표 59>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중급2(4단계) ..	183
<표 60> 교재의 4대 기능 .....	186
<표 61> 중급 2 단원 구성 .....	189
<표 62> 중급 2-2과 교수요목 .....	189

## 그림 목차

<그림 1> English for Specific Purpose .....	23
<그림 2> 브라운(Brown, 2007)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 .....	44
<그림 3> 교육과정 개발 절차 .....	45
<그림 4> 각 시간별 영역 비중 .....	61
<그림 5> 성별 및 인원(학습자) .....	107
<그림 6> 연령(학습자) .....	108
<그림 7> 결혼 유무(학습자) .....	108
<그림 8> 국적(학습자) .....	109
<그림 9> 국적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단계(학습자) .....	109
<그림 10> 학력(학습자) .....	110
<그림 11> 체류 기간(학습자) .....	111
<그림 12> 현재 참여 단계(학습자) .....	111
<그림 13> 체류 기간과 현재 단계(학습자) .....	112
<그림 14>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 학습 기간(학습자) .....	113
<그림 15>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방법(학습자) .....	114
<그림 16>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요일 및 시간(학습자) .....	116
<그림 17>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목적(학습자) .....	117
<그림 18> 학습의 어려움(학습자) .....	118
<그림 19> 희망하는 학습 시간(학습자) .....	119
<그림 20>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과 이유(학습자) .....	120
<그림 21> 한국어 목표 수준(학습자) .....	121
<그림 22> 고급 과정 개설 필요성(학습자) .....	122
<그림 23> 한국어로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학습자) .....	123
<그림 24>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 기술(학습자) .....	124

<그림 25> 일상생활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학습자)	.....	126
<그림 26> 직장 생활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학습자)	.....	128
<그림 27> 한국어 교재 만족도 및 도움 정도(학습자)	.....	129
<그림 28> 한국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정도(학습자)	.....	130
<그림 29> 가장 필요한 학습 내용(학습자)	.....	131
<그림 30> 근로자용 교재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학습자)	.....	131
<그림 31> 한국어 주제(일상생활)-학습자	.....	132
<그림 32> 한국어 주제(일과 직업)-학습자	.....	134
<그림 33> 한국어 기능(학습자)	.....	135
<그림 34> 회사 업종(관리자)	.....	136
<그림 35> 설문 작성자의 직위(관리자)	.....	136
<그림 36> 회사 내 외국인 수(관리자)	.....	137
<그림 37> 회사 내 외국인의 국적 수(관리자)	.....	137
<그림 38> 의사소통 방법(관리자)	.....	138
<그림 39>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및 이유(관리자)	.....	138
<그림 40> 회사에서 기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능력(관리자)	.....	139
<그림 41>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장 필요한 언어 기술과 요소(관리자)	.....	139
<그림 42> 한국어 교육의 주제(일상생활)-관리자	.....	141
<그림 43> 한국어 교육의 주제(일과 직업)-관리자	.....	142
<그림 44> 한국어 교육의 기능(관리자)	.....	143
<그림 45> 성별(교사)	.....	144
<그림 46> 연령(교사)	.....	144
<그림 47> 학력(교사)	.....	145
<그림 48>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 현황(교사)	.....	145
<그림 49> 현재 담당하고 있는 수업 단계(교사)	.....	146
<그림 50> 외국인 근로자 학급 구성(교사)	.....	146
<그림 51>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의 어려운 점(교사)	.....	147

<그림 52> 맞춤형 한국어 수업의 필요성(교사) ..... 148  
 <그림 53> 맞춤형 한국어 수업의 필요성 이유(교사) ..... 148  
 <그림 54> 일일 최대 수업 시수의 적절성(교사) ..... 149  
 <그림 55> 일상생활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교사) ..... 152  
 <그림 56> 직장 생활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교사) ..... 154  
 <그림 57> 한국어 교육의 주제(일상생활)-교사 ..... 155  
 <그림 58> 한국어 교육의 주제(직장 생활)-교사 ..... 155  
 <그림 59> 한국어 교육의 기능(직장 생활)-교사 ..... 156

## ABSTRACT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Curriculum and Textbooks for Foreign Workers in Korea

—Focusing on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Park Su Yeon

Advisor: Prof. Kang Hui Suk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ustomized Korean language curriculum for foreign workers participating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extbook development. For this work, first of all,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special purposes and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were examined, and the theory of the language curriculum was reviewed. Next, after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extbooks for foreign workers, implications were drawn. In addition, the needs were surveyed and analyzed for foreign workers and stakeholders (employers or managers, Korean language teachers) who are learners. Last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needs analysis,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curriculum for foreign workers was developed and the direction of textbook development was suggested.

This study, conducted in this way, is structured as follows.

Chapter 1 presents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study, the subject and method of the study, and as prior studies, policy research related to social integration programs, curriculum and syllabus research, and textbook development research were examined. Chapter 2 is a theoretical discussion that examines the concept of the Korean language as a specific purpos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urriculum development, and examines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in foreign countries. Through the cases of Germany, Denmark, and Australia, which are advanced immigration countries, it was possible to obtain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in which Korean language education,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as a specific object, should proceed.

Chapter 3 looked at the overall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and textbooks used in the educational field.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ctual condition analysi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for foreign workers were derived. In Chapter 4,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oreign workers who were involved in the study, employers and managers who were stakeholders, and Korean language teachers to understand the needs of the field when developing a curriculum for foreign workers. Through thi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curriculum and textbook for foreign workers were derived.

In Chapter 5,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 related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he results of demand analysis conducted in the previous chapter, a Korean language curriculum for foreign workers was developed and the elementary and intermediate syllabus and textbooks are presented. Chapter 6 is a conclusion that summarizes and organizes the research contents an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research.

As the labor shortage worsens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policy changes related to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re rapidly being made. Accordingly, the influx of foreign workers in non-professional employment is increasing along with policy changes such as a significant expansion of the quota from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workers to skilled workers (E-7-4). Most foreign workers in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mainly work in small

businesses with poor working environments, so they are highly exposed to the risk of industrial accidents, and their lack of communication skills can lead to industrial accidents. Despite this situation, there is very little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or textbooks for foreign workers.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to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adaptation and independence of foreign workers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by conducting basic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and textbooks for foreign workers participating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veloped a curriculum for foreign workers participating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s, presented specific teaching syllabus, and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addition to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to ensur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result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that the survey subjects are limited to some parts, not the whole country, and that the verification process after presenting the sample unit of the textbook cannot be performed.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eign workers, curriculum, syllabus,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다양한 학습자의 변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교육과정과 교재가 제공되는 현 상황에 주목하여 학습자의 체류 유형별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체류 유형이 다른 만큼 참여 목적과 요구도 다르기 때문에 체류 자격별로 반을 별도로 구성해야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민자 집단(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전문 인력, 중도 입국 자녀 등) 중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주목하였다.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첫해인 2009년에는 1%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 말 현재 18.4%로 결혼 이민자(34.6%)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바,<sup>1)</sup> 이들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정보와 통신, 교통의 발달로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영향으로 2000년부터 한국에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 외국인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0년 1,261,415명에 불과하던 외국인이 2019년 말에는 2,524,656명으로 불과 9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2023년 8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433,318명으로 전체 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년 8월호).<sup>2)</sup>

1)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중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참여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연도	2009	2018	2019	2020	2021	2022
교육 참여자(명)	1,920	50,639명	56,535	36,620명	43,552	42,163
결혼 이민자(비율)	1,369(71.3)	17,645(34.8)	18,373(32.5)	13,828(37.8)	18,096(41.6)	14,582(34.6)
외국인 근로자(비율)	19(1.0)	10,737(21.2)	12,935(22.9)	6003(18.4)	6442(14.8)	7,754(18.4)

이렇게 한국 내에 이민자가 가파르게 증가한 계기로는 1980년대 말 이후 시작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1990년대 결혼 이민자의 증가, 2007년 방문 취업제 이후 외국인 동포의 급증 등을 들 수 있다(양윤실, 2020:37). 이와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 방안(Study Korea Project)과 같은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각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학생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한몫을 차지한다.<sup>3)</sup>

이와 같이 정치, 역사, 종교, 언어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입됨에 따라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먼저 한국 주민들은 이민자들의 정착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민자들의 계도화로 인한 한국 국민과의 분리 현상, 일부 이민자들의 일탈 행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이민자들은 초기 정착 과정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이해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 이주 이후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저하, 2세대의 정체성 혼란, 한국 국민의 차별 대우 등이 야기될 수 있다(황민철·문병기, 2017). 이는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sup>4)</sup>

이에 정부에서는 급격하게 늘어난 체류 외국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이민자들의

2)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8.
인구 수	51,826,059	51,849,861	51,829,023	51,638,809	51,439,038	51,558,034
체류 외국인 수(명)	2,367,607	2,524,656	2,036,075	1,956,781	2,245,912	2,433,318
체류 외국인 비율(%)	4.57	4.87	3.93	3.79	4.37	4.72

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 방안(Study Korea Project)은 2004년 대통령의 지시로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05년에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방안은 ‘동북아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표방하고 이를 위해 해외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으며 중점 과제는 외국인 유학생 초청 사업 확대,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한국 유학 홍보 강화, 외국인 유학생 수학·생활 환경 개선, 한국어·한국 문화 보급 확대, 효율적 행정 지원 체제 구축과 같이 모두 6가지 영역이다(민진영, 2013). 정부는 2027년까지 3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하여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2023. 8. 16. 교육부 보도 자료).

4) 사회통합은 보다 포괄적이며 개념적인 수준에서 사회통합을 정의하는 것과 외국인(이민자 중심)을 중심으로 한 사회통합을 정의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희문, 2015:5). 이주민 사회 통합에 대한 개념을 쉽게 제시할 수 없지만 한국 사회로 들어오는 이주민이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로 남지 않고 선주민인 한국 국민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여, 이주민과 국민이 갈등 관계에 놓이지 않고 상호 존중과 조화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조항록, 2011a:5).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국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 통합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문병기 외, 2016).<sup>5)</sup>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이 그것이다.<sup>6)</sup>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한국어와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이다(2023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침). 다시 말하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의 입국, 체류, 통합의 전 과정을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회 통합 정책의 일부분으로서, 궁극적인 목적은 체류 외국인의 신속한 사회 적응과 사회 통합의 증진이라고 할 수 있다(문병기 외, 2016).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하여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9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0년부터 정식으로 시행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에는 운영 기관이 20개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 말 현재 339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참여자 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1,331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56,535명이 참여하였고, 참여자의 국적도 126개국에 이를 정도로 다양해졌다.<sup>7)</sup> 또 시행 초기에는 결혼 이민자가 전체의 67%를 차지하였지만 2023년 현재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중도 입국 자녀 등으로 참여 유형이 다양해지고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서 이민자의 확대<sup>8)</sup>를 고려할 때 이민자의 유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견된

- 5) 사회 통합 정책의 필요성 중의 하나는 사회 통합이 실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갈등에 있다. 이런 경우, 외국인의 저소득층 전락, 외국인 밀집 지역 슬럼화와 일탈 행위 증가, 국민의 반외국인 정서 확산 등으로 인하여 사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5년 프랑스 방리유 소요 사태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민자의 사회 통합 실패는 2세의 성장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사회 갈등으로 발전된다(라휘문, 2016).
- 6)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교육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구분 \ 교육명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사회 이해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교육 단계							
교육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총 교육 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 7) 연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와 참여자 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연도	2009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
운영 기관 수	20	300	309	309	308	348	347	339
교육 참여자	1,331	30,515	41,500	50,639	56,535	36,620	43,552	42,163

- 8)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6월에 <인구감소지역 지

다. 여기에 더해 동포들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기존 귀화 시험의 ‘귀화용 종합 평가’로의 대체, 여가부 한국어 교육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의 일원화 등 정책의 변화와 함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규모도 더욱 확대되고 수요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sup>9)</sup>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과 교재 개편 등의 질적인 성장도 이루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특히 유럽, 호주 등 이민 선진국과 달리 사회통합프로그램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국적, 체류 기간, 체류 목적, 비자 유형 등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최아영, 2018).

이미혜(2016c:286)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전체 이민자를 위한 표준화된 통합 교재만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민자 집단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사회 통합용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다양한 참여자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구성하거나 다양한 교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수-학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이미혜, 2019:808).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목표는 같지만,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사회 문화적 배경, 인지적 특성, 언어 사용역은 각각 다르다. 이런 점에서 한 교재에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이미향 외, 2018:159). 그러므로 한국의 사회 통합 정책과 교육이 효과를 거두려면 이민자의 집단별 특성과 요구를 분석하고,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다문화 사회의 방향에 맞도록 내용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방성원, 2008:2). 이 외에도 언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부터라도 나누어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고(민진영 · 박소영 2019) ; 최아영, 2018) 수요자 특성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여 교재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정호선, 2018).<sup>10)</sup>

---

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법무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외국인에게 (지역) 거주(F-2)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을 변경해 주고 가족 초청이 가능하도록 한 ‘지역 맞춤형 비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2022. 7. 25. 법무부 보도 자료).

9) 2019년까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과정 단계를 연계함으로써 여가부에서 정규 과정(기초~중급2)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7년 12월 감사원의 ‘다문화사회 대응 시책 추진실태 감사’ 지적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중복되는 유사한 한국어 교육을 폐지하기로 합의한바, 여성가족부 정규 한국어 교육을 폐지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일원화하였다.

10) 이민자들의 변인에 따른 특화된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51)에도 나타난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 기관 확대, 온라인 화상 교

한편, 2018년 말 기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체류 유형을 보면, 결혼 이민자가 45.7%, 외국인 근로자가 23.4%, 전문 인력이 9%, 유학생이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이미혜, 2018:817) 여전히 결혼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특히 외국 근로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참여가 확대된 데에는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E-9)에게 숙련 기능 인력(E-7-4), 거주(F-2-7) 자격으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에 있다.<sup>11)</sup> 외국인 근로자들은 체류 자격 변경을 통해 최대 9년 8개월까지 장기 거주할 수 있는데, 비자 변경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sup>12)</sup> 2022년 국가 통계 포털 자료에 따르면 ‘체류 기간 만료 후 한국 내 계속 체류 희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80.8%가 계속 체류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것에서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증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한국어 프로그램으로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과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 기관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신장과 복지 증진이 주목적으로, 주요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가 법적, 제도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나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상담 등이다(강신희, 2018:2). 한국어 교육은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여러 교육 사업의 일부로서, 기관마다 정식 교육과정은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순애, 2022:943). 따라서 결국 외국인 근로자가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육 등 교육 접근성 제고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가 증가하였으나, 예산 부족 등 현실적 이유로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11) 법무부에서는 23년 9월 25일부터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국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숙련 기능 인력 확대 방안(K-point E-7-4)’ 을 시행하고 있다.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 항목 요건 중 선택이던 ‘한국어 능력’을 필수로 설정하였다는 점인데, TOPIK은 2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단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로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E-9 → E-7 → F-2 → F-5).
- 12) E-7 전환 시 요구하는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는 점수 분포는 다음과 같다.

구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사전 평가 점수	1단계	2단계/41-60점	3단계/61-80점	4단계/ 81점
(E-7-4)	점수	-	50	80	120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특수 목적 한국어로서의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가 개발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는 이민자 전체를 위한 통합 교육과정 및 교재가 제공되고 있어 특정 이민자 집단에 필요한 효과적인 학습·교수가 어렵다.<sup>13)</sup>

주지하다시피 언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유형적 배경은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교재를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현행 사회통합프로그램에는 모든 이민자, 즉 결혼 이민자, 근로자, 유학생, 전문 인력, 재외 동포, 중도 입국 자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동일한 교육과정과 교재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학습자는 특수한 배경을 가진 집단으로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에는 참여 이민자들의 현실 생활과 밀접한 주제 및 내용을 선정함으로써 현실 생활에 기반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재에는 학습자의 학습 경험, 선학습 내용이 다양하고 요구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용과 상황이 특정 이민자 집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민자들을 위한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이미혜, 2018). 따라서 특정 이민자, 즉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히 필요한 직장 생활과 관련한 특화된 내용이 없어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14)</sup> 지금처럼 모든 이민자들이 동일한 교육과정과 교재로 교육을 받는다면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할 것이므로, 학습자의 변인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인한 산업 재해 발생률이 높으나 현재의 교육과정으로는 현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sup>15)</sup>

제3차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주로 근무하여 산업 재해 발생 위험 노출 빈도가 높고 언어 소통 장애, 낮은 근로 환경 등으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 보건 인식 저하 및 산업 재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13) 이와 관련하여 이미혜 외(2018:23)의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에서 이민자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논의하여 교재, 워크북은 1종으로 개발하되, 보조 자료를 이민자 유형별(결혼 이민자, 근로자, 중도 입국 자녀, 유학생, 기타 일반)로 구분하여 5개로 이민자의 특성을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다양한 이민자의 유형에 맞는 언어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민진영·박소영, 2019:158~159).

14)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한 황민철 외(2017:185)의 연구에서 관리자 F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회 통합 교육이 별도로 있어야 직장 생활에서 용어나 예절을 배울 수 있다고 밝혔다.

15)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발생률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평균 1.16%로, 같은 기간에 산재 보험에 가입한 국내 근로자의 산재 발생률에 비하여 6배 가량 높은 것이다(강민주, 2019:10).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보충적인 노동력으로 채용되고 있어, 사업장 내 근로 환경이 열악함을 감안할 때 여러 위험 요소에 노출된 경우가 많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노무의 단순성과는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기술 용어, 안전 보건 관련 전문 용어들이 많다. 따라서 작업 현장에서의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이나 유해 위험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발생의 이유를 조사하였을 때에 가장 높은 응답은 ‘언어 소통의 미흡으로 인해 작업 수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44.8%)’이었다(강민주, 2019:16).

한국산업인력공단 보고서(2018:18)에서도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애로 사항에서 생활 습관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전체 응답자 중 42.5%로 가장 높았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한국어 능력’이라고 답변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sup>16)</sup>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 전에 외국인 고용 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통과한 후 입국하게 되지만,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문제 은행 형식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한국어로 대화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김민선, 2018:13-14).<sup>17)</sup> 이영민·최고은(2016)에서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사소통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였으며, 25% 이상이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sup>18)</sup>

한국어 교육과정은 한국어 교수·학습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이다.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수요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로 환경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 또는 환경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산업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정훈 외, 2021:456; 노지현, 2014:5, 최경

16)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한국어 능력이 전체 응답자 중, 60.9%, 기초 기능 능력(24.1%), 근무 경력(11.5%) 순으로 응답하였다(박준석 외, 2018:19). 또한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2020)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중 5.8%가 1년 동안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39.6%)>시간이 없어서(27.9%)> 기타(9.6%) 순으로 답하였다(윤자호, 2021).

17)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거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고용 허가제로 입국하기 위한 용도로 한국어를 공부하였다. 즉, 시험에 나올 만한 예상 문제를 암기해서 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짧게는 2주를 배우고 시험에 합격한 경우도 있었다(김혜선 외, 2015:276).

18) 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 2023년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된 한국어 기초(0단계-자모음반) 과정에 참여한 학습자 22명 중 E-9(비전문 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13명(59%)인 것으로 볼 때, 의사소통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유추할 수 있다.

식, 2019:177).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어 능력은 한국 생활의 적응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유해·위험 요인 정보를 이해하는 데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급 단계에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혜선 외, 2015:275).

셋째, 생산 연령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로 외국 인력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의 출산율은 0.78로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의 고령화 비율이 17.6%를 기록함으로써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28.9%) 다음으로 세계에서 10위로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1970년부터 2021년까지의 경제 활동 인구(25~49세)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김명광, 2023:400). 결국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는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의미하며 외국 인력 의존도가 심화될 것임을 예견하게 한다. 또한 출산율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 공급의 감소화, 내수 부진을 유발하게 되어 경제 성장률의 저하 요인이 되어, 국민 경제의 측면에서도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sup>19)</sup> 이러한 이유로 머지않아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이향수 외, 2016:120; 진현 외 2016:15). 더구나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3D 업종의 종사자를 구하기가 향후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2023년 5월부터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손꼽히는 조선업에 근무하는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현장에 직접 강사를 파견하여 ‘산업 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sup>20)</sup>

넷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장기 체류화 경향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오랜 기간 단순 기능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여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귀국을 유도하는 순환 방식의 인력 활용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체류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정부(고용노동부)는 체류 기간 만료로 출국 시 다시 재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

19) UN 인구 보고서(2020)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이하인 나라로 201개 회원 국 중 201위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 활동 인구(25-49세) 감소로 경제 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김명광, 2023:400).

20) 교육 대상은 주로 조선 5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서 전문 인력(E-7) 비자를 소지하고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이지만 비전문 외국 인력(E-9)도 참여할 수 있다(혁신24 <https://www.innovation.go.kr>).

여 최장 10여 년(9년 8개월)의 장기간을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나타나게 되었다.<sup>21)</sup> 최근 이들 중에는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장기 체류 자격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sup>22)</sup>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도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재고용을 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는 등 외국인 근로자 체류 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이혜경, 2018:214).<sup>23)</sup> 최근 주목 받는 변화로는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그동안 3년 근로 계약 주기의 단기 순환 원칙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점차 단기 순환 원칙이 깨지면서 장기간 거주하는 추세로 변화하는 것이다(차용호, 2021:236).

이민자가 체류국의 언어를 이해하고 말하는 것은 그 나라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과제이다. 초기에는 이민자가 통·번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워야만 스스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어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이민자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이나 학업을 원한다면 한국 사회와 법, 제도 관습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과 상황에 맞는 언어와 문화를 익혀야 한다(조영희 외, 2017:15).

이렇듯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 재해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며, 더 나아가 최소한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권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주화로 인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은 이미 법무부에서도 외국인 인력의 취업 및 거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것과도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법무부 보도 자료, 2023. 4. 2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 목적 한국

21) 외국인 근로자는 2004년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될 당시에 인정되었던 3년의 근로 계약 기간을 현재 9년 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므로 처음 설계하였던 단기 순환 원칙은 사실상 해체되었다고 간주된다(차용호, 2021:234).

22) 국가 통계 포털 2022년 자료에 의하면 체류 기간 만료 후 한국 내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은 88.6%로 나타났다. 정기선 외(2016:42-43)에서도 E-9에서 E-7으로 자격을 전환한 근로자 중 90% 이상이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기를 원했으며, E-7 전환 근로자들 중 85%는 영주권 취득할 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국적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는 비율도 52%로 나타났다.

23) 2023년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이 가능해짐으로써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 기능 인력(E-7-4) 자격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2023. 6. 23. 법무부 보도 자료).

어로서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과정이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성과 맞춤형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인 외국인 근로자 및 이해 관계자들(고용주 및 관리자, 한국어 교사)의 요구를 분석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 1.2. 선행 연구

### 1.2.1. 사회통합프로그램 정책 관련 연구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연구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정책’과 관련된 연구이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차용호(2008), 이성순(2010), 조항록(2011, 2012), 최배영·한은지(2012), 김종세(2013), 박혜숙(2014), 전영기·최은수(2014), 라희문 외(2016), 황민철 외(2017), 김상천(2018), 최아영(2018), 황난숙(2018), 전경미(2019), 강수정(2020), 전영순·김경제(2021), 등이 있다.

먼저 차용호(2008)는 정부 정책으로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한국 사회 다문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점검하고 관련 이론을 정리하였다. 또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한국형 이민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성순(2010)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 배경 및 운영의 실체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결혼 이민자에게 치중되어 있는 교육의 기회를 외국인 근로자, 난민, 중도 입국 2세에게도 평등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사회통합프로그램 정착을 위해 교육 전문가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민자의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해서 본 교육 외에 직업 교육도 제공할 것과 교육의 형태도 주말이나 야간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선주민을 위한 시민 교육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한국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항록(2011)은 ‘이주민 사회 통합’과 관련하여 출입국 정책 차원, 이민 정책 차원, 소수자, 약자로서의 이민자에 대한 정책적 차원으로 나누어 사회 통합 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정부 부처간의 소통 부족, 사회 통합 정책 대상이 결혼 이민자와 이민자 자녀 및 동포에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비중이 큰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국가의 정책이 이주민의 증가에 대응하여 우리 사

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회 통합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전문 기술 인력이나 고숙련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서비스의 체계화를 제안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이민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조항록(2012)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의 확대 실시를 위한 방안의 모색을 한국어 정책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결혼 이민자에 한해 유예해 주고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 3, 4단계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정주 이주민에게도 중급 단계까지는 이수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sup>24)</sup>

김중세(2013)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인 <출입국 관리법>을 바탕으로 추진과정 및 성과를 살펴보고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 제언으로는 이민자의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전문화할 것과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난민, 중도 입국한 이민자 2세, 귀화자 등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확대를 위해 격오지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선제되어야 하며, 이민법을 제정하여 이민 정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혜숙(2014)에서는 한국보다 앞서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sup>25)</sup>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목적과 여건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독일과는 달리 학습자 요구에 대한 고려 없이 한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여성 결혼 이민자에 편중되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sup>26)</sup> 그리고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을 비롯하여 사회 통합 정책의 입안과 시행을 주관할, 독일의 이주난민청과 같은 총괄 기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교육으로 편입하지 못

24) 2013년 1월부터 결혼 이민자도 3, 4단계를 이수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두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황난숙, 2018:16).

25)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강좌 참여자의 학습 배경과 학습 속도에 따라서 일반 통합 과정, 특수 통합 과정, 집중 과정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26) 주요 이민 선진국들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명	과정	이수 시간	
한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총 415시간	
덴마크	덴마크어 CLIL	총 6,000시간	
네덜란드	사회 통합 교육	총 600시간	
	일반 통합	총 700시간	
독일	특수 통합 과정	알파 과정	총 1,300시간
		여성/학부모/청소년/장기 체류자/제2문자 학습자 과정	총 1,000시간
		집중 과정	총 430시간
호주	AMEP	무제한	

한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해 독일과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에 특별 과정을 도입하여 취업 지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이수 제도와 평가의 문제점 등의 실제적인 부분까지는 개선안으로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전영기·최은수(2014)는 호주의 이민 정책과 그에 따른 사회 통합 정책으로서의 다문화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민자 정착 지원 프로그램의 대표 사례로 성인 이민자 영어 교육 프로그램(AMEP)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박혜숙(2014)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민 정책과 이민자 정착 및 통합 정책을 전담할 ‘이민부’를 설립할 것을 역설하였다.<sup>27)</sup>

김상천(2018)은 미국, 호주 그리고 EU(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국가들의 언어 정책을 살펴본 후,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몇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발전 방안으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 의무화, 사회 통합 관련 법제의 정비,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계 구축,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을 들었다. 이 연구는 이전 연구들처럼 여러 외국 국가와의 사례를 통해 ‘이수 의무화’, ‘법제 정비’를 제안하였으나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계 구축’은 이전의 연구보다는 발전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황난숙(2018)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교육 운영 현황, 평가 체계 등을 살펴보고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주말반과 주간 야간반의 개설 과정 수가 적고, 평가가 무료로 운영되어 인적, 물적인 낭비 요소가 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참여자의 학습 능력과 학습 배경에 따른 수준별 과정 운영, 사전 평가 기관의 상설 운영, 교육에 참여하기 쉽도록 교육 운영의 다변화, 평가 비용의 유료화 등을 주장하였다. 전영순·김경제(2021)는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비의 일부 유료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의 의무화 등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의 대부분은 한국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정책적 제언을 문헌 고찰을 통해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현장의 운영 담당자나 학습자 등과의 심층 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 방법도 몇 편 이루어졌다(최배영·한은주 2012; 라휘문 외, 2016; 황

27)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부처별로 시행되는 데 따른 중복, 비효율,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여 법무부 차원의 통일되고 신속한 출입국·이민 정책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법무부 보도 자료, 2023. 1. 26.).

민철, 2017, 황민철 외, 2017; 최아영, 2018; 전경미, 2019).

먼저 최배영·한은주(2012)는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과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안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 외에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병행할 것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 교육 기관의 양적 확충, 진정한 사회 통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식 개선과 다문화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을 병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라휘문 외(2016)는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을 중심으로 하되, 보완적으로 가족, 자녀 등으로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셋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정착에 필요한 고차원적인 내용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취업이나 사회 진출, 자녀 세대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정책 과정의 참여 기회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적극적 사회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황민철(2017)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사회 통합 정보망 활용 개선을 통한 접근성 증진,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비의 유료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나 강사 등 다른 관계자들의 시각을 반영하여 종합적 고찰을 시도하지 못한 부분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황민철 외(2017)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사회 통합 실태를 비교하고 또 국민을 대상으로 FGI(표적 집단 면접)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여러 사회적 변수(출신 국가, 체류 자격 등)에 따라 사회 통합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차이가 있으며, 한국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함을 밝혔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외국인 유형별 맞춤형 강의 개설의 필요성과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에 취업 교육을 신설하고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민(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주, 결혼 이민자의 배우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탐색하고 개선 방안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아영(2018)은 이민자들의 만족도 설문 조사 및 질적 연구를 통해서 사회통합프로

그럼의 교육 제도, 교육 내용, 교육 방식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아영(2018)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수요자들의 특수성과 국적·체류 기간·체류 목적 등과 같은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지 않아서 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국적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체류 목적에 따른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 제공,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의무 교육화, 폐교를 활용한 문화 교육 활성화, 한자권과 비한자권 구분하여 교육할 것을 들고 있다. 다른 연구에서는 볼 수 없는 ‘상호 문화 이해 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활동’을 제안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전경미(2019)는 질적 사례 연구를 적용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해 관계자(이민자, 강사, 운영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현상을 분석한 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 적응 교육과 직업 교육을 강화할 것과, 학습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해 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한 유일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밖에 강수정(2020)은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를 이용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들의 경험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어려움 등을 도출하여 실제적인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몇몇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로만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1.2.2.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개발 연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개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인데 이에 대한 논의로는 조항록 외(2011), 이미혜(2015), 이경주(2018), 이미향 외(2018), 민진영·박소영(2019) 등을 들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갖추지 못한 채 교육이 실시되었고 기존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대학 기관 한국어 교재나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운영하였다. 이후 전용 교재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가 개발되고 평가 체계가 개편되면서 비로소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이 전문성을 띠고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교육과정은 교육의 실행을 위한 설계도가 되

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과정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다(정혜란, 2023:15~16).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항록 외(2011)에서는 전국 116개 운영 기관의 학습자와 강사, 기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요구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의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2년에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이미혜(2015)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발전 과정을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발, 시행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특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이 수정되고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고, 한국어 능력 평가 결과를 참여자의 이익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참여자가 여성 결혼 이민자라는 것, 그리고 모든 이민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교육과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계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이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육과정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한국어 교육 현장 연구를 통해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한계이다. 이경주(2018)는 한국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비교하고 연구자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현행 교육 시간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가 부족하므로 교육 시간을 확대할 것과 재이수를 하면 자동으로 승급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평가 체제를 개선할 것과 이수 완료 후에도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민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단계별(4단계) 100시간으로는 이민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어려우므로 교육과정의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평생 교육으로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특별 과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미향 외(2018)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과정과 교재를 분석하여 이민자를 위한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재 개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재에 이민자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민자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을 더 상세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주제 측면에서는 이민자의 언어 사용 상황을 고려하였으나 문화 내용 측면이나 언어 수행 측면에서는 이민자에게 특화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미향 외(2018)의 연구는 앞으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민진영·박소연(2019)에서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과정을 외국(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호주, 프랑스)의 이민자 사회 통합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과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 대상, 교육 단계, 이수 시간, 평가 체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바, 이민자 유형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화상 교육, 블렌디드 러닝, 방문 지도 등 교육 형태를 다변화하며 단계별 교육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소정의 수업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적극성을 갖도록 할 것과 승급 체계의 개선 및 상설 사전 평가 기관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방향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방향과 다를 바가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를 보면 비록 학습자의 요구 분석 등을 통한 구체적인 제안은 하지 못하였지만 문헌이나 독일과 같은 이민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어 교육 참여자의 변인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아울러 수업 시수의 확대에 대한 요구는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 역사가 오래된 외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과 비교했을 때 이민자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모색하는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획일화된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은 독일의 학습 능력이 우수한 학습자를 위한 속성 과정에 해당한다(이미향 외, 2018:168).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혜(2015), 이경주(2018), 이미향 외(2018)의 연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이 국외의 이민 선진국들처럼 참여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 1.2.3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관련 연구

사회 통합 교육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 한국어 교육학, 다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대부분이며, 한국어 교수법, 한국어 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이미혜, 2015). 교육 현장의 3대 요소로 일컬어지는 교사, 교재, 교수법 측면에서 볼 때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재의 지속적 개발이 요구된다.

먼저 정호선(2016)은 이민자의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고 수요자 집단의 특성적 측면, 사회 통합 영역의 내용적 측면 한국어 교육 효율화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민자의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의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의 내용으로 다문화 이해와 같은 내용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

지 않고 이민 사회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문화 내용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제언으로는 이민자의 특성과 체류 목적에 맞는 교재 개발, 교수요목의 위계화 고려, 워크북과 교사용 지도서 개발을 언급하였다. 정호선(2016)의 연구는 이민자의 상황을 반영한 교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회 통합 교육용 교재가 사회 통합 정책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이미혜, 2016c:273). 이래호(2015)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의 구성 체계와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대화의 실제성 부족, 필수적인 문법 항목 누락, 문법과 읽기, 듣기 자료의 연관성 부족 등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개선 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이미혜(2016c)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급 교재 개발 사례 연구로서 교재 개발 절차와 방법, 교재 개발 방향 설정, 교수요목 구성, 단원 내용 등을 소개하였다. 앞으로 이민자 집단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 통합 교재도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 통합 교육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는 데 참고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운영·손경애(2016)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에 포함된 문화 내용과 교육 방법을 분석하고 문화 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재에서 문화 교육의 방법적 측면에서는 상호작용을 이끌 만한 활동이 없다는 것과 내용적 측면에서는 이주민의 사회 통합에 필요한 문화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별도의 문화 교육과정을 개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오지혜 외(2019)에서는 호주 성인 이민자 대상 영어 프로그램(AMEP)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개선안으로는 언어 숙달도가 낮더라도 성인 이민자를 위한 필요한 내용 학습이 지연되지 않도록 초급 단계부터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교육 목적, 교육 대상자, 교육 여건 등에서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현장의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2018년 현재 사용 중인 교재의 개발을 위해 이미혜(2019)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에 참여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 조사와 FGI(표적 집단 면접)를 통해 요구 분석을 하였다. 요구 분석으로 얻은 시사점으로는 교재에 말하기와 발음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 생활과 밀접한 내용과 표현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워크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미혜(2019)의 연구는 참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재를 개발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미향(2020)은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를 분석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목적을 기준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에 대한 연구들은 기존의 교재를 분

석하거나 외국의 사례를 통해 교재 개발을 제안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요구 분석을 하고 개선안을 제안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요구 분석을 하고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가 더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다양한 참여 학습자 집단 중, 숙련 기능 인력(E-7)으로의 자격 변경 시 필수 요건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 등의 요인과 맞물려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주목하였다. 학습자의 증가는 학습자 집단의 특성과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과제가 되며, 학습자 집단을 고려한 목적별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도 높아진다. 그러나 현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양한 학습자의 변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교육과정과 교재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현장 기반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재 개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점에서 앞선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1.3. 연구 대상 및 방법

### 1.3.1. 연구 대상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칭하는 용어는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다양하다. 이주 노동자라는 명칭은 유입 초기에 산업연수생제 등 열악한 근로 환경과 인권 침해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에서 노동운동 단체들이 노동 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주 노동자’로 불렸던 것으로 파악된다(이혜경, 2018:217). 그러나 대한민국 법령에서는 ‘이주 노동자’라는 용어를 찾을 수 없으며,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 사회와 학계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김기태 외, 2020:36).

한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법 정의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모든 외국 국적의 노동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체류 자격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출입국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한 ‘체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리고 ‘체류 자격’에 따라 정해진 체류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체류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사람만 인정된다(김기태 외, 2020:46). 본고의 대상자는 비전문 취업(E-9) 자격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체류 기간 동안에 체류하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현재 법적 용어인 ‘외국인 근로자’라는 명칭이 적합한 것으로 보아 ‘외국인 근로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sup>28)</sup>

외국인 근로자는 넓게는 국내에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민자를 가리키며, 좁게는 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전문 인력과 단순 기능 인력을 가리키기도 한다(이미혜, 2020:54). 전문 인력은 단기 취업(C-4),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 기술 지도(E-4), 전문 직업(E-5), 예술 흥행(E-6), 특정 활동(E-7)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고, 단순 기능 인력은 비전문 취업(E-9), 선원 취업(E-10), 방문 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 중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은 비전문 취업(E-9) 자격과 방문 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 허가제에서 특례 고용 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방문 취업(H-2)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제외하고 일반 고용 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비전문 취업(E-9)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sup>29)</sup>

### 1.3.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비전문 취업(E-9)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또는 관리자,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 면접을 통해 요구 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재 개발의 방향을 제시

28)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 대상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 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이다.

29) 18세 이상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에게 부여하는 방문 취업(H-2) 자격 소지자들은 일반 고용 허가제 근로자와 달리 입국 전에 고용 허가제 한국어 시험을 보지 않으며 사전 교육의 의무가 없고, 사업장 변경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고용 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sup>30</sup>를 통해 입국한 비전문 취업(E-9)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이다. 이들은 주로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내국인들이 꺼려하는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재해 발생 위험 노출 빈도가 높고 언어 소통 장애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 보건 인식 저하 및 산업 재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중 결혼 이민자 다음으로 참여 비중이 높고, 앞으로 더욱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sup>31</sup>,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현황 및 교재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 선진 이민국의 사회통합 교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교육과정에 개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원리와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 전후, 그리고 취업 후에 참여하는 한국어 교육 현황을 파악한다. 즉, 입국 전후 한국어 교육 시간,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취업 후에 참여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알아본다. 아울러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과정 및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후 장단점을 정리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개선점을 파악한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학습자의 요구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교육과 관련된 관계자들(고용주 혹은 관리자, 한국어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 방법(설문 조사 및 통계 분석)을 주로 사용하되, 연구 결과의 풍부한 해석을 위해 질적 연구

30)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31) 법무부에서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안정적인 외국인 인력 공급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9, E-10, H-2 자격자가 E-7으로 전환할 수 있는 쿼터를 연간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확대하였다. 전환 요건 점수는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인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120점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다(사회통합프로그램 홈페이지 참조).

방법(심층 면접)을 병행한다.

넷째, 설문 조사와 심층 면접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목적과 목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자 한다.

다섯째, 이어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교수요목에 따라 단원의 구성 모형 및 샘플 단원을 개발한다.

## 1.4. 논의의 구성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연구 대상과 방법을 소개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과 교재 개발 방향 제시를 위한 전개 과정을 밝혔다.

2장에서는 연구의 논의를 위하여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이론적 배경은 특수 목적 한국어로서의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육, 해외 주요 이민 선진국의 사회 통합 교육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외국어 교육과정의 개발 절차와 요구 분석 이론, 교수요목과 관련된 이론, 한국어 교육과정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 및 교재의 현황을 살펴본다. 이어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고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방향의 원리를 도출한다.

4장에서는 한국어 교육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또는 관리자,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요구를 실시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5장에서는 4장의 요구 분석, 설문 조사 및 면접의 내용과 각 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재 개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의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고 다음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 및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여 교수요목을 설계하고 단원의 모형을 제시하기로 한다.

6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으로서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의 이민자 사회 통합 교육 사례, 외국어 교육과정의 개발 절차 및 교수요목과 관련된 이론, 그리고 한국어 교육과정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1.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과 사회통합프로그램

#### 2.1.1.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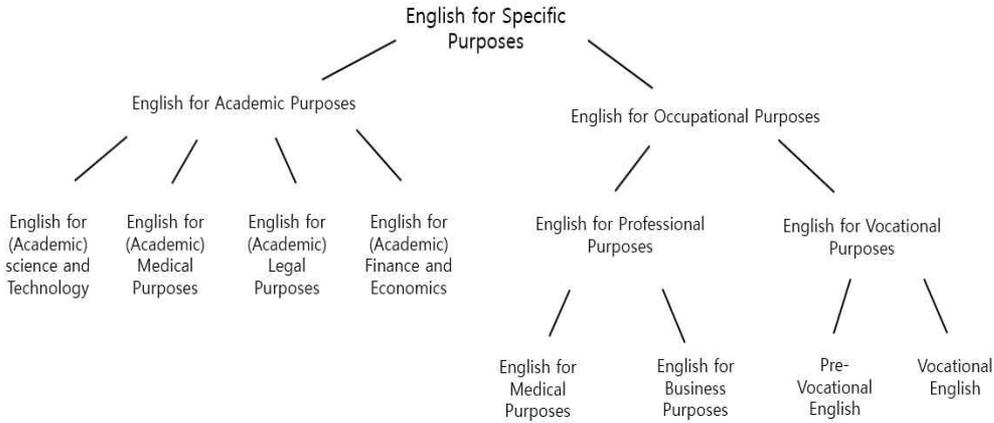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누구나 목적을 가지고 배운다. 친교나 교류 등 일반적인 목적으로 배우는 사람도 있고, 학업이나 취업 등을 위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배우는 사람도 있다. 한국에서는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들어 한국어 교육의 상황이 다양해지면서 특히 유학생 대상의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 결혼 이주 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과 같은 특수 상황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현실적 정책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민현식, 2008:19). 그동안 한국어 교육은 교수 학습에서 대상이 되는 한국어를 영어 교육의 관점에 따라 ‘일반 목적 한국어(Korean for General Purposes)’와 ‘특수 목적 한국어(Korean for Specific Purposes)’로 구분하였다(최정순·윤지원, 2012:137).

Dudley-Evans & St. John(1998:6)은 영어 교육을 학습자의 목적에 따라 특수 목적 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ESP)를 크게 학문 목적 영어(English for Academic Purpose: EAP)<sup>32)</sup>와 직업 목적 영어(English for Occupational Purpose: EOP)<sup>33)</sup>로 나누었다. 그리고 학문 목적 영어(EAP)의 하위 범주로는 과학 기술 목적 영어, 의료 목적 영어, 법률 목적 영어, 경영, 금융 목적 영어로 세분화하였다. 직업 목적 영어(EOP)

32) EAP는 학문 연구를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언어를 교육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다.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고 보고서, 논문을 쓰는 등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33) EOP는 학문 목적이 아닌 교육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목적(의약, 행정, 법, 경영 등에서)이나 직업 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Vocational English와 Pre-Vocational English로 나뉘는데 전자는 특수 직업을 위한 연수 과정 등이고 후자는 직업을 찾거나 구직 인터뷰를 하는 능력을 위한 교육 등이다(이미혜, 2003:233).

는 전문 직업 목적 영어와 일반 직업 목적 영어로 나누고 전문 직업 목적 영어의 하위 범주로는 의료 목적 영어, 비즈니스 목적 영어로, 일반 직업 목적 영어는 예비 직업 목적 영어와 직업 목적 영어로 세분화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English for Specific Purpose(Dudley Evans & St. John, 1998:6)

이미혜(2003)에서도 이와 같은 분류 기준을 토대로 일반 목적 한국어와 특정 목적 한국어로 나누고, 하위 범주로 학문 연구를 위한 한국어(KAP)와 직업을 위한 한국어(KOP)로 분류하였다. 직업을 위한 한국어는 다시 비즈니스 한국어 여행 안내 한국어, 비서 한국어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최정순(2006)에서는 특수 목적 한국어를 학문 목적 한국어, 직업 목적 한국어, 선교 목적의 한국어로 제시하였다. 민현식(2008)에서는 특수 한국어와 일반 한국어로 나누고, 특수 한국어를 다시 학문 목적 한국어<sup>34)</sup>, 취업 목적 한국어, 기타 목적 한국어로 나누었다. 강현화·이미혜(2011)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 및 특수 대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으로 분류하였으나, 특수 목적의 한국어 교육을 크게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은 특수 목적 영어 교육의 영역보다 특정 대상인 결혼 이민자, 재외 동포, 다문화 가정 자녀 등으로 구별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에 대한 분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34) 민현식(2008)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를 다시 특수 학문 목적(전공 한국어)와 일반 학문 목적 한국어(교양 한국어)로 나누었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학문 목적 한국어와 직업 목적 한국어를 하위 범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 목적 한국어를 강현화·이미혜(2011)의 분류 체계를 따라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표 1> 특수 목적 한국어의 분류

특수 목적 한국어	학문 목적 한국어	특수 학문 목적 한국어	전공을 위한 한국어
		일반 학문 목적 한국어	교양을 위한 한국어
	직업 목적 한국어	전문 직업 목적 한국어	비즈니스를 위한 한국어
			외교관을 위한 한국어
		군인을 위한 한국어	
	비전문 직업 목적 한국어	단순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기술 목적 한국어	미용 등 기술직을 위한 한국어	
	특정 대상 한국어	특정 대상을 위한 한국어	재외 동포, 중도 입국 자녀 등

특수 목적이란 학습의 목적이 일반적이지 않은 학업이나 취업과 같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경우를 이른다(이미향 외, 2018:157).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직무 수행이라는 목적과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이수에 주어지는 정책적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한다. 이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특수 목적 학습자, 과정은 특수 목적 한국어 과정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특수 목적 한국어로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시 적용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이것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특수 목적 영어와 일반 목적의 영어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일반 목적의 영어와 특수 목적 영어의 차이(전지현, 2015:246)

	일반 목적 영어	특수 목적 영어
학습 목표	영어로 일반적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영어로 특정 목표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학습 범위	광범위	제한적
학습 동기	일반적 동기	구체적 동기
교수 설계	교재 혹은 교사 주도적인 기본 계획에서 시작하는 경우 다수	담화 공동체의 의사소통의 특성 파악 또는 학습 요구 분석에서 시작 필요
교수자	영어 교육 전문가	영어 교육 전문가, 영역 내용 전문가의 협조, 협동, 팀티칭 등 협력 필요
학습 활동 자료	일반적 학습 활동과 자료	실제적인 과업과 자료
평가	일반적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가능성 평가	특정 목표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수행에 대한 실제적 평가

위의 <표 2>에서 보면 특수 목적 영어는 교수 설계 시 ‘목표로 하는 담화 공동체의

의사소통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학습자 요구 분석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교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에 적용해 보면, 교수 설계 시에는 외국인 근로자(답화 공동체)들의 현장과 직장 생활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상황, 그리고 상황에 적절한 한국어 어휘, 표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그리고 해당 직종의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 분석이 선행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의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수자의 계획이 아니라 해당 학습자의 특성과 언어 사용 상황을 파악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목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과제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대상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특수 목적 언어 교육으로서 사회통합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외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 2.1.2. 한국과 외국의 사회 통합 교육

### 1)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및 경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한국어와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이다(2023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침).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재외 한국인, 귀화자와 그 자녀 및 국민 등(이하 “이민자 및 국민” 등이라 한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이민자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한국어, 한국 사회 이해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의 제반 활동을 말한다.<sup>35)</sup> 이 프로그램은 법무부 주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2010년 2월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법무부가 밝힌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다.<sup>36)</sup>

35)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제2조>

36) 법무부 사회 통합정보망(<https://www.socinet.go.kr>) 을 참조하였다.

- ㉠.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 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
- ㉡. 재한 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 취득 필기시험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 부여.
- ㉢. 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 정책 개발과 세부 지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 적응 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 정책 등에 반영.

법무부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귀화 적격 심사 등 기존의 귀화 관련 제도만으로는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민자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관련 소양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둘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가 법무부를 비롯한 7개 중앙 부처는 물론 지방 자치 단체, 시민 단체, 종교 단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비체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셋째, 결혼 이민자 등 일부 이민자가 국적 취득 과정에서 누리는 혜택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가 있었다. 넷째, 다문화 교육을 위한 전문가가 여러 부처에서 중복되어 양성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이성순, 2010).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혀서 신속하게 적응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목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에도 목표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민자가 한국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정치, 경제, 사회, 법률, 역사 등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자는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합법 체류 외국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귀화자도 참여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귀화 신청 시에는, 귀화용 종합 평가 합격 인정, 귀화 면접 심사 면제 영주 자격 신청 시에는 기본 소양 요건 충족 인정, 실태 조사 면제 그 외에 체류 자격 신청 시에는 가정 등 점수 부여, 한국어 능력 등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전국 총 47개 거점을 지정하여 일반 운영 기관과 지역 학습관에 대한 학사 운영 및 관리 감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 기관 및 참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연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참여자 현황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운영 기관 수	20	77	150	271	278	304	308
교육 참여자	1,331	4,429	6,519	12,444	14,014	22,361	25,795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운영 기관 수	300	309	309	308	348	347	339
교육 참여자	30,515	41,500	50,639	56,535	36,620	43,552	42,163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도입 첫해인 2009년에 20곳에 불과하던 운영 기관이 2023년 현재 363개로 증가하였다. 참여자 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1,331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56,535명이 참여하였다. 2020년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다소 주춤하였으나 2021~2022년에는 화상 교육으로 전환하여 다시 4만 명대로 늘었다. 2020년을 제외하면 참여자 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어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양적 성장 이외에도 제도적인 발전도 이루어졌다. 2012년 6월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이 없는 지역 등의 일정 장소를 지역 학습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이주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2014년부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과정을 도입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외의 기관이나 단체가 실시한 중급 과정에 준하는 한국어 교육을 4단계 교육으로 인정하고, 해당 교육 이수자가 중간 평가에 합격할 경우에는 이민 정책적 혜택도 제공하였다(김상천, 2018:60). 2015년부터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연계하여 TOPIK 보유자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에 바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 연계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 연계 과정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유학생 등 외국인의 사회 적응 및 수학 능력 제고를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대학교의 정규(필수 또는 교양)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환경의 변화에 맞춰 꾸준히 발전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시행 이래로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 체류 유형별 목적에 맞는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6년에 ‘한국 사회 이해’ 과정을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분하였다(조영희 외, 2021:2). 2021년에는 맞춤형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포 대상 거점 운영 기관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맞춤형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한국 사회 이해를 중급 단계부터 사전에 교육 받기를 원하는 학

습자를 대상으로 3, 4단계의 중급 수준에서 한국 사회 이해 기초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3단계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1(80시간)+한국 사회 이해 기초1(20시간), 4단계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2(80시간)+한국 사회 이해 기초2(20시간)으로 구성된다. 일원화된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추후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의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본격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중요한 진전이다.

교육 방법은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대면 교육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격오지), 임신, 출산, 거동 불편, 취업 등으로 집합 교육이 어려운 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 19 위기를 겪으면서부터는 일부 과정에 한하여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sup>37)</sup>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해 온 것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발전 과정

연도	주요 내용
2009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 운영
2010	사회통합프로그램 본격 추진(전국 76개 운영 기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2011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체계 개편
201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과정 개편 지역 학습관 운영
2013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 교재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개발
2014	결혼 이민 사증 소지자의 2단계 연계
2015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평가 제도 도입
2016	한국 사회 이해 과정을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분
2019	법무부 주관 평가 유료화
2020	여성가족부 정규 한국어 폐지, 한국어 교육은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일원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 교재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개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 사회 이해 과정 교재 《한국 사회 이해》 개발 동포 대상 거점 운영 기관 지정 맞춤형 보조 자료(한국 사회 이해 기초 1, 2) 개발
2021	한국 사회 이해 교육 시수 확대(기본 과정 70시간, 심화 과정 30시간)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시행(3단계, 4단계)
2023	전국 47개 거점, 292개 운영 기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37) 2023년부터는 0단계부터 2단계까지는 대면 교육만 가능하며, 3단계 이상은 비대면 교육을 허용하고 있다.

## 2)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ㄱ.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한국어 과정(1~4단계)과 한국 사회 이해(5단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 과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전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갖추지 못한 채로 운영되고 있다가(박혜숙, 2012:266) 2012년에 와서야 한국어 교육과정이 정비되었고 이에 따라 각 단계별 학습 목표 마련되고 교육 체계가 구성되었다.<sup>38)</sup> 이어 2019~2020년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교육과정이 재정비되었고 교재가 개발되어 2021년부터 새로운 교재가 사용되고 있다.<sup>39)</sup>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체계는 다음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5>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2023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

구분 교육명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사회이해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교육 단계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교육과정	한국어 기초	한국어 초급1 및 한국 문화	한국어 초급2 및 한국 문화	한국어 중급1 및 한국 문화	한국어 중급2 및 한국 문화	영주, 귀화 공통 소양	귀화 심화 소양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수료 인정 출석 시간	1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5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평가	없음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	중간 평가	영주용 중 합 평가	귀화용 중 합 평가
사전 평가 점수별 배정 기준	0~2점	3~20점	21~40점	41~60점	61~80점	81~100점	

38) 2008년 한국어 교육의 각 단계별 교육 목표 및 내용은 기본적인 교육 목표가 간단히 제시되어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2012년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단계별로 총괄 목표, 주제, 기능과 과제, 언어 지식(어휘, 문법, 발음, 텍스트), 언어 기술(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화, 부록(문법 목록)이 제시되었다(박혜숙, 2014:69).

39)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발전 과정은 유의미한 시기를 기점으로 몇 단계로 나뉜다. 첫째 단계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2007년)를 바탕으로 시범 운영(2009년)을 시작한 시기이고 둘째 단계는 교재를 처음으로 개발하고(2010년) 평가 체제를 개편(2011년)한 시기이며, 셋째 단계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과정 개편(2012년)을 시작으로 교재 개편(2013년)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원 연수를 시행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한 시기이다(이미향 외, 2018:150).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총 51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415시간)’, ‘한국 사회 이해(100시간)’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국어 과정은 기초, 초급, 중급 과정으로 나뉘며, 한국 사회 이해 과정은 기본 과정(70시간)과 심화 과정(30시간)으로 나뉜다.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 문화 과정’의 단계별 총괄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6> 단계별 총괄 목표(2023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

기초 (0단계)	한글 자음, 모음을 익혀 간단한 기초 어휘를 읽고 쓸 수 있다. 한국어의 기본 문장을 한국인 원어민 화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발음할 수 있다.
초급1 (1단계)	이민자가 한국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개인적인 상황에서 기초적인 어휘, 정형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초급 2 (2단계)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로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한국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공공장소(우체국, 은행 등)에서 간단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한국 생활에 관련된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중급 1 (3단계)	친숙한 사회적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며 조금 낯선 사람과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다양한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생활(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한국의 일상 문화와 자국의 문화를 비교할 수 있으며, 일상 문화에 반영된 한국인의 사고를 이해할 수 있다.
중급 2 (4단계)	일반적인 사회적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대상과 상황에 맞게 격식과 비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자신과 밀접하게 관계된 사회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 일원으로 기본적인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다.

총괄 목표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로서 학습자들이 각 단계를 마쳤을 때 목표어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언어 사용의 맥락적 측면에서 단계별 특성을 보면 ‘개인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우체국, 은행 등), 그리고 조금 낯선 사람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할 정도에서 대상, 상황에 맞게 격식과 비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체류 자격이나 학습 목적, 학습자의 배경이나 학습 능력 등 학습자의 다양한 변인이 고려되지 않은 채 모든 이민자를 대상으로 단일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하나는 교육 시수의 문제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교육과정은 415시간으로 0단계를 제외한 1-4단계는 각 1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단계를 끝냈을 때 한국어능력시

험을 기준으로 3.8급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한 급을 마치는 데 보통 200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415시간은 학습자들이 이미 한국어에 많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 점은 다음 절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외국의 사례에 비하면 매우 적은 시수이다. 따라서 415시간으로 설정한 과정이 이민자들에게 자립이 가능한 언어 능력을 키우는 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이민자 집단별로 교육이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학습자의 집단이 다르다는 것은 학습의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며, 학습의 목적이 다르면 학습 목표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를 보면, 다른 이민자 집단에 비해 학습 목적이 가장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 결혼 이민자나 중도 입국 자녀, 유학생 등 다른 이민자 집단은 일반 목적, 즉 일상생활에서 한국인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이런 기본적인 목적을 넘어 한국어로 직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이다. 김재욱(2011:139)에서는 재외 동포, 결혼 이민자 등 학습 목적이 다른 학습자들이 함께 학습을 하는 데에서 수업 진행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섞여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결혼 이민자들이 대부분이었던 시행 초기와 달리 학습자가 점점 다양해지고, 특히 외국 인력 도입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고려할 때 세밀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며 학습 목적별 분리 수업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1.3에서 외국의 언어 교육과정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ㄴ.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는 사전 평가, 단계 평가(1, 2, 3단계), 중간 평가, 종합 평가(영주용, 귀화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 종류

구분	평가 종류	단계 평가			중간 평가	종합 평가	
		1단계	2단계	3단계		영주용	귀화용
출제 범위	1~5단계 수준	1단계	2단계	3단계	1-4단계	1~4단계 +5단계(기본)	1~4단계 +5단계 (기본+심화)

시험 시간(분)		70	40	60	70	70
총 문항 수		55	25	35	45	45
문 항 구 성	필기	객관식	48	20	28	36
		단답형	2	0	0	0
		작문형	0	0	2	4
	구술	5	5	5	5	5
주관		법무부	각 운영 기관		법무부	
평가 성격		숙달도	성취도			

사전 평가<sup>40)</sup>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민자의 교육 단계 배정을 위한 숙달도 평가로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한다. 필기시험 50문항과 구술 시험 5개의 문항으로 평가를 한 후 점수에 따라 교육 단계를 배정한다. 구술 시험은 구술 시험관 2명이 응시자 5명 이하(2:5)를 약 10분 동안 동시에 평가한다. 사전 평가는 ‘사전 평가 점수별 배정 기준 점수’에 따라 교육 단계를 배정 받는데, 구술 시험 점수가 3점 미만이면 0단계로 배정 받는다.<sup>41)</sup> 현장에서는 특히 중급인 3단계 배정 기준 점수를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40점대의 점수로는 중급 1(3단계)을 공부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계 평가는 1, 2, 3단계 수료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며, 필기시험 20문항과 구술 시험 5개의 문항으로 평가를 한다.<sup>42)</sup> 구술 시험은 사전 평가와 마찬가지로 구술 시험관 2명이 응시자 5명 이하(2:5)를 약 10분 동안 동시에 평가한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인데, 합격자는 해당 단계를 이수하여 다음 교육 단계로 승급되고, 불합격자는 동일한 교육 단계를 재이수하면 다음 교육 단계로 승급이 된다. 그러나 재이수만 하면 다음 단계로 승급이 되는 현행 제도는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자가 현장에서 보면 재이수생들 중 일부 학습자들은 출석률(80%)을 채우기 위해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수업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sup>43)</sup> 그러므로 단계평가도 중간 평가와 마찬가지로 재이수를 하더라도 최저 점수(41점)를 충족할 경우에 승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

40) 사전 평가 외에 교육 단계를 배정 받는 방법은 ① 0단계 교육부터 시작 ② 한국어능력시험 연계 평가 ③ 결혼 이민 사증 연계 ④ 타 기관 한국어 교육 중급 연계가 있다.

41) 단계 배정 점수는 0단계: 0-2점, 1단계: 3-20점, 2단계: 21-40점, 3단계: 41-60점, 4단계: 61-80점, 5단계: 81-100점이다.

42)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는 출석률이 80%가 되어야 수료할 수 있으며, 수료 후 각 단계별 평가에서 합격을 해야 이수가 된다.

43) 현장의 교사들도 단계 평가의 재이수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지만 법무부의 견해는 중간 평가에서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단계 평가에서 작문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부분도 지적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작문형 문제가 없다 보니 학습자나 교수자 모두 쓰기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문형 평가의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 승급 합격 점수를 구술 시험과 필기시험을 합산하여 60점으로 기준을 설정한 것은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일부 학습자, 특히 연구자의 현장 경험으로 볼 때 초급 1의 경우, 구술 점수는 거의 받지 못해도 필기 시험만으로 60점을 득점하여 승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따라서 사전 평가처럼 구술 점수가 일정 점수가 되지 않으면 승급이 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중간 평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과정의 최종 단계(4단계)를 수료하였거나 또는 타기관의 한국어 교육 연계 과정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는 객관식과 작문형으로 구성된 필기시험(30문항)과 구술 시험(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작문형은 제시된 주제에 따라 100자 원고지 1장에 작문을 해야 한다. 그러나 100자 정도의 쓰기로는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바, 적어도 두 문단 이상은 쓰도록 분량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구술 시험은 구술 시험관이 응시자 2명을 약 10분 동안 동시에 평가(2:2)하며,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다. 합격을 하면 4단계가 이수되어 5단계로 승급이 된다. 단계 평가와 다른 점은 불합격 시 단계 평가에서는 같은 과정을 두 번 이수하면 승급이 되지만, 중간 평가에서는 두 번 이수를 해도 승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재이수 후 중간 평가에서 최저 점수(41점)를 받으면 5단계로 승급이 된다. 중간 평가도 이전에는 단계 평가와 마찬가지로 재이수를 하면 승급하는 구조였으나, 재이수에 기댄 일부 이민자들의 안일한 수업 태도로 인한 교육 효과의 저하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폐지되었다.

종합 평가는 영주용 종합 평가와 귀화용 종합 평가로 나뉘는데 영주용 종합 평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 과정(70시간)을 수료한 사람과 사전 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다. 필기시험은 40문항, 구술시험은 5문항으로 한국 사회 이해 기본 과정을 주 내용으로 평가를 하는데 영주자 등 장기 체류 외국인으로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 및 한국 사회 이해 정도 등을 평가한다. 구술 시험은 중간 평가와 마찬가지로 구술 시험관이 응시자 2명을 약 10분 동안 동시에 평가(2:2)하며,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다. 종합 평가 앞서 살펴본 중간 평가와 마찬가지로 재수료 후 최저 점수(41점)를 득점하면 이수가 완료된다. 그러나 중간 평가와는 달리 종합 평가는 영주, 귀화와 관련된 자격 시험으로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사회 이해 정도 등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므로 최저 점수제의

존속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전 평가, 중간 평가, 종합 평가는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단계평가는 각 운영 기관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현재 평가 문항은 견본 문항으로 한 세트만 제공할 뿐 기출 문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평가에 대한 대비를 용이하게 하고 현장 교사들의 평가 대비와 합격률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려면 기출 문제가 공개되어야 한다.<sup>44)</sup> 매회 출제 문항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한국어능력시험처럼 몇 회분의 문항은 공개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

#### 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교재는 2020년에 새로 개편된 법무부 지정 교재(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시범 운영 당시에는 시중에서 출간된 지정 교재를 한국어 교재로 활용하였다. 그러다 2010년에 전용 교재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를 개발하였고, 2012년 한국어 교육과정을 정비하여 2013년에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재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2018년 현재의 교육 환경과 이민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기초 연구에서는 전국 47개 거점의 학습자 2,521명과 교사 195명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로 교육 환경과 수요자 요구를 파악하여 교재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2019년도에는 본 교재와 이민자 유형별 보조 자료를 개발하였는데, 각각의 이민자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이민자들의 한국 생활에 필요한 학습 주제, 과제, 문화 정보 등을 선정하여 한국어 과정 본 교재 5권(0~4단계)과 보조 자료 4종을 개발하였다. 이민자 유형별 보조 자료는 이민자 맞춤형 교육 자료로서 이민자 집단을 결혼 이민자, 근로자, 유학생 및 전문 인력, 중도 입국 자녀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보조 자료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으로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상황과 과제를 담고 있다. 이어 2020년도에는 부교재로 익힘책과, 교사용 지도서, 수업용 PPT를 개발함으로써 전체 교재 개발을 완료하였다. 부교재와 보조 자료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자가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본 교재의 구성을 살펴보면 한국어 기초 과정인 0단계 교재(한국어 기초)는 4개의

---

44) 기출 문제 비공개에 대해 현장의 교사들은 중간 평가의 경우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내용이 출제되는데 단계별 비중을 알 수 없고, 한 세트만으로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단원, 초급 과정인 1, 2단계 교재(한국어와 한국 문화 초급 1, 2)는 각각 20개의 단원(복습 단원 포함), 중급 과정인 3, 4단계 교재(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1, 2)는 각각 18개의 단원(복습 단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익힘책은 교실 수업에서 보조 자료로 활용하거나 과제물로 활용할 수 있다. 교사용 지도서는 교재, 익힘책, 수업용 PPT의 사용법을 담고 있다. 수업용 PPT는 교실 수업에서 교사가 활용할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에 개발이 완료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는 본 교재와 익힘책, 교사용 지도서는 출판을 하였으며, 유형별 보조 자료는 PDF 파일로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다.<sup>45)</sup>

2020년 이전의 교재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이민자 유형별 보조 자료의 개발이다. 선행 연구에서 강조하였듯이 현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국적, 체류 기간, 체류 목적 등의 차이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비록 전면적인 개편은 아니더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부분적으로나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 **ㄹ. 단계별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학습자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제시한 내용들로 교수요목의 근간이 되며, 한 단원의 주요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 목표 도달을 위한 교육 내용의 범주는 ‘주제, 언어 지식(어휘, 문법, 발음), 언어 기술(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숙달도별 주제 범주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민자와 관련된 소주제(하위 주제)를 단원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문법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초급, 중급 문법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언어 기술을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문화는 단원의 주제와 관련한 문화 정보로 단원 학습에 도움이 되는 내용, 단원을 학습한 후에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화 정보를 다루고 있다(이미혜 외, 2020:21-22). 1단계 교육 내용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45) 이민자 유형별 보조 자료는 사회통합정보망(socinet.go.kr)의 알림 마당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표 8>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교육 내용(1단계)의 예(2023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

구분		세부 내용
주제		인사와 소개, 사물, 일상생활, 장소, 날짜와 요일, 하루 일과, 음식, 쇼핑, 주말 가족, 특별한 날, 휴가 계획, 교통, 약속, 날씨, 병원, 공공장소, 한국 생활
언어 지식	어휘	이름, 직업, 국적, 일상생활 사물, 장소 기본 형용사, 기본 동사, 수, 날짜, 요일, 음식, 식당 관련 표현, 단위, 가격, 주말 활동, 가족 관계, 높임말, 특별한 날 관련 어휘, 휴일/휴가 관련, 교통 수단, 약속, 표현, 계절,
	문법	ㄹ이에요/예요, ㄴ은/는, ㄹ이/가, ㄹ에 있어요, ㄹ-어요, ㄹ을/를, ㄹ에 가다, ㄹ에서, ㄹ에, ㄹ이/가 아니예요, ㄹ부터~ ㄹ까지, 안 ㄹ, ㄹ-고 싶다, ㄹ-으세요, ㄹ하고 ㄹ ㄹ-어 주다, ㄹ-을 거예요, ㄹ-고(나열), ㄹ으로(수단), ㄹ-으러 가다/오다, ㄹ-을까요?, 못 ㄹ, ㄹ-네요, ㄹ보다, ㄹ-어서, ㄹ-는 것, ㄹ으로(방향), ㄹ-지 마세요, ㄹ-지요?, ㄹ-는데(대조)
	발음	연음, 겹받침, 경음화, 격음화, 비음화, ‘ㄴ첨가’ 등이 포함된 어휘들의 발음
언어 기술	말하기와 듣기 과제	반 친구와 인사하기, 방 안 물건 이름 말하기, 자신의 일상생활 말하기, 장소 말하기, 날짜와 요일 말하기, 하루 일과 말하기, 음식 주문하기, 물건 사기, 주말에 한 일 이야기하기, 가족 소개하기, 특별한 날 소개하기, 휴가 계획 이야기하기, 교통편 묻고 답하기, 친구와 약속하기, 날씨 말하기, 아픈 친구에게 조언하기, 길 묻고 답하기, 한국 생활 정보 말하기
	읽기와 쓰기 과제	자기소개 글 읽고 쓰기, 집 관련 정보 읽기, 일상생활 소개 글 읽고 쓰기, 장소에서 하는 일 읽고 쓰기, 명함 읽기, 하루 일과 소개 글 읽고 쓰기, 메뉴판 읽기, 쇼핑 전단지 읽기, 주말에 한 일 읽고 쓰기, 가족 소개 글 읽고 쓰기, 특별한 날의 경험 쓰기, 휴가 계획 글 읽고 쓰기, 행선지와 교통편 쓰기, 약속 메시지 보내기 고향 날씨 소개 글 쓰기, 공공장소의 금지 표지 읽기, 자신의 한국 생활에 대한 글쓰기
문화와 정보		한국의 인사말, 한국인의 이름, 한국의 휴식 공간, 유용한 전화번호, 한국인의 일과 생활, 한국의 식사 예절, 한국의 화폐, 한국인의 주말 활동, 가족 호칭, 한국의 국경일, 한국의 인기 여행지, 한국의 대중교통 수단, 약속 장소, 재난·안전 안내 문자, 한국의 병원, 한국의 공공예절, 한국어 줄임말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는 모든 이민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내용, 즉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주제와 문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달리 말하면 특정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예컨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결혼 이민자를 위해서는 자녀 양육 등 가정 생활, 그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산업 안전 등 직장 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다루지 않는 것 등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태호(2015:27)에서도 특정 이민자를 위한 주제로 치우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습자를 위한 배려는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중급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6급의 문법 항목이 선정되었거나 담화 예문이 실제성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위의 <표 8>에서는 1단계 교재의 내용만 제시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3.3.2.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 3) 독일 이민자 사회 통합 교육<sup>46)</sup>

독일은 이민자 통합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언어 교육을 설정하고 있으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언어 교육은 통합 과정의 독일어 과정이다(박혜숙, 2012:266). 통합 과정은 연방 이민 난민청에서 주관하며 대상자들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통합 과정은 언어 과정(독일어 과정)과 오리엔테이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어 과정에서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주제(일과 직업, 교육 및 훈련, 아동 보육 및 교육, 쇼핑/무역/소비), 여가 시간 및 사회적 접촉, 건강 및 위생, 이메일 쓰기, 공문서 작성하기 등)를 다루고,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는 독일의 법 체계, 역사, 문화, 독일에서의 권리와 의무 등을 다룬다. 독일어 과정의 목표는 이민자가 자립하는 데 필요한 B1<sup>47)</sup> 단계에 합격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합 과정은 일반 통합 과정, 특수 통합 과정, 집중 과정으로 나뉘는데, 특수 통합 과정은 문맹자를 위한 알파 과정과 여성/학부모/청소년/장기 체류자/제2문자 학습자를 위한 과정이 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독일 통합 과정의 유형 및 이수 시간

과정		이수 시간	대상	
일반 통합 과정	독일어 과정	600	일반 이민자	
	오리엔테이션 과정	100		
특수 통합 과정	알파 과정	독일어 과정	1,200	문맹자
		오리엔테이션 과정	100	
	여성 과정	독일어 과정	900	문화적 이유 등으로 일반 통합 과정을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 학습자
		오리엔테이션 과정	100	
	학부모 과정	독일어 과정	900	자녀들의 양육, 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이민자
		오리엔테이션 과정	100	
	청소년 과정	독일어 과정	900	26세 이하의 이민자
		오리엔테이션 과정	100	
	장기 체류자 과정	독일어 과정	900	독일에서 오래 살았지만 정규
		오리엔테이션 과정	100	

46) 독일의 사회 통합 교육은 박혜숙(2014), 이미혜 외(2018), 현희·남윤삼(2018), 권혁민(2021), 독일 이민·난민청 홈페이지(<https://www.bamf.de>)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47) 언어 학습, 언어 교수, 언어 평가를 위한 유럽언어 공통참조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CEFR)은 초보자(A1, A2), 중급자(B1, B2), 상급자(C1, C2) 6단계로 구분이 된다. B1 등급은 명확한 표준어를 사용하며, 업무, 학교, 여가 시간 등과 같이 익숙한 것들이 주제가 될 때, 요점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해당 언어 사용 지역을 여행하면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언어 능력 등급이다.

				독일어 교육을 받지 못한 이민자
	제2문자 학습자 과정	독일어 과정	900	라틴어가 아닌 언어의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이민자
		오리엔테이션 과정	100	
집중 과정		독일어 과정	400	학습 능력이 우수한 이민자
		오리엔테이션 과정	30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통합 과정은 이민자, 귀화한 독일인, 독일 국적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수 통합 과정은 일반 통합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과정으로서 여성을 위한 과정, 학부모를 위한 과정, 26세 이하 청소년을 위한 과정, 독일에서 오래 살았지만 정규 독일어 교육을 받지 못한 이민자를 위한 과정, 문맹자를 위한 알파벳 과정 등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알파벳 과정은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이민자들이 참여하는 과정으로 대부분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현희·남윤삼, 2018:233). 또한 학습 능력이 우수한 이민자를 위한 집중 과정은 43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같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수 시간을 보면 과정마다 다른데, 일반 통합 과정은 700시간, 특수 통합 과정은 문맹자를 위한 알파벳 과정(1,300시간)을 제외한 과정은 1,000시간, 집중 과정은 430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sup>48)</sup>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달리 독일의 사회 통합프로그램은 학습의 목적과 학습 속도에 따라 과정이 매우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특수 과정은 같은 이주 배경이 같거나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언어 수준이 비슷한 이민자들끼리 독일어를 배움으로써 학습이 효과적이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집단별로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박혜숙, 2014:170). 이와 같은 독일의 사례는 현재 모든 이민자에게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이 가장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 하겠다.

#### 4) 덴마크의 이민자 사회 통합 교육<sup>49)</sup>

덴마크의 사회 통합 교육은 신이민자와 난민을 위한 의무 교육으로 시작하였으며

48) 독일어 과정은 600시간으로 기초 3단계(300시간), 중급 3단계(300시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모듈당 이수 시간은 100시간이다.

49) 이미혜 외(2018), 민진영·박소영(2019), Aalborg 시립 언어센터(<https://sprogcenter.aalborg.dk>)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학습자의 배경과 학습 속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뉘고, 각 과정의 이수 시간은 2,000시간이다. 덴마크 언어 강좌의 목표는 이민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덴마크어 지식과 문화, 사회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있다(이미혜 외, 2018:35). 덴마크어 강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0> 덴마크어 강좌 및 이수 시간(민진영·박소영, 2019:150) 재구성

강좌 종류	이수 시간	목표 수준		대상
		필기 시험	구술 시험	
덴마크어 강좌1(DU1)	2,000	A2	B1	- 문해력 강좌 또는 알파 강좌라고 부름 - 출신 국가에서 학교 교육을 전혀 또는 거의 받지 못한 사람 - 라틴어가 아닌 문자로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 학습 속도가 느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덴마크어 강좌2(DU2)	2,000	B1	B1~B2	- 출신 국가에서 8-10년의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 - 학습 속도가 보통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덴마크어 강좌3(DU3)	2,000	B2	B2	- 출신 국가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 - 적어도 하나의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 - 학습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덴마크어 강좌 체제는 학습자의 교육 기간과 학습 속도에 따라 덴마크어 강좌 1, 2, 3으로 나뉜다. 덴마크어 강좌는 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강좌의 이수 시간은 2,000시간이다. 한 모듈을 마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4~9개월로 한 강좌를 다 마치려면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민진영·박소영, 2019:150).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좌 1은 모국어로 읽고 쓸 수 없는 학생과 라틴어 문맹자가 대상이며 목표 수준은 유럽 공통 참조 기준(CEFR) 필기 시험은 A2, 구술시험은 B1이다. 강좌 2는 모국에서 짧은 학습 배경(8-10년)을 가진 이민자가 대상이며 목표 수준은 필기시험은 B1, 구술시험은 B1~B2이다. 강좌 3은 최소 12년의 학습 배경을 가진 이민자가 대상이며 목표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모두 B2이다. 한편, 정규 덴마크어 강좌 외에 단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덴마크어 기초(Intro Danish) 강좌가 있다. 이 강좌는 모두 5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모듈당 50시간으로 모두 250시간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 강좌를 이수하고 배치 시험을 본 후 정규 덴마크어 강좌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민진영·박소영, 2019:150).

덴마크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학습자의 교육 기간과 학습 속도에 따라 나뉘어 있고, 단기 체류자를 위한 기초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에 비해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단기 체류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대상자가 될 수 없

을뿐더러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덴마크의 사례는 앞으로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도 본국에서 받은 교육 수준 등 학습자의 배경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단기 체류자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5) 호주의 이민자 사회 통합 교육<sup>50)</sup>

호주는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로서 이민자들이 호주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성인 이민자 영어 교육 프로그램(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AMEP)이라고 할 수 있다(오지혜 외, 2019:230). AMEP는 호주 전역 300개 기관에서 무료로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sup>51)</sup>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 등의 이유로 수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이민자들을 위해 가정 방문 수업(Home Tutoring Scheme)과 원격 교육(distance learning)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취학 아동을 둔 보호자가 AMEP 수업에 참여하면 수업 시간 내에서 무료 보육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호주 정부는 이민자들이 언어의 장벽으로 소외되는 것을 예방하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AMEP 개혁을 법령으로 발표하였다. 이 중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51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던 정규 교육 시간을 폐지하고 직무 영어(Vocational English)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것이다.<sup>52)</sup> 이러한 조치는 학습자에 따라서는 510시간만으로는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수준에 도달하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Tynan et al(2019)에 따르면 숙달도가 비교적 높은 소수의 학생들만 510시간의 수업이 충분하다고 하였으며, 매년 7% 정도의 AEMP 참여자만 사회 정착에 요구되는 수준에 도달한다고 밝혔다(공민정 외, 2023: 20-21).

AMEP의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배경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사회 기반 학습(Community-based learning)’ 과정과 업무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 과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 사회 기반 학습 과정

50) 민진영·박소영(2019), 오지혜 외(2019), 공민정 외(2023),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ome Affairs(<https://immi.homeaffairs.gov.au/settling-in-australia/amep/about-the-program>), <https://navitas-skilled-futures.com.au/courses-and-programs/pathways-to-work-slpet>, <https://www.dewr.gov.au/skills-education-and-employment>

51) AMEP는 연방 정부 차원의 정책이며,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주 정부 혹은 시행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52) 직무 영어 수준을 갖춘 이민자는 AMEP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초점을 둔 반면, 업무 기반 학습 과정은 직장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및 직장 생활, 구직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규 과정 외에도 특별 준비 과정, 취업 및 훈련을 위한 정착 지원 과정, AEMP 추가 과정, 교육직업 능력 향상 과정 등 다양한 추가 과정을 제공한다.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AMEP 영어 강좌와 이수 시간(이인혜 · 장미정(2021:201) 재구성)

과정명		이수 시간	대상
정규 과정	AEMP (취업 대비 영어/생활 영어)	제한 없음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신규 이민자
추가 과정	특별 준비 과정(SPP)	100	정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
	취업 및 훈련을 위한 정착 지원 과정(SLPET)	200	취업 및 직업 훈련을 원하는 이민자
	AMEP 추가 과정 (AMEP Extend)	최대 490	정규 과정을 모두 마쳤으나 자신의 숙달도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민자 (추가로 490시간 제공)
	교육 · 직업 능력 향상 과정 (SEE)	최대 650	언어 및 수리 교육을 받고 싶은 이민자

호주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2020년에 51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던 시간을 폐지하고 직무 영어(Vocational English)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재이수 제도를 통해 언어 능력과 상관없이 4단계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통합프로그램과는 매우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 목적을 위한 생활 영어와 취업을 위한 영어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점 등은 진정으로 이민자들이 호주 사회에 잘 정착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특수 목적으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과 경과, 교육 과정, 운영 성과 및 주요 이민 선진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 체류 이민자의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시작된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지난 13년간 제도의 정비와 교육의 체계화 및 표준화 등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오면서 괄목할 만한 운영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제도로써 명실상부한 표준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도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어서 긍정적 성과를 이루어 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온라인 실시간 화상 교육 운영 및 교재 개발,

부분적이거나 체류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주요 이민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짚어 보아야 한다.

첫째, 이민자 전체를 위한 통합 교육과정 및 교재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박혜숙(2014), 이미혜(2015), 라희문 외(2016), 이미향 외(2018), 민진영·박소영(2019) 등에서 참여자의 변인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맞춤형 교육은 아직 부분적으로 동포들을 등을 대상으로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sup>53)</sup> 사회통합프로그램에는 여러 이민자(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전문 인력, 재외 동포, 중도 입국 자녀)가 참여하고 있다. 특정 이민자를 위한 주제로 치우칠 수는 없지만 결혼 이민자 다음으로 참여자 수가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다른 이민자 집단과는 다르게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은 곧 생존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제3차 국가 인권정책 기본 계획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산업 재해 발생 위험 노출 빈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언어 소통 장애, 낮은 근로 환경 등으로 위험 요인 예방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안전 보건의에 대한 인식의 저하를 초래하여 산업 재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의 배경과 학습 속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 덴마크, 호주 등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둘째, 현재 415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과정의 단계별 교육 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한 급을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0시간이다. 그렇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는 그 절반인 100시간만 제공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다. 현재 획일화된 과정(415시간)은 학습 능력이 우수한 학습자에 대한 독일의 집중 과정에 준한다(이미향 외, 2018:168). <표 9-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언어 교육 시간을 보면 덴마크 6,000시간, 독일 430~1,300시간, 호주 무제한 등으로 한국의 교육 시간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각 단계별 이수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통

53) 맞춤형 교육은 5단계인 한국 사회 이해를 중급 단계부터 미리 교육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희망자가 많지 않아서 일부 동포 밀집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합프로그램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승급하기 위해서는 구술 시험과 필기 시험을 합하여 60점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단계 평가(1~3단계)에 불합격하였을 때는 같은 단계를 2회 반복하여 수료하면 되고, 중간 평가와 종합 평가에서는 같은 단계를 2회 반복하여 수료하고 평가에서 최저 점수(41점)를 받으면 이수된다. 그러나 같은 단계를 두 번 공부했다고 해서 해당 단계에 걸맞은 실력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힌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민자가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능력을 기르려면, 합격 점수(60점)에 이를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언급한 교육과정의 다양화, 교육 시수의 확대, 각 단계별 이수 기준에 대한 검토 등 이러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더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명실상부한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2.2. 언어 교육과정과 교수요목

### 2.2.1. 교육과정 개발 원리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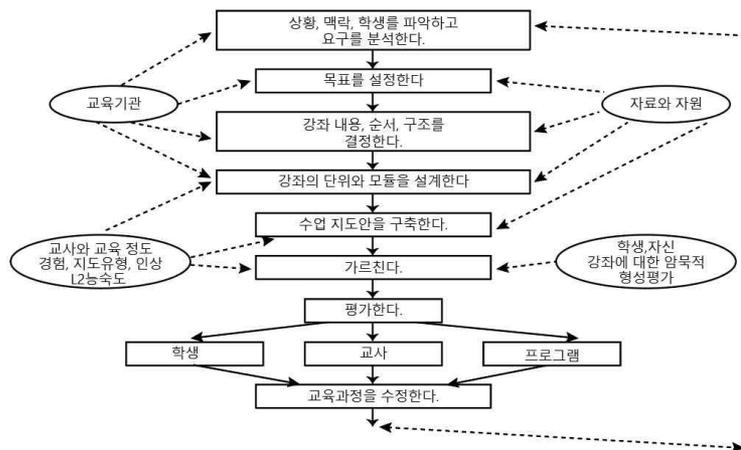
교육과정(curriculum)은 교육 기관에서 실현하려는 교육 목표와 내용, 교육 방법과 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 계획이다(강현화 외, 2023:223). 즉,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과 이를 구성하는 내용과 실제의 구현, 교육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평가까지 모두 포함하는 절차이다(민현식 외, 2014:848).

학교나 기관에서 언어 교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개발은 학생들이 어떤 지식, 기술, 가치를 배울 것인지, 의도한 학습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어떤 학습 경험이 제공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학교 또는 교육적 체제의 교수·학습이 계획, 측정, 평가되어야 하는가를 다루는 분야이다(강승혜 외 역, 2022:2).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Borwn(1989)은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로 요구 분석(need analysis), 목표(objectives), 시험(testing), 교재(materials), 교수법

(teaching), 평가(evaluation)를 제시하였고, Richards(2001:41)는 요구 분석(needs analysis), 상황 분석(situational analysis), 학습 결과 계획(planning learning), 코스 조직(course organization), 학습 자료의 선정과 준비(selecting and preparing teaching materials), 효과적인 교수 제공(providing for effective teaching) 및 평가(evaluation)와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배두본(2001)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 방법, 교수 절차, 학습 경험, 교육 평가의 순환적 과정을 들었다. 교육과정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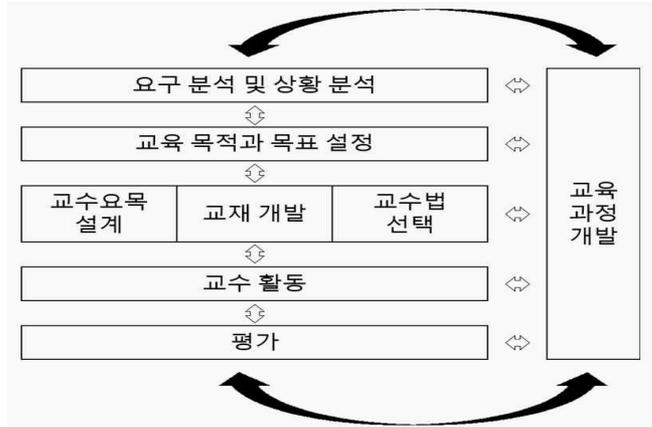
### 1) 교육과정 개발 절차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논의한 바 있는데, 대표적으로 Brown(1995)과 Richards(2001)를 들 수 있다. Brown(1995)은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요구 분석, 학습 목적 및 목표 설정, 학습자 언어 능력 평가 도구 개발, 교재 개발, 교수 단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으로 보았다(송향근 외, 2016:32). 교육과정 개발 과정의 흐름과 외부 요인과의 상호 작용을 Brown의 모형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권오량 외, 2008:170).



<그림 2> 브라운(Brown, 2007)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

다음으로 Richards(2001:41) 요구 분석(needs analysis) 및 상황 분석, 학습 결과 계획(PI 교육 목적과 목표 설정, 학습 자료의 선정과 준비, 효과적인 교수 제공 및 평가와 같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체제를 형성한다고 보고, 각각의 단계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sup>54)</sup>과 같다



<그림 3> 교육과정 개발 절차(Richards, 2001:41)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 개발 절차는 학습자의 요구 분석에 이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성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목적(goals)과 목표(objectives)를 설정한다. 그리고 설정한 학습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 교수할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데 이는 교수요목을 통해 실현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어 교수요목에서 내용은 문법, 어휘, 구조와 같은 언어학 내용(linguistic matters)과 주제, 화제와 같은 교과 내용(subject matters)으로 구성된다. 이 중 어떤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교수요목 설계자의 언어관 및 언어 학습관 그리고 교육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진다(민현식 외, 2014:849). 교수요목과 교재, 교수법 등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교수 및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는 학습자들의 성취도에 대한 평가, 교사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평가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평가의 결과는 다시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각 단계에 반영된다.

본 연구에서는 Richards(2001)의 언어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는바, 단계별 내용 중 특수 목적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요구 분석, 그리고 교수요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54) 이 도식은 정미혜(2012:37)에서 인용하였다.

## 2) 요구 분석

한국어 학습자가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요구 분석은 학습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기를 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교육의 목표와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과정 개발에서 요구 분석을 하는 이유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 목적, 학습 내용 및 방법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이해영 외, 2023:22). 요구 분석의 결과는 교육과정과 교수요목 설계, 교재 개발 등 다양한 언어 교수 활동에 활용된다.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 분석으로서 일반적으로 요구 분석은 일반 목적의 언어 교육보다는 특수 목적의 언어 교육에서 사전 조사의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수 목적 언어는 일반 목적의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 측면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이혜원, 2019:24). 예컨대, 외국인 근로자는 직업 목적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며, 이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므로 그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직업 목적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근로자는 학문 목적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의 요구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언어를 학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해야 한다. 요구 분석은 1960년대 이래로 전문화된 언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응용 언어학자들이 언어 교수에서 요구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Richards, 2001:51). 특히 1970년대 의사소통 중심 언어 교수가 등장하면서 많은 언어학자들이 학습자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분석으로부터 언어에 접근을 시도하였고, 학습자의 학습 목적이 다양해지고 특수화되면서 학습자의 요구 분석은 교육과정 개발의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다(송경옥, 2017:93).

요구 분석은 여러 정보 제공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료 수집 도구를 사용하여 개별 학습자 또는 학습자 집단이 특정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의 요구를 다각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다(민현식 외, 2014:851). 요구 분석을 위한 정보 수집 방법으로 Richards(2001:60-63)는 설문지(Questionnaires), 자율 평가(Self-rating), 면접(Interviews), 회의 방식(Meetings), 관찰(Observation), 학습자 언어 표본 수집(Collecting learner language sample), 과제 분석(Task analysis), 사례 연구(Case studies), 관련 자료 검토(Analysis of available information)를 들고 있다.<sup>55)</sup> 그리고 요

구 분석을 할 때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불완전하거나 부분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각 접근법(Triangular approach)을 권장하고 있다(Richards, 2001:59).<sup>55)</sup> 본고에서도 다양하고 심층적인 정보 획득을 위하여 삼각 접근법으로서 설문 조사와 면접을 병행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정보의 출처를 이용해야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정보 수집 방법은 각각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목적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언어 교수에 있어서 요구 분석 시 정보 제공의 대상자로는 언어를 배우려는 학습자를 생각하기 쉽지만, 학습자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학습자, 그리고 요구 분석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와 관련이 있는 이해 당사자들 역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함께 일을 하는 직장 동료도 될 수도 있고, 중간 관리자 혹은 고용주도 될 수 있다. Richards(2001:57)에서는 이러한 정보 수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로 EFL 상황의 공립 중고등학교 영어 프로그램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요구 분석을 시행할 때 정책 입안자, 교육부 관계자, 교사, 학생, 연구자, 고용주, 직업 훈련 전문가, 학부모, 영향력 있는 개인 및 압력 그룹, 학술 전문가, 커뮤니티 기관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요구 분석은 언어 학습을 시행하기 전과 후는 물론이고 시행 중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도 학습자인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또는 관리자, 그리고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요구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요구 분석 시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양적 연구 방법인 설문 조사 외에 질적인 연구 방법으로서 면접도 병행하고자 한다. 다음 2.2.2.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구현할 교수요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55) 정보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설문지는 가장 흔한 방법으로서 준비 및 도식화 분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다수에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자율 평가는 학습자 자신이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척도로 구성, 느낌에 기초한 정보만 제공한다. 면접은 설문지보다 깊이 있는 조사는 가능하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집단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회의는 정보가 주관적이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관찰은 목표 상황에서 학습자의 정보를 관찰하는 것으로 관찰 및 분석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학습자 언어 표본 수집법은 학습자의 언어 과제 수행에 대한 정보 및 문제점 수집, 학습자의 언어적 요구에 대한 직접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수집한다. 과제 분석법은 학습자가 미래에 목표로 수행하게 될 과제의 종류 및 언어적 특성에 대해 평가하고 요구 상황을 분석한다. 사례 연구는 개인 학습자나 특정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관련된 과제 및 교육적 경험에 대해 연구한다. 관련 자료 검토는 일반적으로 요구 분석의 첫 단계에서 서적, 신문 기사, 보고서 등과 같은 자료들을 조사한다.

56) 삼각 접근법의 예를 들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쓰기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할 때, 학습자 대상 설문 조사, 교사 인터뷰, 학습자의 글쓰기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이혜영 외, 2023:22).

## 2.2.2. 교수요목 및 유형

### 1) 교수요목의 개념

언어 교수에서 교육과정(curriculum)과 교수요목(syllabus)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curriculum’은 큰 범위에, ‘syllabus’는 작은 범위에 사용한다.<sup>57)</sup> 교수요목(syllabus)은 학습자들이 배워야 할 교육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배두분(2013)은 교수요목을 교육과정 내에 주어진 어떤 교과과정의 전 과정에 대한 학습 항목을 구체화해 놓은 계획이라 하였으며(송향근 외, 2016:41), Richards(2001:153)는 언어 수업을 계획할 때 사용되는 주요 구성 요소를 말하며 내용을 조직적으로 구성하는 데 기초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교수요목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조직한 것이다. 전통적 교수요목에는 내용만 포함되었으나 과정 기반 교수요목이 등장하면서 교육 방법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 교육과정의 목적과 목표의 실천은 교수 요목을 통해 이루어지며, 교재를 개발할 때도 교수요목이 교재의 기본적인 내용과 교수 방법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교수요목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인 요구 분석, 교육 목적 및 교육 목표 설정, 교육 내용의 선정과 배열, 교수·학습 방법의 결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이해영 외, 2023:29).

### 2) 교수요목 유형

교육 목적과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교수요목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내용 범주를 정해야 한다. 어떤 범주를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할 것인가는 교수법, 외국어 교육의 동향 등에 영향을 받는다. 교수요목 유형이란 교육과정 내에 주어진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학습 내용을 제시한 교수요목을 학습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을 말한다(민현식 외, 2014:872). 외국어교육 교수요목과 관련하여

57) 영국에서는 교육과정을 교수요목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미국에서는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평가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해 교수요목은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 활동의 단위들(units)과 이러한 단위들이 실제로 수업에 적용될 순서(sequence)에 관한 것이다(민현식 외, 2014:848).

Brown(1995)은 구조 교수요목(Structural syllabus), 상황 교수요목(Situational syllabus), 주제 교수요목(Topical syllabus), 기능 교수요목(Functional syllabus), 개념 교수요목(Notional syllabus), 기술 기반 교수요목(Skills-based syllabus), 과제 기반 교수요목(Task-based syllabus), 혼합 또는 다층 교수요목(Mixed or layered syllabus) 등 8가지를 제시하였다. Richards(2001; 강승혜 외 역: 176-189)에서는 여기에 어휘 교수요목(Lexical Syllabus), 언어 능력 기반 교수요목 (Competency-based Syllabus), 텍스트 기반 교수요목 등을 더하여 10가지를 제시하였는데, Brown(1995)의 ‘혼합 또는 다층 교수요목(Mixed or layered syllabus)’을 통합 교수요목 (Integrated Syllabus)으로 제안하였다.<sup>58)</sup> 본고에서는 여러 교수요목 중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반영해 온 내용 범주를 중심으로 교수요목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sup>59)</sup>

### ㄱ. 문법(구조) 교수요목 (Grammatical or Structure Syllabus)

문법(구조) 교수요목은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문법적 난이도와 빈도수를 기준으로 하여 언어의 문법 구조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수요목이다. 문법의 난이도와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문법(구조) 교수요목은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 문법의 난이도나 빈도도 실제로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정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법 교수 모형인 PPP모형은 문법(구조) 교수요목을 따르는 교수법에서 사용하는 모형이다. PPP 모형은 목표 문법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만을 제시(Presentation)한 뒤에 연습(Practice)을 통해 생성(Production)을 하는데 유창성보다는 정확성을 강조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는다(강현화, 2020:197).

### ㄴ. 기능 교수요목 (Functional Syllabus)

‘사과하기, 제안하기, 허락하기, 요청하기, 거절하기’ 등과 같은 의사소통 기능을 중

58) Brown(1995)에서는 기능 교수요목과 개념 교수요목을 따로 제시한 데 반해 Richards(2001)에서 기능 교수요목만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개념 교수요목과 기능 교수요목을 아울러 개념·기능 교수요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59) 교수요목의 유형 및 교육 내용 제시 방법은 Richards(2001; 강승혜 외 역: 176-189), Brown(1995:7-14)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교수요목이다. 기능 교수요목은 1970년대 의사소통 교수법의 하나의 흐름으로 나온 것으로 언어 능력보다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한다. 주로 주제 교수요목과 연계하여 사용될 수 있다. 특정한 언어 수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언어 운용 능력을 개발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수 목적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목적 한국어와는 달리 특수 목적 학습자로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직장 생활에서 사용하는 기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교실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생활로 전이시키기가 쉽기 때문이다.

#### ㄷ. 상황 교수요목 (Situational Syllabus)

상황 교수요목은 학습자가 목표어를 사용하게 될 공간(식당, 공항, 은행, 영화관, 병원 등)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의사소통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상황이 설정되면 의사소통 장면에서 요구되는 목표어의 문법, 표현, 어휘, 문장 및 담화의 수준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여행 책자 또는 특정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춘 교재에 자주 사용된다. 이 교수요목은 맥락에 맞는 언어를 제시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가르친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휘와 문법의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고 학습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문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상황 중심 교수요목은 학습자의 필요와 관심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수 목적 학습자에게 매우 유용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생활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고, 직장에서의 상황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 ㄹ. 주제-내용 기반 교수요목 (Topical or Content-based Syllabus)

주제-내용 기반 교수요목은 언어 내용에 초점을 두어 주제(theme), 화제(topic), 기타 내용 단위(units)로 조직되는 교수요목이다. 내용 중심 교수요목은 학습자에게 적합한 주제나 내용을 교수하여 학습자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주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언어 사용과 활동이 가능하다. 반면에 내용과 주제가 교수요목 설계의 기준이 되면 언어 형식의 난이도나 논리적 관계가 고려되지 않아서 숙달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습자에게는 효과적이지만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에게는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 ㄱ. 기술 교수요목 (Skills Syllabus)

기술 교수요목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 기술과 학문 연구에 필요한 학문적 기술(academic skills)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과 순서가 구성되는 교수요목이다. 기술 교수요목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 내용으로 한다.<sup>60)</sup> 특정한 언어 교수 학습 이론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언어의 기술을 세분화한 후 그것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언어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통합된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보다는 분리된 각각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 ㄴ. 과제 기반 교수요목 (Task-based Syllabus)

과제 기반 교수요목은 학습자가 실생활에서 목표어를 사용하여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과제<sup>61)</sup>나 활동을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는 교수요목이다. 과제 기반 교수요목에서는 언어를 분절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결합한 덩어리로 제시한다. 의미 있는 실생활 과제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내적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확한 언어 사용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따라서 한국어와 같은 형태적 특성이 강한 언어의 경우에는 ‘형태를 고려한 과제 중심 교수요목’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정숙, 2003). 과제나 활동을 중심으로 교수요목을 설계할 때는, 학습자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요구 조사가 필요하다.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을 통해 실생활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되면 의사소통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매우 유용하다. 예컨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 신청서 작성하기’,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하기’와 같은 실생활 과제를 들 수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실제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동기 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

60) 말하기 기술에는 소개하기, 전화로 도움 요청하기 등이 있고, 듣기 기술에는 뉴스 듣기, 식당에서 주문 받기 등이 있으며, 읽기 기술에는 훑어 읽기(skimming), 찾아 읽기(scanning), 쓰기 기술에는 메모, 보고서 작성하기 등이 있다.

61) 과제에는 실제적 과제와 교육적 과제가 있는데 실제적 과제로는 약속하기, 전화로 음식 주문하기, 모집 공고 보고 전화하기, 이력서 쓰기, 조리법 보고 음식 만들기, 분실물 묘사하기 등이 있고 교육적 과제로는 정보 차이 찾기, 이야기 조각 맞추기와 같은 것이 있다(송향근 외, 2016:44)

## 8. 통합 교수요목 (Integrated Syllabus)<sup>62)</sup>

교수요목의 틀을 결정할 때 교수요목의 틀을 선택하는 기준은 절대적인 선택이 아니라 교수의 다양한 우선 순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교수요목을 설계할 때 여러 다양한 교수요목을 필요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이 교수요목은 학습 목적이나 교육 환경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절충하여 사용될 수 있다. <sup>63)</sup> 본고에서는 Richards(2001)에서 제안한 ‘통합 교수요목(Integrated Syllabus)’ 대신 다중 교수요목(multi-dimensional syllabu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중 교수요목이란 두 개 이상의 교수요목을 통합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제, 상황, 기능, 어휘, 문법 등을 하나의 교수요목에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2> 다중 교수요목의 예(강현화, 이미혜, 2020:234)

주제/상황	기능	과제	문법	어휘	발음
물건 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건 사기</li> <li>• 가격 흥정하기</li> <li>• 조언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일 가게에서 과일 사기</li> <li>• 생일 선물에 대해 조언하는 대화 듣기</li> <li>• 쇼핑 경험에 대한 글 읽고 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명사(명, 개)</li> <li>• 에게/한테</li> <li>• 보다</li> <li>• -지 않다</li> </ul>	선물	연음

### 3) 교수요목 제시 방법

교수요목은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선형(linear type), 조립형(modular type), 나선형(spiral type), 기본 내용 제시형(matrix type), 줄거리 제시형(story-line type)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64)</sup> 선형 교수요목은 문법과 같은 언어 요소를 제시할 때 사용하는 유형으로 언어학적, 교육학적 원칙에 근거하여 각 항목의 위계와 순서를 결정한다. 교사가 마음대로 언어 항목의 제시 순서를 바꾸거나 어떤 항목을 가르치지 않고

62) 최근에는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개별 교수요목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여 다중 교수요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강현화 외, 2022:74).

63) 문법을 기술, 텍스트와 연계하기도 하고, 과제를 주제, 기능과 연계하기도 하며, 기술을 주제, 텍스트에 연계하기도 한다(강승혜 외 역, 2022:189).

64) 교수요목 유형의 특징은 민현식 외(2014:873)과 송향근 외(2016:46)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넘어갈 수 없다. 초급 학습자에게 구조와 문법을 가르칠 때 적합한 유형이다. 조립형 교수요목은 주제나 상황과 중심의 언어 내용을 특정 언어 기술(skill)을 통합하여 하나의 학습 단위로 조직하는 유형이다. 나선형 교수요목은 한 과정에서 교사와 학습자가 한 가지 언어 구성 요소와 주제를 두 번 이상 다루도록 내용을 반복적으로 배열하여 제시한다. 교수 항목이 반복 제시될 때 제시된 항목의 난이도와 복잡도가 더 심화된다. 나선형 원리를 적용하여 물건 사기'를 예로 들면 1단계는 과일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가격을 묻는 상황이 제시되고 2단계에서는 과일 가게에서 물건의 양과 가격을 묻고 가격을 흥정하는 상황이 제시되며, 3단계에서는 옷 가게에서 산 옷을 교환이나 환불을 하는 상황으로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개발된 한국어 교재들은 대부분 나선형 설계를 지향하고 있다(이해영 외, 2023:34). 본 연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을 설계할 때 나선형 원리를 적용할 것이다.

기본 내용 제시형 교수요목은 학습해야 할 과제와 여러 가지 상황을 표로 제시하고 사용자가 주제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최대한으로 제공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줄거리 제시형 교수요목은 주제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하여 앞의 이야기의 흐름을 알고 순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교수요목을 구성하는 유형이다. 동화나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읽기 교재를 제작할 때 이 유형을 이용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교수요목은 장단점과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 어떤 교수요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각각의 교수요목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교수요목을 고집하기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교수요목을 절충하여 교수요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수요목을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채택하는 방식은 둘 이상의 교수요목을 함께 사용하는 다중 교수요목이다. 즉, 내용 범주를 선정할 때 구조, 주제, 상황, 기능, 과제 중에서 둘 이상을 포함하여 교수요목을 구성하는 것이다(이해영 외, 2023:32).

본고에서는 앞서 이루어진 교수요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학습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목표어를 주로 사용하게 될 공간, 해당 장소에서 대면하는 대화 상대자, 이야기거리 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은 주제와 상황을 중심 교수요목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다른 교수요목을 활용하는 다중 교수요목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수요목 설계

의 원리와 설계 유형에 따라 설계된 교수요목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재로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결정하여 교재에 반영하고, 학습자가 실제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3. 한국어 교육과정

### 2.3.1.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sup>65)</sup>

본고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는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현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에서 참조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과정이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학습자들에게 유창하고 정확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순서, 교육 절차, 교육 시수, 교육량, 교육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구조화한 교육 계획 및 운영 프로그램이다(김명광, 2022:28).

2020년 11월에 고시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국내외 한국어 교육 현장과 학습자의 다양성을 모두 포괄하는 최상위 한국어 교육과정이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서 특정한 지역과 학습자를 한정하지 않은 내용과 체계를 제시하여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학습 환경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 교육과정 개발의 토대가 될 수 있다(국립국어원, 2020:1).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교육과정은 교육의 원리와 가치, 교수 및 학습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내용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지만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연구는 이러한 총론적 접근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가지는 관점이나 성격, 교육과정의 모형 등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등급별·언어 기술별 성취 기준과 성취 기준을 실현하기 위한 교수·학습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실제로 교육과정 개발 전반에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

65)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54호, 이준호 외(2020)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반면, 2020년에 고시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포괄적인 성격과 목표의 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그에 따른 성취 기준과 교육 내용,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의 방향성까지를 모두 제시하여 명실상부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체계, 성취 기준 등의 기반이 되는 원리 및 이론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가지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점과 교육과정의 성격 등을 명확히 하였다(이준호 외, 2020:15).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교수 학습 및 평가 방향의 순서로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성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국가 고시 교육과정으로서 해당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환경에 맞는 상세한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므로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성격과 목표를 가진다. 한국어 교육의 학습자가 다양해지면서 각 교육의 환경마다 한국어가 갖는 지위와 외국어, 제2언어, 계승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한국어 교육을 ‘다중 언어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sup>66)</sup>.

또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란 한국어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석하며 상호 간의 의미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므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통해 한국어를 배운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매개로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하게 타인과 협력함으로써 상호 간의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더불어 함양할 수 있는 또 다른 역량은 상호 문화 의사소통(interculture communication) 능력이다.<sup>67)</sup> 언어는 사고의 표현이자 문화의 결정체이므로 학습자는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사고와 한국 문화의 특성을 직간접

66) 다중언어주의는 한 인간의 언어적 경험이 가정에서 시작하여 그 사회의 언어를 거쳐 다른 국가의 언어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67) ‘Intercultural’은 ‘간문화’, ‘문화 간’, 상호 문화’ 등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상호 문화 의사소통은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상황 맥락에 맞는 의사소통 방식을 선택하고 목표어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여 대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김도연, 2021:603-604).

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학습자 자신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비교하여 소통할 수 있는 상호 문화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을 추구한다.

이러한 상호 문화 의사소통 능력과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면 한국어를 도구로 하여 한국에 대한 견문과 한국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포용과 공존의 가치를 갖춘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 2) 목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다양한 주제와 맥락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상호 문화 의사소통 능력, 한국어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세부 목표는 ‘다양한 층위의 지식을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상황에 맞게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문화와 비교하여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상호 문화 의사소통 능력, 한국어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전 세계 한국어 사용자들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 등이다.

## 3)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 ㄱ. 내용 체계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은 교육과정의 목표를 구현하는 데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근본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배양에 필요한 구성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주제, 기능, 맥락, 기술 및 전략, 텍스트, 언어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3> 내용 체계의 구성 요소(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2020)

구성 요소		내용
주제	의사소통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이나 활동을 이끌어 가는 중심이 되는 문제이자 내용</li> <li>• 말이나 글의 중심이 되는 화제</li> <li>• 개인 신상, 대인 관계, 여가, 교육 등</li> </ul>
기능	의사소통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 형태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li> <li>• 의사소통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일</li> <li>• 설명하기, 비교하기, 동의하기</li> </ul>
맥락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 기술이 실제로 사용되는 상황</li> <li>• 시공간적 배경, 담화 참여자의 역할 또는 관계</li> <li>• 격식 수준, 구어·문어 차이, 높임법 수준 등</li> </ul>
기술 및 전략	의사소통 수행의 세부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 기술이 구현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과 전략</li> <li>•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목적을 가지고 실현되는 활동,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나 장치</li> <li>•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하위 기술과 전략</li> </ul>
텍스트	내용이 담긴 형식과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보다 큰 문법 단위로 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진 한 덩어리의 말이나 글</li> <li>• 말이나 글의 유형 종류 및 그것의 형식과 구조</li> <li>• 대화, 독백, 설명문, 논설문 등</li> </ul>
언어 지식	언어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내용)을 언어로 구현시키는 언어의 형태</li> <li>• 한국어로 형태적, 통사적, 음운적 특성</li> <li>•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언어 재료인 어휘, 문법, 발음 등</li> </ul>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제’와 ‘기능’은 의사소통의 내용과 기능이 되며, 언어 사용의 ‘맥락’은 담화 참여자, 시공간적 배경이 된다. 언어 ‘기술 및 전략’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수행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텍스트는 언어의 구조와 형식, 설명문, 논설문 등 언어의 유형이 된다. 언어 지식은 언어의 재료인 어휘, 문법, 발음 등이다. 이러한 내용 체계는 성취 기준을 마련하는 데 근거가 되고, 한국어 교수 학습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 ㄴ. 총괄 목표 및 성취 기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다양한 주제와 맥락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바,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구성 요소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총괄 목표와 성취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총괄 목표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로 하위의 언어 기술별 목표와 성취 기준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표성과 일반성을 지녀야 한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단계별로 학습자가 다룰 수 있는 주제와 참여 가능한 의사소통 맥락을 중심으로 총괄 목표를 기술하였고, 통합적이고 실제적인 관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능을 제시하였다. 또한 총괄 목표는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기술하고 있으며, 숙달도 등급은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6등급 체계를 따르고 있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총괄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14>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총괄 목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2020)

등급	총괄 목표
1급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의 짧은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주 접하는 소재의 짧은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인사나 소개, 간단한 메시지, 정보의 이해나 교환 등의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급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식 상황에서의 간단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정보에 관해 묻고 답하기, 허락과 요청, 메시지의 이해나 교환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3급	자주 접하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과 관련된 사회적 소재의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권유나 조언, 간단한 설명에 대한 이해나 표현, 정보 교류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4급	친숙한 사회적 추상적 소재나 직장에서의 기본적인 업무와 관련된 담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평소에 관심이 있는 사회적 추상적 주제의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동의와 반대, 지시와 보고, 생각이나 의도의 이해나 표현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5급	사회 전반에 대한 소재와 자신의 업무나 학업과 관련된 담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이거나 일부 전문적인 내용의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업무 보고, 협의, 체계적인 정보 전달, 의견이나 주장에 대한 이해와 표현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6급	전문적이거나 학술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담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 문화적인 특수성이 드러나는 소재의 글이나 학술적인 소재의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설득이나 권고, 의견이나 주장에 대한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이해와 표현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어서 성취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성취 기준은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성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교사와 학습자는 성취 기준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성취 기준은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이 의미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정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과정이 갖는 교육 내용 체계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단계별 목표와 기준을 알기 쉽게 기술해 주어야 한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총괄 목표에서 제시한 단계별 의사소통의 수행 정도를 상세화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으며 적용이 수월하도록 언어 기술별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국립국어원, 2020:38).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목표와 성취 기준의

기술별 예는 다음과 같다.

<표 15> 언어 기술별 목표와 성취 기준 기술의 예(1급)

구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목표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의 짧은 대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인사나 소개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의 짧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인사나 소개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짧은 글을 이해할 수 있으며, 단순한 정보의 이해나 교환 등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소재의 글을 쓸 수 있으며, 간단한 메시지의 작성이나 교환 등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급 성취 기준	1. 주변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일상적인 소재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다. 2. 개인적이고 친숙한 상황에서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다. 3. 단순한 정보를 파악하거나 들은 내용의 대략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1. 자신과 주변의 일상적인 대상이나 사물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개인적이고 친숙한 상황에서 필요한 대화를 할 수 있다. 3.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말하기를 할 수 있다. ∴	1.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소재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2. 개인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3. 읽은 내용을 대체로 이해하고 간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1.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소재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다. 2. 개인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최소한의 글을 쓸 수 있다. 3. 사실이나 생각을 간단한 문장으로 쓸 수 있다. ∴

#### 4)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

##### ㄱ. 교수·학습 방향

한국어 교수·학습에서는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가 아닌 상호작용의 촉진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즉, 교사는 교사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수·학습을 위해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 따라 다양한 교수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학습자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의 네 가지 기술을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또 한국어의 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과제 중심 교수법, 토의 학습, 플립드 러닝 등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을 선택하여 운용하되, 학습자 참여형 교수 학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ㄴ. 평가 방향

한국어 평가는 외국어 평가로서의 보편적인 특성과 함께 한국어 평가라는 개별성을 고려하여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한국어 평가는 평가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타당도를 유지하고, 일관성을 갖추어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어 담화 공동체의 언어 생활을 반영한 실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평가는 진단, 배치, 성취도 및 숙달도 확인 등의 목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숙달도 지향의 성취도 평가를 추구하며, 학습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과 이에 따른 피드백 제공을 통한 환류 효과를 중시한다. 또한 직접 평가, 수행 평가를 지향하되, 평가의 목적에 따라 언어 지식에 대한 분리 평가가 활용될 수도 있다(국립국어원, 20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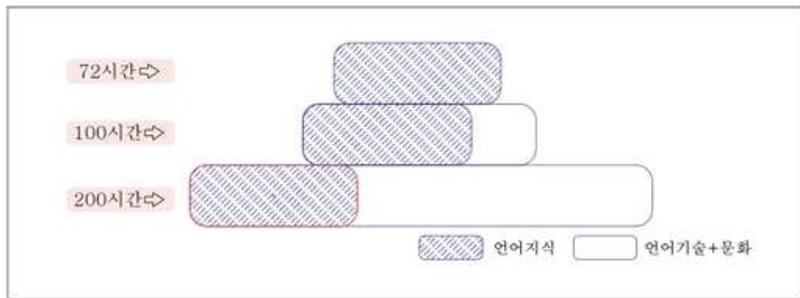
### 2.3.2.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체계화되고 정밀화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먼저 2010년에 이루어진 1단계 연구에서는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을 7등급 체계로 설정하고 등급별 총괄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각 등급의 목표와 내용 기술을 위한 범주로 주제, 언어 기술, 언어 지식, 문화를 설정하였다. 2단계(2011년) 연구에서는 1단계 연구를 좀 더 구체화하여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각 범주의 구체적인 교육 항목들을 등급별로 선정·배열하여 교육과정의 교수요목을 확정하였다.

2016년과 2017년에 이루어진 3, 4단계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 현장의 다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교육과정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다. 3단계 연구에서는 1, 2단계 연구에서 설정한 주제와 기능, 문화 범주의 설정과 급별 총괄 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완하였고, 내용 기술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7등급 체계를 6등급 체계로 수정하고 개방형인 6+등급을 수정하여 6급 이상 수준의 목표와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등급별 성취 수준에 부합하는 평가 내용 및 방법을 수립하였다. 4단계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였고, 표준 교육과정의 보편화를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10여 년간 표준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수정·보완되어 왔으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연구는 교육과정 설계라기보다는 교수요목 설계, 특히 교육 항목의 선정과 배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개발 연구는 완성된 하나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거나보다는 상세하게 기술된 한국어 교육의 참조 기준을 개발하여 목록화, 등급화,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교육과정 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참조 자료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등급화·목록화하고 있어, 교육과정 개발 시에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화하는 데에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인혜·이준호, 2021:418).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68)</sup> 먼저 등급 체계를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등급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체계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는데 사회통합프로그램은 4등급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고급에 해당하는 5급과 6급은 없다. 다음으로 교육 시간을 보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최소 시간과 최대 시간을 설정하여 교육 여건과 환경, 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육 시간은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교육 시간은 각 등급당 72시간~200시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외 세종학당, 한글학교 등에서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72시간(12주\*6시간)을 최소로 잡고 국내 정규 기관 및 한국어능력시험이 채택하고 있는 200시간(10주\*20시간)을 기반으로 산출한 것이다(김중섭 외, 2017:11). 최소 필요 교육 시간은 72시간이고 최대 시간은 200시간이지만, 교육 기관의 운영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72시간, 100시간, 200시간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기관의 수업 시수에 따라 아래 모형을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72시간, 100시간, 200시간의 각 영역별 비중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각 시간별 영역 비중

68)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김중섭 외(2017)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4>의 모형에서는 72시간을 배운 학습자와 200시간을 배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해당 등급의 언어 지식(어휘, 문법, 발음)은 비슷하게 배운다고 보기 때문에 언어 지식적 측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보았다. 다만, 언어 기술과 문화와 관련한 시간은 차이가 있으므로 교육 기관의 운영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은 100시간 모형을 따르고 있는데, 본고에서도 위 모형에 기반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요구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 시간을 설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강현화·이미혜, 2020:236)

구분		교육과정 기술 범위
주제		17개 범주, 85개 항목 제시
기능 및 과제		5개 범주 52개 항목 제시
언어 지식	어휘	10,635개 제시(1급 735개, 2급 1,100개, 3급 1,655개, 4급 2,200개, 5급 2,365개, 6급 2,580개)
	문법	336개 제시(1급 45개, 2급 45개, 3급 67개, 4급 67개, 5급 56개, 6급 56개)
	발음	5개 범주 72개 항목 제시
언어 기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급별로 항목과 내용 제시
텍스트		4개 범주 144개 항목 제시
문화		4개 범주 77개 항목 제시
평가		등급별로 항목과 내용 제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주제와 기능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제와 기능 중 학습자의 요구도가 높은 항목들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기 위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에서 제시한 목록들을 활용하여 요구 분석을 할 것이다.

### 3.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 교재

이 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배경 및 특성, 고용 허가제와 한국어 교육,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기 전에 전과 후에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 파악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입국 후 취업 후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교재로 한국어를 배우는지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3.1.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배경 및 특성

##### 3.1.1.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배경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의 저임금의 비숙련 노동 시장을 채우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시안 게임(1986)과 올림픽(1988), UN 가입(1991) 등으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출입국 규제가 완화되었고, 해외 여행 자유화 등으로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해졌다(이태정, 2012:55-56). 또한 1991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한국의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가진 일자리들이 내국인들에게 외면을 받으면서 소위 3D 업종으로 분류되는 중소 제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는데 특히 건설 수요가 본격화된 1990년대부터 크게 심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3년 ‘산업 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여 연수생 신분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산업 연수생 제도는 산업 연수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기에 노동법과 산재 보험, 의료 보험 등에서 배제되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었고, 산업 연수생의 사업체 이탈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산업 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용 허가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3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준비 기간을 거쳐 2004년부터 고용 허가제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산업 연수생 제도는 2006년까지 고용 허가제와 병행하다가 2007년부터 고용 허가제로 통합되었고 같은 해에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제’가 도입되었다. 고용 허가제에는 일반 고용 허가제와 특례 고용 허가제가

있는데, 일반 고용 허가제는 MOU를 맺은 16개국 송출 국가의 노동자에게 비전문 취업 비자(E-9)을 발급하고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특례 고용 허가제는 중국, 구소련 등 방문 취업(H-2)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일반 고용 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E-9)이다. 비전문 취업 비자(E-9)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3년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1년 10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체류 조건을 계속 완화하고 있다.<sup>69)</sup> 국가 통계 포털(KOSIS)에서 확인한 업종별 일반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7> 업종별 일반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현황

업종 \ 연도	2004	...	2011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제조업	3,124	...	40,396	39,415	43,695	40,208	4,806	7,455	68,350
건설업	0	...	2,207	1,846	1,405	1,651	207	595	1,657
농축산업	43	...	4,557	6,855	5,820	5,887	1,388	1,841	11,664
서비스업	0	...	124	100	90	99	1	18	125
어업	0	...	1,846	2,621	2,845	3,520	286	592	6,216
합계	3,167	...	49,130	50,837	53,855	51,365	6,688	10,501	88,012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 허가제는 2017년 이후부터는 매년 5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유입되고 있는데<sup>70)</sup> 2022년에는 20~21년에 입국하지 못한 적체된 인원까지 포함되어 코로나 이전 대비 71% 증가하였다. 도입 규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과정 개발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교육 내용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2년 들어 농축산업의 종사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무관하지 않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가 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sup>71)</sup>

69) 법무부 보도(2023. 6. 23.)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비전문 취업(E-9), 선원 취업(E-10)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을 개발하여, 숙련 기능 인력(E-7-4) 자격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70)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입국하지 못하였다.

71)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이 '이민 확대'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의료 보험 정책, 연금 정책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 3.1.2.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8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411,27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3%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비전문 취업자(E-9)는 292,774명으로 전년 대비 29.8%가 증가하였다.<sup>72)</sup> 2023년 현재 비전문 취업자는 전체 취업 자격 외국인 취업자(498,621)의 59%를 차지한다.<sup>73)</sup> 1993년부터 실시한 산업 연수생제를 2004년 고용 허가제로 전환한 이래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진현 외, 2016). 한국에 체류 중인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 고용 허가제를 통해 유입되고 있는데, 비전문 취업(E-9)이라는 자격 명칭에도 내포되어 있듯이 이들은 대부분 단순한 업무에 투입된다.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종사하는 산업은 광제조업(79.8%)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으로 농림어업(13.9%), 건설업(3.2%) 등 순이다.<sup>74)</sup> 제조업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교육과정 개발 시 교육 내용이 제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주당 40~50시간(61.4%), 50시간~60시간(18.9), 60시간 이상(10.3%)으로 50시간 이상의 비율이 매우 높아 만성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윤자호, 2021).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3D 업종에서 근무하는데, 대부분 생산직으로서 육체 노동의 강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도 근무를 할 뿐만 아니라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아 개인적인 시간이 많지 않다(정현경, 2022:82). 따라서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탓에 외부와 단절되어 외로운 생활을 한다.<sup>75)</sup>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체류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언어 문제’라고 답한 비율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자국에 남겨진 가족 걱정이 20.6%로 그 뒤를 이었다(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팀, 2013:1). 외국인 근로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장기간 동안 가족과 떨어져 한국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모국에 있는 가족 문제(자녀 교육, 배우자

72)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2023년 8월)를 참조하였다.

73) 취업 자격 비자에는 전문 인력(E1-7), 계절 근로(E-8), 비전문 취업(E-9), 선원 취업(E-10), 방문 취업(H-2), 관광 취업(H-1) 등이 있다

74)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으로 시작하여 2023년 현재 어업, 일부 서비스(냉장, 냉동 창고 등)으로 확대되었다.

75) 2022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에 따르면 언어 문제(43.4%), 외로움(28.8%)을 한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보도자료, 2023. 9. 6.)

문제 등)를 더욱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충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 내에서 아직도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윤지영, 2015:80; 김성률 외, 2017:243). 또 한국인 근로자와의 차별과 배제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성률 외, 2017:147). 강정향 외(2020)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의 이유로 차별과 폭행과 같은 인권 침해라고 답한 비율이 8.1%로 나타났다.<sup>76)</sup> 이러한 인권 침해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최초 취업 기간 3년이 끝난 후에 재고용(1년 10개월)이 허용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귀국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고용 허가제와 무관하지 않다.<sup>77)</sup> 최경식(2019:151)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격적 모독을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원인은 고용 허가제로 설정된 고용주 혹은 관리자와 국민 근로자 간의 권력의 불평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sup>78)</sup>

2022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통계청, 법무부, 2022)에서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80.8%가 계속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재고용 허가를 통해 취업의 기회를 얻고자 한다. 하지만 재고용의 여부는 전적으로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종속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여 취업 활동을 더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나 인격 침해, 열악한 근로환경 등을 참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유승희, 2021:163). 또 인격 모독 등의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장 이탈로 인한 불법 체류의 위험도 내포되어 있다(김성률 외, 2017:240). 이와 같이 일반 고용 허가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권력의 불평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동안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최경식, 2019:151). 본 연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면접(FGI)에서도 일

76) 사업장 변경은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고 변경 횟수도 원칙적으로 3회를 넘지 못한다

77) 체류 관리상 비전문인력의 정주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4년 10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으나, 제조업 분야 숙련 근로자 확보 차원에서 한 차례 근무 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최장 9년 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김연홍, 2019:13-14).

78) 정영섭 이주평등연대 집행 위원은“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업장 이전에 제한이 걸려 있다. 증명하기 힘든 차별이나 괴롭힘이 있어도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 사표를 내고 나면 비자를 잃게 된다.”며 “외국인 노동자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우선적으로 이들에게 적용된 사업장 변경 제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

부 근로자들이 고용주나 관리자의 언어적 폭력에 대해서 참는 이유를, 혹시라도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사업장 변경을 변경할 때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봐 염려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모국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라는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sup>79)</sup> 그러나 이러한 차별과 배제는 한국 정부의 정책 보완, 내국인들의 인식 변화,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 향상 등등의 다양한 이유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노지현, 2015:2).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E-9)는 한국 정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한국 사회의 필요에 의해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일하면서 한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 소비자로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보도,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의 커뮤니티에만 접근한다는 시각, 가족을 동반할 수 없도록 설계된 현행 고용 허가제에 대한 무관심 등은 한국 사회의 인식이 아직까지 한국 경제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받아들이는 데 인색함을 보여 준다(김명광, 2023:401).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짧은 기간 머물렀다가 귀환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처음 제도 시행 시에는 단기 순환 원칙에 따라 3년간만 체류할 수 있었으나 몇 차례의 고용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최장 9년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계속 거주도 가능하여 사실상 정주를 허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80)</sup> 따라서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정주적 인재의 관점에서, 권익 신장과 공존의 대상으로서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목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이기 이전에 사람이며, 노동자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단순히 노동력만을 필요로 해서 사용만 하고 반환하는 기계가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한국에서 사람으로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사용자는 물론 정부도 깊이 인식을 하여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고 있는 법 제도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간의 노동을 제공하면서 생활하고

79) 2020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19.7%가 있다고 대답했으며, 차별받은 이유로는 출신 국가(58.0%), 한국어 능력(27.9%), 외모(8.3%) 순으로 나타났다.

80) 2022년 12월에 이른바 ‘유연 탄력제’라 하여, E-9을 E-7-4(숙련 기능 외국인 점수 비자) 인재로 전환한 후 장기 체류를 시도하고자 하는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였다. 즉, 정주가 금지된 고용허가제의 비전문 인력(E-9) 자격을 숙련 기능 외국인 점수 비자(E-7-4)로 변경할 수 있는 정주형 경로를 만든 것이다.

있는 외국인이 한국 사회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법과 제도들이 변화되어야 한다(최윤철, 2015:217).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동안 독립된 인격 주체로서 평등권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은 동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질을 평가하는 잣대로 보기도 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면 신체적인 건강과 정서적인 안녕감이 증가된다(정태연 역, 2015:26)는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바로 언어적 지원에서부터 시작됨을 시사한다.

### 3.2.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

#### 3.2.1. 고용 허가제와 한국어 교육

고용 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 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 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 기업(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 노무직에 한해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과 근로자 송출 양해 각서((MOU)를 체결한 16개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게 된다. 이때 근로자들은 비전문 취업(E-9) 자격으로 1회 입국 시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최대 9년 8개월까지도 체류가 가능하다.<sup>81)</sup>

한편, 고용 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모국에서 먼저 외국인 고용 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mployment Permit System-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EPS-TOPIK)<sup>82)</sup> 시험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81) 체류 정책의 변화는 다음 그림과 같다.

체류 정책의 변화(김명광, 2023:69)



EPS-TOPIK은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국립국  
 제교육원이 출제를 맡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EPS-TOPIK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독학<sup>83)</sup>으로 준비하거나 사설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EPS-TOPIK을 위한 교육과정은 없다.<sup>84)</sup> 시  
 험 문제는 문제 은행을 사전에 공개하고 여기에서 문제를 출제하여 왔으나, 2023년부  
 터 비공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EPS-TOPIK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시험<sup>85)</sup>이므로 일반 한국어 시험과  
 는 성격이 다르다. 시험은 ‘한국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한국어 구사 능력’,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를 평가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한 특수 목적의 한국어능력시험이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외에 작업 현장에서 쓰는 표현 및 각종 표지 등 산업 현장의 업무와 관  
 련된 언어 능력을 요구한다. 문제는 ‘기본 생활, 일상 및 여가 생활, 공공 기관(일반 한  
 국어)’ 영역의 경우 그 수준은 기초 한국어 수준의 1-2급을 중심으로 문항이 출제된다.  
 한국 문화, 직장 생활의 경우 3-4급 수준으로 출제된다. 법령 및 제도나 직장 생활 용  
 어의 경우는 5-6급 수준의 고급 수준의 어휘도 다수 포함되며, 평가 문항의 80.2%가  
 일상생활 영역에서 출제된다(김명광, 2023:76~77).

EPS-TOPIK은 읽기와 듣기로 구성되는데 읽기가 20문항(100점), 듣기가 20문항  
 (100점)이다. 업종별 합격 최저 하한 점수는 제조업은 200점 만점에 110점, 건설업·농  
 축산업·어업은 200점 만점에 80점, 어업 특례는 200점 만점에 60점이다.<sup>86)</sup> 김민선  
 (2018:13-14)은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문제 은행 형식으로 한국어를 학습하  
 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한국어로 대화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영민·최고  
 은(2016)의 연구에서도 고용 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사소통 문제  
 가 심각하다고 하였으며, 25% 이상이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평가하였

82) 이하 EPS-TOPIK으로 칭한다.

83)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EPS-TOPIK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2012년 고용허가제 한국어능  
 력시험을 위한 ‘한국어 표준 교재1, 2’, 2016년 ‘한국어 표준 교재 자가 학습용 1, 2’를 개발하였  
 고, 기출 문제도 480문항을 공개하고 있다.

84) 외국인 근로자들은 EPS-TOPIK을 준비하는 동안 학원 등 어학 기관을 통해 한국어를 공부한  
 경우가 49%로 가장 높았으며, 혼자 공부했다는 응답이 25%, 세종학당에서 공부했다는 응답이  
 13%로 나타났다(김선정 외, 2015:3)

85) 시험의 목적을 ‘외국인 구직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여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시 객관적 선발 기준으로 활용하고 한국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춘 자의  
 입국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https://epstopik.hrdkorea.or.kr>, 2023. 8. 4. 검색).

86) 시험의 구성 및 내용 등의 정보는 EPS-TOPIK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보고서(2018:18)에서도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애로 사항으로, 생활 습관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높았으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한국어 능력’이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EPS-TOPIK을 위해 한국어 공부를 하더라도 실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배양’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시험을 위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87)</sup> 이러한 사실은 입국 후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낮게 책정된 합격 점수, 그리고 표현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말하기와 쓰기 중 특히 말하기 영역이 없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토익(TOEIC)이나 기타 다른 외국어 시험의 성적은 좋지만 말은 잘하지 못하는 경우와 비슷한 양상인 것이다. 따라서 당장에 이들의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험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어렵다면 현행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초급 의무화 시행도 한 방안이 될 수 있겠다.

### 3.2.2. 입국 전 교육

고용 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입국 전에 자국에서 진행되는 45시간 내외의 사전 취업 교육을 받게 된다. 사전 취업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능력 배양 및 국내 조기 적응을 위해 한국의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한국어 교육은 38시간 내외로 실시되며 기초 한글, 생활 한국어 회화, 업무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한국 문화 이해 교육은 7시간 내외로 한국 문화에 대한 개관 및 기본적인 예의 범절과 한국의 명절, 휴가, 인사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사전 취업 교육 내용과 시간을 네팔의 예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sup>88)</sup>

87) 설동훈(2020:72)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언을 밝힌 바 있다. 심층 면접에서 미얀마인 근로자는 미얀마에서 쉬운 단어만 외워서 한국어 시험에 합격했는데 막상 한국에 오니 회사에서 하는 얘기는 길고 배운 내용과 달라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88) 16개 국가별 ‘한국어/한국 문화의 이해’ 교육 시간을 보면 네팔(36시간/1시간), 동티모르(42시간/3시간), 몽골(38시간/6시간), 미얀마(43시간/1시간), 라오스(37시간/11시간), 방글라데시(38시간/5시간), 베트남(46시간/10시간), 스리랑카(53.5시간/8시간), 우즈베키스탄(38시간/7시간), 인도네시아(25시간/4시간), 중국(40시간/10시간), 캄보디아(38시간/7시간), 키르기스스탄(39시간/7시간), 필리핀(38시간/7시간)이다

<표 18> 입국 전 사전 취업 교육 내용(박준석 외, 2018:31)

교육명	교육 시간	교육 내용
한국어 교육	38시간	기초 한글, 생활 한국어 회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
한국 문화의 이해	7시간	한국 문화 개관 및 기본적인 예의 범절, 휴가, 인사법 등
자체 교육	-	국가별로 상이
합계	45시간	

효과적인가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 5점 만점에 중간 이하인 1~3점 정도라고 답한 외국인 근로자가 73%인 60명에 이른다는 점과 현지 교육 기관에 시행하는 교육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한국어 교육이 효과적이지 못하며, 입국 전 자국 송출 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19> 입국 전 취업 교육 현황(박준석 외, 2018:32)

교육명	주요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교육 방법	강사	교재
한국어	인사와 소개	3	강의식	현지인 강사 한국 교민	- 주교재: 너도나도 한국어 (공단) - 부교재: 보조 교재, 매체 등(자체 제작)
	쇼핑과 음식	3			
	은행과 우체국	3			
	병원과 약국	3			
	대중교통	3			
	직장 생활	3			
	직장 업무	3			
	휴가와 회식	3			
	기숙사 생활	3			
	안전 장비	3			
주의와 경고	3				
사건과 신고	3				
한국 문화의 이해	한국 문화의 이해	1	-	현지인 강사	- 한국 문화의 이해 동영상 교재(공단)
합계		37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너도나도 한국어’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의 이해는 현지인 강사 및 한국 교민을 활용하여 강의식, 비디오 시청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입국 전에 실시하는 교육에서 한국어 교육의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보통 1개 등급을 공부하는 데 소용되는 200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도 잘 나타나는데, 한국어 교육 학습 시 애로 사항으로 ‘교육 시간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박준석

외, 2018:126). 이와 더불어 자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설문 조사에도 5점 만점에 중간 이하인 1~3점 정도라고 답한 외국인 근로자가 73%인 60명에 이른다는 점과 현지 교육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대한 불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어 교육이 효과적이지 못하며, 입국 전 자국 송출 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3.2.3. 입국 후 교육

#### 1) 입국 후 취업 교육

EPS-TOPIK을 통과한 후, 사전 취업 교육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송출 국가의 대한민국 공관으로부터 비전문 취업 사증(E-9)을 발급받고 국내로 입국하게 된다.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노사발전재단, 농협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수협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별·업종별로 구분되어 16시간(2박 3일)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된다.<sup>89)</sup> 교육 내용은 한국의 직장 문화, 관계 법령 및 고충 상담 절차, 산업 안전 보건 및 기초 기능에 대한 것이다. 세부적인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표 20> 입국 후 취업 교육 내용(박준석 외, 2018:96)

과목	주요 교육 내용	교육 시간
한국의 직장 문화	직장 생활, 직장 예절 및 기숙사 생활 등	1시간
관계 법령 및 고충 상담 절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및 기초 생활 법률 * 이탈 방지 교육, 전용 보험 관련 교육 포함	5시간
	- 고충 처리 및 상담 절차(기관 안내)	3시간

89) 입국 후 취업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대상 업종	교육 기관
제조업(베트남, 몽골, 태국 제외),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냉장·냉동 창고업	중소기업중앙회
제조업(베트남, 몽골, 태국),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냉장·냉동 창고업	노사발전재단
농축산업(베트남,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네팔)	농협중앙회
어업(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동티모르)	수협중앙회
건설업(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파키스탄, 중국)	대한건설협회

	- 성희롱 예방 교육 * 성폭력·성매매 예방, 모성 보호 교육 포함	
산업 안전 보건 및 기초 기능	<산업 안전 보건> 안전표지, 안전 일반 및 작업 안전(업종별) *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 유입 방지 대책 포함 <기초 기능> 업종별 기초 기능	7시간

위의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교육 시간은 16시간으로 진행되는데, 2018년 6월 이전까지는 ‘한국어 회화’ 과목이 편성되어 취업 현장 중심의 기초 회화를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이후로 산업 안전 및 관계 법령이 강화되어 짧은 시간에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아짐으로써, 한국어 과목은 삭제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입국 전후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 현황을 볼 때, 교육 내용에 비해 시간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교육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어 수업은 겨우 40시간 남짓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업 시수 확대가 절실하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EPS-TOPIK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겨우 40시간이라는 짧은 교육 시간만 받고 산업 현장에 투입된다면, 필연적으로 의사소통의 부재로 산업 재해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임은 물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sup>90)</sup>

## 2) 취업 후 한국어 교육

EPS-TOPIK을 거친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은 자국에서 실시하는 사전 취업 교육과 국내에 입국해서 받는 취업 교육이 전부이다. 이후에 한국어 교육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 계발이나 비자 변경 시 혜택과 같은 도구적 동기든, 통합적 동기든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종교 단체나 지방 자치 단체,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sup>91)</sup> 법무부 사회통합프

90)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유해 위험 요인이 많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낮은 환경과 언어소통의 장애 등으로 재해 예방 지식·정보의 습득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산재 위험이 많은 실정이다(고용노동부, 2022:410).

91) 법무부 프로그램 운영 기관은 2022년 12월 현재 전국에 339개, 고용노동부 운영 기관은 44개소이다.

로그래프와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 본고에서 대표적인 두 기관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크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사회이해’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수준에 따라 0단계부터 5단계로 구분된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한국어 과정으로서 숙달도<sup>92)</sup>를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과정은 0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한글 자모 수업으로 구성된 0단계가 15시간, 1~4단계는 각각 1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0단계는 자모음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사전 평가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며, 1~2단계는 초급 한국어를, 3~4단계에서는 중급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5단계는 한국 사회이해 과정으로서 기본 과정은 70시간, 심화 과정은 3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sup>93)</sup> 기본 과정(70시간)은 사전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거나 4단계까지 이수하거나 TOPIK 4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 역사, 지리에 관한 내용을 교육한다.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한국어 교육은 원활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으로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 외에, 4단계까지의 한국어 교육을 기반으로 5단계 교육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적 목적도 있다(이은희, 2021:203). 심화 과정(30시간)은 기본 과정(70시간)을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 정체성과 자질을 함양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안보, 통일, 외교, 헌법 가치 등의 분야에 대해 종합적인 교육을 시행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3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예산과 참여자 수요에 따라 운영 기관 별로 운영 기간을 달리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만약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참

92)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숙달도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등급 기준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과정의 4단계는 한국어 능력시험의 4단계보다 약간 낮은 3.8급 도달을 목표로 한다.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초급		중급		고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초급		중급			
	1	2	3	4		

93) 기본 과정 70시간 중 10시간은 5개의 시민 교육(생활 법률 교육, 소비자 교육, 금융 경제 교육, 범죄 예방 교육)과 이민자 멘토 교육, 그리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민자 대상 교육으로 채우면 된다. 시민 교육은 각 분야별로 전문 기관이 개발한 교육이고, 멘토 교육은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가 2시간 동안 자신의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을 들려 주고 조언을 하는 교육으로 강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여한다면 최대 515시간을 공부할 수 있으며, 5단계 심화까지 이수하는 데에는 대략 1년 반~2년 정도 소요된다. 이민자는 사전 평가의 결과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 등에 따라 수준에 맞는 단계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기관 및 일반 운영 기관, 또는 지역 학습관<sup>94)</sup>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sup>95)</sup>과 한국이민재단<sup>96)</sup>에서 운영하는 실시간 온라인 화상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는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특수반(야간반, 주말반)을 적극적으로 개설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주말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는 야간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고용 허가제 시행과 더불어 사후 관리를 위해 2004년에 설립되었다. 전국에 9개의 거점 센터<sup>97)</sup>와 소지역 센터 35개소<sup>98)</sup>가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충 상담, 한국어 및 생활법을 교육 등을 통한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사업 내용

구분	내용
상담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및 갈등 중재로 애로 사항 해결을 지원
교육	외국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 및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제반 법규 등 교육 실시
문화 행사	각종 문화 행사 개최를 통한 한국 문화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 간 교류의 장을 마련
정보 제공	생활·법률 및 직업 관련 정보 제공

위의 <표 21>의 사업 내용에서 보듯이 서비스 제공의 한 축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지만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과는 다르게 한국어 교육이 주력 사업은 아닌

94) 출입국 관서의 장 또는 거점 운영 기관장은 지역별 참여자 특성 및 운영 기관의 특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 기관이 아닌 장소를 지역 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95)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적으로 집합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23년부터 집합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습자들을 위하여 3~4단계는 온라인 화상 교육을 허용하고 있다.

96) 한국이민재단은 중앙 거점 기관으로서, 격오지 거주자, 임신부 등 집합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화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97) 기관명은 한국 센터(서울), 의정부 센터(경기), 김해 센터(경남), 창원 센터(경남), 인천 센터(인천), 대구 센터(대구), 천안 센터(충남), 광주 센터(광주), 양산 센터(경남)가 있다(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foreigner/list6.do>).

98) 지역 분포를 보면 서울 1, 인천 1, 경기 11, 충북 1, 충남 1, 대전 2, 경북 3, 경남 2, 울산 1, 전북 2, 광주 3, 전남 4, 강원 1, 제주 1개소가 있다.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 기관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센터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신장과 복지 증진을 주목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나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상담 등이 주요한 사업이다(강신희, 2017:2). 한국어 교육은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여러 교육 사업 중의 하나로 시행되고 주로 주말에 진행되며 정식 교육과정 없이 기관마다 독자적 교육과정과 교재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순애, 2022:943). 거점센터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2>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현황(이순애, 2022:945)

기관명	한국	의정부	김해	창원	인천	대구	천안	광주	양산
교육기간	2학기 21주	2학기 20주	2학기 21주	2학기 20주	2학기 20주	2학기 20주	2학기 21주	2학기 20주	2학기 20주
수업시간	매주 일요일 2시간	매주 일요일 2시간	매주 일요일 2시간	매주 일요일 2시간	매주 일요일 2시간	매주 일요일 2시간	매주 일요일 2시간	매주 일요일 2시간	매주 일요일 2시간
개설반	초급 중급 고급	레벨1 레벨2 레벨3 레벨4	기초 초급 중급 고급	자모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고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초 초급 중급 고급 초급회화 중급회화 고급회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모음 기초 초급 회화2 회화3	입문 기초A 기초B 초급 중급
	토픽중급 토픽고급 쓰기반	토픽초급 토픽중급 토픽고급	토픽	토픽 II 쓰기반	토픽I 토픽II	토픽초급 토픽중급 토픽고급	토픽초급 토픽중급 토픽쓰기	토픽1 토픽2 토픽스피킹	토픽 I 토픽 II 토픽쓰기 듣고말하기 읽고쓰기
교재	세종한국어 회화	서강 한국어 1A~2A	한국어 표준교재 I, II	한국어 표준교재 I, II	한국어 표준교재 I, II	한국어 표준교재 I, II 세종한국어 회화 1~3	세종한국어 1~8	한국어 표준교재 I, II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 수업은 주당 2시간, 20주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은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시간이다. 또한 단계별 구분은 교재를 기준으로 구성하고 명칭도 제각각인 것으로 보아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하는 교재도 대학 기관 교재나 세종학당 교재를 쓰는 등 기관마다 다른 교재를 쓰고 있는데 이 또한 근로자라는 학습자의 특성과 이들의 학

습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학습자 및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이 더욱 절실하다.

### 3.3.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재

#### 3.3.1. 한국어 표준 교재<sup>99)</sup>

##### 1) 단원 구성

『한국어 표준 교재I, II』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EPS-TOPIK의 시행을 위해 발간한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한국어 교재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를 분석한 직무 구조도에 따라 총 8개의 주제, 60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예비편을 두어 한국어 학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모와 인사말을 익힐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각 단원은 EPS-TOPIK과 NCS에 기반한 ‘기능’과 ‘어휘, 문법’으로 구성하였으며 대화-어휘-문법-연습-활동-정보·문화-EPS-TOPIK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5). 교재의 ‘일러두기’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단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99) 한국어 표준 교재의 정식 명칭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한국어 표준 교재』이다.

<표 23> 한국어 표준교재 단원 구성

구분	내용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대화를 구성하고 있다.</li> <li>- 해당 단원에서 학습하는 어휘와 문법을 포함한 대화를 제시하고 있다.</li> <li>- 대화 상대자를 다양화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접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li> </ul>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빈도 높은 어휘를 주제에 맞게 범주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li> <li>- 일상생활, 직장 생활에서 사용되는 빈도와 학습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어휘를 배열하고, 주제별로 묶어서 제시하고 있다.</li> <li>- 산업 현장에서도 순화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비표준어가 아닌 순화된 한국어를 제시하고 있다.</li> </ul>
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단원의 주제와 긴밀한 관련을 갖는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li> <li>-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실력을 높이고 EPS-TOPIK을 대비하기 위해 목표 문법을 맥락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li> <li>- 문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법 설명을 한국어와 영어로 제시하고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li> <li>- 한 단원에 두 개의 문법을 제시하고 2-3개의 예문을 통해 형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li> </ul>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단원에서 학습한 어휘와 문법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li> <li>- 연습1에서는 어휘 연습을, 연습2에서는 문법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li> </ul>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단원에서 학습한 주제, 어휘, 문법 등을 모두 사용하여 학습자들이 실제로 마주치게 되는 상황에서 의사소통 활동을 수행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li> <li>- NCS 직문 기능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정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li> <li>- 글을 읽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해하는 활동도 포함하고 있다.</li> </ul>
정보·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원의 주제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 및 직장 문화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각 단원의 주제와 관련하여 학습자에게 유용한 한국의 일상 문화 및 직장 문화, 한국 사회의 정보 및 생활 상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li> <li>- 50과부터는 직장 생활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li> </ul>
EPS-TOPI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근로자들이 EPS-TOPIK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EPS-TOPIK 시험 유형과 동일하게 구성하고 있다.</li> <li>- 매 단원마다 듣기 5문제, 읽기 5문제를 제시하고 있다.</li> </ul>

## 2) 교수요목

### ㄱ. 주제

『한국어 표준 교재I』은 ‘예비편, 기본 생활, 일상 및 여가 생활, 공공기관’으로, 『한국어 표준 교재II』는 ‘한국에 대한 이해, 직장 문화, 직장생활, 법령 및 제도, 직장 생활 용어’로 모두 8개의 대주제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 한국어 표준 교재 교수요목

주제	과	제목			
예비편	1-5	한글 익히기 I, 한글 익히기 II, 교실 한국어,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주제	과	기능/직무 구조	어휘	문법	정보/문화
기본 생활	6-15	자기소개하기 장소 및 물건 묻고 대답하기, 일과 시간 묻고 대답하기, 가족에 대해 묻고 대답하기, 날짜와 장소 묻고 대답하기, 물품 구매하기, 위치와 길 찾기,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 음식 주문하기, 날씨와 기분 이야기하기	나라, 직업, 장소, 물건, 일과, 시간, 가족, 외모와 성격, 날짜와 요일, 장소와 동작, 과일과 식료품, 화폐 및 물품 구매, 이동 동사, 위치와 방향, 상태1, 상태2, 식당, 음식의 맛, 날씨와 계절, 기분과 감정	입니다, 입니까 이/가, 이에요/예요, -아요/어요, 예(시간), 하고, 예(장소), -왔/였-, 에서, 주세요, -아/어 주세요, -(으)세요, (으)로, -고 싶다, -(으)니까요, -(으)니까요, 안, -네요, -아서/어서	인사 예절, 한국의 좌식 문화, 생활필수품(세면도구), 출근 시간을 지킵시다, 높임말과 반말, 한국의 공휴일, 의류, 길거리, 한국 사람들이 인사로 하는 약속, 음식 메뉴, 한국의 사계절
일상 및 여가 생활	16-25	취미 이야기하기, 여행 경험 및 계획 이야기하기, 교통수단과 소요 시간 말하기, 전화하기, 인터넷에 대해 말하기, 집안일 부탁하기, 집안일 말하기, 설명하기, 허락 구하기, 금지하기, 이유 말하기, 높임말 말하기, 조언하기, 공부 방법 말하기, 신청 방법 설명하기, 빈도 표현하기, 소원 말하기	취미, 운동 여행지, 여행 준비와 활동 교통, 이동 전화, 인터넷 청소, 집안일 약속, 초대 금지, 하면 안 되는 행동 어휘 높임, 생활 예절 공부, 교육 종교, 종교 활동	-(으)르 때, -(으)러 가다, -아/어 보다, -(으)거예요, (이)나, 에서 까지, -지요, -고, -(으)르게요, -는 것, -는데/-(으)는데, -(으)니까요, -(으)면 안 되다, -(으)니까, -(으)시-, -아/어야 되다/하다, -(으)면서, -기 쉽다/어렵다, 마다,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취미 활동 프로그램, 한국의 관광지, 대중교통 이용 방법 생활에 유용한 전화 번호, 쓰레기 분리수거, 짐들이 선물, 공공장소 표지판, 한국인들에게 나이란? 외국인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종교 행사
공공기관	26-30	순서 말하기, 금지하기 조건 말하기, 증상 묻고 대답하기, 의도 말하기, 방법 표현하기 편지 보내기, 요청하기 이용 문의하기, 교육 신청하기	신체, 증상, 병원, 치료, 은행, 은행 업무/현금인출기, 우편물, 소포/택배, 교육 및 서비스, 외국력지원센터 이용	-(으)니 후에, -지 마세요, -(으)면, -비/습니까, -비/습니다, -(으)려고, -(으)면 되다, -(으)로, -(으)십시오, -(으)리 수 있다/없다, -(으)려면	가정 비상약, 외국인 근로자 센터 진료 안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금융 서비스,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 외국인을 위한 지원 기관
한국에 대한 이해	31-35	날씨 표현하기, 비교하기, 한국의 음식 문화 알기, 조리법 설명하기 추천하기, 계획 말하기 추천하기, 순서 말하기 이유 말하기, 추천하기	날씨, 도시의 특성, 계절 음식, 재료 및 조리법 설날, 추석, 특별한 날, 결혼 문화 한류, 경제 및 산업	-지만, 보다 -(으)니, 아서/어서, -겠-, -는, -는 게 어때요, -고 나서, -잖아요, -는/(으)니 것 같다	한국의 행정구역, 특별한 날 먹는 음식, 한국의 명절, 한국인의 경조사, 한류 영향

직장 문화	36-40	복장 설명하기, 충고하기, 기숙사 주의사항 알리기, 직장의 분위기 소개하기, 동료와의 갈등 표현하기, 회식 일정 공지하기, 새 직원 소개하기, 성희롱 예방 조언하기, 성추행에 대한 강의 듣기	복장, 태도, 기숙사, 냉난방기, 직장의 분위기, 동료와의 갈등, 회식, 직장에서의 모임, 성희롱, 성희롱 대처 방법	-아/어 보이다, -게, -(으)비시다, -는 동안, -는/-(으)ㄴ 편이다, -다고 하다, -자고 하다, -(으)라고 하다, -냐고 하다, 간접화법의 축약형	작업 현장의 복장, 한국의 주거 형태, 직장 내에서의 호칭, 갈등 해결 방법, 한국의 회식 문화, 성희롱의 개념과 처벌
직장 생활	41-50	작업 도구 제안하기, 작업 상황 설명하기, 기계 작동법 설명하기, 작업 보고하기, 작업 지시하기, 작업 확인하기, 작업장 환경 묘사하기, 정리 정돈 말하기, 작업 변경 요구하기, 작업 요청하기, 문제 원인 찾기, 해결 방안 말하기, 업무 관리하기, 업무 실수 말하기, 기계 작업 시 주의사항 말하기, 위험 상황 대처하기, 위험 상황 예방하기, 위험 가능성 경고하기, 업무 평가하기, 건강 말하기	제조업 수공구, 제조업 기계, 기계 작동, 포장 작업, 건설 현장, 유통업 포장, 작업장 환경, 폐기물과 정리 도구, 농업 1, 농업 2, 축산업, 어업, 창고 관리, 가구 제조, 기계 작업, 재해, 보호구, 작업장 사고, 안전 수칙, 건강 증진	(으)로, -고 있다, -는지 알다/모른다, -(으)ㄴ 것 같다, -아/어 놓다, -지요, -거든요, -아지다/어지다, -는데요, -기 전에, -도록 하다, -게 되다, -는 것이 중요하다, -(으)ㄴ 것이다, -(으)ㄴ 적이 있다/없다, -지 않도록 조심하다, -(으)ㄴ 수 있다, -기 때문에, -(으)ㄴ 덕분에, -기로 하다	작업에 필요한 도구, 안전한 도구 및 기계 사용법, 건설 현장의 중장비, 작업 도구 정리 정돈, 한국 농촌의 사계절, 축산업과 어업 현장의 작업, 직장에서의 칭찬 노하우, 작업장 사고, 신체 기관과 보호구,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
<b>주제</b>	<b>과</b>	<b>기능/직무 구조</b>	<b>어휘</b>	<b>활동</b>	<b>정보/문화</b>
법령 및 제도	51-58	고용허가제에 대해 묻고 답하기, 한국어능력 시험에 대해 문의하기, 근로계약서 내용 문의하기, 근로 계약 체결하기, 입국 심사 받기, 외국인 등록하기, 보험 가입하기, 보험금 청구하기, 급여 명세서 확인하기, 수당 확인하기, 휴가 알아보기, 병가 신청하기, 사업장 변경 절차 알아보기, 일시 출국 절차 확인하기, 체류 연장 절차 알아보기, 체류 자격 변경 이해하기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근로조건, 취업 절차, 입국 절차, 외국인 등록, 보험 가입, 보험금 청구, 급여와 세금, 수당, 휴가, 병가, 사업장 변경, 조기 귀국과 일시 출국, 체류 기간 연장, 체류 자격	EPS-TOPIK 신청서 작성하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취업 교육 이해하기, 보험 안내 이해하기, 급여 명세서 읽기, 휴가 신청서 이해하기, 재입국 허가 동의서 이해하기, 체류 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하기	고용허가제 이해하기,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 등록, 외국인 근로자 보험, 월급 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이해, 사업장 변경,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직장 생활 용어	59-60	산업 안전표지 익히기, 제조업 관련 안전 수칙 익히기, 건축업 관련 안전 수칙 익히기	산업 안전표지, 제조업 관련 안전 수칙, 건축업 관련 안전 수칙		직업병, 직업병 예방

위의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과부터 30과는 기본 생활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31과부

터 60과는 한국과 한국의 직장 문화 및 직장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상생활 및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 및 제도(51과~58과)는 전문적인 내용으로서 초급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가 공부하기에는 어휘 수준이 높다. 따라서 법령 제도는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것보다 사업장 배치 후에 별도의 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순애, 2023:124). 직장 생활 용어(59과~60과)는 안전과 관련된 단원이다. 안전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2개 단원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어휘의 수준도 높고 어려운 데다가 대화문, 문법, 연습 문제 등으로 구성된 앞의 과와는 달리 안전 정보를 어휘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보인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출 문제가 공개되지 않아서 각 단원의 비중은 알 수 없으나, 점수 획득의 전략으로 비교적 쉬운 앞 단원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대신 뒷부분에 위치한 안전에 관한 단원은 소홀히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안전 관련 단원을 재배치하고 분량을 확대하여야 한다. 한편,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한국어 표준 교재 I. II>의 주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 > 주제 비교(이미혜, 2016b:56) 재구성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한국어 표준 교재
초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 신상(이름, 전화번호, 가족, 국적, 고향, 성격, 외모)</li> <li>•주거와 환경(장소, 숙소, 방, 가구·침대, 주거비, 생활 편의 시설, 지역)</li> <li>•일상생활(가정 생활, 학교 생활)</li> <li>•쇼핑(쇼핑 시설, 식품, 의복, 가정용품, 가격)</li> <li>•식음료(음식, 음료, 배달, 외식)</li> <li>•공공 서비스(우편, 은행, 병원, 약국, 경찰)</li> <li>•여가와 오락(휴일, 취미, 관심, 영화·공연, 전시회·박물관)</li> <li>•대인 관계(친구·동료·선후배 관계, 초대, 방문, 편지, 모임)</li> <li>•건강(신체, 위생, 질병, 치료)</li> <li>•기후(날씨, 계절)</li> <li>•여행(관광지, 일정, 짐, 숙소)</li> <li>•교통(위치, 거리, 길, 교통수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 생활(인사, 소개, 시간, 날짜, 숫자 및 단위, 화폐, 위기와 길찾기, 물품 구매, 음식 주문)</li> <li>•일상 및 여가 생활(여행, 통신, 생활 예절, 대중교통, 청소 및 위생, 유용한 전화번호, 공중 도덕, 방문, <b>종교 활동</b>, 교육, 취미/여가 활동)</li> <li>•공공기관(은행, 우체국/택배, 병원, 약국, 외국 인력 지원기관)</li> <li>•한국에 대한 이해(지리 및 기후, 음식 문화, 한국의 명절, 한국의 풍습, 세계 속의 한국)</li> <li>•<b>직장 문화(직장 예절, 기숙사 생활, 성희롱/성추행 예방, 회식)</b></li> <li>•<b>직장 생활(산업 안전, 보건 용어, 업무 수행, 작업 도구, 작업 환경, 요구 및 요청, 문제 해결, 근무 태도, 긴급 상황)</b></li> <li>•<b>법령 및 제도(고용 허가 제도, 임금, 근로 계약, 휴가, 보험, 출입국 관리, 고충 상담)</b></li> <li>•<b>직장(산업 안전 보건)</b></li> </ul>

『한국어 표준 교재』에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초급 주제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나, 『한국어 표준 교재』에는 종교 활동, 근로자 직무와 관련된 직장 생활, 산업 안전, 법령 및 제도 등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법령과 제도’는 언어 형식은 적어도 중급 이상에 해당되므로 초급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절하지 않다. 대신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 주거와 관련한 주제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근로자들이 기숙사에 거주하지만 기숙사 밖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전월세 계약’ 관련 내용도 초급의 주제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sup>100)</sup>

## ㄴ. 문법

『한국어 표준 교재』의 문법 항목은 모두 95개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 모형’에서 제시한 문법 목록을 기준으로 볼 때 초급 71(74.7%), 중급 8개(8.42%), 고급 13개(13.68%), 최상급 3개(3.16%)로 조사되었다(이윤화, 2018:51). 이로 볼 때 <국제 통용 표준 교육과정>의 초급 문법을 대부분 다루고 있다.

## ㄷ. 어휘

『한국어 표준 교재』에 제시된 대주제 중 ‘기본 생활, 일상 및 여가 생활, 공공기관, 한국에 대한 이해, 직장 문화, 직장 생활’ 주제에서 총 898개 어휘를 추출하였는데 그중 초급 어휘가 539개(60.02%), 중급 어휘가 221개(24.61%), 고급 어휘가 62개(6.90%), 불포함 어휘가 76개(8.46%)로 나타났다(이윤화(2018:58)). 『한국어 표준 교재』에서 다루는 ‘기본 생활, 일상 및 여가 생활, 공공 기관, 한국에 대한 이해’ 등의 주제와 기능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초급과 비슷하기 때문에 초급 어휘 목록도 대부분 비슷하다. 그러나 약 40%로 나타난 중급 이상의 어휘는 ‘직장 문화, 직장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고용 허가제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특수 목적의 어휘들이다.

100) 2022년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하는 숙소 형태는 ‘사업장 내 건물’(57.4%)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주택(단독, 다세대, 아파트 등)’(22.4%), ‘임시주거시설(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5.6%), ‘다목적 시설(고시원, 오피스텔)’(4.4%), ‘공공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특수 어휘

제조업 수공구, 제조업 기계, 기계 작동, 포장 작업, 건설 현장, 유통업 포장, 작업장 환경, 폐기물과 정리 도구, 농업, 축산업, 어업, 창고 관리, 가구 제조, 기계 작업, 외양간, 양식장, 착유기, 호미, 시멘트, 자재, 난간, 보호망, 장비, 선반, 재해, 보호구, 작업장 사고, 안전 수칙, 고용 허가제, 취업 절차, 입국 절차, 외국인 등록, 사업장 변경, 조기 귀국과 일시 출국, 체류 기간 연장, 체류 자격, 산업 안전 표지, 제조업 관련 안전 수칙, 건축업 관련 안전 수칙

위의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 표준 교재』에서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어업, 건설업에서 사용되는 어휘까지 모두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직종에 따른 인력 도입 규모 중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제조업 중심으로 어휘를 제시하고 다른 직종은 별도의 어휘집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01)</sup> 한편, 직종과 상관없이 안전과 관련된 공통된 어휘를 선정하여 교재의 전반부에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근로자의 작업 시간과 관련한 ‘잔업, 야간, 주간, 수당’과 같은 어휘도 필수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한국어 표준 교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한국어 및 한국의 기업 문화를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리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산업 현장에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모든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직종마다 위험의 유형은 다르겠지만, ‘빨리 피하세요’, ‘비키세요’ 등 모든 위험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교재의 전반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 안전한 행동과 위험한 행동의 사례를 수록하여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모두 60과로 구성되어 너무 광범위한 학습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내용도 재배치하여야 한다. 가령 한국 문화 중 돌 잔치, 장례 문화 등은 대체로 한국에 장기간 거주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문화이므로, 보편적인 직장 문화나 직장 예절 등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령과 제도’는 언어 형식이 중급 이상이고 꼭 필요할 때 확인하거나 문의를 해서 해결하면 되는 내용이므로 초급 수준의 교재에 담을 필요가 없다.

셋째, 제조업, 농업, 축산업, 어업, 건설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어휘를 수록할 필요가

101) 2022년말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규모를 보면 제조업이 7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건설업 1.9%, 농축산업 13.2%, 어업 7.1%, 서비스업이 0.1%를 차지한다.

없다. 현재 직종별 도입 규모를 보면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모국어 화자에게도 어려운 어휘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은 후 사업장 배치가 확정된 후 받게 되는 입국 후 교육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외국인 근로자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

### 3.3.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 문화<sup>102)</sup>

언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유형적 배경은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교재를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학습자는 결혼 이민자를 비롯하여 외국인 근로자, 전문 인력, 유학생, 중도 입국 자녀 등 특수한 배경을 가진 집단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언어 교재와는 달리, 참여 이민자들의 현실 생활과 밀접한 주제 및 내용을 선정함으로써 현실 생활에 기반한 한국어 교재여야 하지만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는 이민자 전체를 위한 표준화된 통합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미혜 외(2018)에서도 밝혔듯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에는 다양한 이민자들을 위한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정 이민자 집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집단의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집단별<sup>103)</sup> 교육과정의 운영을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바, 이민자의 특수한 상황이 얼마나 교재에 잘 나타나 있는지, 언어 지식 및 언어 기술의 내용이 숙달도에 따라 위계화가 되어 있는지, 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재로서의 적절성 관점에서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교재 분석 기준

교재는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을 드러내는 것 이상으로 학습량, 문법의 정확성, 사용

10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 교재의 정식 명칭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 문화』이다.

103) 사회통합프로그램에는 변인 집단의 특성(규모, 한국 이민 성격, 교육의 개인적/사회적 효과성, 집단의 참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결혼이민자, 근로자, 중도입국자녀, 기타 등 크게 5개 집단을 상정할 수 있다(이미혜 외, 2018:42).

된 언어, 다양한 과제와 활동의 제시, 글자체, 삽화 및 편집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정보를 안고 있는 하나의 총체물이다(송향근 외, 2016:327). 그러므로 교재를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기준도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황인교(2003), 한송화(2003), 한상미(2019)의 연구를 참조하여 분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황인교(2003)는 실질적인 교재 개발 과정 중에 진행된 교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수 학습 상황으로는 기관, 학습자, 교사를 설정하고 내적 구성은 교재 구성 목표 및 원리, 내용 구성, 학습 내용, 학습 활동으로 세분화하여 분석 항목을 설정하였다. 한송화(2003)는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위해 기존 교재를 분석한 바, 교수·학습 상황으로 기관, 학습자, 교사를 설정하고, 내적 구성 항목으로는 단원의 주제와 과제 및 기능, 문법, 어휘, 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한상미(2019)에서는 크게 교재의 외형과 교재 내용으로 나누고, 교재 내용으로는 전체 구성과 단원 구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는데, 교육의 철학을 담고 있는 교수법 및 교수요목을 설정한 것이 다른 연구자와 다른 점으로 꼽을 수 있겠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7> 교재 분석 기준

황인교 (2003)	교수 학습 상황: 기관, 학습자, 교사 외적 구성: 모양 및 구입, 관련 구성물, 저자 또는 기관 정보 유무 내적 구성: 교재 구성 목표 및 원리, 내용 구성(전체 구성, 단원 구성, 자모 익히기), 학습 내용(주제, 문법, 어휘, 발음과 억양, 담화와 화용, 문화), 학습 활동(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한송화 (2003)	교수 학습 상황: 기관, 학습자, 교사 외적 구성: 주교재 관련 구성물, 페이지 수, 레이아웃, 삽화, 관련 사진 자료의 제시, 시청각 보조 자료, 교사 지침서, 문법과 어휘 색인 내적 구성: 단원 구성 및 자모, 단원별 구성(주제와 과제 및 기능, 문법, 어휘, 문화)
한상미 (2019)	교재 외형: 분량, 컬러 여부, 분권 여부, 교재 내용: 전체 구성(머리말, 일러두기, 차례, 내용 구성표, 색인, 부록, 기타), 단원 구성(제목, 학습 목표, 도입 이미지, 도입 질문, 대화문, 발음, 어휘 제시, 어휘 연습, 문법 제시, 문법 연습, 과제/활동, 문화, 복습, 교수법 및 교수요목)

한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는 특수한 배경을 가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목적 교재이므로 일반 목적의 교재와는 달리 이민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즉, 비자 연장, 외국인등록증 발급 등과 같은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일반 목적 교재 기준인 <표 27>의 연구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 28>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분석 기준

구분	항목	세부 내용	
외적 구성	주 교재 관련 구성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 교재 관련 구성물과 보조 교재가 있는가?</li> </ul>	
	교재 구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재 구성, 목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li> </ul>	
내적 구성	주제와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가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했는가?</li> <li>성, 인종, 직업, 지역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없도록 구성되어 있는가?</li> <li>이민자의 특수한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가?</li> </ul>	
		언어 지식 (문법, 어휘, 발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법은 숙달도에 따라 등급화되어 있는가?</li> <li>문법 항목에 대한 연습은 실제적인 과제 중심으로 흥미롭게 구성되어 있는가?</li> <li>문법/표현의 배열 순서가 적절한가?</li> <li>제시된 어휘가 학습자의 숙달도에 적절한가?</li> <li>발음 연습이 낱개의 발음 연습 차원을 넘어서 듣기, 대화 연습과 함께 이루어지는가?</li> </ul>
	언어 기술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말하기 활동은 학습자의 숙달도에 적절한가?</li> <li>말하기 학습을 위한 자료의 유형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가?</li> </ul>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듣기 자료의 양과 길이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맞는가?</li> <li>듣기 자료가 한국어 구어의 특징을 보여 주는가?</li> </ul>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읽기 자료가 한국어 문어의 특징을 보여 주는가?</li> <li>읽기 자료의 주제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li> </ul>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쓰기 활동이 실생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li> <li>유도된 쓰기, 통제된 쓰기, 자유 쓰기 등의 다양한 활동이 유도되는가?</li> </ul>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민자라는 학습자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문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li> <li>교재가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적 요소가 없이 상호 문화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li> </ul>		

먼저 본고에서는 외적 구성으로서 ‘주 교재 관련 구성물’ 항목에서는 주 교재와 관련한 보조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외적 구성으로서 ‘주제와 상황, 언어 지식, 언어 기술, 문화 항목’을 설정하였다. ‘주제와 상황’ 항목에서는 사회통합이라는 목적에 맞게 주제가 적절한지, 이민자의 특수성이 드러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언어 지식’ 항목에서는 문법이 숙달도에 따라 적절하게 등급화가 되어

있는지, 제시된 어휘가 학습자의 숙달도에 적절한지를 분석할 것이다. ‘언어 기술’ 항목에서는 언어 기술별 내용이 실생활에서 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실제성이 있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 항목’에서는 이민자라는 학습자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문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상호 문화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 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총 51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 교육과정은 0~4단계, 한국 사회이해 과정은 5단계(기본, 심화)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 과정(0단계, 15시간)에서는 자음과 모음 읽고 쓰기, 음절 구성, 받침 발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급 과정(1, 2단계, 각각 100시간)에서는 일상생활 및 은행 우체국 등 공적인 영역에서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급 과정(3, 4단계, 각각 200시간)에서는 공적인 영역 등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 최상위 단계인 한국 사회이해 과정(5단계, 70시간/30시간)에서는 이민자로서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한국어 정치, 경제, 법, 사회, 문화, 역사, 지리 등을 다룬다. 이 중 한국어 기초 과정(1권), 초급(2권), 중급(2권) 과정 교재 5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바, 교재 목록은 <표 29>와 같다.

<표 29>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분석 교재

구분	교육과정	단계	교재명	형식
주 교 재	한국어와 한국 문화	0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 문화 기초	출판물
		1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 문화 초급 1	출판물
		2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 문화 초급 2	출판물
		3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1	출판물
		4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2	출판물
보 조 교 재	부교재	1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 문화 초급 1 익힘책	출판물
		2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 문화 초급 2 익힘책	출판물
		3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1 익힘책	출판물
		4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2 익힘책	출판물
	교사용	0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 문화 기초 교사용 지도서	비출판

지도서	1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 문화 초급 1 교사용 지도서	출판물
	2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 문화 초급 2 교사용 지도서	출판물
	3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1 교사용 지도서	출판물
	4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 2 교사용 지도서	출판물

먼저 외적 구성을 보면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 문화 초급 1~중급 2’는 교사가 참고할 내용(문법 설명, 예문, 발음 설명, 문화 내용 등)을 담은 교사용 지도서가 있다. 또 학습자가 집에서 문법과 쓰기 등을 정확하게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연습을 할 수 있는 익힘책이 있다. 또한 보조 교재로는 교사들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PPT 자료와 학습자용 유형별(결혼 이민자, 근로자, 유학생 및 전문 인력, 중도 입국 자녀) 보조 자료가 있다.<sup>104)</sup>

다음으로 교재의 목표 및 내용 구성 체계를 보면 ‘초급’ 교재에서는 기본적인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민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결혼 이민자, 근로자, 유학생 및 전문 인력, 중도 입국 자녀들을 등장 인물로 하여 가정 생활,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사회 생활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반영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 단원은 ‘도입-어휘와 문법-활동-문화와 정보-마무리’로 통합적인 언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중급’ 교재에서는 사회적 주제,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단원은 ‘도입-어휘-문법-활동-문화와 정보-마무리’로 구성되어 있다.

## 7. 주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 교재에 명시된 주제 범주는 이 과정의 특징을 보여 주는 것이다. 초급 교재에는 각 권당 20개의 단원이 있고 중급 교재에는 각 권당 18개의 단원이 있는데, 연습 활동을 위한 복습 단원 2개를 제외하면 초급은 권당 18개, 중급은 권당 16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다. 단원별 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4) 이미혜(2018:23)에서는 이민자 유형별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재, 워크북은 1종으로 개발하되, 이민자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민자 유형별(결혼 이민자, 근로자, 중도 입국 자녀, 유학생, 기타 일반) 보조 자료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표 30>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의 단원별 주제

급 과	초급	
	1(1단계)	2(2단계)
1과	인사와 소개	고향
2과	사물	집안일
3과	일상생활	<b>물건 사기</b>
4과	장소	전화
5과	날짜와 요일	<b>약국</b>
6과	하루 일과	기분과 감정
7과	음식	초대와 방문
8과	<b>쇼핑</b>	한국어 수업
9과	주말	외식
복습 1		
10과	가족	길 안내
11과	특별한 날	명절
12과	휴가 계획	실수와 경험
13과	교통	우체국과 은행
14과	약속	공공 기관
15과	날씨	<b>직장 생활</b>
16과	<b>병원</b>	행사(축제)
17과	공공장소	건강
18과	한국 생활	문화 생활
복습 2		

급 과	중급	
	1(3단계)	2(4단계)
1과	대인 관계	한국 생활 적응
2과	성격	가족의 변화
3과	복지 서비스	생활 속의 과학
4과	<b>교환과 환불</b>	한국인의 의례
5과	소비와 절약	문화유산
6과	주거 환경	국제화 시대
7과	문화 생활	<b>현대인의 질병</b>
8과	음식과 요리	정보화 사회
복습 1		
9과	고장과 수리	사건과 사고
10과	취업	언어 생활
11과	부동산	교육 제도
12과	전통 명절	선거와 투표
13과	<b>직장 생활</b>	환경 보호
14과	인터넷과 스마트폰	생활과 경제
15과	고민과 상담	법과 질서
16과	기후와 날씨	이민 생활
복습 2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초급에서는 ‘인사, 교통, 음식, 주말, 쇼핑’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와 ‘은행, 공공기관’ 등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급에서는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주제 및 관계 및 일반적인 사회적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법과 질서’ 등을 다루고 있다.

먼저 주제를 보면 한국어 교육 내용이 계속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구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초급 1에서는 ‘쇼핑하기’, 초급 2에서는 ‘물건 사기’, 중급 1에서는 ‘교환과 환불’과 같은 주제가 나타나는데, 1, 2권에서는 물건 고르기, 주문하기, 물건 권유하기 등이 교수되고 3권에서는 교환하기, 환불하기, 환불이나 교환을 하는 이유 말하기 등 다소 복잡한 물건 사기 기능이 교수되도록 되어 있다.

초급에서는 ‘한국 생활’이라는 주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며, 이주민이 생활에 적응하

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급에서는 ‘가족의 이해, 선거와 투표 등’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 사회에 융화되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공공 시설 이용이나 공공 장소 상황이 타 교재보다 많이 나타나고, 공공기관(초급 2, 14과)에서는 비자 연장 신청,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등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로서의 특수성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민자들의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 및 지역 사회의 다양한 정보 등을 다룬 주제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미혜 외(2018)에서는 ‘결혼 이민자, 근로자, 유학생, 중도 입국 자녀 등 다양한 이민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을 담으며, 특정 이민자 집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특정 이민자 집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 못지않게 특정 이민자 집단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주제 및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도시 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급 2(18과) ‘문화 생활’의 경우 문화 센터에서 수업을 신청하는 내용은 문화 센터가 주로 도시에 있다는 점 등에서 이민자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민자들이 모두 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앞 절에서 언어 교육에서의 교재 개발 원리로 ‘학습자가 담화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고,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상적인 근무 시간 외에도 잔업, 야근 등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낸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초급 과정의 목표는 일상생활 및 직장 생활, 그리고 은행, 우체국 등 공적인 영역에서의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초급의 ‘가족, 특별한 날, 휴가 계획, 초대와 방문’ 등은 일상생활에 당장 필요한 교육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가족을 동반할 수 없고, 비교적 단조로운 생활을 하는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칫 지루한 수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4단계에서의 ‘경제, 선거,’ 등과 같은 주제는 5단계 수업을 고려한 주제로 학습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제에 따라 어휘와 문법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4단계를 마쳤을 때 한국어능력시험(TOPIK) 3.8급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 현 과정에서는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것이 사실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에 숙달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의 시간이 걸린다고 봤을 때,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평균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약 80%에 달한다. 이러한 점은 이들 중 상당수가 업무에 완전히 익숙해지기까지 산업 재해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조용진, 2015:34).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산업 안전 관련 중심으로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한국 사회에 구성원으로 적응하며,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적으로 제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정훈 외, 2019:457).

## ㄴ. 발음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의사소통에 있다. 그런데 의사소통이 가능하려면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와 표현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음성 언어이고 이러한 음성 언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는 무엇보다 발음이 중요하다(신지영 외, 2015:10). 발음이 정확하면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고 이는 자신감으로 연결되어, 학습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이 더 향상될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발음 교육은 자음, 모음 등 음운뿐만 아니라 음절, 음운 규칙, 억양까지 포함해야 한다.

먼저 한국어의 자음, 모음을 가르치는 기초(0단계)의 모음의 제시 순서를 보면 한국인을 위한 국어 교육에서처럼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모음 1)’, ‘ㅘ, ㅙ, ㅚ, ㅜ, ㅞ, ㅟ, ㅠ, ㅡ(모음 2)’의 순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순서는 어문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모의 순서를 따른 것으로, 학습자의 ‘학습 용이성’ 면에서 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은 순서로 보인다. 언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음은 ‘ㅣ, ㅏ, ㅑ’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들 세 모음은 모음 삼각도의 끝에 나타나므로 변별력이 가장 강한 모음이다. 따라서 ‘ㅣ, ㅏ, ㅑ’를 기준으로 7모음<sup>105)</sup>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모음 중 ‘ㅏ’는 조음이 가장 쉽기 때문에 ‘ㅏ’부터 시작해서 ‘ㅓ → ㅗ → ㅜ → ㅡ → ㅣ → ㅘ/ㅙ’로 음운론적 특징을 반영하여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sup>106)</sup>

105) 현재 단모음은 10모음이지만 실제로 발음은 7-8모음만 발음한다.

106) 실제 수업에서 예를 든다면 ‘ㅏ’(저모음)를 한 상태에서 턱에 손가락을 붙이라고 한 다음 손가락은 그대로 두고 턱을 조금 올려서 ‘ㅓ’(중모음)를 발음하게 하면 두 모음의 음가가 혀의 높이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게 된다. ‘ㅓ’(중모음/평순모음)에서는 입술을 둥그렇게 하여 ‘ㅗ’(중모음/원순모음)를 발음하게 하면 혀의 높이는 같지만 입술의 모양에 따라 음가가 달라짐을 알 수 있게

자음의 제시 순서를 보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자음 1)’, ‘ㄲ, ㄸ, ㅃ, ㅆ, ㅉ(자음 2)’로 제시하고 있다. 이 순서는 한국어 어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순서로서 역시 내국인을 위한 국어 교육에서 제시하는 순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의 자음은 조음 위치,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분류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먼저 조음 위치상 가장 앞에서 발음이 되는 양순음부터 시작해서 치경음 → 구개치경음 → 연구개음 → 성문음 순서로 가르치는 것이 학습에 더 효과적이다. 다만, 양순음 중에서 폐쇄음보다는 비음의 발음이 더 쉬우므로 비음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좋다.<sup>107)</sup>

다음으로 초급(1, 2단계)에 나타난 발음 내용을 살펴보면 초급에서는 그 단원에 출현하는 단어 중 어려운 발음을 제시하여 연습하도록 하고 있다. 중급(3, 4단계)에서는 단원마다 한 가지 음운 현상을 학습하도록 구성하여 음운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대신 규칙을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연습도 단어 연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연습과 대화 연습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단어 단위에서 연습이 되고 문장 단위와 대화 단위에서도 반복이 됨으로써 실제 의사 소통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한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다른 한국어 교재에서도 발음은 분절음이나 음운 규칙 중심으로 수행되고 억양 교육에 관한 내용은 소홀한 편인데, 이 교재에서도 마찬가지로 억양 교육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어의 억양은 문법적 기능, 화용론적 기능, 화자의 감정 및 태도의 전달 기능 등을 수행한다. 억양은 발화의 기능을 구별해 주고, 화자의 발화 의도를 알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학습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강세, 억양 등의 초분절음에 대한 발음 교육은 초급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수현, 2010:69-85).

---

된다. 그리고 ‘ㄱ’, ‘ㅈ’는 현대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거의 구별하지 않으므로 외국인들에게도 구별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107) 대부분의 언어에서 폐쇄음은 발성 유형에 의한 대립쌍을 가지는데, 이 대립은 언어마다 유성성, 기식성 등 다양한 특성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폐쇄음의 발성 유형에 따른 대립이 모어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외국인 학습자는 폐쇄음 습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양순음 중 ‘ㅁ’을 가장 먼저 제시한다(신지영 외, 2015:67).

㉔. 문법 범주

<표 31>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의 문법

급 과	초급		급 과	중급	
	1(1단계)	2(2단계)		1(3단계)	2(4단계)
1과	◯◯에요/예요 ◯◯은/는	◯◯이라고 하다 ◯◯은	1과	◯◯-고 해서 ◯◯-으면 되다	◯◯-느라고 ◯◯-을수록
2과	◯◯이/가 ◯◯에 있어요	◯◯-을게요 ◯◯-은 다음에	2과	◯◯-어지다 ◯◯-는 대신에	◯◯-을 뿐만 아니라 ◯◯-을 수밖에 없다
3과	◯◯-어요 ◯◯을/를	◯◯이나 ◯◯-어 보다	3과	◯◯-는지 알다 ◯◯-다가	◯◯-는 줄 알다, ◯◯-곤 하다
4과	◯◯에 가다 ◯◯에서	◯◯-을 수 있다/없 다 / 반말	4과	◯◯-을 만하다 ◯◯-어 가지고	◯◯-더니 ◯◯-은 나머지
5과	◯◯에 ◯◯이/가 아니예요	◯◯-으면 ◯◯-어서(순차)	5과	◯◯이나/밖에 ◯◯-는다고 하다	얼마나 ◯◯-는지 모르다 ◯◯-든지 ◯◯-든지
6과	◯◯부터~ ◯◯까지 안 ◯◯◯	◯◯◯-겠- ◯◯◯-을 때	6과	피동 ◯◯-자고 하다	◯◯◯-던 ◯◯◯-을 정도로
7과	◯◯-고 싶다 ◯◯-으세요	◯◯-을래요? ◯◯◯-으니까	7과	◯◯-으라고 하다 ◯◯◯-냐고 하다 ◯◯만큼	<b>◯◯-되(6급)</b> ◯◯-었더니
8과	◯◯하고 ◯◯ ◯◯◯-습니다/-습니 까?	◯◯-기 전에 ◯◯-기로 하다	8과	사동 ① 사동 ②	◯◯◯-는다면서요? ◯◯-을 겸 ◯◯-을 겸
9과	◯◯◯-있- ◯◯도	◯◯◯-을 것 같다 ◯◯-는	복습 1		
복습 1			9과	◯◯◯-어서 그런지 ◯◯-나요?, ◯◯-은가 요?	◯◯-을 뻔하다 ◯◯으로 인해
10과	◯◯-으시- ◯◯-지만	◯◯◯-는데 ◯◯◯-기 때문에	10과	◯◯-기 위해서 ◯◯-어 놓다	◯◯-고 말다 ◯◯◯-는 척하다
11과	◯◯에게/한테/께 ◯◯-어 주다	◯◯-게 ◯◯-으면서	11과	◯◯◯-는 데다가 ◯◯◯-는다	◯◯조차 ◯◯◯-기 마련이다
12과	◯◯-을 거예요 ◯◯◯-고(나열)	◯◯-은 적이 있다 ◯◯◯-는 편이다	12과	◯◯◯-어도 ◯◯-게 되다	◯◯-나 보다, ◯◯-은 가 보다 ◯◯이야말로
13과	◯◯으로(수단) ◯◯-으러 가다/오다	◯◯-으려고 하다 ◯◯-어야 되다	13과	◯◯◯-게 하다 ◯◯-어 가다	◯◯-는 한 ◯◯-도록
14과	◯◯-을까요? 못 ◯◯	◯◯-어도 되다 ◯◯-으려면	14과	◯◯◯-잖아요 ◯◯◯-어야	◯◯◯-으므로 ◯◯은커녕
15과	◯◯◯-네요 ◯◯보다	◯◯-고 있다 ◯◯-은	15과	◯◯-으려던 참이다 ◯◯-자마자	◯◯-다시피 ◯◯-는 법이다
16과	◯◯◯-어서 ◯◯-는 것	◯◯-을 ◯◯◯-거든요(이유)	16과	◯◯◯-을 텐데 ◯◯-어 있다	◯◯◯-을지도 모르 다 ◯◯치고
17과	◯◯으로(방향) ◯◯-지 마세요	◯◯◯-으면 좋겠다 ◯◯에	복습 2		
18과	◯◯◯-지요? ◯◯◯-는데(대조)	◯◯-는 게 어때요? ◯◯-어 보이다	복습 2		
복습 2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는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고 밝힌바, ‘국제 통용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문법 목록 안에서 충실히 반영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제 통용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양적인 면과 등급화 면에서 문제점이 보인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에서는 한 단원당 2~3개의 문법을 다루고 있고 문법 항목의 수는 초급이 72개(1단계: 36개, 2단계: 36개), 중급이 67개(3단계: 34개, 4단계: 33개)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 통용 교육과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 교육과정 비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등급	문법 항목 수	수준별	단계	문법 항목 수	수준별 누적	등급 비교	급별 누적 항목 수
1급	45	90	초급1 (1단계)	36	72	1급 문법: 29 <sup>108)</sup> 2급 문법: 7	초급: 66개 중급: 6개
2급	45		초급2 (2단계)	36		1급 문법: 9 2급 문법: 21 3급 문법: 6	
3급	67	134	중급1 (3단계)	34	67	2급 문법: 4 3급 문법: 26 4급 문법: 3 5급 문법: 1	초급: 5개 중급: 54개 고급: 8개
4급	67		중급2 (4단계)	33		2급 문법: 1 3급 문법: 6 4급 문법: 19 5급 문법: 6 6급 문법: 1	
합계	224	224		139	139		

위의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양적인 면을 보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에서는 전체적으로 국제 통용 교육과정 문법의 62%(139/224)를 다루고 있는데, 그중 초급에서는 80%(72/90)를 다루고 있는 반면, 중급에서 50%(67/134)밖에 다루지 않는다. 특히, 교재에 제시된 문법 항목의 세부 구성을 보면 ‘국제 통용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초급 문법 항목은 초급 교재에서 73%(66/90)를, 중급 항목은 중급 교재에서 40%(54/134)밖에 다루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중급 2(4단계)에서는 4급 문법 항목을 28%(19/67), 5급(-을 만하다, -는 데다가, -곤 하다, -은 나머지, 조차, -기 마련이다, -은가 보다, -는 법이다)과 6급(-되) 문법을 합하여도 39%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초급의 문법 수가 적을 경우에는 표현에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담화 구성이 어려워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물론 4단계에서의 ‘생활과 경제,

108)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1-4권)의 등급별 문법 수는 1급이 38개, 2급이 33개, 3급이 38개, 4급이 22개, 5급이 7개, 6급이 1개로 나타났다.

선거와 투표’ 등과 같은 주제<sup>109)</sup>는 5단계(한국 사회 이해)와의 연계성 때문에 문법과 어휘의 수준이 4단계를 유지할 수 없는 요인이다.<sup>110)</sup>

다음으로, 제시되는 문법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언어 자료여야 하는바, 실제 한국어 환경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교재에서 제시되는 문법이 실제 사용으로의 전이와 적용성이 높아야 한다고 볼 때 중급 2(4단계)에 제시된 연결어미 ‘-되’는 학습들이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 직접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문법 형태의 실제성<sup>111)</sup>은 사용의 빈도와 관련된 문제(방성원, 2003:289)로서 실제 담화 상황에서 연결어미 ‘-되’는 빈도가 낮으므로 고급 이상 단계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문법 교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사소통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핵심 문법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모든 문법을 학습자에게 가르칠 필요는 없다(강현화, 2020:191). 의사소통 능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 기술뿐만 아니라 이들 언어 기술과 관련되어 말이나 글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최윤곤, 2020). 다음은 교재에서 제시되어 있는 담화 예문 및 활동의 예이다.

<표 33> 담화 예문 및 활동의 예

<담화 예문>	가: 쉬는 시간에 밖에 다녀와도 돼요? 나: 밖에 다녀오되 늦지 않도록 하세요.
<말하기 활동>	<p><b>2.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b></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border: 1px solid green; padding: 5px; width: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가 더부룩한데 아침을 안 먹어도 돼요?</li> <li>• 보고서를 이메일로 제출해도 돼요?</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width: 40%; text-align: center;">                 그러면 건강에 안 좋아요. 아침을 먹되 소화가 잘되는 것으로 드세요.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div>

따라서 문법을 선정할 때 ‘문어 문법’, ‘구어 문법’의 구별이 필요하고 교육과정이나 교재에 반영되어야 한다(강현화 외, 2016:107). 또한 중급 1에 비해 중급 2의 문법의 난이도가 높아 적절하게 단계화가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sup>112)</sup> 그러므로 문법 교수요

109) ‘경제, 선거, 법과 질서’는 국제 통용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5급의 주제로 분류하고 있다. 단원별 문법 항목의 배열은 주로 주제를 중심으로 배열한 것으로 파악된다.

110) 주제가 문법과 어휘 항목의 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당연히 중급 2(4단계)의 수준보다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111) 실제성은 ‘주제의 실제성’, ‘과제의 실제성’, ‘언어 자료와 표현의 실제성’으로 나눌 수 있다.

112) 중급 1에서는 3급 문법이 26개로 76.4%를 차지하는 반면, 중급 2에서는 4급 문법이 19개로 55.9%를 차지한다. 또 중급 1에서는 4, 5급 문법이 4개로 11.8%, 중급 2에서는 5, 6급 문법이 7개로 21.2%를 차지한다.

목을 선정할 때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문법 항목을 선정해야 효율적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사실 400시간은 국내 정규 기관이나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초급(2급) 단계를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자는 415시간을 배운 후 한국어를 도구로 고급 한국어 수준인 한국 사회 이해(5단계)의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바, 여기에서 이미 5단계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113)</sup>

## 르. 어휘

교재에서 어휘는 주제와 관련하여 의미장으로 묶어서 제시하고 있으며, 간단한 연습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익힌 어휘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의미 관계에 기초한 어휘 교수는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덜어 결과적으로 많은 양의 어휘를 학습하게 한다. 또한 학습자를 위한 어휘 체계에 기초한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하므로, 학습자의 어휘력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확대도 효과적이다(강현화, 2021a:74).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어휘는 1급 735, 2급 1,100, 3급 1,655, 4급 2,200개이다. 이 어휘 수는 한 등급을 200시간으로 배분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에서는 시수는 각 등급을 100시간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휘 수에 비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sup>114)</sup> 이미혜 외(2018)의 설문 조사<sup>115)</sup> 결과에 따르면 ‘4급(중급2)은 어휘가

113) 김중섭 외(2017:17)에서는 교육 시간이 72시간일 때, 100시간일 때, 200시간일 때로 나누어 언어 지식과 언어 기술 및 문화의 교육 비중을 논하였는데, 전체 교육 시간은 다르더라도 해당 등급의 언어 지식(어휘, 문법, 발음)은 비슷하게 배운다고 보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단계별 100시간 교육은 200시간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언어 지식적 측면에서는 유사하고 언어 기술(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활동과 문화와 관련한 시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4)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과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의 등급별 어휘 수는 다음과 같다.

등급	국제 통용 한국어 교준 교육과정(2017)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어휘 수	어휘 수
1급	735	438
2급	1,100	420
3급	1,655	420
4급	2,200	709
계	5,690	1,987

너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2020년에 개편된 교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급 2(4단계)의 제12과 선거와 투표(선거 어휘), 제14과 생활과 경제(경제 관련 어휘) 단원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연구(2017)에서도 숙달도가 6급에서 다루는 주제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휘도 마찬가지로 고급 단계에서 다루어진다.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거 관련 어휘 중 ‘후보자’, ‘공약’, ‘유권자’, ‘개표’, ‘지지율’과 경제 관련 어휘 중 ‘호황’, ‘불황’, ‘급등’, ‘침체’, ‘불안정’은 국제 통용 어휘 목록에서는 6급의 어휘로 분류하고 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특히 4단계에서의 ‘경제와 생활, 선거와 투표’ 등과 같은 주제는 5단계 수업을 고려한 주제로서 학습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숙달도보다 높아서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투표권이 없고, 모국의 정부 체제나 정치 상황이 한국과 다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 의사소통 상황으로 이어질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동기화를 유발하기 어렵다.

#### ㉑.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쓰기

의사소통 교수법의 발달에 따라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네 영역 간의 통합 교육도 보편화되었다(백아영 외, 2013:441). Brown(2001)에서는 통합 교육의 풍요로움이 학습자들에게 더 강한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고 본다.

말하기는 모범 대화문을 활용하여 대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습을 거친 후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유로운 대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말하기 연습은 모범 텍스트이므로 너무 길이가 길면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데, 순서 교대 횟수로 보면 2~3회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목표 문법과 어휘를 한 대화문에 담다 보니 자연스러움이 부족하다. 이는 배운 문법과 어휘를 활용하여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것에서 기인하는 면도 적지 않은데, 문법과 어휘의 양을 늘려야 함을 시사한다.

초급의 듣기는 말하기와 유사한 상황과 화제를 활용하여 듣기 단계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급의 듣기는 단원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담화 듣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듣기 전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내용을 예측하는 전략을 기르도록 구성되어 있다.

---

115) 2018~2020년에 교재 개편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2021년부터 개편된 교재가 사용되고 있다.

다. 읽기는 단원의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텍스트(메모, 문자 메시지, 광고, 신문기사 등)를 제시하였으며, 읽은 내용에 대한 확인 연습으로 선다형, 연결형, 진위형, 빈칸 채우기, 단답형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초급(1, 2)에서 ‘약 봉투’ 읽기나 외국인에게 꼭 필요한 비자 관련 ‘통합 신고서116’ 읽기 등 학습자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가능성이 높은 텍스트가 제시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급에서 단원별로 읽기 텍스트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점은 개선해야 할 점이다. 쓰기는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술인데, 초급은 읽기와 유사한 내용이나 형식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통제된 쓰기와 유도된 쓰기 형식을 활용함으로써 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급은 쓰기 전에 쓸 내용에 대한 생각을 쓸 수 있는 단계를 포함함으로써 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들이 4단계를 이수하려면 중간 평가에 합격해야 하는데, 중간 평가에서는 단계 평가와는 다르게 제시된 주제에 대해 100자 원고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쓰기를 해야 한다. 한국어 수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학습자 집단을 위한 고려로써 수업 시간에 써 보고 교사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한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 B. 문화와 정보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문화를 선정하여 설명하고 시각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세 개의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 세 개의 질문 중 마지막 하나는 문화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민자의 문화 소개하기, 자신의 경험 이야기하기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상호 문화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특히 이러한 질문은 4단계 종료 후 치르게 되는 중간 평가의 ‘구술 시험’과 연계된 것으로 이민자들을 위한 배려이다.

또 특정 지역의 이민자들에게만 유용한 문화 내용,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내용은 지양하고 지역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급 1(3권 3과)의 ‘문화와 정보’에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를 소개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18개 지역에 불과하다. 문화와 정보의 내용은 ‘단계 평가’의 시험 내용으로도 출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특정 학습자 집단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내

---

116) 통합 신고서는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여러 종류의 신청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만든 신고서이다.

용을 선정해야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장인은 크게 전문 인력과 비전문 인력으로 나뉘는데 ‘한국 회사의 직위’ 체계에 대한 설명은 전문 인력인 사무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장’, ‘반장’ 등 생산직에서 사용하는 직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은 앞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다.<sup>117)</sup>

이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의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어를 도구로 일상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은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sup>118)</sup>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교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초급에서는 이주민이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80%가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산업 재해를 당한다는 보고를 감안하면 초급 단계부터 직장 생활 중 특히 산업 안전 관련 내용이 꼭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들이 4단계를 마쳤을 때 3.8급에 도달하려면 중급 어휘와 문법의 양을 늘려야 한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문법 항목 수는 224개인데 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는 139개에 그치고 있다. 문법 학습량이 적으면 교재 내에서 자연스러운 담화 예문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는 5단계 (한국 사회의 이해)를 고려하여 4단계부터 ‘선거’, ‘경제’ 등 고급에서 다루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sup>119)</sup> 그러나 5단계는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과정이므로 근로자들의 참여율은 높지 않다. 5단계와의 연계를 고려하는 대신 중급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어휘와 문법이 더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 필요한 직장 문화를 학습하는 데도 비중을 두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머무는 장소는 근로 현장이고 주 대화 상대자는 직장의 상사 및 동료들로 다른 이민자 집단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되

117) 한국어 교사 C는 수업 시간에 직위를 배울 때, ‘조장’ ‘반장’은 왜 없는지, ‘반장’과 ‘과장’이 같은 직급인지를 묻는다고 하였다.

118) 일상생활 중 통신(휴대폰 구입 등), 주거(전월세 계약 등)와 관련된 내용은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보통 근로자들은 입국해서 휴대폰을 바로 구입하기보다는 유심칩을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기기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19) 고급에서 다루는 주제를 중급 2에서 다루게 됨으로써 결국 그만큼 중급 단계에서 배워야 할 문법과 어휘를 배우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어야 한다.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이 단기 순환 원칙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만큼 단순 근로자로 머물지 않도록 용접이나 자동차 정비, 굴삭기 운전 등과 같은 자격증 취득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 4.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1장에서 밝혔듯이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며 그 과정에서 한국어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의 학습 환경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앞 장에서 보았듯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오려면 모국에서 EPS-TOPIK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근로자들이 시험 자체를 위해 한국어를 공부한 탓에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EPS-TOPIK 합격 후 현지에서 받는 ‘입국 전 교육’에서도 한국어 수업이 겨우 40시간 정도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바, 입국하자마자 바로 사업장에 배치되는 상황으로 볼 때, 의사소통의 부재로 안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입국하여 취업한 후에는 한국어 교육이 근로자의 자비에 맡겨져 있는데, 야간이나 주말에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수업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한국어 표준교재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재의 교육 내용도 안전과 관련한 것 등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없거나 부족하였다. 이에 2023년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일하게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조업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을 제안한다. 이 장에서는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바,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문 조사와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의 경우 시스코웹엑스(Cisco Webex)를 이용한 1:1 비대면 면접, 전화 면접, 대면 면접, 표적 집단 면접법(FGI) 등의 조사 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다.<sup>120)</sup> 요구 조사 대상은 비전문 취업(E-9)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및 관리자, 한국어 교사 등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120) FGI는 계획 단계에서는 없었으나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절차와 세부 내용은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 4.1. 요구 조사

### 4.1.1. 요구 조사 방법 및 절차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표 34> 연구 방법 및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 연구</li> <li>• 설문 항목 추출</li> </ul>
2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설문지 작성 및 검토</li> </ul>
3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설문지 작성 및 번역</li> </ul>
4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 조사</li> </ul>
5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지 통계 처리 및 분석</li> <li>• 심층 면접</li> </ul>
6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 해석</li> </ul>

먼저 1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요구 조사를 위하여 이론적 검토 및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설문 문항을 추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추출한 설문 문항으로 2차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박성수(2006), 이미혜 외(2018), 김수복(2021)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1차 ‘설문지’는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였고 3단계에서는 2차 설문 항목 및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번역을 진행하였다. 번역은 송출 규모를 고려하여 총 6개국(네팔,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으로 한정하였다.<sup>121)</sup> 4단계에서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구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 조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23년 10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이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전화로 설문 조사 협조를 요청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응답은 학습

121) 설문을 의뢰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학습자가 많은 국가를 선정하여 필리핀(영어),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크메르어), 네팔, 우즈베키스탄 언어로 번역하였다.

자의 경우 89개의 응답 중 중복 제출된 응답을 제거하고 유효한 응답으로 75개이며, 고용주 및 중간 관리자, 교사는 각각 12개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응답은 IBM SPSS Statistics v24로 빈도 분석, 기술 통계 분석,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고 복수 응답을 허용한 문항에 대해서는 다중 반응 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및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접은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연구에서는 파악하기 힘든 내용을 추가로 질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외국인 근로자는 시스코웹엑스(Cisco Webex)를 통한 온라인 인터뷰로 진행하였고, 고용주와 관리자의 경우 전화 면접으로, 교사는 대면 면접으로 진행하였다. 심층 면접은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되었다.

### 4.1.2. 요구 분석 도구

요구 분석을 위한 정보 수집 방법으로 Richards(2001:60-63)가 제시한 설문지(Questionnaires), 면접(Interviews)을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학습의 당사자인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어 교사,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혹은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를 각각 제작하였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주제와 기능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바, 주제와 기능 중 학습자의 요구도가 높은 항목들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에서 제시한 목록과 선행 연구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재를 참고하고 관계자(외국인 근로자 및 한국어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를 파악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에서는, 주제는 17개 범주 85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능 및 과제는 5개 범주 52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한국어 교육과정에 고급 과정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5급 이상에서 다루는 주제 및 기능 범주는 제외하였다. 대신 13개 범주 중 ‘일과 직업’ 범주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항목인 ‘취업’, ‘직장 생활’, ‘안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항목을 추가하고 다시 하위 항목을 제시하였다. 기능 범주는 고급인 5, 6급에서 수행이 가능한 항목은 제외하였다.<sup>122)</sup>

122) 5급의 기능 항목을 예로 들면 ‘태도 표현하기’ 범주의 ‘문제 제기하기’, ‘감정 표현하기’ 범주의

## 1) 양적 연구 방법

학습자에 대한 설문 항목은 인적 사항과 관련된 기초 정보, 한국어 학습,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 및 내용, 한국어 교재, 한국어 교육의 주제, 한국어 기능으로 나누어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세부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5> E-9 외국인 근로자(학습자용) 설문지 개요

구분	세부 조사 내용
기초 정보	성별, 나이, 국적, 체류 기간, 현재 단계
한국어 학습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기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경로 한국어 학습 동기 한국어 학습 요일 및 시간 한국어 학습 시 어려움 적정 수업 시간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목표 한국어 수준 고급 한국어 과정 필요 유무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 및 내용	한국어 사용 대상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 기술 직장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 기술 일상생활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 직장 생활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
한국어 교재	교재에 대한 만족도 교재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교재가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한국어
한국어 교육의 주제	한국어 교육의 주제 중 필요한 주제의 정도
한국어 기능	한국어의 기능 중 필요한 기능의 정도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 정보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내용이며 ‘한국어 학습’은 한국어 학습 목적 및 수준 등을 파악하고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체계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 및 내용’은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들의 언어 사용역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 대상과 장소 및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 기술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한국어 교재’는 교재에

‘심정 표현하기’ 등을 들 수 있다.

대한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어 교육의 주제와 기능’은 한국어 교육의 여러 주제와 기능 중 필요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고용주 및 관리자에 대한 설문 항목은 회사명과 관련된 기초 정보, 회사 내 외국인 과 외국인의 국적 수,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내용 등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다음과 <표 36>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36> 관리자용 설문지 개요

구분	세부 조사 내용
기초 정보	회사명, 직위
한국어 학습	근로자들과의 의사소통 방법 목표 한국어 수준 가장 필요한 한국어 요소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 어려운 점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내용
한국어 교육의 주제	한국어 교육의 주제 중 필요한 주제의 정도
한국어 기능	한국어의 기능 중 필요한 기능의 정도

한국어 교사에 대한 설문 항목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 학습자에게 필요한 한국어 내용, 주제, 기능 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과 맞춤형 필요성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표 37>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37> 한국어 교사용 설문지 개요

구분	세부 조사 내용
기초 정보	성별, 연령, 학력, 한국어교원자격증, 현재 수업 단계
한국어 학습	현재 수업 단계 학급당 근로자 비율 한국어 수업 시 어려운 점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 유무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교육 시 장단점 한국어 수업 시 중요한 요소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 및 내용	일상생활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 직장 생활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
한국어 교육의 주제	한국어 교육의 주제 중 필요한 주제의 정도
한국어 기능	한국어의 기능 중 필요한 기능의 정도

## 2) 질적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방법으로 얻은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을 피조사자들로부터 얻기 위하여 반구조화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은 각 집단별로 3-4명을 선정(외국인 근로자 4명, 고용주 및 관리자 3명, 한국어 교사 4명)하여 실시하였으며, 얻은 정보는 필요한 경우 주로 각주로 처리하였다. 면접 대상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38> 면접 대상자 정보

구분	면접 대상자	성별	기타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a	남	스리랑카 / 7년 /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b	남	네팔 / 7년 /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c	남	방글라데시 / 3년 /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d	남	베트남 / 4년 / 제조업
고용주 및 관리자	고용주 및 관리자 a	여	제조업
	고용주 및 관리자 b	남	제조업
	고용주 및 관리자 c	남	제조업
한국어 교사	한국어 교사 a	여	교원 1급 / 경력 5년 <sup>123)</sup>
	한국어 교사 b	여	교원 1급 / 경력 3년
	한국어 교사 c	여	교원 1급 / 경력 7년
	한국어 교사 d	남	교원 2급 / 경력 5년

123) 여기에서 경력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 경력을 의미한다.

## 4.2. 요구 분석 결과

### 4.2.1. 외국인 근로자 요구 분석 결과

학습자용 설문 의 대상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1단계~4단계)에 참여한 적이 있는 E-9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요구 조사 결과는 기초 정보, 한국어 학습 현황 및 한국어 학습 요구, 의사소통 상황, 한국어 교재, 한국어 교육 주제, 의사소통 기능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기초 정보

##### ㄱ. 성별



<그림 5> 성별 및 인원(학습자)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자의 성별 및 인원 분포를 보면 여자가 9.3%, 남자가 90.7%로 남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 주지하다시피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E-9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사람들이 꺼리는 3D 업종에 종사하는 데다가, 업종도 주로 제조업, 건설업 등에 배정된 인원이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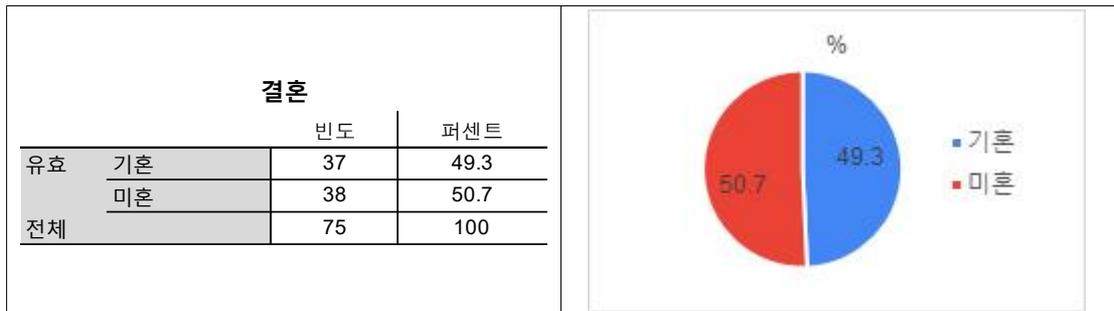
### ㄴ. 연령



<그림 6> 연령(학습자)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20대가 30.6% 30대가 58.7%, 40대가 10.7%로 20~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0대의 경우는 재입국 특별 취업<sup>124)</sup> 제도 또는 특별 한국어 능력 시험 재취업 제도<sup>125)</sup> 등을 통해 재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로 입국한 사람들이다.

### ㄷ. 결혼 유무



<그림 7> 결혼 유무(학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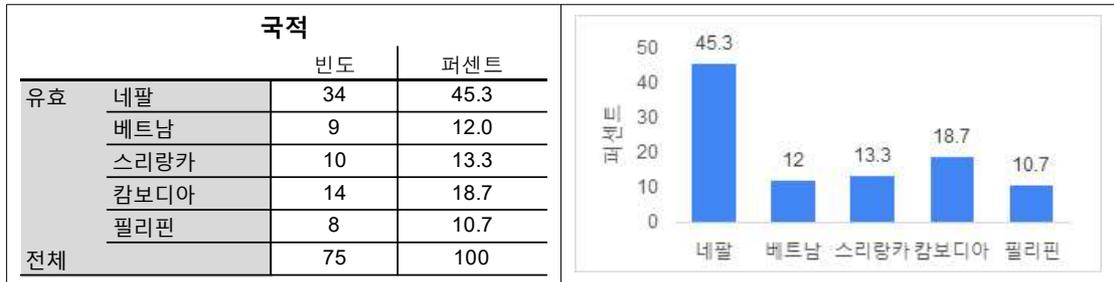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혼이 49.3%(37명), 미혼이 50.7%(38명)으로 거의 비슷하다. E-9 비자는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E-7<sup>126)</sup>으로 자격을 변경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124) 고용 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 활동 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면, 일시 출국하여 1개월 후에 재입국하여 일할 수 있다.

125) 고용 허가제(E-9)로 입국하여 3년간 취업 활동 후 재고용(1년 10개월 연장)되었다가 체류 기간 만료 전에 자진 귀국한 사람은 특별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면 재입국하여 일할 수 있다.

126) E-7은 가족을 동반할 수 있고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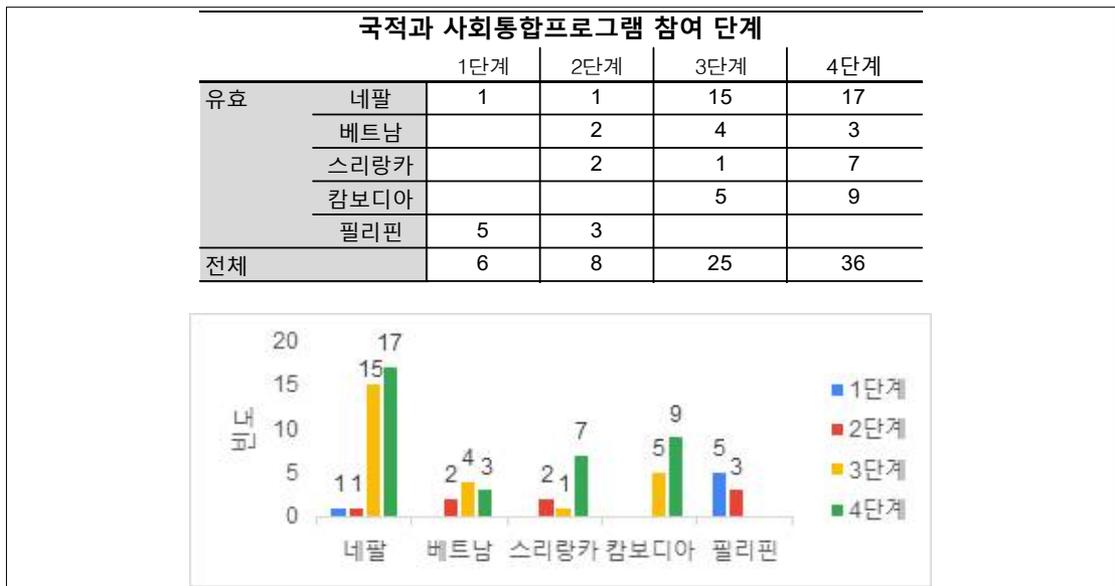
ㄹ. 국적



<그림 8> 국적(학습자)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자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네팔이 45.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캄보디아가 18.7%, 스리랑카 13.3%, 베트남 12.0%, 필리핀 10.7%로 나타났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질문에 응한 사람이 없었다.<sup>127)</sup>

ㄱ. 국적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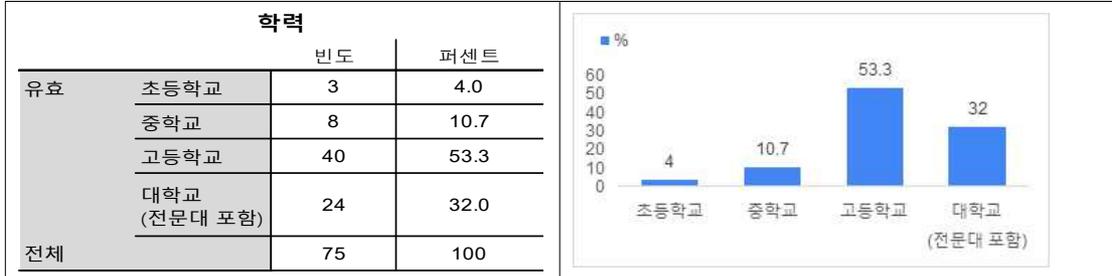
<그림 9> 국적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단계(학습자)

학습자의 국적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단계 분포를 보면, 네팔 학습자는 중급에 해당하는 3, 4단계가 많은 반면, 필리핀 학습자는 초급에 해당하는 1, 2단계만 있고, 중

127) 비전문 취업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네팔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캄보디아, 베트남>인도네시아> 필리핀>태국>미얀마>스리랑카 순이다(통계청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

급 단계는 없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필리핀 학습자가 초급 단계에 많이 분포한 이유로 한국어 교사 d(128)는 필리핀의 학습자는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숙달도가 낮아도 다른 나라 학습자에 비해 불편함을 덜 느끼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나. 학력



<그림 10> 학력(학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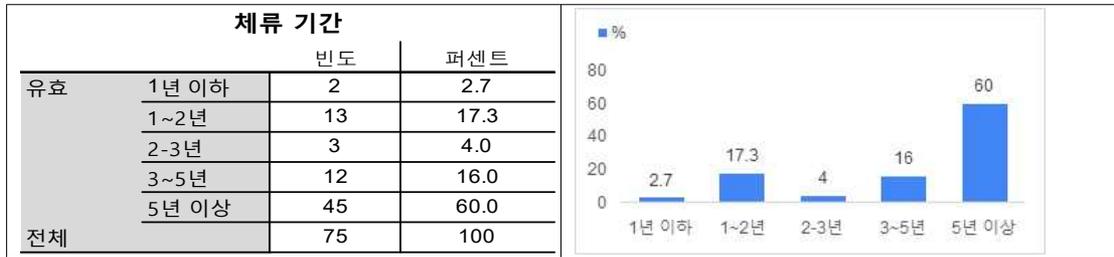
학습자의 학력을 보면 고졸이 53.3%로 가장 많고 대졸이 32%로 그 뒤를 이었으며, 중졸이 10.7%(8명), 초등학교 졸업이 4%(3명)로, 고졸 이상이 85.3%를 차지한다.<sup>129)</sup> 초졸 이하 학력이 10%가 넘고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박민정 외, 2020:87) 여성 결혼 이민자에 비해서는 학력이 매우 높은 편이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 실태 조사(2013년,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9%로 가장 많았고, 대학 졸업이 23.6%, 대학원 졸업 이상이 2.4%로 전체의 83.9%가 고졸 이상으로 조사되었다.<sup>130)</sup> 한국어 교사 b는 외국인 근로자의 학업 병행 허용과 관련하여 본인이 맡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인해 본바, 대부분이 한국에서 대학 진학을 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외국인 근로자들은 잠재적인 학문 목적 학습자로 볼 수 있으며, 고급 단계 개설 등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성인 학습자는 자신의 모국어 능력을 이용하여 외국어를 학습한다. 이러한 교육적 배경의 차이는 학습 진보 및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교사 c는 한국어 교실에서 여성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으면 대체로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학습자 집단이 근로자로 단일하다면 수업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sup>131)</sup>

128) 한국어 교사 d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근로자 반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종교 기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째 초급반을 맡고 있는데 학습자 대부분이 필리핀이라고 한다. 물론 종교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29) 고용 허가제는 연령(만 18세 이상~40세 미만) 제한은 있지만 학력 제한은 없다.

130) 외국인 근로자 취업 실태 조사(2013)는 비전문 취업 외국인 근로자 1,058명으로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한 대규모 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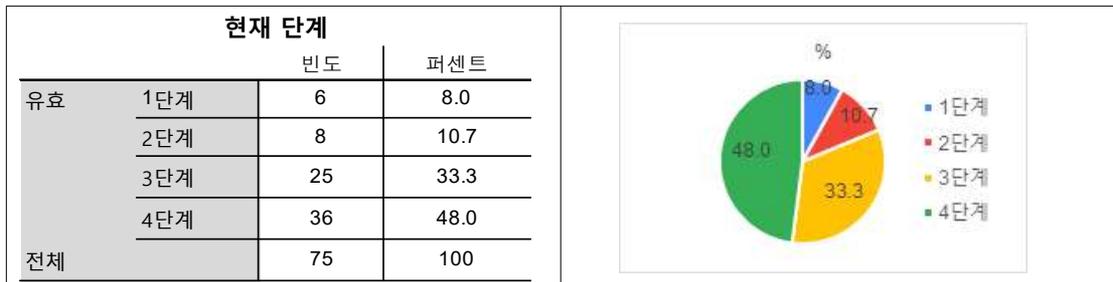
스. 체류 기간



<그림 11> 체류 기간(학습자)

학습자의 한국 체류 기간을 보면 5년 이상이 60%(로 가장 많고, 1~2년이 17.3%), 3~5년이 16%, 1년 이하 2.7%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는 재입국 특례 취업 제도 또는 특별 한국어 능력 시험 재취업 제도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된다.

오. 현재 단계



<그림 12> 현재 참여 단계(학습자)

학습자의 현재 단계는 4단계가 48.0%로 가장 많고, 3단계가 33.3%, 2단계가 10.7%, 1단계가 8.0%로 중급(3~4단계) 학습자가 더 많다.<sup>132)</sup> 외국인 근로자들은 EPS-TOPIK<sup>133)</sup>에 합격한 사람들이므로, 적어도 2단계 이상부터 시작하는 학습자가 많을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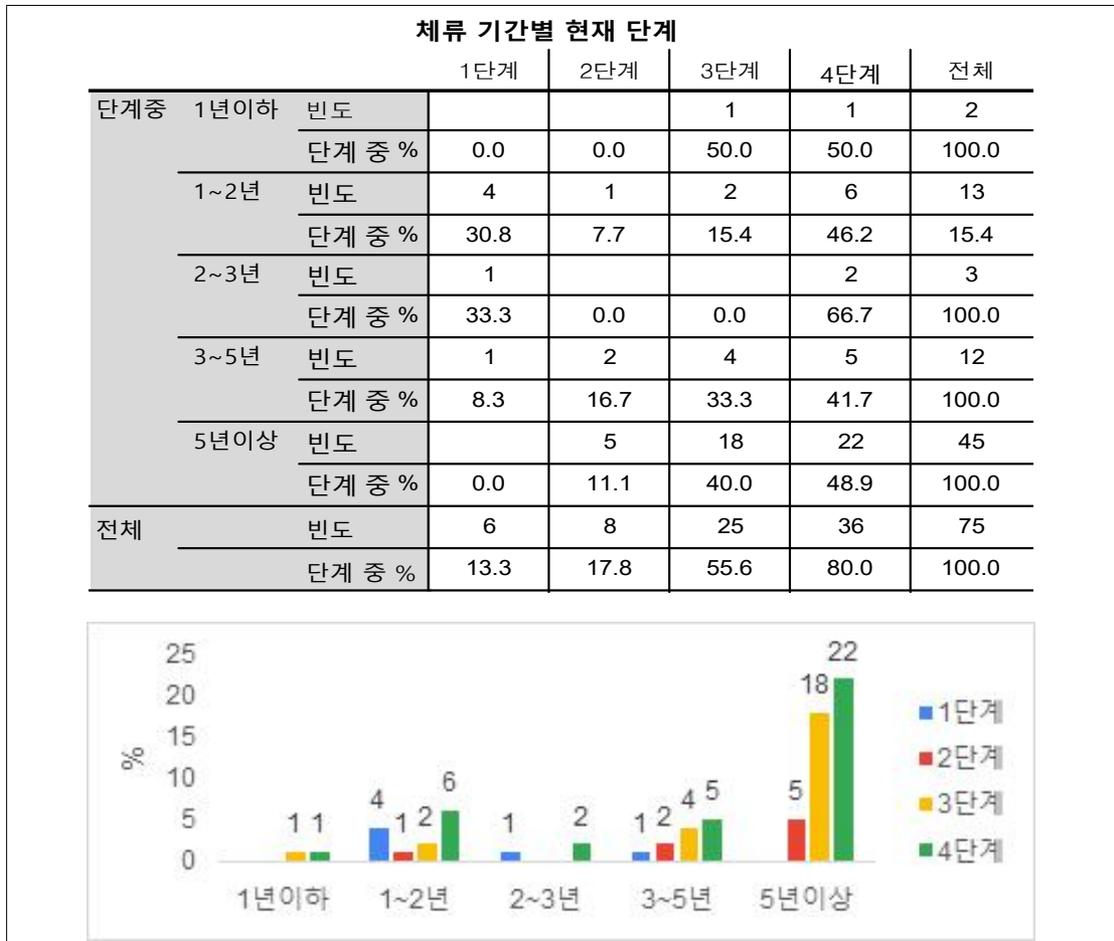
131) 교육의 효율성은 제한된 시간 안에 목표어를 얼마나 정확하고 유창하게 구사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김정숙, 2003:133).

132) 이미혜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 참여 단계 분포는 3단계 42.4% > 2단계 26.0% > 4단계 22.8% > 1단계 8.8% 순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도 중급(3, 4단계) 단계 참여자가 65.2%로 더 높다. 초급보다 중급 참여자가 많은 것은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결혼 이민사증 연계'를 통해 2단계부터 시작하고, TOPIK 연계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데, 보통 TOPIK 연계의 경우 보통 중급 이상부터 연계하는 경우가 많다. TOPIK 2급이 있으면 3단계로 연계가 된다.

133)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위한 한국어 표준 교재'는 몇 시간 수업을 전제로 한 것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략적으로 볼 때, 한 단원이 3~4시간 정도의 분량이므로 60개 단원을 학습하는데 180~240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국립국제교육원, 2016:55). TOPIK의 각 등급

예측되는바, 중급 학습자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전국 규모로 이루어진 이미혜 외 (2018)의 연구에서도 중급 과정에 참여 중인 학습자가 63.2%로 더 많았다. 이에 대해 교사 c는 교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TOPIK 시험을 보고 단계를 배정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TOPIK 시험도 EPS-TOPIK과 마찬가지로 말하기에 대한 평가가 없어서 토픽 2급을 가진 학습자라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국하면 바로 초급1(1단계)은 의무로 하여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ㄱ. 체류 기간과 현재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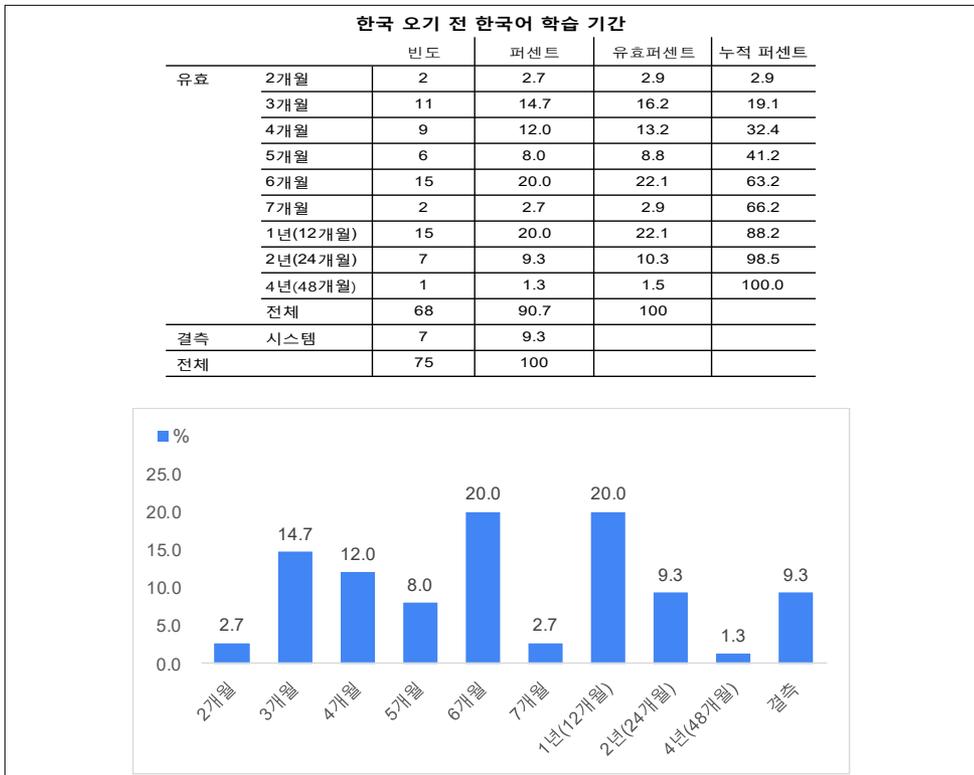
<그림 13> 체류 기간과 현재 단계(학습자)

을 200시간 수업을 전제로 볼 때, EPS-TOPIK 합격자는 1급 수준의 숙달도를 갖추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림 13>에서 체류 기간과 현재 단계를 살펴보면 5년 이상 체류자 중 초급에 해당하는 2단계가 5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11.1% 비율이지만 한국에서 5년을 거주하고도 초급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근로자 개인의 한국 생활 적응과 안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초급 1단계는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 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의 80%가 업무에 투입된 지 1년이 안 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입국 후 바로 산업 안전과 관련한 내용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 2) 한국어 학습 현황

### ㄱ.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 학습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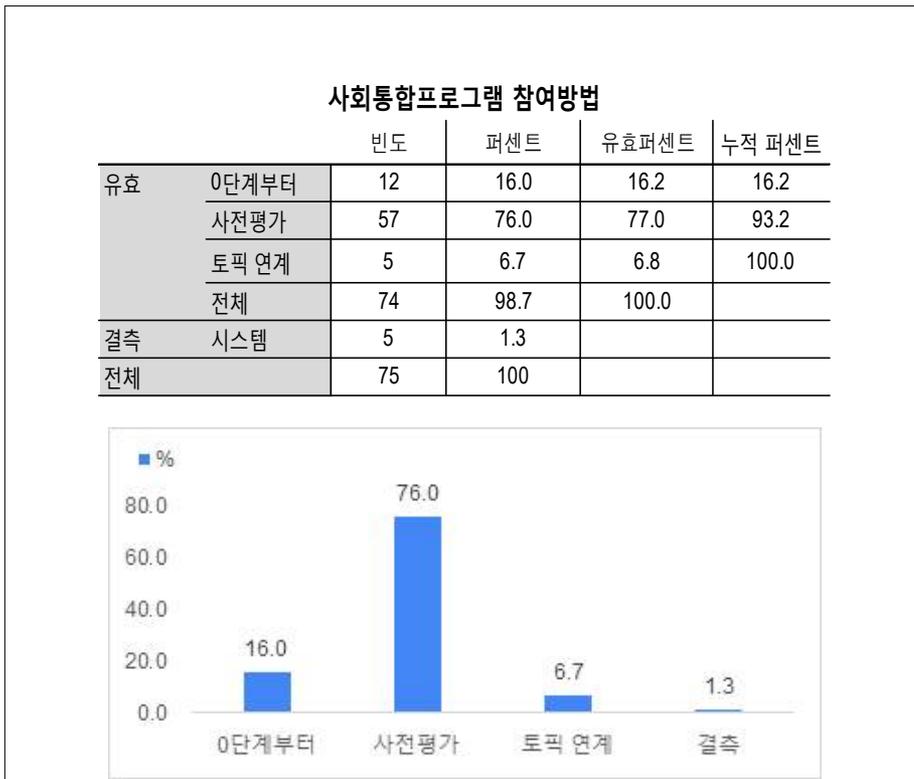


<그림 14>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 학습 기간(학습자)

<그림 14>와 같이 한국에 오기 전의 학습 기간이 6개월, 12개월이라고 답한 사람

이 각각 20.0%로 가장 높았으며 3개월이 14.7%, 4개월이 12.0%, 5개월이 8.0%, 7개월이 2.7%, 심지어 2개월이라고 답한 사람도 2.7%로 나타났다. 또 2년이 9.3%, 4년<sup>134)</sup>이라고 답한 사람도 1.3%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학습 기간이 2~6개월인 학습자가 전체의 57.4%를 차지한다.<sup>135)</sup> 외국인 근로자 취업 실태 조사(2013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자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7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개월 미만의 한국어 학습으로 초급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도 부족한 시간이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본인의 한국어 능력에 대해 ‘인사만 가능하다’고 밝힌 사람이 15.9%로 나타났다.

#### 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방법



134) 이런 경우는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학습자에게 확인한 결과, 유학을 위해 한국어를 준비한 경우였으며,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135) 김선정(2015:4)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중 EPS-TOPIK을 준비하는 동안 어학 기관을 통해 한국어를 공부한 경우가 49%, 혼자 공부한 경우가 25%, 세종학당에서 공부한 경우가 13%였으며, 집에서 혼자 공부한 사람 중 40%는 1개월, 36%는 1개월~3개월 동안 공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림 15>에서 학습자들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방법을 보면 사전 평가를 통해 학습 단계를 지정 받아 참여한 사람이 76%로 가장 높았으며, 사전 평가에 응하지 않고 0단계<sup>136)</sup>부터 시작한 사람이 16%, TOPIK 연계를 통해 참여한 사람이 6.7%로 나타났다. 0단계부터 참여하였다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이 거의 없다는 방증인데, 입국 전 송출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과 EPS-TOPIK의 실효성<sup>137)</sup>에 대해 점검해야 함을 시사한다.

---

136) 0단계부터 참여하는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인데, 평가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0단계를 신청하거나 사전 평가에서 구술 점수가 3점 미만인 경우 의사소통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0단계로 배정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평가에서 0단계를 배정 받은 학습자는 없었다.

137) EPS-TOPIK을 준비하는 동안 집에서 혼자 공부한 사람이 25%였고, 이들 중 40%가 1개월, 36%가 1개월~3개월 동안 공부했다고 대답하였다. 즉, 한국어 학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들이 76%에 달했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 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당시 한국어 수준이 매우 낮음을 보여 주며 의사소통의 문제로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선정, 2015:4).

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요일 및 시간



<그림 16>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요일 및 시간(학습자)

학습자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한국어 수업 시간을 살펴보면 주 1회 6시간을 공부한다는 대답이 38%로 가장 높고, 주 1회 8시간 공부한다는 대답이 26.8%로 그 뒤를 이었다. 주 1회 수업은 모두 대면 수업(오프라인)이고, 주 2회 수업은 모두 비대면(온라인) 수업이다. 대면 수업(64.8%)이 비대면 수업(35.2%)보다 많은 것은 현재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0~2단계까지는 비대면 수업을 허용하지 않고, 중급 이상 단계도 대면 수업을 권장하기 때문이다.

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목적



<그림 17>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목적(학습자)

학습자의 참여 목적은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살펴본 결과, ‘비자 변경 등 체류 허가 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가 22.5%, ‘한국인 직장 상사, 동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가 14.6%, ‘귀국 후에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가 11.3%,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9.9%로 나타났다. 이미혜 외(2018)에서도 ‘체류 허가 시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이 77.3%로 나타난바, 외국인 근로자들은 ‘비자 변경 시 혜택’을 받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㉔. 학습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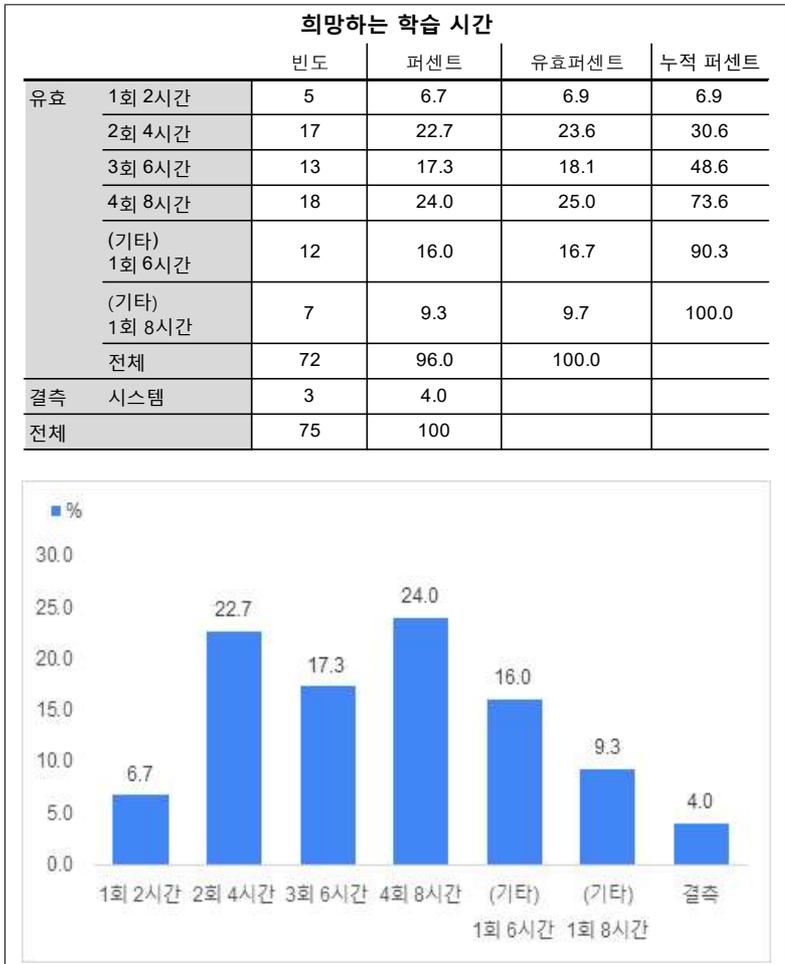
<그림 18> 학습의 어려움(학습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40.0%가 ‘교육기관이 멀어서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30.7%가 ‘일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이 외에 ‘주중에는 일을 하고 야간/주말에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16.0%), ‘모르는 것이 있어도 물어볼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9.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는 학습자들을 위하여 주말 수업을 더욱 확대하거나<sup>138)</sup>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sup>139)</sup> 제도를 정착시켜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모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 주말반을 여는 것은 아니다. G시의 경우 운영 기관 중 ‘가족 센터’는 주말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139) 조선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산업 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사가 학습자가 근무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집합 방문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ㄴ. 희망하는 학습 시간



<그림 19> 희망하는 학습 시간(학습자)

한국어를 일주일에 몇 회, 몇 시간을 공부하고 싶은가에 대한 대답으로 ‘4회 8시간’으로 대답한 사람이 24.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회 4시간이 22.7%, 3회 6시간은 17.3%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1회 6시간이 16.0%, 1회 8시간은 9.3%로 나타났다. 앞서 <그림 19>에서 현재 수업 참여 시간이 1회 6시간이 38%, 1회 8시간이 26.8%로 나타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데, 이것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괴리로 판단된다. 이를 볼 때 주당 8시간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야근, 잔업 등으로 한국어 수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이 주 4회 수업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교육과정 설계 시에는 주 1회 6시간 정도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나.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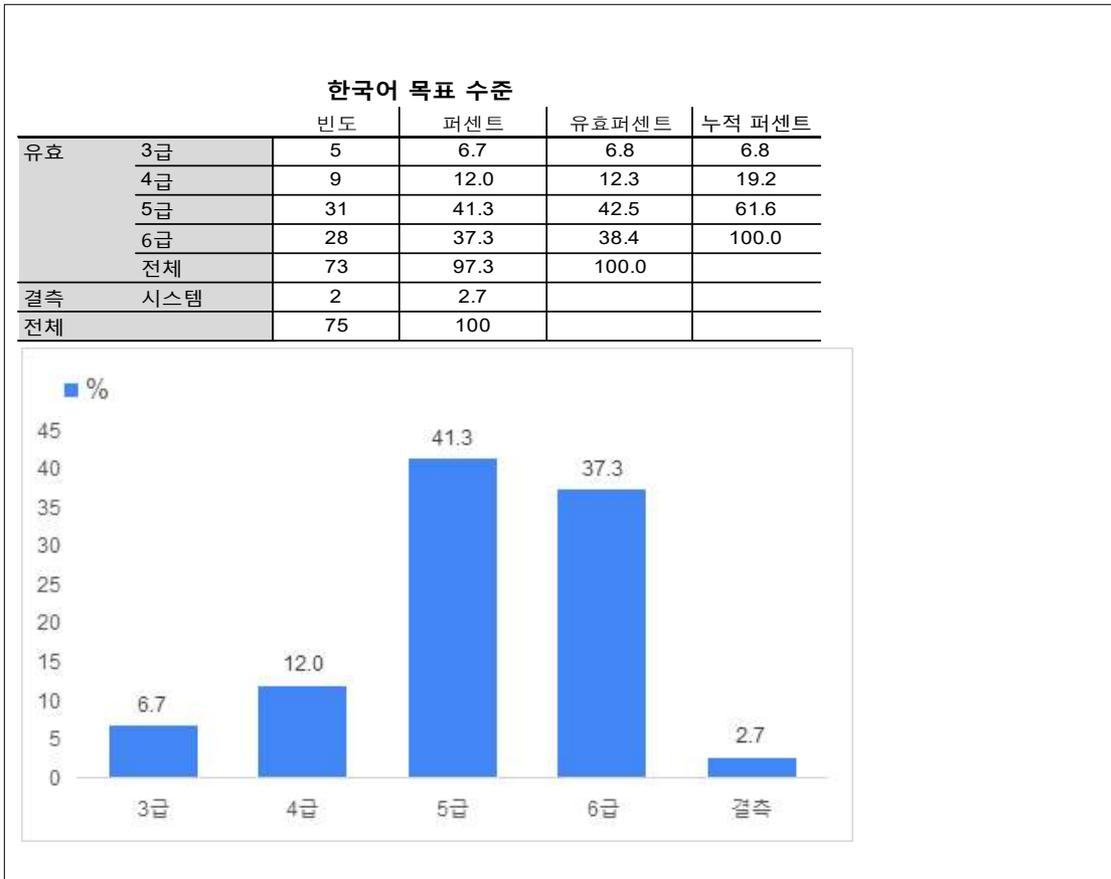


<그림 20>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과 이유(학습자)

학습자들은 근로자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92.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

며, ‘필요하지 않다’가 6.7%로 나타났다. 필요한 이유로는 ‘외국인 근로자끼리 모여서 공부하면 직장 생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가 6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sup>140)</sup> ‘외국인 근로자들은 관심이 다른 이민자(결혼 이민자, 유학생)와 다르기 때문에’(17.3%), ‘외국인 근로자들은 공부해야 하는 내용이 다른 이민자(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와 다르기 때문에’(6.7%)로 나타났다.

○. 한국어 목표 수준



<그림 21> 한국어 목표 수준(학습자)

학습자들의 목표어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5급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6급이 37.3%, 4급이 12.0%, 3급이 6.7%로 나타났다. 78.6%가 고급 수준까지 배우

140) 한국어 교사 a는 쉬는 시간에 외국인 근로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등급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 5장에서 교육과정 설계 시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다.

ㄱ. 고급 과정 개설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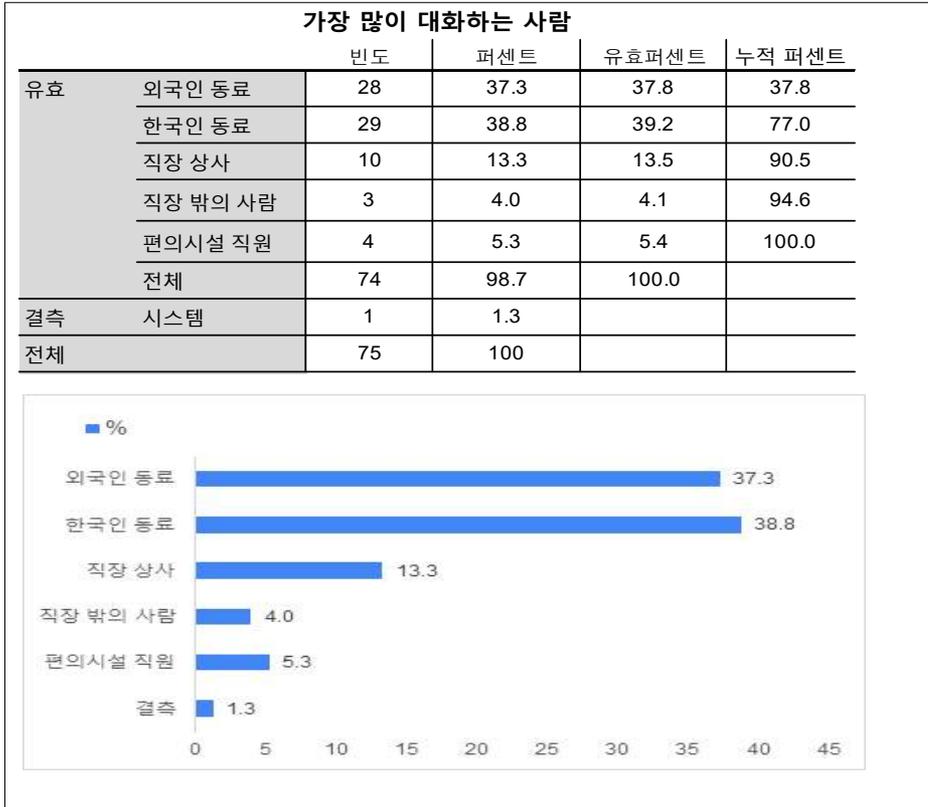


<그림 22> 고급 과정 개설 필요성(학습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고급 과정 개설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가 42.7%로 가장 높고, ‘보통이다’가 25.3%, ‘필요하다’가 22.7%, ‘조금 필요하다’가 4.0%, ‘불필요하다’가 5.3%로 나타났다. ‘매우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75.4%로, 앞선 조사에서 한국어 목표 수준이 ‘고급’이라고 답한 비율(78.6%)과 비슷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고급 과정’ 개설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 및 내용

#### ㄱ. 한국어로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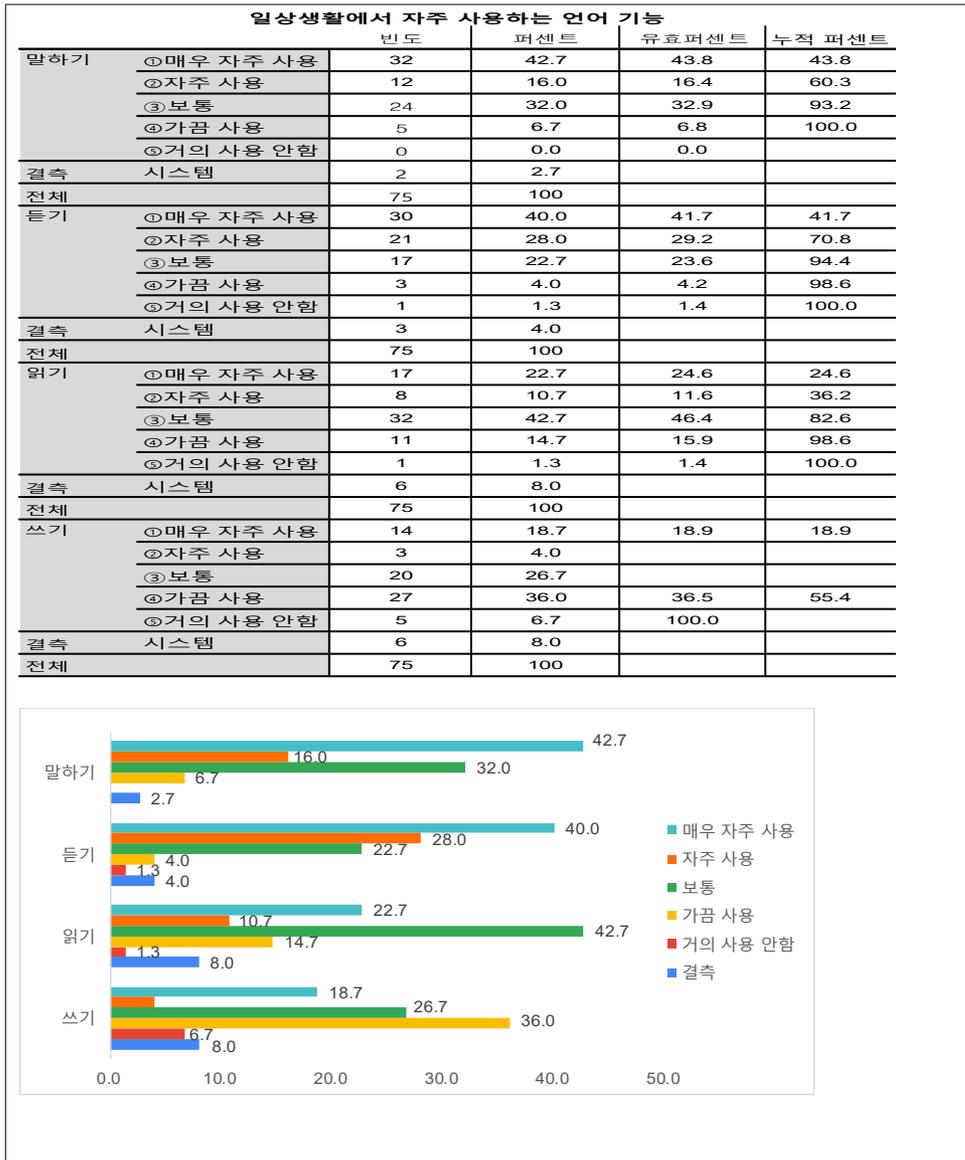


<그림 23> 한국어로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학습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대화하는 의사소통의 대상자는 한국인 동료가 38.8%로 가장 많고, 외국인 동료 37.3%, 직장 상사 13.3%, 편의 시설(슈퍼, 식당, 약국 등) 직원 5.3%, 직장 밖의 사람이 4.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어를 주로 직장 내에서 사용하고, 직장 밖에서는 사용 기회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 기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 기술에 대해 5점 척도로 답하게 한 결과 ‘말하기 (42.7%)’, ‘듣기(40.0%)’ 순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읽기(22.7%)와 쓰기 (18.7%)의 순으로 자주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선행 연구에서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2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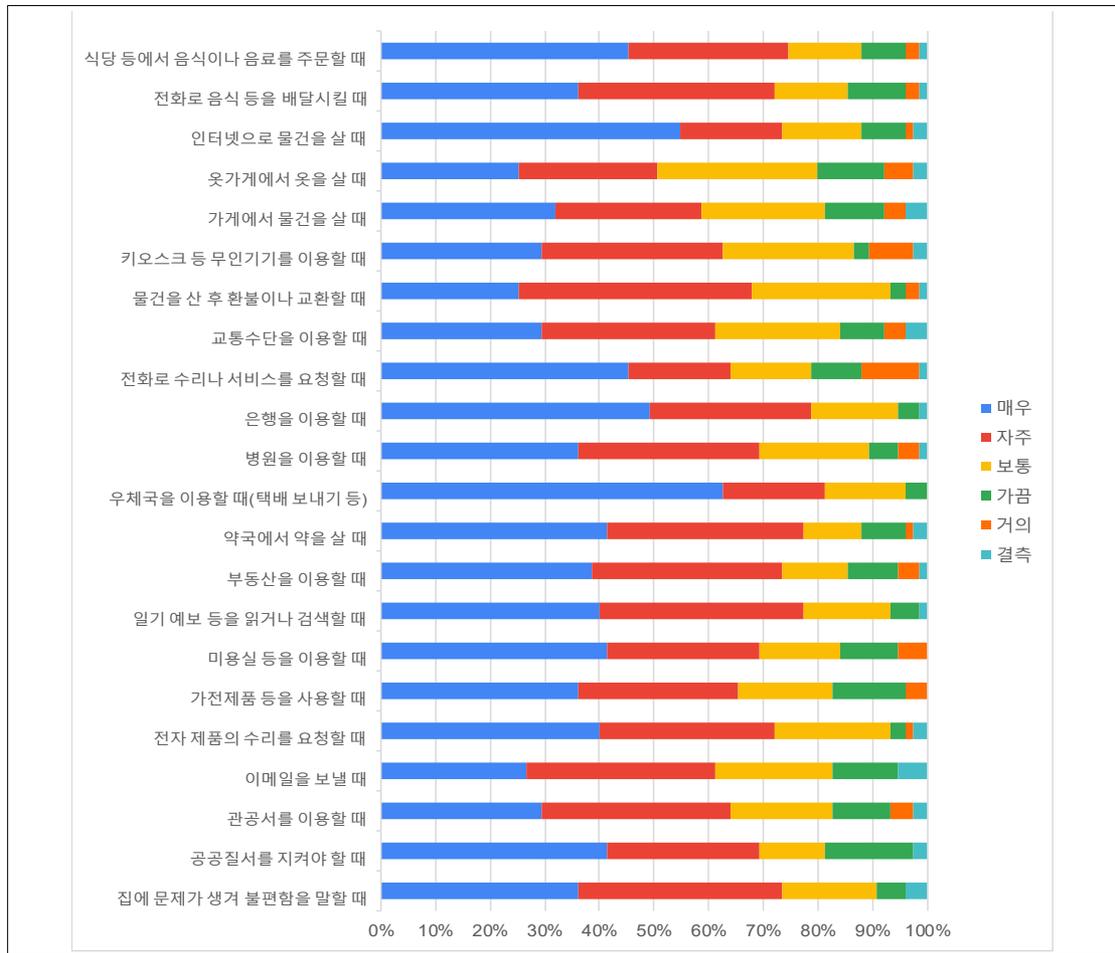


<그림 24>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 기술(학습자)

㉔. 일상생활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

<표 39> 일상생활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학습자)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		최소값	최대값	평균
<b>일상생활</b>	식당 등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할 때	2	5	4.1
	전화로 음식 등을 배달시킬 때	2	5	4.0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1	5	3.8
	옷가게에서 옷을 살 때	2	5	3.8
	가게(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살 때	1	5	4.1
	키오스크 등 무인기기를 이용할 때	1	5	3.8
	물건을 산 후 환불이나 교환할 때	1	5	3.9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택시, 버스, 지하철, 기차 등)	2	5	4.1
	전화로 수리나 서비스를 요청할 때	1	5	4.0
	은행을 이용할 때 (예금, 인출, 환전, 송금 등)	1	5	4.1
	병원을 이용할 때 (의사, 간호사와 대화)	2	5	4.4
	우체국을 이용할 때(택배 보내기 등)	1	5	3.9
	약국에서 약을 살 때	2	5	4.3
	부동산을 이용할 때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	1	5	3.8
	일기 예보 등을 읽거나 검색할 때	1	5	3.8
	미용실 등을 이용할 때	1	5	3.9
	가전제품 등을 사용할 때	1	5	3.8
	전자 제품의 수리를 요청할 때	1	5	3.8
	이메일을 보낼 때	1	5	3.5
	관공서를 이용할 때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1	5	4.2
	공공질서를 지켜야 할 때 (경로석 양보, 재활용 실천 등)	1	5	3.9
	집 (기숙사에 문제가 생겨 불편함을 말할 때)	1	5	4.1



<그림 25> 일상생활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 (학습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의사소통 상황이 무엇인지 22가지의 상황을 제시하고 필요 정도를 5점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결과를 순위대로 살펴보면 ‘병원을 이용할 때 > 약국에서 약을 살 때 > 관공서를 이용할 때 > 식당 등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할 때 > 가게(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살 때 등의 순으로 생존과 직결된 상황에서의 필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고되고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는 데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히 ‘이메일을 보낼 때’(3.5)가 중요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은 눈여겨볼 만한 점으로서, 교재를 개발할 때 반영되어야 한다.<sup>14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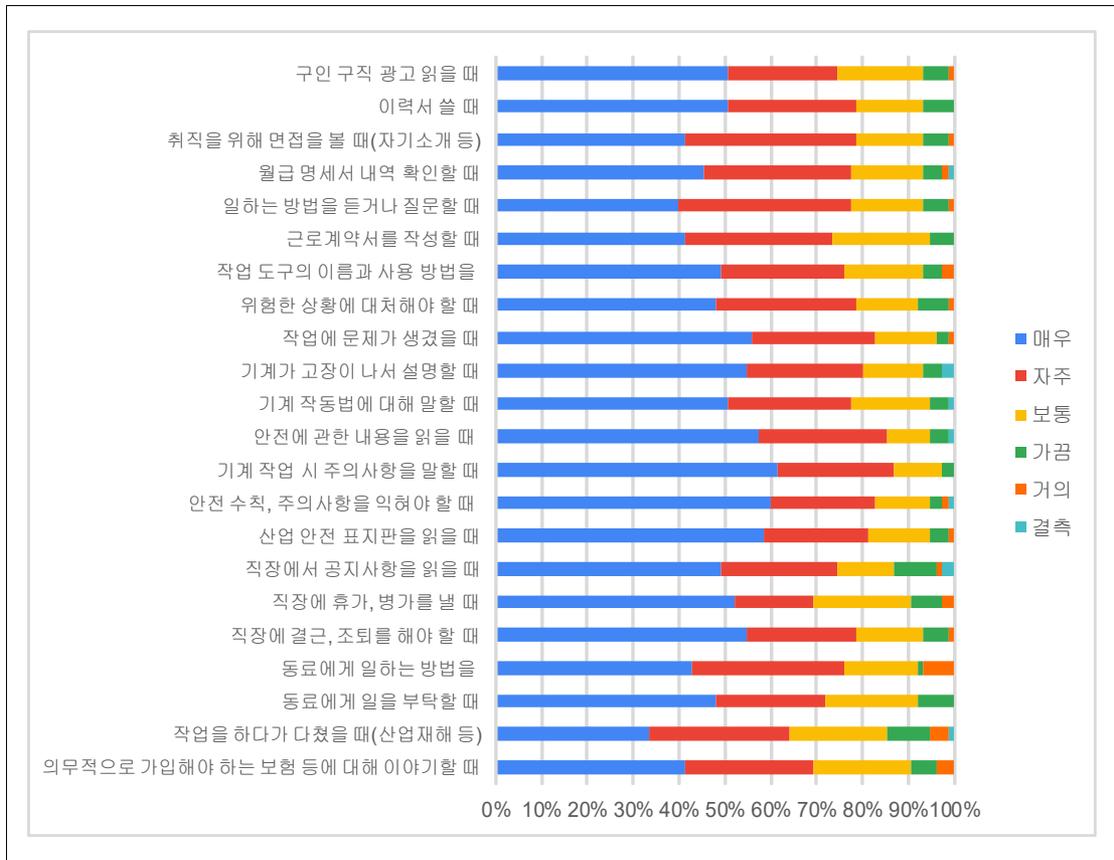
141) 이메일은 교재에서 읽기 텍스트로 자주 활용된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에서는 읽기 3급 목표 “복잡한 구조의 생활문(이메일, 초청장 등)을 읽고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라고

르. 직장 생활에서 한국어 필요한 상황

<표 40> 직장 생활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학습자)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b>직 장 생 활</b>	구인 구직 광고 읽을 때	1	5	4.0	1.095
	이력서 쓸 때	1	5	3.8	1.123
	취직을 위해 면접을 볼 때(자기소개 등)	2	5	4.1	0.993
	월급 명세서 내역 확인할 때	1	5	4.0	1.113
	일하는 방법을 듣거나 질문할 때	1	5	4.3	0.981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	5	4.1	1.110
	작업 도구의 이름과 사용 방법을 물어 볼 때	1	5	4.2	1.056
	위험한 상황에 대처해야 할 때	1	5	4.3	0.943
	작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1	5	4.4	0.898
	기계가 고장이 나서 설명할 때	2	5	4.5	0.788
	기계 작동법에 대해 말할 때	2	5	4.4	0.821
	안전에 관한 내용을 읽을 때	2	5	4.3	0.886
	기계 작업 시 주의사항을 말할 때	2	5	4.3	0.864
	안전 수칙, 주의사항을 익혀야 할 때	1	5	4.3	0.899
	산업 안전 표지판을 읽을 때	1	5	4.2	0.985
	직장에서 공지사항을 읽을 때	1	5	4.2	1.020
	직장에 휴가, 병가를 낼 때	2	5	4.1	0.912
	직장에 결근, 조퇴를 해야 할 때	1	5	4.1	0.941
	동료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배울 때	1	5	4.2	0.935
	동료에게 일을 부탁할 때	1	5	4.1	0.938
작업을 하다가 다쳤을 때(산업재해 등)	2	5	4.2	0.932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1	5	4.2	0.998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6> 직장 생활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학습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장 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의사소통 상황이 무엇인지 22가지의 상황을 제시하고 필요 정도를 5점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결과를 보면 앞서 살펴본 ‘일상생활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보다 대체로 중요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평균이 3점대인 상황이 12개인데 비해, ‘직장 생활’에는 2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20개 항목에 대한 필요 정도는 4.0~4.5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대부분 자주 필요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대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계가 고장이 나서 설명할 때’(4.5), ‘작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계 작동법에 대해 말할 때’가 각각 4.4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교수요목 설계 시 직장 생활의 비중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다.

#### 4) 한국어 교재

##### ㄱ. 한국어 교재 만족도(일상생활, 직장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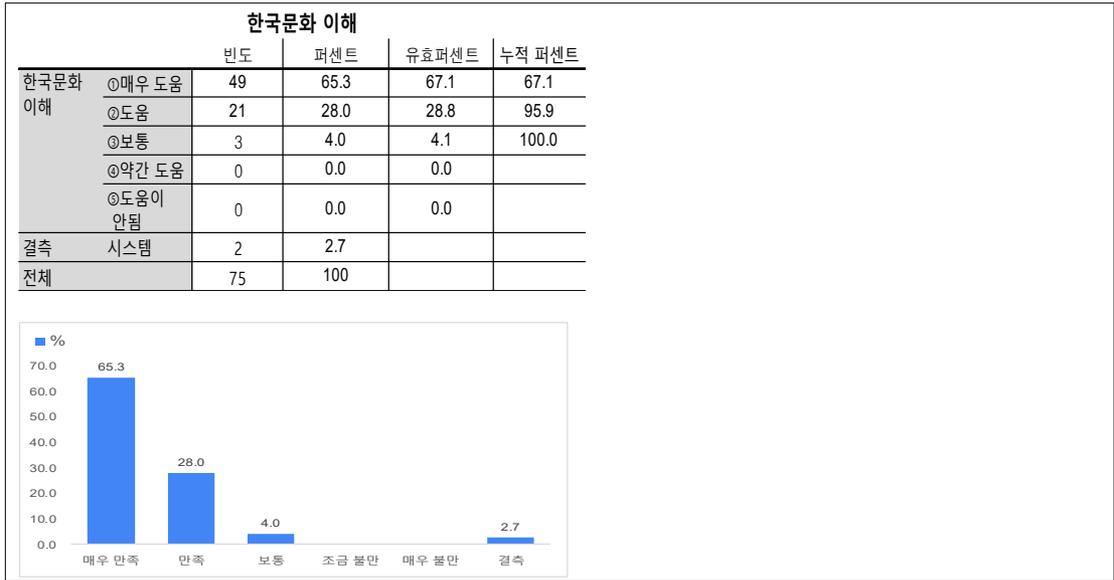


<그림 27> 한국어 교재 만족도 및 도움 정도(일상생활, 직장 생활)-학습자

현재 배우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68.0%, ‘만족’이 26.7%로 나타나 교재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생활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은 68.0%, 직장 생활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은 58.7%로 나타나 직장 생활보다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된다고 응답(96%)은 하였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내용이 부족하다(12명),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휘가 많다(14명)<sup>142)</sup>, 교재의 내용과 실제 생활의 대화가 다르다(4명)는 지적을 하였다.

#### ㄴ. 한국문화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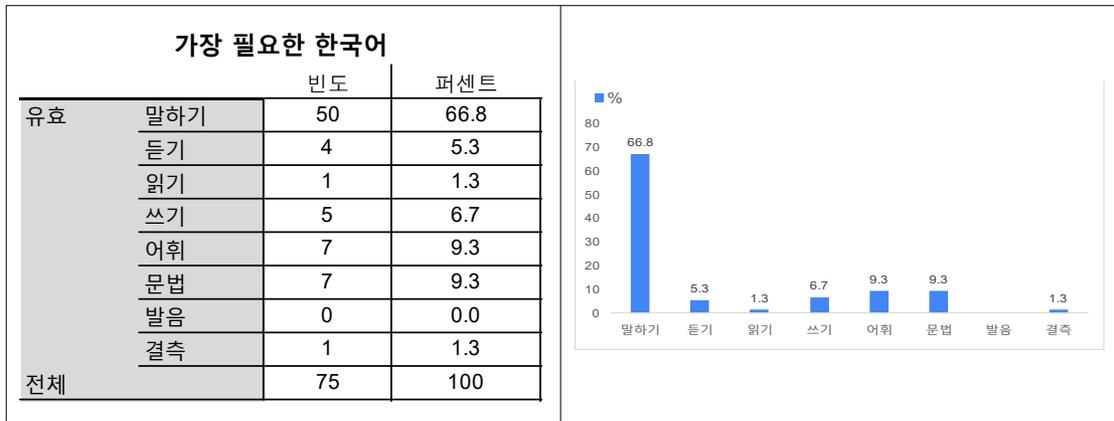
<그림 28> 한국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정도(학습자)

한국어 교재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매우 도움’이 67.1%, ‘도움’이 28.8%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된다고 응답(95.9%)은 하였으나, 일상생활 문화가 부족(11명), 문화의 내용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없는 것<sup>143)</sup>(5명)이라고 답하였다.

142) 이에 대해 근로자 a는 4단계의 ‘선거와 투표’를 들며 정치 체제가 다르기도 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어서 배경지식도 없고 사용할 기회도 없어서 어렵다고 하였다.

143) 근로자 a, b, c 모두 한국 거주 기간이 3년이 넘었지만 한국에서 결혼식, 집들이에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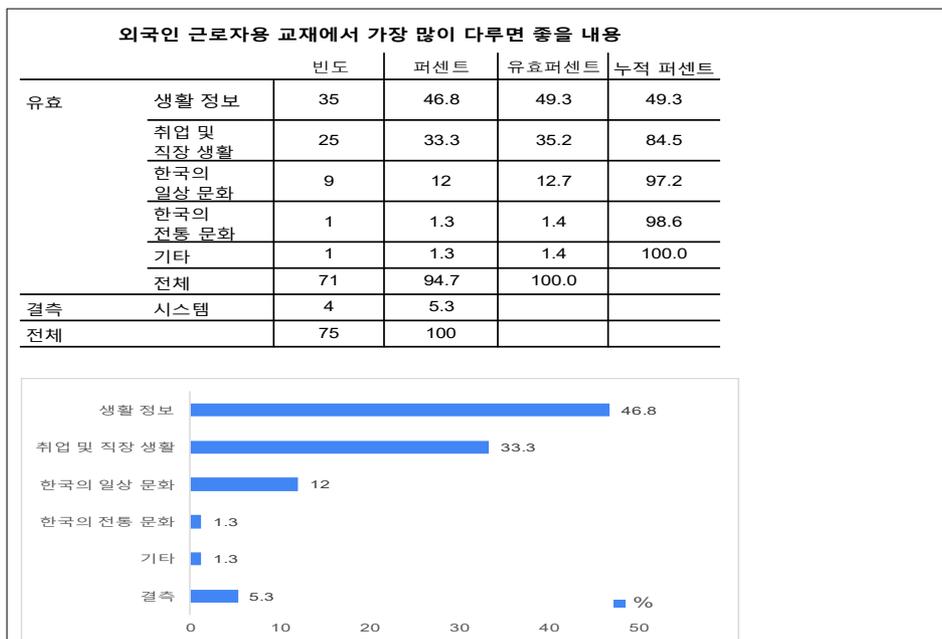
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 학습 내용



<그림 29 > 가장 필요한 한국어 학습 내용(학습자)

한국어 기술과 언어적 요소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학습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말하기(66.8%) > 문법/어휘(9.3%) > 쓰기(6.7) > 읽기(1.3%)로 나타났다. 앞서 일상생활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언어 기술로 ‘말하기’라고 응답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는 말하기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언어 기술이기 때문이다.

㉕. 외국인 근로자용 교재에서 가장 많이 다루면 좋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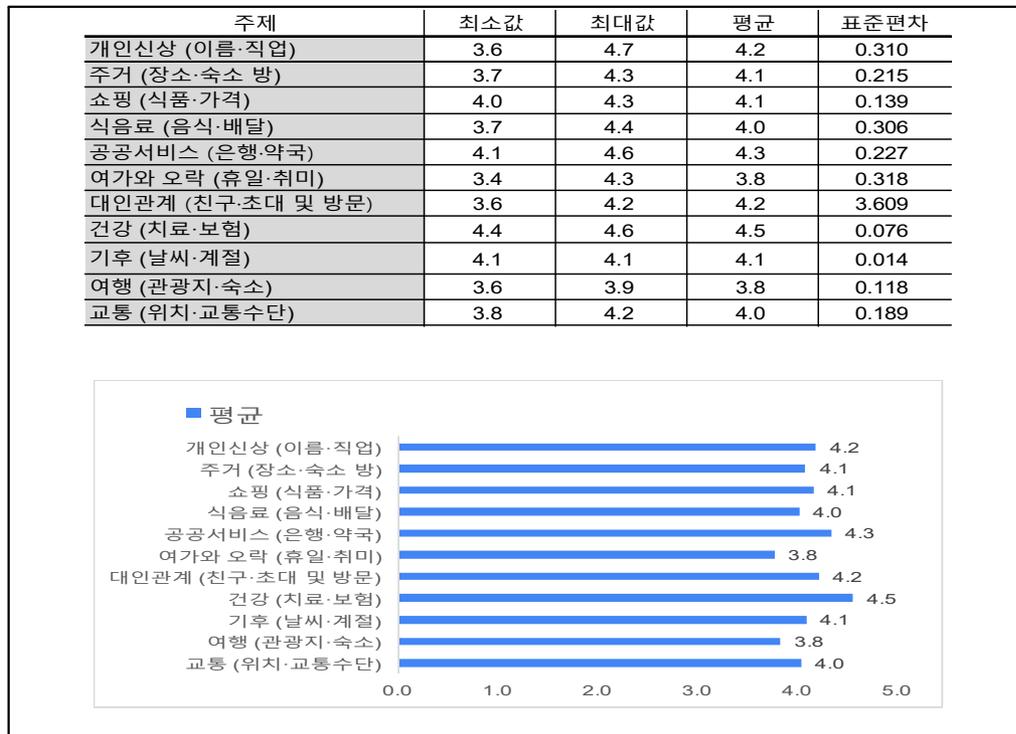


<그림 30> 근로자용 교재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학습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에서 가장 많이 다루면 좋을 내용으로 ‘생활 정보(의료, 쇼핑, 법률, 여행, 관광, 건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취업 및 직장 생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3%, 한국의 일상 문화 12.0%, 한국의 전통 문화는 1.4%로 가장 낮았다.

## 5) 한국어 교육의 주제

### ㄱ. 한국어 주제(일상생활)



<그림 31> 한국어 주제(일상생활)-학습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시, 일상생활의 주제 중 필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국어 교육 주제 범주 11개<sup>144)</sup>를 제시하고 얼마나 필요한 학습 내용인지를 5점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4.5)이 필요도에서 우선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앞서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필요한 상황’으로 ‘병원을 이용할 때’가 가장 높

144)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주제 범주 중 일상생활(가정 생활, 학교 생활), 교육(학교 교육, 교과목, 진로) 범주는 하위 항목이 외국인 근로자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육, 사회, 예술, 전문 분야 범주는 고급 단계에서 사용되는 주제 범주라서 제외하였다. ‘일과 직업’ 범주는 따로 분리하여 하위 범주를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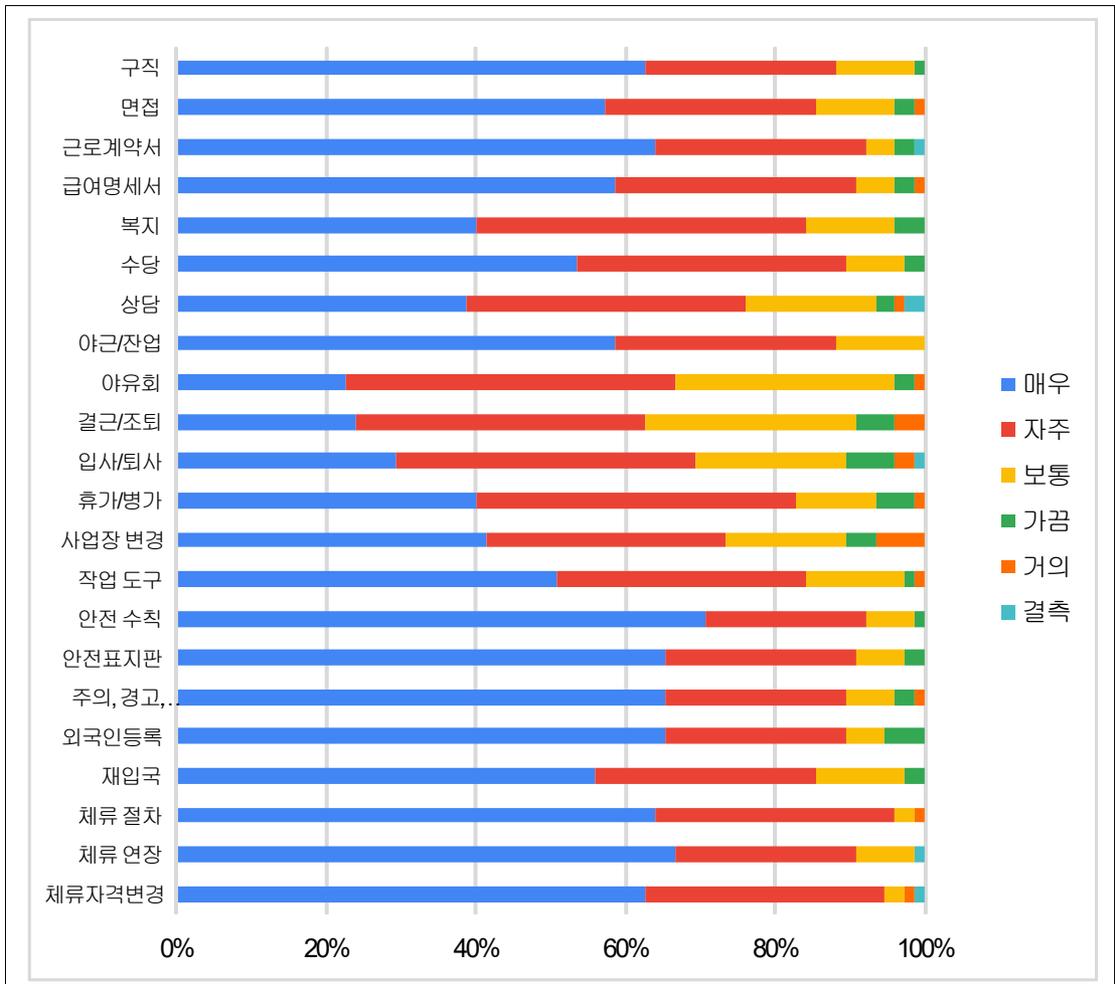
게 나타난 것과는 관련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유해 위험 요인이 많고 작업 환경에 열악한 작은 사업장에 근무(전용일 외, 2023)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여가와 오락, 여행’<sup>145)</sup> 등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학습 내용으로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ㄴ. 한국어 주제(일과 직업)

<표 41> 한국어 주제(일과 직업)-학습자

주제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취업	구직	1	5	4.0	1.095
	면접	1	5	3.8	1.123
직장생활	근로계약서	2	5	4.1	0.993
	급여명세서	1	5	4.0	1.113
	복지	1	5	4.3	0.981
	수당	1	5	4.1	1.110
	상담	1	5	4.2	1.056
	야근/잔업	1	5	4.3	0.943
	야유회	1	5	4.4	0.898
	결근/조퇴	2	5	4.5	0.788
	입사/퇴사	2	5	4.4	0.821
	휴가/병가	2	5	4.3	0.886
	사업장 변경	2	5	4.3	0.864
	작업 도구	1	5	4.3	0.899
	안전	안전 수칙	1	5	4.2
안전표지판		1	5	4.2	1.020
주의, 경고, 금지		2	5	4.1	0.912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외국인등록	1	5	4.1	0.941
	재입국	1	5	4.2	0.935
	체류 절차	1	5	4.1	0.938
	체류 연장	2	5	4.2	0.932
	체류 자격 변경	1	5	4.2	0.998

145) 한국에 온 지 7년 된 근로자 a는 최근 들어 ‘회식’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또,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토요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휴일에는 주로 기숙사나 집에서 쉬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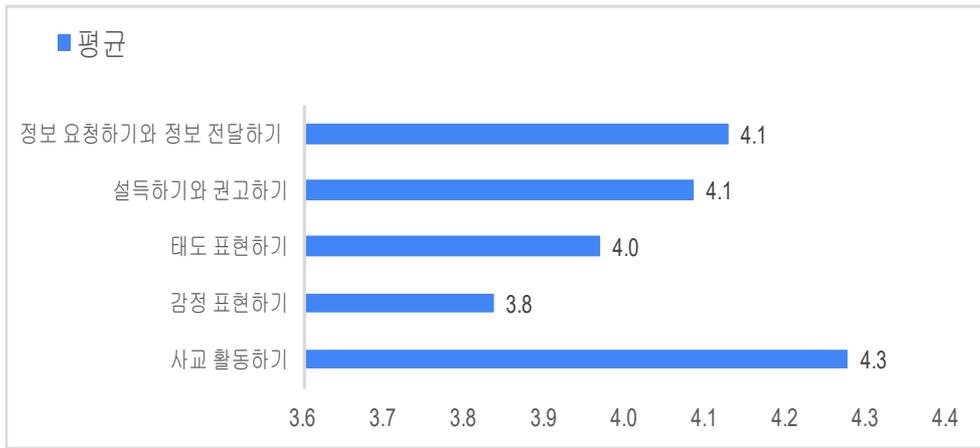


<그림 32> 한국어 주제(일과 직업)-학습자

‘일과 직업’이라는 범주 아래에 22개의 주제 항목을 제시하고 얼마나 필요한 학습 내용인지를 5점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면접(3.8)을 제외하고 모두 4.0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답하였는데, 그중 ‘결근/조퇴’가 필요도에서 우선 순위를 차지하였다. 고용 허가제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직을 할 때 필요한 ‘면접’ 상황은 자주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6) 한국어 기능<sup>146)</sup>

기능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설명하기, 묻고 답하기)	3.8	4.5	4.1	0.22
설득하기와 권고하기 (요청·주의하기)	3.9	4.3	4.1	0.13
태도 표현하기 (동의·능력 표현)	3.8	4.2	4.0	0.17
감정 표현하기 (만족 불만족·걱정)	3.5	4.1	3.8	0.21
사교적 활동하기 (감사·소개하기)	4.1	4.5	4.3	0.12



<그림 33> 한국어 기능(학습자)

학습자들이 주로 필요로 하는 기능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대범주 아래에 47개 기능 항목을 제시하고 얼마나 필요한 기능인지를 5점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적 활동하기’ 범주의 평균이 가장 높고(4.3), 하위 기능 항목으로는 ‘감사하기’, ‘소개하기’가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게 나타난 범주는 ‘감정 표현하기’(3.8)이지만 이 범주의 하위 기능 항목 중에서는 ‘만족/불만족 표현하기’, ‘걱정 표현하기’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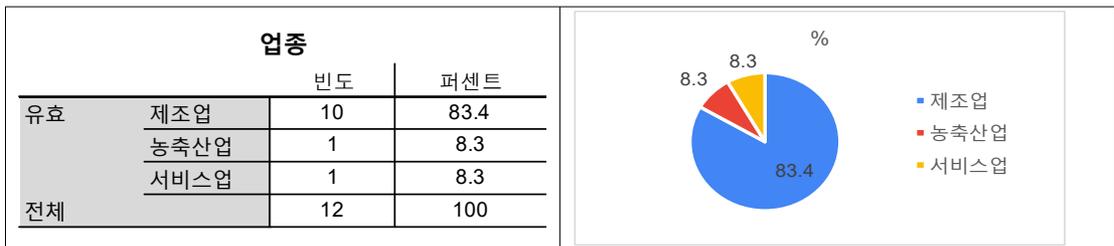
146) 국제 통용 표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기능 범주(5개)와 기능 항목 중, 중점 등급이 고급 등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외하고 47개 기능 항목을 제시하였다.

## 4.2.2. 고용주 및 관리자 요구 분석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기초 정보,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주제, 한국어 교육의 기능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기초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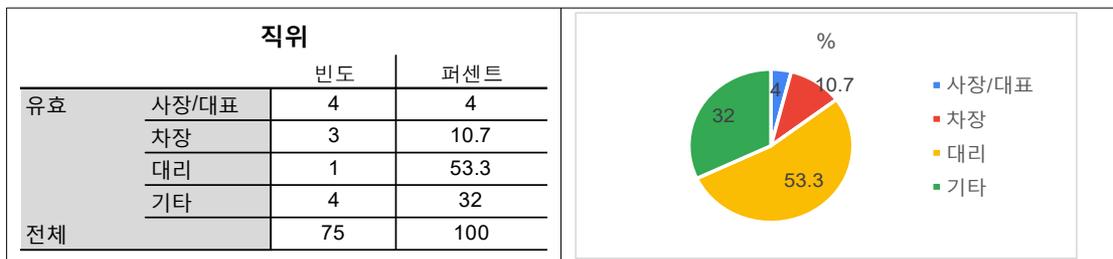
#### ㄱ. 회사 업종



<그림 34> 회사 업종(관리자)

업종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34>와 같이 제조업이 83.4% 가장 높는데 이는 업종 중 제조업의 도입 규모<sup>147)</sup>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 ㄴ. 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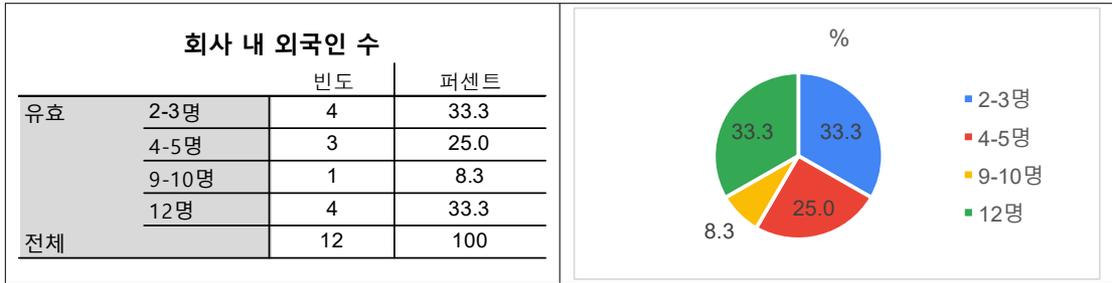


<그림 35 > 설문 작성자의 직위(관리자)

설문지 작성자는 대표자와 기타(소장, 팀장)이 33.3%이고, 차장 25.0%, 대리 8.4%이다.

147) 2023년 외국인 근로자(E-9)의 업종별 배분을 보면 제조업이 68.2%(95,000명)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축산업이 12.3%(14,000명)을 차지한다(출처: www.ep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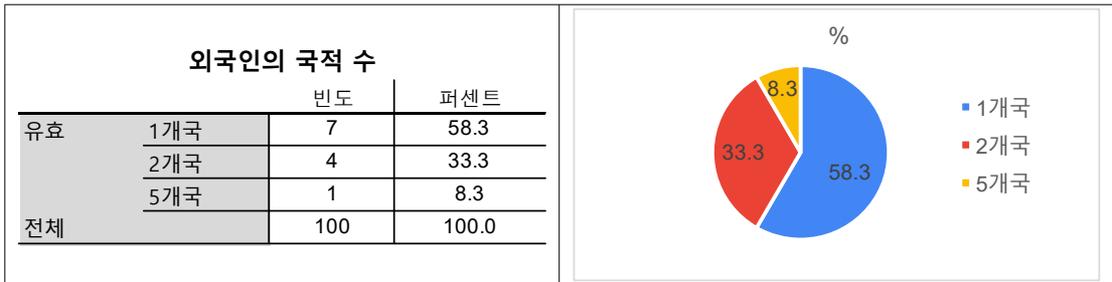
㉔. 회사 내 외국인 수



<그림 36> 회사 내 외국인 수(관리자)

회사 내 외국인 수를 보면 12명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1개로 가장 많고, 대부분 5명 이내이다.

㉕. 회사 내 외국인의 국적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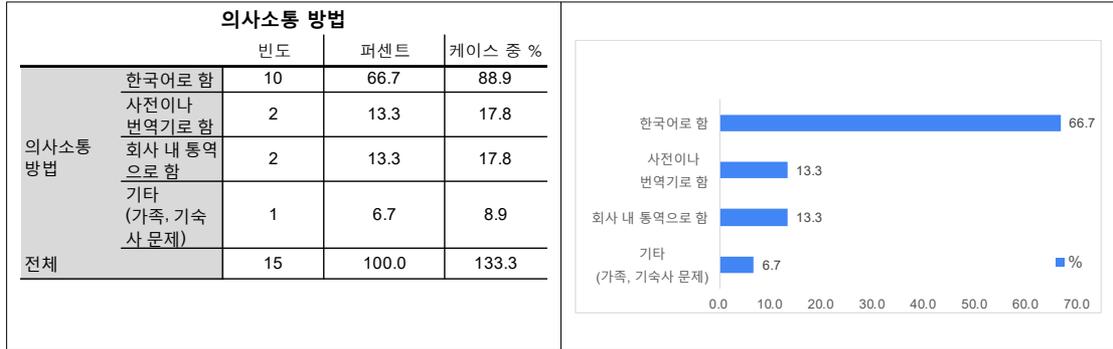
<그림 37> 회사 내 외국인의 국적 수(관리자)

<그림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단일 국적의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다. 관리 및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같은 국적의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답한 회사<sup>148)</sup>도 있다.

148) 필리핀 근로자를 10명 고용하고 있는 a회사의 경우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국적이 다른 기숙사 방도 더 필요하고, 기숙사 내 조리 시설도 더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같은 국적의 사람을 고용한다고 밝혔다.

## 2) 한국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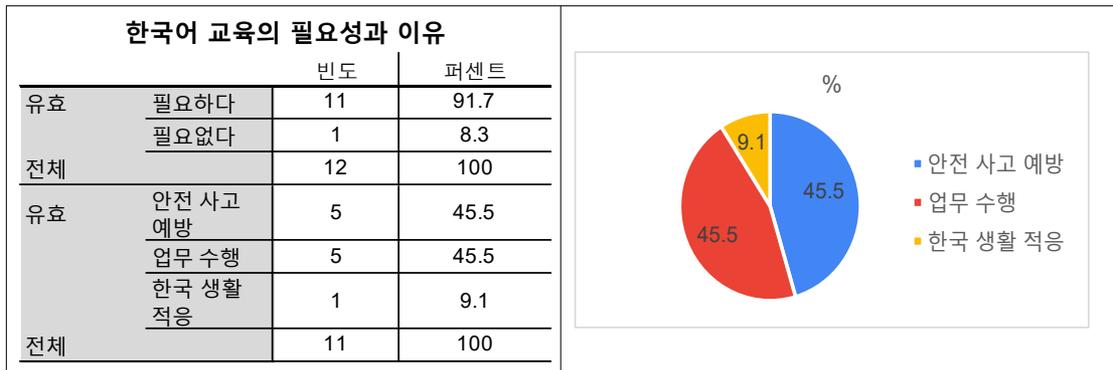
### ㄱ. 의사소통 방법



<그림 38> 의사소통 방법(관리자)

회사 내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복수 응답을 허용했는데 ‘한국어로 한다’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8개 회사는 ‘한국어로 한다’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하였다. 이 외에 ‘사전이나 번역기를 사용한다’와 회사 내 통역이 가능한 직원을 통해서 한다’는 대답이 각각 13.3%로 나타났다.

### ㄴ.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및 이유



<그림 39>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및 이유(관리자)

회사 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업무 수행을 위해서’가 각각 45.5%로 나타났으며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9.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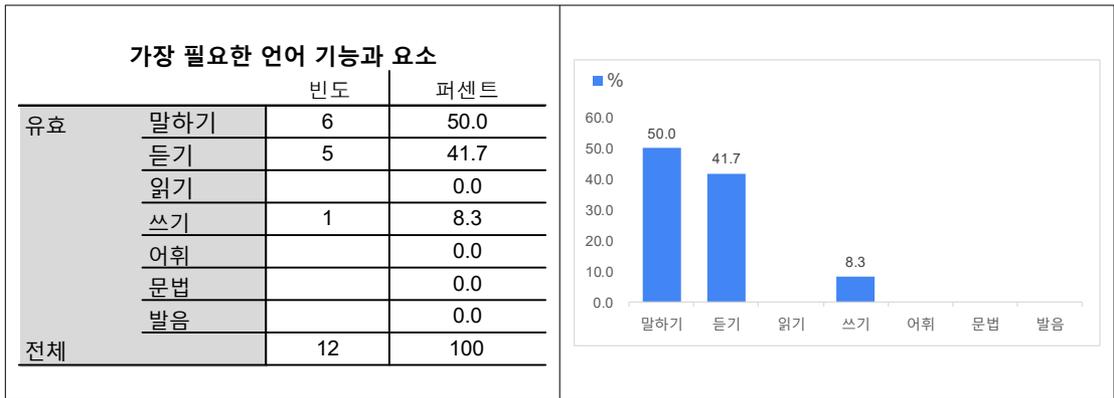
㉔. 회사에서 기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능력



<그림 40> 회사에서 기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능력(관리자)

회사에서 기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능력은 3급이라고 답한 응답이 75.0%로 가장 많았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정도인 1급이라고 응답한 회사가 16.7%, 2급이라고 답한 회사는 8.3%였다. 조사 결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㉕.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장 필요한 언어 기술과 요소



<그림 41>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장 필요한 언어 기술과 요소(관리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언어 기능이나 요소로는 ‘말하기’가 50%, ‘듣기’가 41.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와 교사의 설문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㉑. 기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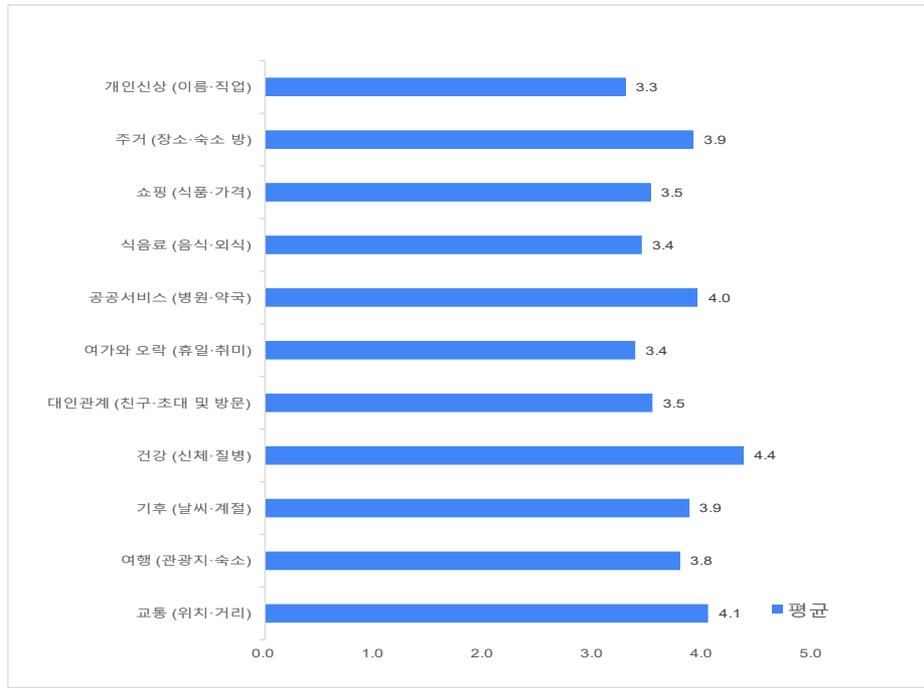
<표 42> 고용주 및 관리자의 의견

구분	내용
소통이 잘 안 돼서 어려운 느낄 때	복잡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작업을 설명할 때 업무 전달이 잘 안 될 때 의사소통이 안 돼서 직접 가서 지시해야 될 때 일에 대한 전문 용어를 잘 모를 때 업무 이행 속도가 느릴 때 마음에 있는 대화를 못 할 때
근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천천히 안전하게, 안전 사고 주의 안전하게 일해 조심해, 수고했어 안전하게 빨리빨리 친절하세요 잘했어
근로자용 교재에 꼭 들어 가면 좋을 내용	위급 상황별 대처법 청소,청결 정리 정돈 한국인의 정서 한국 문화와 예절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의견	한국에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언어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 몸이 아플 때 바로 사용하는 언어 좀 더 현실성 있는 교육
기타 의견	어느 정도 언어 구사 능력이 되었을 때 현장에 투입하면 좋겠다

### 3) 한국어 교육의 주제

#### ㄱ. 한국어 교육의 주제(일상생활)

주제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개인신상 (이름·직업)	2.1	4.7	3.3	0.838
주거 (장소·숙소 방)	2.9	5.0	3.9	0.862
쇼핑 (식품·가격)	3.3	3.7	3.5	0.117
식음료 (음식·외식)	3.0	4.0	3.4	0.416
공공서비스 (병원·약국)	3.4	4.3	4.0	0.349
여가와 오락 (휴일·취미)	2.8	4.0	3.4	0.476
대인관계 (친구·초대 및 방문)	2.8	4.4	3.5	0.602
건강 (신체·질병)	3.8	4.7	4.4	0.320
기후 (날씨·계절)	3.8	3.9	3.9	0.042
여행 (관광지·숙소)	3.3	4.1	3.8	0.292
교통 (위치·거리)	3.6	4.3	4.1	0.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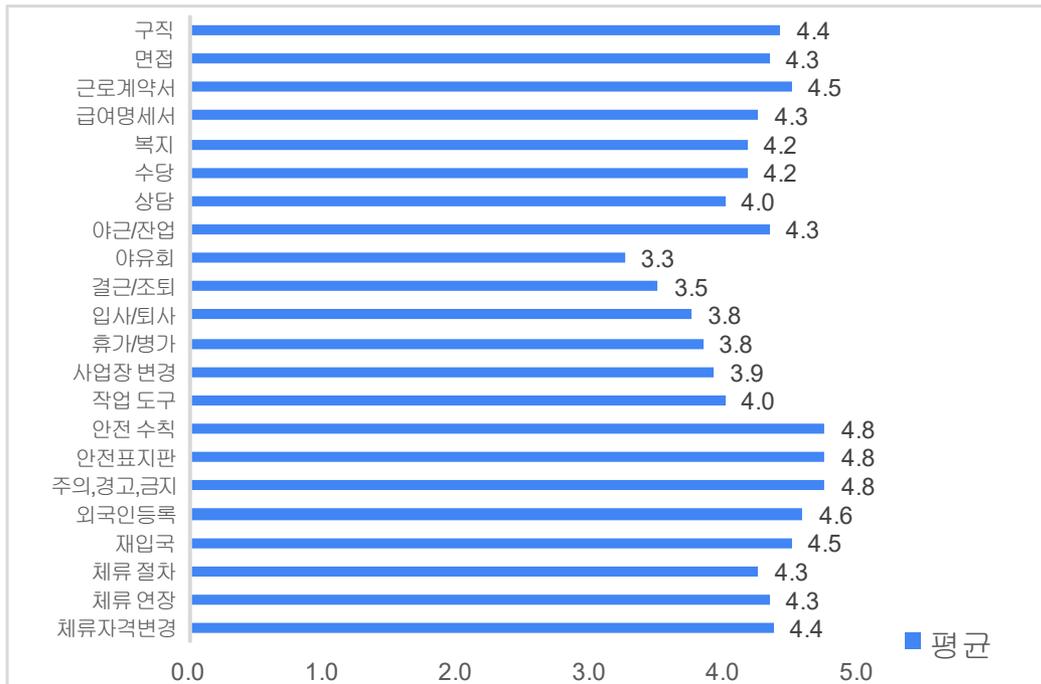


<그림 42> 한국어 교육의 주제(일상생활)-관리자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중요한 주제로는 ‘건강’(4.4)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학습자의 설문 결과와도 일치한다.

## ㄴ. 한국어 교육의 주제(일과 직업)

	주제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취업	구직	3	5	4.4	0.640
	면접	3	5	4.3	0.624
직장생활	근로계약서	4	5	4.5	0.500
	급여명세서	3	5	4.3	0.595
	복지	3	5	4.2	0.687
	수당	3	5	4.2	0.687
	상당	4	4	4.0	0.000
	야근/잔업	4	5	4.3	0.471
	야유회	1	5	3.3	1.090
	결근/조퇴	1	5	3.5	1.258
	입사/퇴사	1	5	3.8	1.164
	휴가/병가	1	5	3.8	1.213
	사업장 변경	2	5	3.9	0.954
	작업 도구	1	5	4.0	1.080
안전	안전 수칙	4	5	4.8	0.433
	안전표지판	4	5	4.8	0.433
	주의, 경고, 금지	4	5	4.8	0.433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외국인등록	4	5	4.6	0.493
	재입국	3	5	4.5	0.645
	체류 절차	3	5	4.3	0.722
	체류 연장	3	5	4.3	0.745
	체류 자격 변경	3	5	4.4	0.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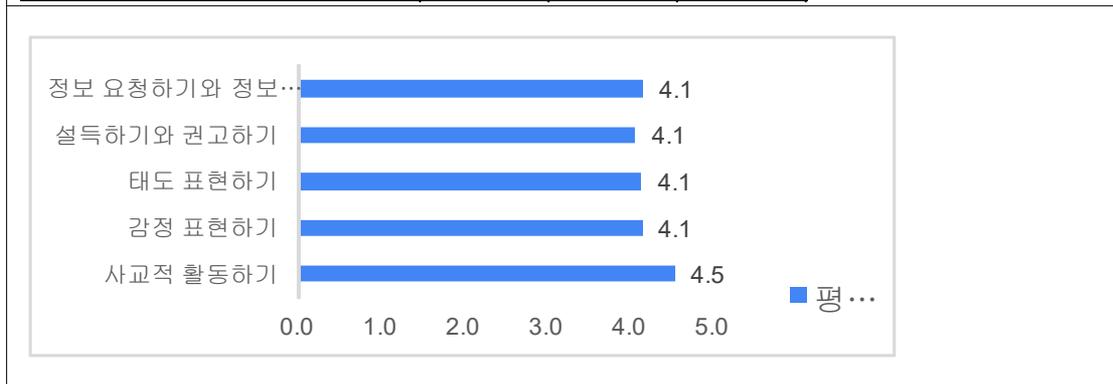
<그림 43> 한국어 교육의 주제(일과 직업)-관리자

직장 생활과 관련하여 중요한 교육의 주제로 ‘안전 수칙’, ‘안전 표지판’, ‘주의, 경고,

금지’ 등 안전과 관련된 주제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사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㉔. 한국어 교육의 기능

기능	최소값	최대값	평균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설명·묻고 답하기)	3.6	4.8	4.1
설득하기와 권고하기 (제안·요청하기)	3.7	4.3	4.1
태도 표현하기 (동의·반대 표현)	3.6	4.4	4.1
감정 표현하기 (만족·불만족·걱정 표현)	3.8	4.5	4.1
사교적 활동하기 (인사·소개하기)	4.4	4.8	4.5



<그림 44> 한국어 교육의 기능(관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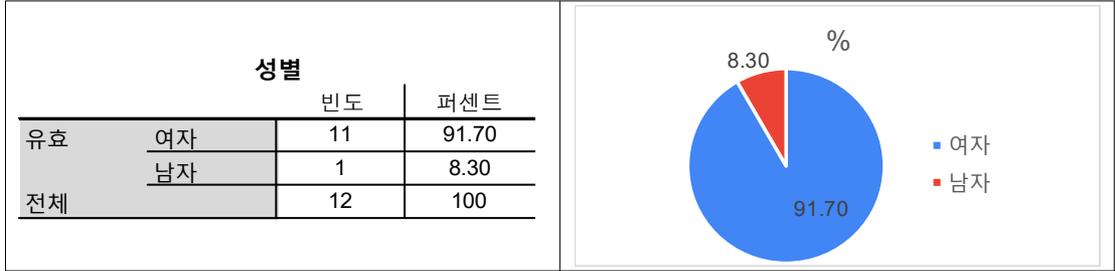
회사의 고용주나 관리자들이 학습자들에게 요구하는 기능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대범주 아래에 47개 기능 항목을 제시하고 얼마나 필요한 기능인지를 5점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적 활동하기’ 범주의 평균이 가장 높고(4.3), 하위 기능 항목으로는 ‘인사하기’, ‘소개하기’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요목 설계 시에 반영되어야 한다.

### 4.2.3. 한국어 교사 요구 분석 결과

#### 1) 기초 정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사의 성별, 연령,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 여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경력, 연령, 현재 수업 단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ㄱ. 성별



<그림 45> 성별(교사)

<그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분포를 보면 여자가 91.7%, 남자가 8.3%으로 여성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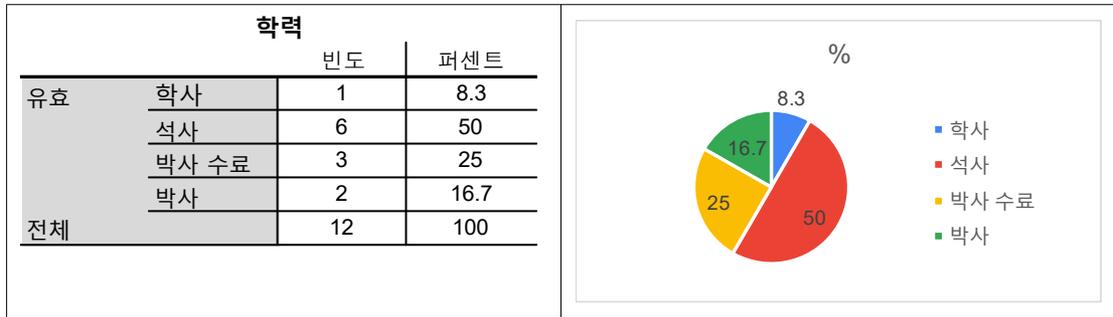
### ㄴ. 연령



<그림 46> 연령(교사)

교사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50대(41.7%) > 40대(33.3%) > 60대(16.7%) > 30대(8.3%) 순으로 대체로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교사가 적다는 것은 교사들의 처우와도 관련이 있는바,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도 교사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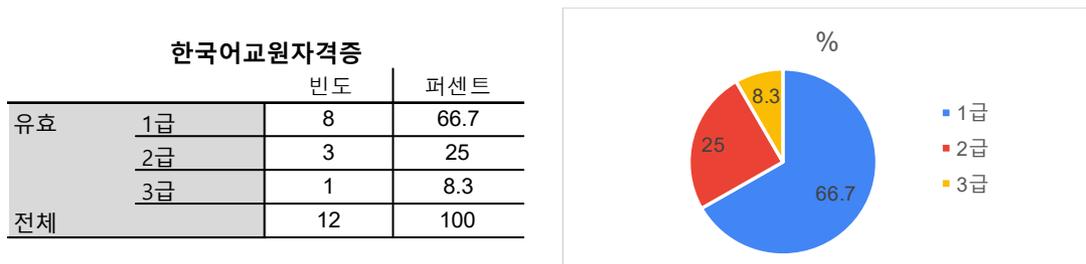
### ㉔. 학력



<그림 47> 학력(교사)

한국어 교사의 학력을 보면 석사 학위를 취득한 교사들이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석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75%로 학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㉕.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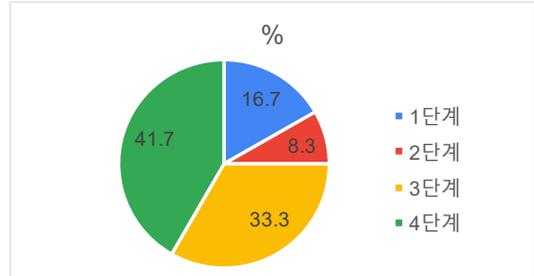


<그림 48>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 현황(교사)

교사들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 현황을 보면 1급 소지자가 6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급이 25%, 3급이 8.3%로 나타났다.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급을 취득한 후에 5년 이상, 2,000시간의 교육 경력을 갖추어야 하는바, 교육 경력은 대체로 많은 것으로 보이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㉑. 현재 담당하고 있는 수업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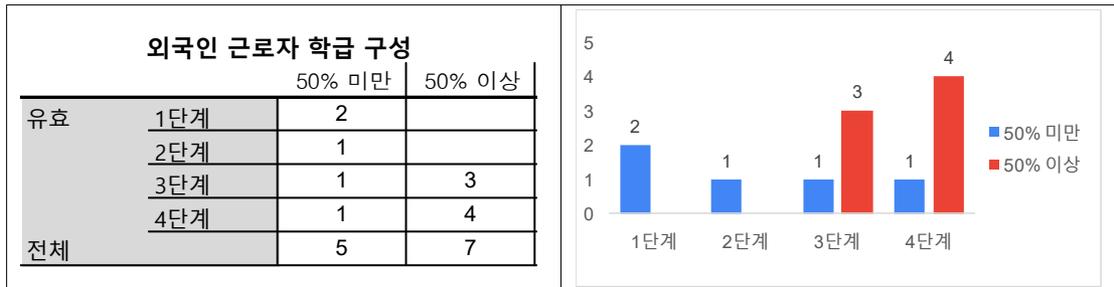
		빈도	퍼센트
유효	1단계	2	16.7
	2단계	1	8.3
	3단계	4	33.3
	4단계	5	41.7
전체		12	100



<그림 49> 현재 담당하고 있는 수업 단계(교사)

현재 담당하고 있는 수업은 4단계(41.7%) > 3단계(33.3%) > 1단계(16.7%) > 2단계(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학습자도 4단계(48%)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교사도 유사한 결과이다. 대체로 초급 단계(1, 2단계)보다는 중급(3, 4단계)가 더 많이 개설되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 TOPIK 연계 신청 및 결혼 이민 사증 소지자의 2단계 연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급보다는 중급 과정 개설 비율이 더 높다.

㉒. 학급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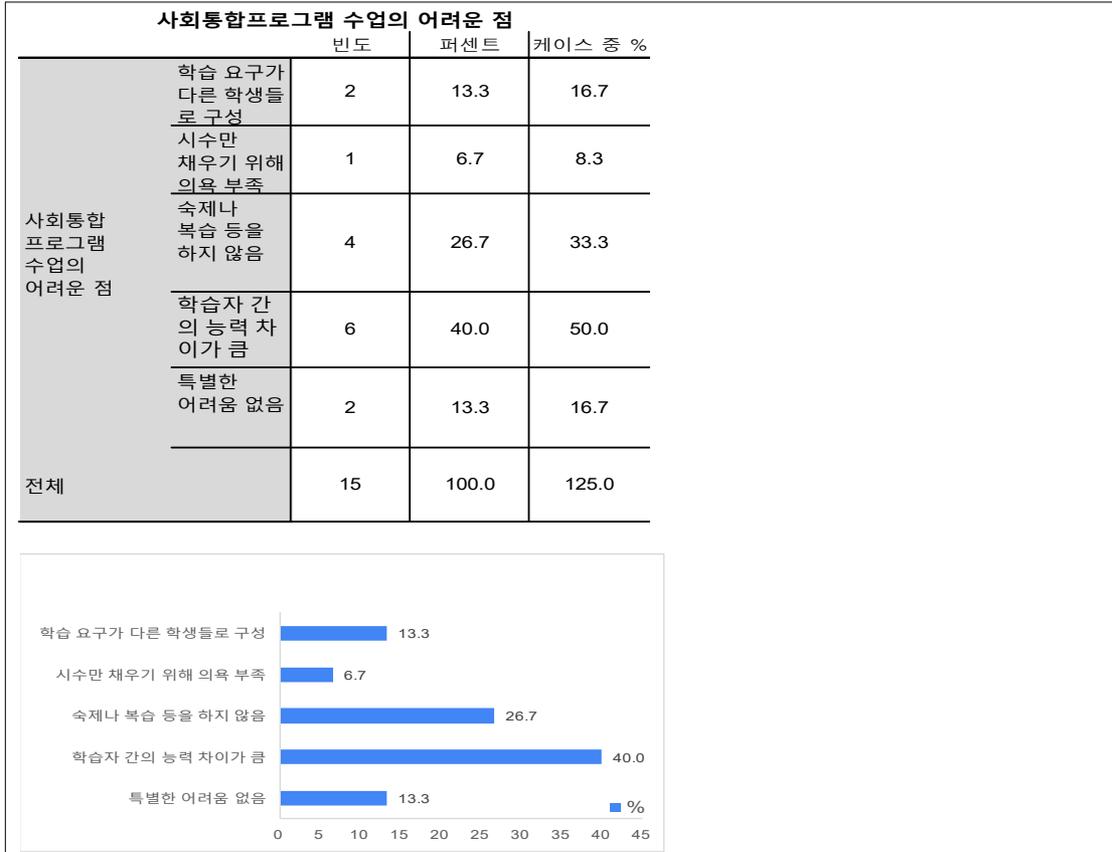
<그림 50> 외국인 근로자 학급 구성(교사)

한 학급(과정)당 외국인 근로자와 다른 이민자의 구성 비율을 조사한 결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운영 기관이 위치한 지역<sup>149)</sup>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체로 초급보다는 중급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다른 이민자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9) 공단이 가까운 곳에 있는 운영 기관의 경우 근로자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2) 한국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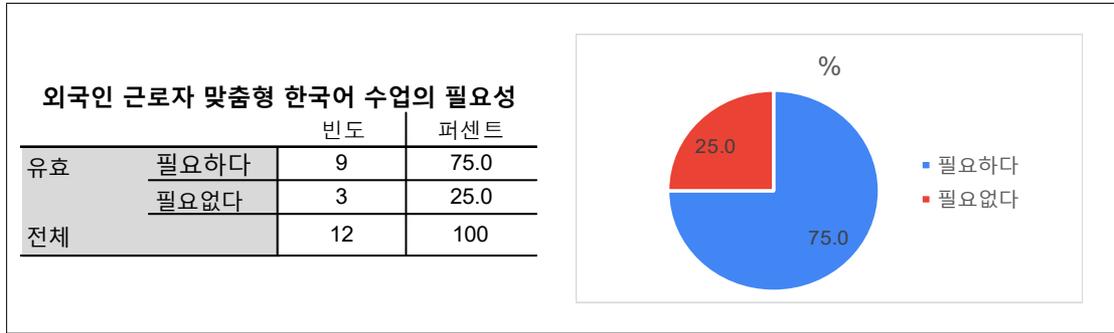
### ㄱ.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의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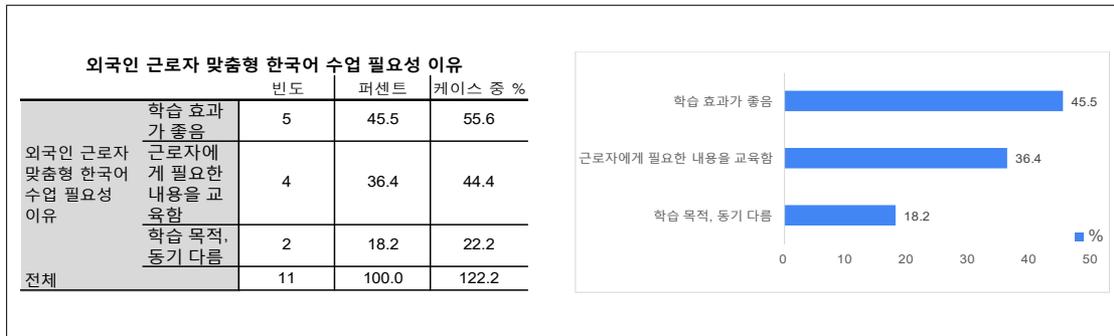
<그림 51>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의 어려운 점(교사)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 운영 시의 어려운 점을 복수로 선택하게 한 결과, ‘학습자 간의 능력 차이가 크다’고 답한 비율이 40.0%로 가장 높았고, ‘숙제나 복습을 하지 않는다’가 뒤를 이었으며, ‘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요구와 맞지 않는다’와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답하였다. 학습자 간의 능력 차이가 크다는 것은 학습 수준에 차이가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요인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학습 수준이 같아도 이전의 학습 경험이나 학력 등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심층 면담 시 교사들은 모두 대체로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여성 결혼 이민자가 다른 이민자 집단에 비해 학습 진보가 더딘 편이라고 답하였다.

ㄴ.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한국어 수업의 필요성



<그림 52> 맞춤형 한국어 수업의 필요성(교사)



<그림 53> 맞춤형 한국어 수업의 필요성 이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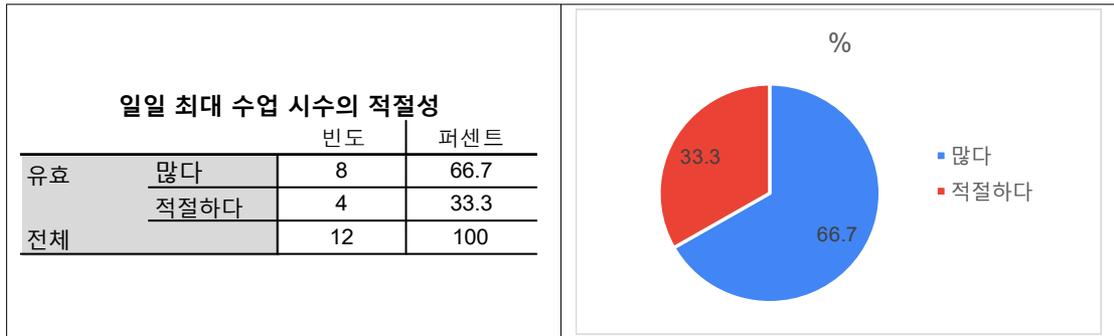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75%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25%가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이유에는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라고 대답한 비율이 45.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의 장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언어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응 능력이 빨라질 것 같다,’<sup>150)</sup> ‘근로자의 현장을 반영할 수 있고 근로자의 참여가 용이한 시간대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실생활과 관련된 어휘, 문장 등의 연습을 통해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대체로 기초 학력이 높아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 학습 효과가 높을 것 같다’, ‘유사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 간의 교류로 정보

150) 이와 관련하여 교사 a는 ‘비자 변경 신청서’ 작성이 어려워 변호사에게 300만 원을 의뢰한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고 하였다.

획득이 쉬워진다고 대답하였다. 반면 단점으로는 '다양한 이민자 집단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 '일상적인 어휘, 문화의 학습 기회가 적을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 ㄷ. 일일 최대 수업 시수의 적절성



<그림 54> 일일 최대 수업 시수의 적절성(교사)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주말의 경우 일일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한데, 이에 대해 66.7%는 '많다'고 답하였으며, 33.3%는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많다'고 대답한 이유로는 '근로자라서 피곤해하고 지쳐서 집중도가 떨어져 언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 '피로가 쌓인 상황에서 8시간은 너무 길어서 학습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수업 내용을 체화하는 시간이 없어 효과적이지 않다', '교사의 피로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일일 최대 수업 시수를 '4~6시간'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초급 단계에서는 더욱 힘들다고 답하였다. 앞서 살펴본 학습자의 경우에도 현재 주 1회 8시간 참여 비율은 26.8%인데, 원하는 수업 시간으로 주 1회 8시간을 선택한 경우는 9.7%였다.

르. 한국어 수업에서 중요한 기술과 요소

<표 43> 한국어 수업에서 중요한 기술과 요소(교사)

한국어 수업에서 중요한 기술과 요소			
		빈도	퍼센트
첫번째로 중요한 기술과 요소	말하기	4	33.3
	듣기	4	33.3
	읽기	1	8.3
	쓰기	0	0.0
	어휘	2	16.7
	문법	1	8.3
	발음	0	0.0
	전체	12	100
두번째로 중요한 기술과 요소	말하기	5	41.7
	듣기	5	41.7
	읽기	0	0.0
	쓰기	1	8.3
	어휘	0	0.0
	문법	0	0.0
	발음	1	8.3
	전체	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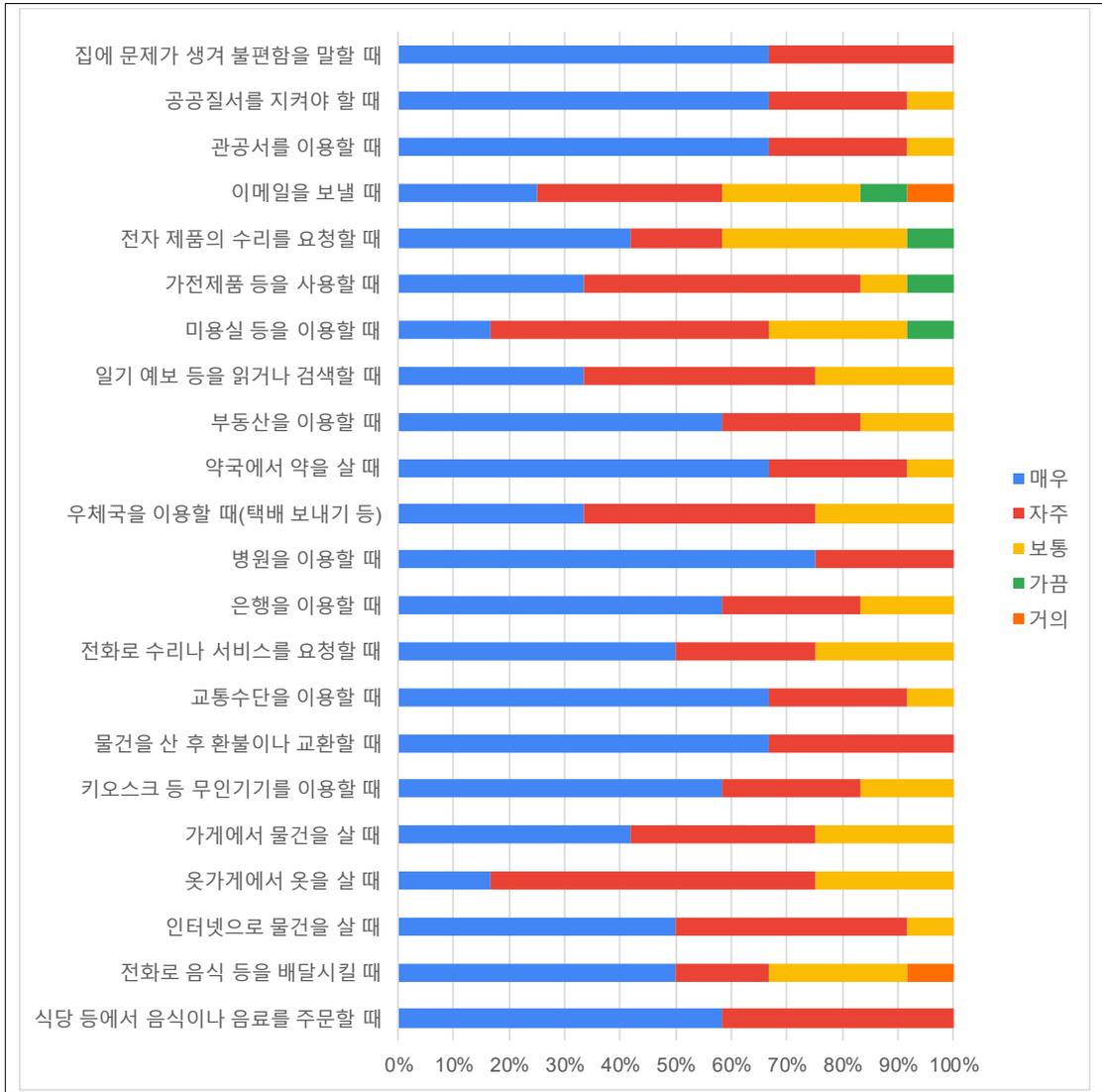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이나 요소로는 언어 기술 중 말하기와 듣기를 과반수 이상이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앞서 살펴본 학습자들도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말하기’, ‘듣기’를 들었으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도 ‘말하기’를 선택하였다.

### 3)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 및 내용

#### 가.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필요한 상황

<표 44> 일상생활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교사)

상황		최소값	최대값	평균
<b>일상생활</b>	식당 등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할 때	4	5	4.6
	전화로 음식 등을 배달시킬 때	1	5	4.0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3	5	4.4
	옷가게에서 옷을 살 때	3	5	3.9
	가게(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살 때	3	5	4.2
	키오스크 등 무인기기를 이용할 때	3	5	4.4
	물건을 산 후 환불이나 교환할 때	4	5	4.7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택시, 버스, 지하철, 기차 등)	3	5	4.6
	전화로 수리나 서비스를 요청할 때	3	5	4.3
	은행을 이용할 때 (예금, 인출, 환전, 송금 등)	3	5	4.4
	병원을 이용할 때 (의사, 간호사와 대화)	4	5	4.8
	우체국을 이용할 때(택배 보내기 등)	3	5	4.1
	약국에서 약을 살 때	3	5	4.6
	부동산을 이용할 때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	3	5	4.4
	일기 예보 등을 읽거나 검색할 때	3	5	4.1
	미용실 등을 이용할 때	2	5	3.8
	가전제품 등을 사용할 때	2	5	4.1
	전자 제품의 수리를 요청할 때	2	5	3.9
	이메일을 보낼 때	1	5	3.6
	관공서를 이용할 때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3	5	4.6
공공질서를 지켜야 할 때 (경로석 양보, 재활용 실천 등)	3	5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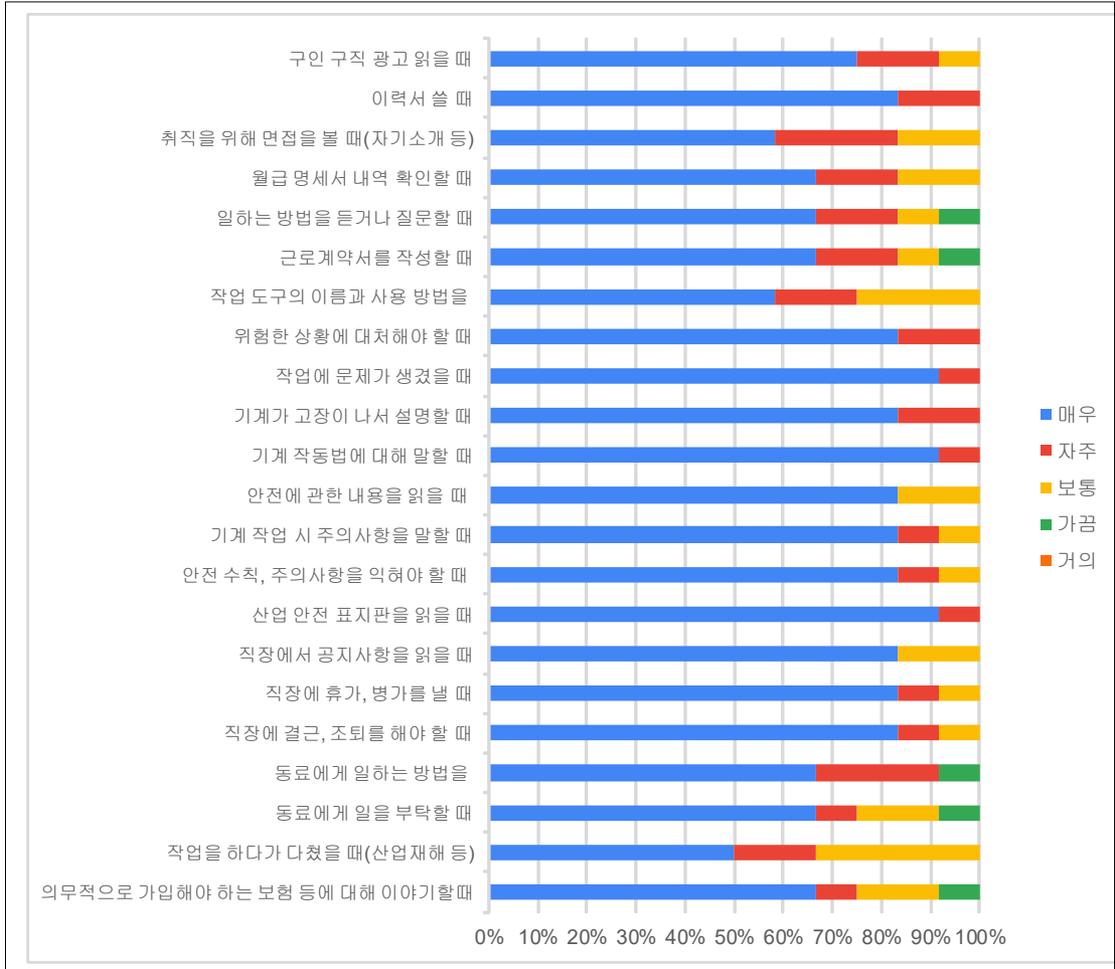
<그림 55> 일상생활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교사)

의사소통 상황에서 교사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학습 내용은 학습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병원을 이용할 때’를 들었다. 그다음으로 ‘물건을 산 후, 환불이나 교환할 때’, ‘문제가 생겨 불편함을 말할 때’를 꼽았다. 그리고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약국에서 약을 살 때’도 매우 필요한 주제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메일을 보낼 때’(3.6)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의사소통 상황인데, 이는 학습자의 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재 개발 시, 보통 중급의 텍스트 유형으로 많이 활용하는 ‘전자우편(이메일)’ 텍스트의 채택에 대해 고민해야 함을 시사한다.

ㄴ. 직장 생활에서 한국어 필요한 상황

<표 45> 직장 생활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교사)

상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b>직장 생활</b>	구인 구직 광고 읽을 때	2	5	4.3	1.027
	이력서 쓸 때	3	5	4.2	0.898
	취직을 위해 면접을 볼 때(자기소개 등)	2	5	4.3	1.027
	월급 명세서 내역 확인할 때	2	5	4.5	0.866
	일하는 방법을 듣거나 질문할 때	3	5	4.8	0.595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3	5	4.8	0.595
	작업 도구의 이름과 사용 방법을 물어 볼 때	3	5	4.7	0.745
	위험한 상황에 대처해야 할 때	4	5	4.9	0.276
	작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3	5	4.8	0.595
	기계가 고장이 나서 설명할 때	3	5	4.8	0.595
	기계 작동법에 대해 말할 때	3	5	4.7	0.745
	안전에 관한 내용을 읽을 때	4	5	4.9	0.276
	기계 작업 시 주의 사항을 말할 때	4	5	4.8	0.373
	안전 수칙, 주의 사항을 익혀야 할 때	4	5	4.9	0.276
	산업 안전 표지판을 읽을 때	4	5	4.8	0.373
	직장에서 공지사항을 읽을 때	3	5	4.3	0.850
	직장에 휴가, 병가를 낼 때	2	5	4.4	0.954
	직장에 결근, 조퇴를 해야 할 때	2	5	4.4	0.954
	동료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배울 때	3	5	4.5	0.764
	동료에게 일을 부탁할 때	3	5	4.4	0.759
작업을 하다가 다쳤을 때(산업재해 등)	4	5	4.8	0.373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3	5	4.7	0.624	



<그림 56> 직장 생활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교사)

직장 생활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해야 할 때’, ‘안전에 관한 내용을 읽을 때’, ‘안전 수칙, 주의 사항을 익혀야 할 때’를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상황이라고 답했다.

#### 4) 한국어 교육의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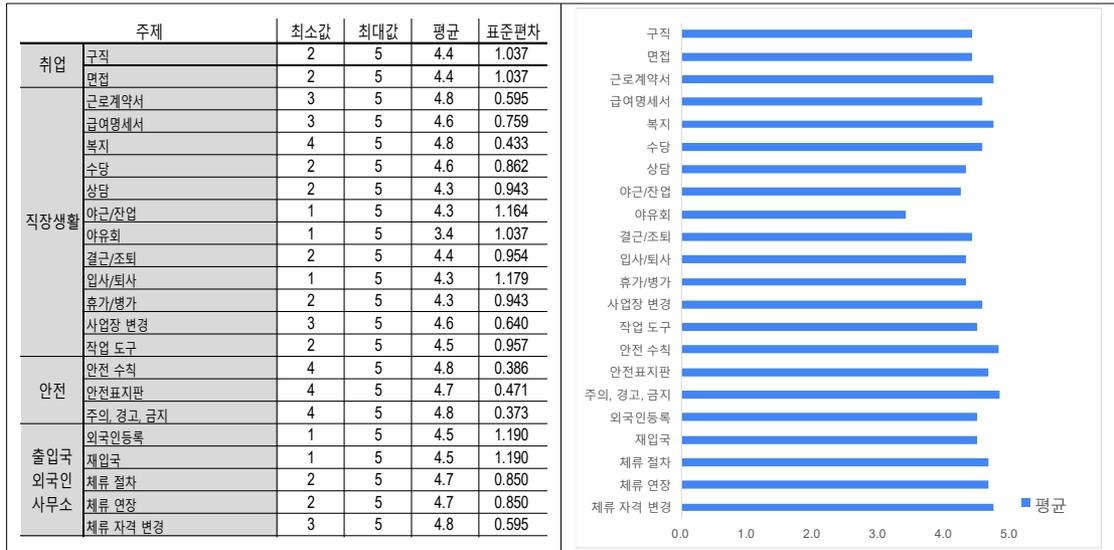
##### ㄱ. 한국어 교육의 주제(일상생활)



<그림 57> 한국어 교육의 주제(일상생활)-교사

교사들이 생각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주제로는 ‘건강’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학습자, 회사 관계자의 설문 결과와도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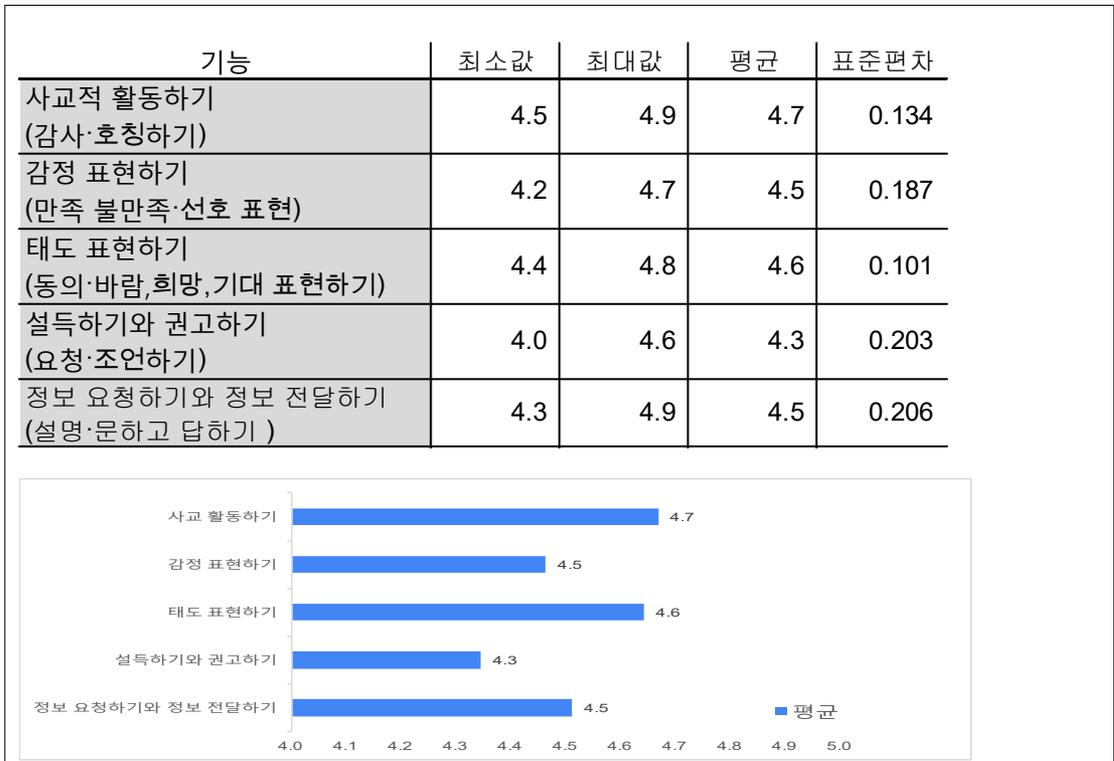
#### ㄴ. 한국어 교육의 주제(일과 직업)



<그림 58> 한국어 교육의 주제(직장 생활)-교사

교사들이 생각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직장 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교육의 주제로는 ‘주의, 경고, 금지, 안전 수칙’ 등 안전과 관련된 것을 선택하였다.

### 5) 한국어 교육의 기능



<그림 59> 한국어 교육의 기능(직장 생활)-교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교사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대범주 아래에 47개 기능 항목을 제시하고 얼마나 필요한 기능인지를 5점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적 활동하기’ 범주의 평균이 가장 높고(4.7), 하위 기능 항목으로는 ‘감사하기’, ‘호칭하기’가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게 나타난 범주는 ‘설득하기와 권고하기’(3.8)이지만 이 범주의 하위 기능 항목 중에서는 ‘요청하기’, ‘조언하기’가 높게 나타났다.

#### 4.2.4. 요구 분석 결과 시사점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개발을 위하여 비전문 취업(E-9) 학습자, 한국어 교사, 기업의 고용주 및 관리자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할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자는 92%, 교사는 7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로 학습자는 ‘외국인 근로자끼리 모여서 공부하면 직장 생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라고 답한 사람이 69.3% 차지하였다. 반면에 교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의 장점으로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언어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적응 능력이 빨라질 것 같다’, ‘근로자들은 대체로 기초 학력이 높아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학습 효과가 높을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sup>151)</sup>

둘째, 외국인 학습자의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학습자를 대상으로 참여한 목적에 대해 질문한 결과, ‘비자 변경 등 체류 허가 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의 개인적 이익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이 자체가 학습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비자 변경 등 체류 허가 시 혜택도 받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인 직장 상사, 동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귀국 후에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등의 응답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응답 내용은 다른 이민자 집단과 다소 차이가 있는바, 교육 목적 및 목표, 교수요목의 내용 선정 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제공된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자 변경 등 체류 허가 혜택’이 국가 차원에서는 참여 유인책이 되어 ‘사회 통합’이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개인 차원에서는 참여 동기로 작용하

151)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 학습자 간 학습 능력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이유 중 학습자의 학력 요인도 클 것으로 추측된다. 여성 결혼 이민자의 경우 대체로 학력이 낮고, 학습 경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평가 합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설문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고졸이 53.3%, 대졸(전문대졸 포함)이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목적 그 자체만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운영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어 교육 시수 확대 및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느 수준까지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지’ 희망하는 목표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5급이라고 답한 사람이 41.3%로 가장 많았고, 6급이라고 답한 사람이 37.3%로 나타났다. 5급과 6급을 합하면 모두 78.6%로, 결국 고급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획득하고 싶어 하는 학습자가 과반수가 훨씬 넘는바 고급 과정의 개설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일상생활 언어에 비해 조금 더 특수한 용어이므로 의미가 정확하게 소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외국인 근로자가 직장 생활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수 수준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12년에 교육과정이 개편된 이후,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한국어 과정은 4단계(중급 2)<sup>152)</sup>까지만 설정되어 있는데, 이민자 집단별로 요구를 확인하여 고급 과정 개설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급 과정이 개설된다면 그간 한국어 4단계(3.8급 도달)를 마친 후 고급(5, 6급) 한국어 수준의 한국 사회이해 내용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즉 난이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학습 배경이나 속도, 학습 목적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내용을 반영한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주제와 관련하여 일상생활과 관련된 12개의 대범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에 대한 범주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서비스 범주가 그다음을 차지하였다. 가장 필요한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도 ‘병원을 이용할 때(의사, 간호사와 대화)’가 가장 높고 ‘약국에서 약을 살 때’가 그다음으로 나타난 것에도 결과가 일치한다. 또 회사 관계자들의 설문에서는 ‘안전’에 관한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3D 업종에서 종사하고,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건강’은 ‘한국에서의 체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 개인의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편, 보통 한국어 교재에서 텍스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우편(이메일)’에 대

152)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은 중급 2를 마치면 TOPIK 등급으로 3.8급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해서 학습자와 교사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을 설계하고 교재를 개발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한국어 교육 의무화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E-9 비자로 한국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EPS-TOPIK에 합격해야 한다. EPS-TOPIK에 합격했다면 적어도 TOPIK 1급에 해당하는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단계를 보면 자모음을 배우는 단계인 0단계부터 참여한 사람이 16%로 거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원인은 입국 전에 치르는 EPS-TOPIK의 평가 방식과 부실한 평가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기간이 2개월이라고 답한 사람이 2.7%(2명), 3개월이 14.7(11명), 4개월이 12.0%(9명)으로 한국어 학습 기간이 2-4개월이라고 응답한 학습자가 29.4%로 결코 적지 않은 수치이다.<sup>153)</sup>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에 숙달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의 시간이 걸린다고 봤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 직전 평균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약 80%에 달한다는 점은 이들 중 상당수가 업무에 완전히 익숙해지기까지 산업 재해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조용진, 2015:34).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초급 단계는 이수를 의무화하는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153) 한국 체류 기간과 현재 단계를 보면 초급 단계(1, 2단계) 학습자가 18.7%를 차지하는데, 1단계 학습자 중 체류 기간이 3~5년인 학생이 3명, 2단계 학습자 중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학생이 6명이다.

## 5.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의 방향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에 따른 교수요목의 실체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의 설계 원리 및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목적 및 목표, 그리고 각 단계별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 5.1.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 5.1.1. 교육과정 설계 원리 및 방향

언어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고 할 만큼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문화 상대주의 원칙에 따라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이 연계되어야 한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 개발 단계는 ‘요구 분석 → 상황 분석 → 교육과정의 목표 기술 → 교수요목 설계 → 수업 절차 제공 → 교육 자료 개발 → 평가’이다(Richards, 2001).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도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양적, 질적 요구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목표, 교수요목을 설계하고자 한다.<sup>154)</sup>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요구 분석을 통해서 한국어 학습의 목적,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숙달도 정도, 희망하는 한국어 학습 시간과 한국어 학습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에서 한국어를 경험하는 상황, 공부하고 싶은 한국어 주제, 필요한 언어 기능, 학습의 장애 요인 등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 내용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시, 한국어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을 설계하는 데 방향을 제시해 준다. 4장의 요구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목적은 취업 활동이므로, ‘직장의 상사, 동료들과 의

154) 이수미(2022:746)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재 개발 과정은 ‘교육과정 분석→요구 조사→교육 내용 선정→단원 구성→샘플 단원 집필→시범 사용 및 교재 평가’로 구현된다고 보았다.

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학습 목적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을 잘 영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나 유학생, 전문 인력들과는 다른 여건과 환경에 놓여 있다. 학습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교육 기관이 멀고<sup>155)</sup> 일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70.7%이다. 즉, 기관이 멀기 때문에 일주일에 여러 번 수업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말이기도 하다. 설문 조사에서는 학습 시간을 주 4회, 8시간(24%)<sup>156)</sup>을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하였지만,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수업 시간을 검토하면 주 1회, 6~8시간, 주 2회 토요일과 일요일 야간이 일반적이다. 현재 법무부에서 허용하고 있는 교육 운영 시간은 1일 6시간 이내(단, 주 1회 주말반의 경우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야간과 주말에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수업 시간은 주당 6~8시간 정도로 설계한다.

셋째,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설계함으로써 학습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주 접하는 상황, 주제, 장소 등 학습자의 요구가 높은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넷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말하기와 듣기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읽기와 쓰기에 대한 요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서도 말하기와 듣기 기술을 매우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41.3%)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읽기와 쓰기와 같은 언어 기능을 매우 자주 사용한다는 비율도 20.7%로(고급 과정과의 연계 등)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설계하는 데 구어적 요소와 문어적 요소를 균형 있게 포함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 문화 교육의 내용은 직장 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국의 문화와의 비교를 통

155) 한국어 교사 A가 가르쳤던 학습자 중에는 학습자가 거주하는 인근 시에 주말반이 없어서 어떤 학습자는 시외버스-기차-지하철을 타고 광역시에 있는 운영 기관의 일요일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4단계 참여자), 또 다른 학습자는 군내 버스-직행버스- 시내버스를 타고 수업에 참여(2단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156) 학습자들이 원하는 운영 시간은 주 4회 8시간(24%)>주 2회 4시간(22.7%)>주 3회 6시간(17.3%)>주 1회 6시간(16%) 순으로 나타났다.

해 자신의 경험 및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1.2. 교육과정 구성

현행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및 내용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적용하되, 현행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E-9 비자로 입국하려면 EPS-TOPIK에 합격해야 하는데, 이는 최소한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PS-TOPIK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어 숙달도의 시작 단계는 0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고 도달 수준은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고급 1(5등급)까지 설정하고자 한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6등급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중급 과정까지 4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과정은 0~4단계이며, 0단계 15시간, 1~4단계는 각 100시간이다. 4단계 교육을 마친 학습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8급 도달을 목표로 한다(이미혜 외, 2020:18).

앞선 요구 분석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0단계부터 시작한 학습자가 21.3%(12명)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0단계는 자모음을 배우는 단계로서 보통은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는 경우 0단계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사전 평가에서 필기 점수(75점 만점)와 무관하게 구술 점수(25점 만점)가 3점 미만인 경우 0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구술 점수가 3점 미만인 경우는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간단한 읽기도 되지 않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등급 설정을 기초, 초급(1, 2), 중급(1, 2), 고급 1로 5등급을 설정하고 각 등급의 수업 시간은 기초는 15시간, 초급1~고급1까지는 각각 120시간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수업은 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약 49주간 수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보통 기관에서는 수업이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에 시작해서 11월 말, 혹은 12월 5일 전후로 종료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수업은 한 학기의 수업 기간을 5개월 정도로 설정되어야 한다. 주 6~8시간으로 수업을 할 때 한 개 등급(120시간)을 마치는 데는 보통 20주가 소요된다. 자모 학습 시간으로 2~3주(15시간)를 설정한다면, 자음과 모음 학습 시간을 포함하면 22~23주가 소요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주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6> 등급(단계) 체계 및 수업 기간

등급(단계)	과정명	수업 기간	수업 시간	비고
0단계	한국어 기초	2~3주, 주 1회 / 5시간	15시간	필수 과정(의무)
1(1단계)	한국어 1	20주, 주 1회 / 6시간	120시간	필수 과정(의무)
2(2단계)	한국어 2	20주, 주 1회 / 6시간	120시간	필수 과정
3(3단계)	한국어 3	20주, 주 1회 / 6시간	120시간	필수 과정
4(4단계)	한국어 4	20주, 주 1회 / 6시간	120시간	필수 과정
5(5단계)	한국어 5 <sup>157)</sup>	20주, 주 1회 / 6시간	120시간	선택 과정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 1회 6시간 수업을 받는 경우에는 한 급을 마치는 데 20주(약 5개월)가 필요하며, 5급까지 마치는 데는 약 2년 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sup>158)</sup>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통 처음 입국하여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sup>159)</sup> 또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이 전체가 415시간(3.8급 수준)으로 중급 과정까지만 설계되어 있는데, 400시간은 국내 정규 기관이나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초급 단계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다. 앞의 교재 분석에서 보았듯이 현행 415시간 체제에서는 초급과 중급에서 다루어야 하는 필수 문법이나 어휘가 누락될 수밖에 없다.<sup>160)</sup>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단계를 120시간으로 설정하여 4단계(515시간/4급 수준)까지를 필수 과정으로, 5단계는 선택 과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sup>161)</sup>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고급 과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5.3%였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5.3%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사람들은 ‘보통이다(25.3%)’라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조금 필요하다(4%)’고 응답하였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은 도달하고 싶은 한국어 수준에 대한 설문에서 78.7%가 고급(5, 6급) 과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과반수 이상의 학습자들이 고급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획득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57) 귀국 후 재정착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이다. 재정착과 관련하여 귀국 후 모국에서 한국어 학원을 차리거나 한국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업을 원하기 때문이다.

158) 1년이 보통 52주인 것을 감안할 때 100주면 약 2년이지만, 수업 개설 기간은 10개월 정도로 약 43-45주로 볼 수 있다.

159)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 체류 기간은 3년이고 1년 10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160) 특히 필수 문법이 누락됨으로써 교재 내에서 자연스러운 담화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다소 부자연스러운 담화가 생성될 여지가 있다.

161) 400시간은 국내 정규 기관이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는 초급(2급) 단계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며, 4급 수준까지 배우려면 보통 800시간이 소요된다.

선택 과정으로서의 ‘고급’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고급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서, 경제도 많이 알고 싶어서,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어서, 3D 업종을 탈피하여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서’라고 답하였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어 능력의 향상을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으며, 더 나은 삶, 더 좋은 기회를 얻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의 과정 이수 기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7> 한국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체계

구분	주 1회 6시간
총 수업 시간	515시간(120시간×4개급)
전 과정 수업 기간	100주(약 2년 5개월) <sup>162)</sup>
필수 과정 이수시간	80주(약 2년 )
급별 수업 기간	20~23주(약 5.5개월)
최고 도달 등급	4급

사회통합프로그램은 1년 3학기, 1일 최대 8시간까지 수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의 규모 및 기관에 사정에 따라 1~3개 학기로 운영하기도 하며, 수업 요일 및 시간대도 기관의 형편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일일 최대 수업 시수(8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 66.7%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였다. 하루에 2개과 정도로 진도를 나가야 하므로 양이 너무 많아 학습자의 부담이 너무 크고, 집중도가 떨어져서 4-6시간을 최대 시수로 설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sup>163)</sup>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근무 여건과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본 설문에서 참여한 사람 중 주 1회 일요일(6~8시간)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볼 때, 실제 적용을 고려하면 주 1회 6시간이 적절하다.<sup>164)</sup>

162) 실제로 과정이 개설되는 기간은 보통 1년에 약 44~49주 정도이다. 따라서 기간도 여기에 맞추어서 설정하였다.

163) 한국어 수업 현장의 사례로, 일일 6시간으로 운영하는 수업의 1단계(초급 1) 학습자가 “선생님, 제발 그만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다고 한다.

164) 주 2회로도 설정할 수 있으나 주 2회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인데, 현행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침에는 3단계 이상만 온라인 수업을 허용하기 때문에 초급 단계의 경우 주당 8시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 5.1.3. 교육 목적과 목표

교육 목적(goals)은 교육 현장의 실재를 고려하여 구체화한 목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수업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최종 도달점이다. 학습자가 교육과정을 통해 배양하는 능력과 교사가 교육과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할 내용은 모두 목표를 통해서 교실 수업에 적용된다(민현식 외, 2014:852).

안설희(2003), 조선경(2006), 오인미(2012), 이용화(2015)의 요구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가장 큰 학습 목적은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관리자 대상의 FGI 조사 결과(황민철 외, 2017)에서도 직장 생활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길 희망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 필요한 회화, 서류 작성 능력을 갖추기를 희망하였다. 오영훈 외(2019)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개인 간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한국인 동료와의 언어소통의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sup>165)</sup> 안설희(2003:72)는 의사소통 능력은 한국 사회 내에서 노동자의 한사람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국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인과의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존재로서의 역할 수행 능력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이주하여 살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직업을 위한 한국어뿐만 아니라 생활의 적응을 위한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 역시 한국어 교육의 목적이 된다(이종선, 2009:80).

외국인 근로자들의 요구 조사 분석 결과로 볼 때, 일상생활보다 직장 생활을 위한 한국어에 대한 학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요구 분석 결과 주 대화 상대자가 직장파 관련된(직장의 외국인 동료와 한국인 동료, 상사) 사람이 90.7%로, 직장 밖(이웃이나 친구, 슈퍼 등 편의 시설 직원 등)의 사람(9.3%)보다 훨씬 높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주 대화 상대자가 직장파 관련된 사람이라고 해서 직장 생활 관련 교육을 주로 하고 일상생활 관련 교육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sup>166)</sup> 수강 목

165) “처음에는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한국 동료가 뭐라 뭐라 해도 그것이 욕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욕이더라구요. 욕 들었을 때는 그냥 참아요(연구참여자 1)(오영훈·하종천, 2019:137).

166)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상생활 영역에는 휴대폰을 개통한다든지, 거주할 집을 전월세로 계약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꼭 필요하다. 반면 다른 이민자, 예컨대 결혼 이민자는 통신, 주거 문제 등은 배우자가 해결하므로 필요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아니다.

적을 묻는 질문에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응답이 45.3%였으며, ‘동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한국어 학습을 통해 3D 업종을 탈피하여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등등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교육 목적은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을 잘 영위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표 48> 한국어 교육 목적

- |  |
|--|
| ㄱ. 일상생활(주거, 통신 등)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br>ㄴ. 직장 생활에서 상사 및 동료들과 교류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br>ㄷ. 직장에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대처하여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br>ㄹ. 한국 사회에서 겪는 여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br>ㅁ.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호 문화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br>ㅂ.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고 대한민국의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한다 |
|--|

이와 같은 목적 설정에 따라 4장의 요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9> 한국어 교육 목표

- |   |
|---|
| ㄱ. 일상생활(주거, 통신 등)에 필요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br>ㄴ. 직장 업무 수행 및 동료들과 교류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br>ㄷ. 직장에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대처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br>ㄹ. 직장에서 기본적인 업무(지시하기, 주의 사항 파악하기, 도구 사용법 설명하기 등)를 처리할 수 있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br>ㅁ. 직장에서 규칙, 계약서 등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br>ㅂ.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을 기른다. |
|---|

#### 5.1.4. 단계별 총괄 목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목표(objective)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라는 도구를 통해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담겨 있어야 한다. 즉, 목표에서는 교육과정의 최종 도착점에서 학습자가 습득하거나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교과 내용, 행동 양식, 학업 기술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요구되는데 김영심(2016:72)에서는 목표를 진술하는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습 목표는 변화된 학습자의 행동, 즉 학습의 결과로 획득할 수 있는 최종 도달점을 진술해야 한다. 둘째, 학습 목표는 학습 내용과 기대되는 학생의 행동 수준이 함께 진술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 목표는 교사의 활동이 아니라 학습자의 행동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넷째, 학습 목표는 성공적으로 수업을 마친 학습자들이 보여 주어야 할 관찰될 수 있는 행위 동사로 명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도 총괄 목표를 각 단계를 마쳤을 때 갖추는 수행 능력이 무엇인지 기술하는 방법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의 총괄 목표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의 내용과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의 단계별 총괄 목표와 내용을 활용한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의 등급별 목표는 초급 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한 주제를 중심으로, 중급 단계에서는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의 단계를 따르자면 ‘직업’과 관련된 주제는 중급 단계에서 다루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167)을 반영하여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에서는 총괄 목표를 ‘과제·기능 → 주제 → 언어 사용역 → 문화’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 등급의 세부 목표와 세부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의 단계별 총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67)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 시험(EPS-TOPIK)에 합격한 사람들로서, 표면적으로 보면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EPS-TOPIK 시험이 ‘읽기’와 ‘듣기’만으로 이루어져서 표현 능력을 측정하지 않으므로 의사소통 능력이 길러지지 않는다.

<표 50> 단계별 총괄 목표

0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 자음, 모음을 익혀 간단한 기초 어휘를 읽고 쓸 수 있다. 한국어의 기본 문장을 한국인 원어민 화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발음할 수 있다.</li> </ul>
1급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생활에서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 기초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li> <li>• 작업 현장에서 기본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li> <li>• 직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인 표현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li> <li>•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li> </ul>
2급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생활 및 직장 생활과 관련된 주제로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li> <li>•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공공장소(우체국, 은행 등)에서 간단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li> <li>• 산업 현장의 산업 안전 표지 등 각종 표지를 이해할 수 있다.</li> <li>• 한국의 일상생활 및 직장 생활에 관련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li> </ul>
3급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생활 및 직장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li> <li>• 다양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친숙한 사회적 주제에 대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li> <li>• 산업 안전 관련 자료 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li> <li>• 한국의 일상 문화와 자국의 문화를 비교할 수 있으며, 한국인의 사고를 이해할 수 있다.</li> </ul>
4급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생활 및 직장 생활의 사회적인 관계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li> <li>• 일반적인 사회적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대상과 상황에 맞게 격식과 비격식을 사용할 수 있다.</li> <li>• 자신과 밀접하게 관계된 사회적 업무(외국인 근로자 대상 보험 관련 업무 등)를 수행할 수 있다.</li> <li>• 한국의 사회 문화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다.</li> </ul>

## 5.2.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 5.2.1. 교육 내용 범주 설정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의 목적과 목표, 단계별 총괄 목표를 설정하였다. 교육 목적과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는 학습자들을 목표에 도달시키기 위해 가르쳐야 할 교육 내용의 범주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어떤 유형의 교수요목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과도 통한다(김정숙, 2003:123).

교수요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어떤 교수법을 추구하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이

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이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에 따라 일상생활, 직장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면 교수요목은 ‘상황’, ‘개념/기능’, 또는 ‘과제’를 강조하는 교수요목으로 설계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개별 교수 요목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주제/상황, 기능 및 과제, 어휘 및 문법’의 내용을 하나의 교수요목에 모두 포함하는 다중 교수요목(multi-dimensional syllabus)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 및 학습자 요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과정은 일상생활 및 직장 생활에서 주로 접하게 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4가지 언어 기술(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이 통합된 내용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황 중심의 교수요목은 학습자에게 친숙한 주제, 실제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강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어 교실과 생활 현장의 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념-기능 교수요목으로 설계함으로써 실제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개념과 기능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의사소통을 내적으로 동기화한다.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기능을 통해 실제 생활에서 일어남직한 활동을 교실에서 미리 경험해 봄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제고할 수 있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의 범주는 주제, 기능 및 과제, 언어 지식(어휘, 문법, 발음), 언어 기술(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텍스트, 문화,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상황’, ‘개념/기능’을 강조하는 다중 교수요목으로 설계하고자 하는바, 주제, 기능 및 과제를 선정하고 언어 지식은 어휘와 문법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 5.2.2. 교육 내용 선정

이제 본 연구에서는 각 범주별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교육 내용은 학습자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제시한 내용들로 교수요목의 근간이 되며, 한 단원의 주요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 목표 도달을 위한 교육 내용의 선정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의 내용을 활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4장의 요구 분석 결과

와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한국어 표준 교재’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 1) 주제

주제 선정을 위하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4단계 적용 연구(2017)의 등급별 주제 목록을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재, 그리고 요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4단계까지의 주제(상황)를 선정하였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에서는 주제를 17개 범주 85개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제 선정 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급별 주제 범주를 따랐으며 학습자의 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 추가하였다. 주제는 특성에 따라 특정 숙달도 단계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주제가 있는 반면, 기능 및 언어 지식 등의 난이도를 달리하여 여러 등급에서 활용될 수 있는 주제도 있다.<sup>168)</sup> 따라서 주제에 따라 단계별로 반복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주제는 크게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로 나눌 수 있는데, 일상생활 관련 주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주제 항목을 활용하였고, 직장 생활의 주제로는 주로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의 일반적인 상황과 관련된 주제를 담았다. 등급화한 주제 항목을 보면 ‘일과 직업’에 관련된 주제는 3급부터 제시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이 높은 ‘일과 직업’ 범주<sup>169)</sup>에는 항목을 추가하여 초급부터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 바로 노동 현장에 투입되므로<sup>170)</sup> 한국어의 사용은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초급 단계에서부터 업무 영역에 대한 언어 기술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김민선, 2018).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보다 직장 생활에서 한국어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기계 고장 시 설명할 때’, ‘기계 작동법에 대해 말할 때’, ‘안전 수칙 및 주의 사항을

168) ‘여행’이라는 주제 범주 안에는 ‘관광지’, ‘일정’, ‘짐’, ‘숙소’ 등의 주제 항목이 있는데, 어떤 주제 항목이 주요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 여러 등급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2급에서는 여행의 경험이나 관련 정보를 물어보는 활동을 할 수가 있고, 3급에서는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행지를 추천하는 활동을 할 수가 있으며, 4급에서는 여행을 다녀온 후의 소감이나 여행지의 특색을 설명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169) 국제 통용 표준 교육과정의 일과 직업 범주에는 ‘취업, 직장 생활, 업무’ 항목이 있다. 본고에서는 일과 직업 범주에 ‘취업’, ‘직장 생활’ 외에 ‘안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항목을 추가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170) 이에 대해 한 학습자는 연구자에게 ‘가방을 놓자마자 일을 했다’는 표현을 하였다.

익혀야 할 때’, ‘안전에 관한 내용을 말할 때’ 한국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에 직장 생활 관련 주제는 1단계부터 시작하여 4단계까지 포함하고 학습자 요구 분석 결과를 반영하였다. 주제 목록 중 세부 항목을 검토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주제로 구체화한 주제를 단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71)</sup>

<표 51> 한국어 교육과정 주제 항목

등급 (단계)	주제
초급1 (1단계)	인사와 소개, 사물1, 2, 하루 일과, 날짜와 요일, 음식, 쇼핑, 식당, 주말, 가족, 약국, 휴일 계획, 교통, 약속, 병원, 날씨, <b>안전1, 2, 높임말</b>
초급2 (2단계)	한국어 수업, 기분과 감정, 길 찾기, 취미, 쇼핑, 여가, <b>사고</b> , 공공장소, 은행, <b>출입국의국민 사무소, 안전1, 2</b> , 명절, 기숙사, 모임, 우체국, 병원, <b>실수/사과</b> , 초대와 방문
중급1 (3단계)	교환/환불, <b>면접, 정리 정돈, 고장과 수리</b> , 음식과 요리, <b>고민과 상담</b> , 부동산, 소비와 절약, 대인 관계, <b>표준근로계약서</b> , 성격, <b>취업</b> , 분리 배출, <b>이직/구직, 안전, 작업, 보험 가입, 취업 교육</b>
중급2 (4단계)	<b>보험, 사업장 변경, 직장 생활, 사건과 사고</b> , 문화 차이, <b>법과 질서, 휴가/병가</b> , 환경 보호, 한국의 의례, 취업, 후회, <b>취업</b> , 통신, 후회, <b>항의</b> , 갈등, 건강, 한국의 속담, <b>작업, 안전</b> , 꿈과 미래

김진숙(2003:84)에서는 직업 목적의 한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의 목적을 ‘인간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의사소통’,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참고하여 직장 생활의 범주를 ‘근로 현장 내에서 동료 및 상사와 인간 관계 형성·유지와 관련한 의사소통’,<sup>172)</sup> ‘작업 현장에서 업무와 관련한 의사소통’, ‘직장 생활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위한 의사소통’으로 설정하였다.

위의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급(1~2급)에서는 주제와 상황이 일반 목적 한국어의 주제와 공통되는 부분이 많고 일상생활의 비중이 높은 반면, 중급(3~4급)에서는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의 비중이 비슷하다. 이러한 비중은 앞서 4장의 요구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초급(1~2단계)보다는 중급(3~4단계) 단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초급의 직장 생활 관련 내용은 안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급에서도 안전과 관련한 주제는 물론이고 ‘표준 근로 계약서’, ‘사업장 변경’, ‘법과 질서<sup>173)</sup>’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장 생활과 관련한 자주 접하

171) 주제 항목 중 볼드체로 표시한 것은 특수 목적 한국어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직장 생활과 관련된 것이며, 주제가 일반 목적 한국어와 같더라도 장소와 상황은 직장이므로, 어휘도 직장 생활과 관련된 어휘가 제시된다.

172) 근로 현장 내에서 동료 및 상사와 인간·유지와 관련한 의사소통’의 주제는 일반 목적의 한국어 주제와 차별화되지 않지만, 실제 교재에서는 직장 내에서의 상황과 내용으로 구체화된다.

거나 필요한 상황 맥락을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였다.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회 구성원과의 소통, 공공 기관 등에서의 일 처리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데 필요한 다양한 주제로 선정하였다.

## 2) 기능 및 과제

‘기능(function)’은 설득하기, 조언하기, 거절하기 등과 같은 것으로 의사소통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일을 뜻한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기능’을 ‘의사소통 기능’의 관점에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화자의 의도로 보았다(김중섭 외, 2017:48). 반면, 과제는 ‘의미를 중심으로 언어를 사용해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을 가리키는데 ‘건강에 대해 조언하기, 책 빌리기’ 등과 같이 표현된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에서는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설득하기와 권고하기, 태도 표현하기, 감정 표현하기, 사교적 활동하기로 5개 범주로 나누고 하위에 구체적인 의사소통 기능 항목으로는 52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과제는 세부적인 기능 항목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과제와 기능의 선정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의 내용을 기반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활동’<sup>174)</sup> 부분을 활용하였다.

한편, 제시 방식을 보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라는 대범주 아래 ‘설명하기/질문하고 답하기(1급~6급), 확인하기/비교하기/대조하기(2~6급), 묘사하기/서술하기/수정하기(3~6급) 등을 기능 항목으로 제시하여 여러 등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각각의 기능 항목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어떤 과제로 구현되는지 기능 항목 아래에 아래 세부 사항으로 구체화한 과제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sup>175)</sup> 반면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는 교수요목의 내용 범주를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구 조사에서 드러난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능과 과제를 모두 제시하였다. 최종 선정한 기능과 과제를 단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73) 한국어 교사 c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차 위반,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은 경범죄가, 비자 변경 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등 ‘생활 속의 법과 질서’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

174) Graves(1996)에서는 ‘과제 및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에서는 ‘활동’으로 교수요목의 내용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175) 묘사하기(3~6급)의 과제의 예로는 인물(외모, 옷차림, 성격 등)에 대해 묘사하기, 사물(모양, 재질, 크기 등)에 대해 묘사하기 공간(풍경, 상황 등)에 대해 묘사하기, 추상적인 것에 대해 묘사하기 등을 들 수 있다.

<표 52> 한국어 기능 및 과제 항목

등급 (단계)	기능	과제
초급1 (1단계)	계획 말하기, 금지하기, 동의하기, 명령하기, 물고 답하기, 비교하기, 선호 표현하기, 설명하기, 소개하기, 요청하기, 의도 표현하기, 인사하기, 제안하기, 질문하고 답하기, 호칭하기, 확인하기	인사하기, 자기소개하기, 사물 이름 말하기, 위치 말하기, 하루 일과 말하기, 시간 말하기, 날짜/요일 말하기, 좋아하는 것 말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의견 묻기, 메뉴판 읽기, 주말 활동 말하기, 가족 소개하기, 아픈 증상 설명하기 <sup>1</sup> , 휴일 계획 말하기, 교통 수단 이용하기, 약속하기, 아픈 증상 설명하기 <sup>2</sup> , 날씨 말하기, <b>위험 경고하기</b> , <b>보호구 착용법 설명하기</b> , <b>호칭 말하기</b> , 높임말 이해하기
초급2 (2단계)	가능 표현하기, 거절 표현하기, 경고하기, 경험 말하기, 계획하기, 권유하기, 금지하기, 물건 사기, 부탁하기, 비교하기, 사과 표현하기, 서술하기, 설명하기, 소개하기, 신청하기, 요청하기, 추측하기, 표현하기, 허락하기, 확인하기	<b>한국어 과정 신청하기</b> , 기분에 대해 말하기, <b>한국어 학습기관 위치 확인하기</b> , 취미 소개하기, 마음에 드는 옷 사기, 여가 활동 말하기, <b>사고 상황 말하기</b> , 공공장소 예절 이해하기, 환전하기, 해외 송금하기, <b>통합신청서 작성하기</b> , <b>체류연장하기</b> , <b>위험 경고하기</b> , <b>위험 상황 예방하기</b> , <b>위험 가능성 경고하기</b> , 명절의 의미 이해하기, 고향과 한국의 명절 비교하기, <b>기숙사 규칙 익히기</b> , 약속 취소하기, 제안 거절하기, 우체국에서 소포 보내기, 증상 설명하기, 실수에 대해 사과하기, 초대하기
중급1 (3단계)	걱정 표현하기, 권유하기, 기대 표현하기, 비교하기, 설명하기 <sup>176)</sup> , 소개하기, 요청하기, 작성하기, 조언 구하기, 조언하기, 주의주기, 지시하기, 질문하고 답하기, 추측하기, 확인하기	물건 교환하기, 환불하기, 자기소개하기, 경력 말하기, <b>정리정돈하기</b> , 문제점 해결 방안 설명하기, 요리 방법 설명하기, 요리 소개하기, <b>고민에 대해 조언 구하기</b> , 고민 표현하기, 주거 환경 설명하기, 소비와 절약에 대해 조언하기/조언 구하기, 고민에 대해 조언하기, 대인관계에 대해 조언 구하기, <b>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기</b> , <b>계약서 내용 이해하기</b> , 성격에 대해 설명하기, 성격 소개하기, <b>구직 활동에 대해 조언하기</b> , <b>이력서 작성하기</b> , 재활용품 분류 요청하기, <b>구직 정보 찾기</b> , <b>고용 조건 비교하기</b> , <b>안전 수칙 익히기</b> , <b>작업 내용 물어 보기</b> , <b>필수 가입 보험 확인하기</b> , 프로그램 등록하기
중급2 (4단계)	감사하기, 강조하기, 능력 표현하기, 명령하기, 불평하기, 비교하기, 설명하기, 요청하기, 위로하기, 의무 표현하기, 제안하기, 조언구하기, 조언하기, 추측하기, 축하하기, 항의하기, 확인하기, 후회 표현하기, 희망 표현하기	<b>보험금 청구하기</b> , <b>사업장 변경 신청하기</b> , <b>직장 업무 설명하기</b> , <b>직장 생활 조언하기</b> , <b>사고에 대해 설명하기</b> , 사고 처리 조언하기, 문화 차이 설명하기, 문화 적응 경험 말하기, 기초 법질서 지켜야 하는 이유 말하기, <b>휴가/병가 요건 확인하기</b> , 에너지 절약 방법 제안하기, 한국인의 통과의례 이야기하기, <b>구직 활동에 대해 조언하기</b> , <b>이력서 작성하기</b> , 취업에 실패한 친구 위로하고 조언하기, 합격 축하하기, <b>부당한 대우에 대해 항의하기</b> , 화가 난 일에 대해 불평하기, 건강에 대해 조언하기, 건강 관리법 익히기, 속담 인용해서 말하기, <b>작업 지시 내용 이해하기</b> , 지시 내용 이해하기, 목표 계획하기

기능 항목들 중 몇몇은 여러 번 나타나는데 이는 주제는 다르지만 목표로 하는 기능은 같기 때문이다. 과제 수행은 학습자들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교실 안에서 해 보게 함으로써 실제 언어 활동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176) 부동산에서 ‘주거 환경 설명하기’, 교환이나 환불 시 ‘사유를 설명하기’ 등을 들 수 있다.

한다. ‘체류 연장하기’, ‘통합 신청서 작성하기’ 등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실제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언어 학습을 할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욱 흥미를 갖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나아가 실제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초급에서는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 및 안전과 관련한 기능과 그에 맞는 과제들을 선정했으며, 중급에서는 직장 생활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과 과제 활동을 선정하였다.

### 3) 언어 지식(어휘, 문법)

지금까지 구체화된 주제와 그 주제 아래에서 구현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기능을 구체화한 과제를 제시한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언어 지식을 선정하고자 한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언어 지식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문법과 어휘는 언어 지식의 핵심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중 어휘는 특히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바, 학습자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어휘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어휘 목록을 참조할 수 있으나, 이 목록에서 제시하는 어휘<sup>177)</sup>는 한국어 교육에서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이 드러나는 어휘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어휘를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내용을 활용하고 직장 생활 관련 요구 조사 내용과 관련된 어휘를 추가하였으며, 어휘장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선정된 어휘는 다음과 같다.

---

177) 1급과 2급의 어휘는 일상적이고 친숙한 주제의 기초 어휘를 중심으로, 3급과 4급은 일상적이며 사회적인 주제를 포괄하는 기본어휘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5급과 6급은 일상적이며 사회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주제까지 보다 확장된 어휘들로 이루어져 있다(김중섭 외, 2017:81). 기초 어휘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필수적인 단어를 최소한(1,000~2,000개)으로 선정한 어휘를 뜻하며, 기본 어휘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 선정된 어휘이다.

<표 53> 한국어 교육과정 어휘 항목

등급 (단계)	어휘
초급1 (1단계)	인사 관련 어휘, 소개 관련 어휘, 일상생활 사물 관련 어휘, 장소 관련 어휘, <b>작업장 사물 관련 어휘</b> , 장소 관련 어휘, <b>일과 관련 어휘</b> , 시간, 수①, 날짜, 요일, 수②, 음식 관련 어휘, 단위 명사 관련 어휘, 가격 관련 어휘, 음식 관련 어휘, 맛 관련 어휘, 장소 관련 어휘, 주말 활동 관련 어휘, 가족 관련 어휘, 이혼 증상 관련 어휘, 신체부위 관련 어휘, 휴일 활동 관련 어휘, 교통 수단 관련 어휘, 약속 관련 어휘, 병명 관련 어휘, 날씨 관련 어휘, <b>안전 관련 어휘</b> , <b>보호구 관련 어휘</b> , <b>보호구 착용 관련 어휘</b> , <b>직장 내 호칭</b> , <b>높임 표현 어휘</b>
초급2 (2단계)	한국어 수업 신청 관련 어휘, 기분과 감정 관련 어휘, 위치와 방향 관련 어휘, 취미 관련 어휘, 빈도 부사, 옷/신발 착용 관련 어휘, 여가 관련 어휘, <b>사고 관련 어휘</b> , <b>금지/허락 관련 어휘</b> , 공공장소 명사, 환전, 해외 송금 관련 어휘, <b>공공기관 업무 신청서</b> , <b>안전 관련 어휘 (화재, 감전 등)</b> , <b>작업장 위험 관련 어휘</b> , 명절 관련 어휘, 규칙 관련 어휘, 모임 관련 어휘, 소포/택배 관련 어휘, 치료 관련 어휘, <b>실수/사과 관련 어휘</b> , 초대/방문 관련 어휘
중급1 (3단계)	교환/환불 관련 어휘, <b>면접 관련 어휘</b> , <b>작업 지시 관련 어휘</b> , <b>고장</b> , <b>수리 관련 어휘</b> , 음식 관련 어휘, 고민 관련 어휘, 상담 관련 어휘, 주거 환경/부동산 관련 어휘, 수입과 지출 소비 관련 어휘, <b>선배</b> , <b>후배</b> , <b>동료 등</b> , <b>표준근로계약서 구성 항목 어휘</b> , 성격 관련 어휘, <b>구직 관련 어휘</b> , 분리 배출 관련 어휘, <b>이직 및 구직 상담 관련 어휘</b> , <b>안전 수칙 관련 어휘</b> , <b>작업 관련 어휘</b> , <b>보험 가입 관련 어휘</b> , <b>귀국예정자 재정착 지원 교육 및 훈련 관련 어휘</b>
중급2 (4단계)	<b>보험금 청구 관련 어휘</b> , <b>사업장 변경 관련 어휘</b> , <b>직장 업무/직장 생활 관련 어휘</b> , 사건/사고 관련 어휘, 문화(생활습관) 관련 어휘, 문화 적응 관련 어휘, 질서/규칙과 관련된 어휘, 각종 생활 표지판 관련 어휘, <b>휴가/병가 관련 어휘</b> , 환경 관련 어휘, 한국의 의례 관련 어휘, 휴대전화 구입 및 개통 관련 어휘, 위로 관련 어휘, 축하 관련 어휘, 항의 관련 어휘, 갈등 관련 어휘, 질병 관련 어휘, 속담, <b>작업 업무 관련 어휘</b> , <b>작업장 사고 어휘</b> , 노력/성과와 실패 관련 어휘

직업 목적 한국어와 일반 목적 한국어의 큰 차이점은 어휘라고 할 수 있다. 직업 목적 한국어에서는 일반 목적 한국어에 비해 난이도가 다소 높은 어휘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초급부터 중급까지 안전과 관련한 어휘(보호구, 보호구 착용, 화재, 감전, 안전 수칙)를 많이 선정하였는데 이는 요구 조사 결과, ‘안전’과 관련된 교육 주제에 대한 필요 요구가 세 집단(근로자, 고용주 및 관리자, 교사) 모두 높았고, 특히 고용주 및 관리자는 다른 주제 항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178)

언어 교육의 최종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178) 고용주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5점 척도(1점은 ‘별로 필요 없음’, 2점은 ‘조금 필요함’, 3점은 ‘보통’, 4점은 ‘필요함’, 5점은 ‘꼭 필요함’)로 답하게 한 설문에서 평균 4.8점으로 나타났다.

이 강조되면서 정확정보다는 유창성이 강조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을 한다고 해서 문법이나 구조 등 언어 형태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설문 대상 초급 학습자들의 거주 기간을 보면 1~2년이 8%, 3~5년이 4%, 5년 이상이 6.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외국인 근로자들은 문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직장에서 불완전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중급 이상의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언어 지식 없이 의사소통 능력이 개발되기는 어렵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주당 6시간, 19회를 기준으로 할 때, 1회 수업에 2~3개를 학습한다고 가정하면 한 단계를 배우는 데 약 40~50개의 문법이 필요하고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160~200개의 항목이 필요하다.<sup>179)</sup> 본 연구에서는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다른 문법 항목에 대해서는 초급의 경우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다른 항목으로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으)ㄴ’, ‘-는’, ‘-(으)ㄴ’을 하나의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한 번에 하나의 문법과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하기 때문이다. 관형형의 경우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제시하면 학습자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또 단일 형태의 문법 범주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의미적 차이로 나누어 따로 제시하였다.<sup>180)</sup> 초급의 경우 세분화하여 제시하여야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법의 등급 구분은 사용 빈도와 난이도 및 학습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였고,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 관련성이 높은 것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문법 목록 중 초급과 중급 항목을 바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을 반영하였다. 선정된 문법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79)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문법 항목 수는 1급 45, 2급 45, 3급 67, 4급 67개로 중급의 누적 문법 항목 수는 224개이다.

180) ‘-아/어/여서’의 경우 ‘이유’와 ‘순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표 54> 한국어 교육과정 문법 항목

등급 (단계)	문법 항목
초급1 (1단계)	은/는, 입니다/입니까, 이/가, -아/어요, -습니다/-습니까, 에 있다/없다, 부터 ~까지, -지 않다(안), 이/가 아니에요, 에 가다, 을/를, 못/-지 못하다, -아/어 주세요, 와/과, 하고, -고 싶다, -(으)세요, -(으)니까요, -았/었-,에서, -께서, -지만, -아/어서, -고(순차), -(으)러 거예요, -고(순차), -(으)로(수단), -(으)러 가다, -(으)ㄴ후에, -(으)니까, 도, -(으)ㄴ 때, -고(나열), -겠-, 보다, 비불규칙, -아/어야 되다, -지 말다, -기 전에, -(으)ㄴ 수 있다, -(으)시-, -(으)십시오
초급2 (2단계)	마다, 밖에, -기로 하다, -네요, -(으)ㄴ 때, -지요, -다가, -(으)ㄴ래요?, -(으)ㄴ 줄 알다, 흥불규칙, -아/어 보세요, -(으)ㄴ 지, -게 되다, -(으)ㄴ, -(으)ㄴ는 것 같다, -아/어도 되다, -(으)면 안 되다, -아/어 주다, -(으)ㄴ게요, -(으)려면, -어 있다, -거나, -(으)ㄴ 수 있다, -(으)ㄴ/적이 있다, -(으)ㄴ 것, -(으)면 안 되다, -게, -(으)면 서, -기로 하다, -기, -(으)ㄴ, -(으)ㄴ데, -(으)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으로(목적지), -(으)려고 하다, -(으)ㄴ/는, -는 것, -는 동안에, -기 때문에, -(으)ㄴ래요, -는데
중급1 (3단계)	-(으)ㄴ 만하다, -아/어 가지고, -느라고, (이)라고 하다, -기 위해서, -아/어야, -아/어 두다, -자마자, -았/었더니, -나 보다, -고 말다, -(으)ㄴ 다음에, -고 나서, 만큼, -으려면 참이다, -자마자, -아/어 가지고, -(으)면 좋겠다, 이나/밖에, -는다고 하다, 에 대하여, -(으)면 되다, -기 위해서, -도록 하다, -어지다, -(으)ㄴ/는 대신에, -기 위한, -아/어 놓다, -(으)ㄴ 테니까, -(으)ㄴ텐데, -(으)면 좋겠다, -아/어야겠-, -도록 하다, -는 것이 중요하다, -(으)ㄴ/는 게 좋다, -아/어도, -에 대하여, -아/어 드리다, -는 중이다, -고 싶어 하다
중급2 (4단계)	-다면, -는 바람에, -다면서요, -다고 하다, -든지, -더라도, -(으)ㄴ 뻔하다, -(으)로 인하여, 에 비하여, -아/어서인지, -기 마련이다, -(으)ㄴ/는 탓에, -(으)로 인해서, -(으)ㄴ 뿐만 아니라, -다시피, -(으)므로, -더니, -는 사이에, -(으)며, -(으)ㄴ 수록, -는 한, -(으)ㄴ 걸 그랬다, -(으)ㄴ/는대로, -(으)ㄴ/는 줄, -잖아요, (이)라도, -기에, -아/어 버리다, -아/어 그런지, -아/어 보이다, -다더니, -ㄴ/는다더니, -지 않도록, -어야지, -라고 하다, -고요, -았/었더라면, -는다면

#### 4) 문화와 정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에서는 ‘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sup>181)</sup>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김중섭 외, 2017:200), 진정한 문화 교육은 문화 지식을 바탕으로 문화 관점을 이해하여 문화 행동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순애, 2023:220).

그러나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특수 목적의 교육인바, 문화를 학습한 후에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문화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sup>182)</sup> 학습자 설문에서

181) 예컨대 ‘전통 의상’의 경우, ‘한국의 전통 의상(문화 지식), 한국의 전통 의상 입어보기(문화 실행), 각 나라의 전통 의상에 대한 비교·이해(문화 관점)’ 모두에 포함될 수 있다.

182) 근로자에게 특화된 주제가 아닌 경우는 한국어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문화 내용은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문화간 소통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도 ‘외국인 근로자용 교재에서 가장 많이 다루면 좋을 내용’으로 ‘생활 정보’(46.8%)라고 응답하였다.<sup>183)</sup> ‘생활 정보’는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체류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의 내용으로는 주제와 관련성이 높으면서 문화 지식으로 활용도가 높고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화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5> 한국어 교육과정 문화 항목

등급 (단계)	문화와 정보
초급1 (1단계)	가족 호칭, <b>경로 우대</b> , 병원 진료 과목, <b>안전표지판 1</b> , <b>외국인종합안내센터</b> , 유명한 시장, 재난/안전 안내 문자, <b>직장에서의 인사 예절</b> , 직장인의 하루 일과, 한국의 공휴일, 한국의 상징, 한국의 음식, 한국의 카페문화, 한국의 화폐, <b>한국인의 식사 예절</b> , <b>한국인의 인사법</b> , 한국인의 주말 활동, 환승 할인 제도, 휴일 지킴이 약국
초급2 (2단계)	<b>사회통합프로그램</b> , 그림문자, 교통 표지판, 한국인의 취미, 쇼핑 장소, 유명한 여행지, 긴급 전화, <b>인근 소란</b> , ATM 기기 이용법, <b>하이코리아</b> , <b>산업 안전 표지판 1</b> , <b>산업 안전 표지판 2</b> , 특별한 날의 음식, 공동생활 문화, <b>회식 문화</b> , 한국의 주소, 119 이용법, ‘우리’ 문화, 방문 선물
중급1 (3단계)	<b>4대 보험</b> , 가계부 앱, <b>고용노동부</b> , 급여와 세금, 나이와 높임말, <b>면접 옷차림</b> , 성격과 직업, <b>안전 보건 공단</b> , <b>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b> , <b>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b> , <b>위기 탈출 안전 보건 앱</b>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b>안전 보건 공단 자료 이용법</b> , 재활용 실천 방법, <b>주요 재해 사례 및 예방법</b> , 품질보증서, 한국소비자원, 한국의 이사 문화, <b>직업 훈련 참여 신청서</b>
중급2 (4단계)	<b>각종 계약서 작성법</b> , 경조사 참석 예절, <b>고용 센터 이용법</b> , 관용어, 휴대폰 요금제, <b>기초 생활 법규</b> , 긴급 전화번호, <b>보호구</b> , <b>산재 보험</b> , 여러 나라의 몸짓 언어, <b>이민자 멘토 소개</b> , <b>작업장 재해 예방법</b> , 축하 선물,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한국의 배달 문화, 한국인의 금기, <b>한국인의 직장 생활</b> , 환경과 자연재해, <b>휴가/병가 신청서</b>

문화 항목에 대한 내용은 특히 심층 면접의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문화 내용을 살펴보면 초급1에 ‘경로 우대, 인사 및 식사 예절’ 등을 선정하였는데, 고용주 및 관리자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학습자들의 요구가 높았던 것은 ‘생활 정보’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동의 기준이 모국과 달라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염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소란’은 이러한 맥락과 닿아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공원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허용되지만 한국에서는 ‘인근 소란죄’에 해당된다.<sup>184)</sup>

183) 외국인 근로자용 교재에서 가장 많이 다루면 좋을 내용으로 ‘생활 정보(46.8%)>취업 및 직장생활(33.3%)>한국의 일상 문화(12.7%)>한국의 전통 문화(1.3%)’ 순으로 응답하였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원하는 생활 정보로는 ‘한국의 보험 제도, 한국의 법,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다.

184) 교사 a에 따르면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캄보디아 명절에 거주지 인근 공원에서 음악을 틀어 놓

이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장인으로서 처리해야 하거나 알아야 하는 개인적 업무(급여와 세금) 및 사회적 업무(산재 보험 등), 안전과 관련한 모국어 자료 이용 방법(안전 보건 공단 자료) 등의 내용을 선정하였다.

### 5.2.3. 교수요목의 실제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5등급 중 필수 과정으로 제안한 1~4단계의 교수요목을 설계하고자 한다. 교수요목(syllabus)은 교수·학습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순서에 대한 계획을 의미하며 교육 내용의 단순한 목록화를 넘어 교수·학습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언어 교수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직화하는 과정이다. 교수요목은 교수할 내용 및 교수 시간과 교수 방법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교육과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 요소이다(강현화 외, 2022:61).<sup>185)</sup>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실제 생활에서 겪어야 하는 어떤 행동이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혹은 도구로서 언어 학습이 필요한바(박성수, 2006:22),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중심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기능 교수요목을 활용하는 다중 교수요목으로 구성하였다.<sup>186)</sup> 비전문 취업(E-9) 근로자의 경우 앞 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짧은 시간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입국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1단계부터 일상생활, 직장 생활(현장 업무 포함)을 모두 교수요목에 반영하였다. 초급과 중급은 각각 20개 단원(복습 1개 단원 포함)으로 구성하였다. 1~4단계의 교수요목은 다음과 같다.

---

고 춤을 추다가 ‘인근 소란’으로 신고를 당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소연하였다고 한다.

185) 일반적으로 교육 내용을 배열할 때는 난이도(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시간 순서, 학습자 요구, 학습 순서, 전체에서 부분/부분에서 전체 그리고 학습한 것을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나선형 구조로 배열한다(Richards, 2001:149-151).

186) 복합적 설계의 경우 무엇을 일차 기준으로 삼았는가에 따라 ① 구조-상황적 설계 ② 구조-기능적 설계 ③ 기능-구조적 설계 ④ 상황-구조적 설계 ⑤ 상황/기능/구조적 설계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상황/기능/구조적 설계는 학습자가 자주 부딪히게 되는 상황과 사용해야 할 기능, 언어 구조의 단계적 배열을 동시에 고려하는 설계 방식이다(방성원, 2000:120-121).

<표 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초급1(1단계)

단원	주제/상황	기능	과제	문법	어휘	문화와 정보
1	인사 소개	인사하기 소개하기	인사하기 자기소개하기	은/는 입니다/입니까	인사 관련 어휘 소개 관련 어휘	한국인의 인사법
2	사물 1	질문하고 답하기	사물 이름 말하기	이/가 -아/어요	일상생활 관련 어휘 장소 관련 어휘	한국의 상징
3	사물 2	질문하고 답하기 설명하기	사물 이름 말하기 위치 말하기	-습니다/-습니까 에 있다/없다	작업장 관련 어휘 장소 관련 어휘	직장에서 의 인사 예절
4	하루 일과	질문하고 답하기 설명하기	하루 일과 말하기	부터 ~까지 -지 않다(안)	일과 시간 관련 어휘 수①	직장인의 하루 일과
5	날짜와 요일	질문하고 답하기 설명하기	시간 말하기 날짜/요일 말하기	이/가 아니에요 에 가다	날짜, 요일 수②	한국의 화폐
6	음식	질문하고 답하기 선호 표현하기	좋아하는 것 말하기	을/를 못/-지 못하다	음식 관련 어휘	한국인의 식사 예절
7	쇼핑	질문하고 답하기 비교하기 확인하기	물건 사기	-아/어 주세요 와/과 하고	단위 명사 관련 어휘 가격 관련 어휘	유명한 시장
8	식당	제안하기 요청하기 명령하기	음식 주문하기 의견 묻기 메뉴판 읽기	-고 싶다 -(으)세요 -(으)니까요	음식 관련 어휘 맛 관련 어휘	한국의 음식
9	주말	질문하고 답하기 설명하기	주말 활동 말하기	-았/었- 에서	장소 관련 어휘 주말 활동 관련 어휘	한국인의 주말 활동
10	가족	질문하고 답하기 호칭하기	가족 소개하기	-께서 -지만	가족 관련 어휘	가족 호칭
11	약국	질문하고 답하기 설명하기 명령하기	아픈 증상 설명하기 <sup>1</sup>	-아/어서 -고(순차)	아픈 증상 관련 어휘 신체 부위 관련 어휘	휴일 지킴이 약국
12	휴일 계획	계획 말하기	휴일 계획 말하기	-(으)러 거예요 -고(나열)	휴일 활동 관련 어휘	한국의 공휴일
13	교통	묻고 답하기 의도 표현하기	교통 수단 이용하기	-(으)로(수단) -(으)러 가다	교통 수단 관련 어휘	환승 할인 제도
14	약속	제안하기 동의하기	약속하기	-(으)니 후에 -(으)니까	약속 관련 어휘	한국의 카페 문화
15	병원	질문하고 답하기 설명하기 명령하기	아픈 증상 설명하기 <sup>2</sup>	도 -(으)러 때 -고(나열)	병명 관련 어휘	병원 진료 과목
16	날씨	설명하기 비교하기	날씨 말하기	-겠- 보다, 더불어	날씨 관련 어휘	재난, 안전 안내 문자
17	안전 1	명령하기 금지하기	위험 경고하기	-아/어야 되다 -지 말다	안전 관련 어휘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18	안전 2	설명하기 명령하기	보호구 착용법 설명하기	-기 전에 -(으)러 수 있다	보호구 관련 어휘 보호구 착용 관련 어휘	안전표지판 1
19	높임말	질문하고 답하기 호칭하기	호칭 말하기 높임말 이해하기	-(으)시- -(으)십시오	직장 내 호칭 높임 표현 어휘	경로 우대
20	복습					

<표 57>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초급2(2단계)

단원	주제/상황	기능	과제	문법	어휘	문화와정보
1	한국어 수업	신청하기 확인하기	한국어 과정 신청하기	마다 밖에 -기로 하다	한국어 수업 신청 관련 어휘	사회 통합 프로그램
2	기분과 감정	표현하기 설명하기	기분에 대해 말하기	-네요 -(으)르 때	기분과 감정 관련 어휘	그림문자
3	길 찾기	설명하기	한국어 학습 기관 위치 확인하기	-지요 -다가	위치와 방향 관련 어휘	교통 표지판
4	취미	소개하기	취미 소개하기	-(으)르래요 -(으)르 줄 알다	취미 관련 어휘 빈도 부사	한국인의 취미
5	쇼핑	물건 사기	마음에 드는 옷 사기	흐불규칙 -아/어 보세요	옷, 신발, 착용 관련 어휘	쇼핑 장소
6	여가	계획하기	여가 활동 말하기	-(으)르 지 -게 되다	여가 관련 어휘	유명한 여행지
7	사고	서술하기 설명하기 주측하기	사고 상황 말하기	-(으)르 -(으)르/는 것 같다	사고 관련 어휘	긴급 전화
8	공공장소	금지하기 허락하기	공공장소 예절 이해하기	-아/어도 되다 -(으)면 안 되다	금지, 허락 관련 어휘, 공공장소 명사	인근 소란
9	은행	요청하기 부탁하기 설명하기	환전하기 해외 송금하기	-아/어 주다 -(으)르게요	환전, 해외 송금 관련 어휘	ATM 기기 이용법
10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설명하기 부탁하기	통합신청서 작성하기 체류 연장하기	-(으)려면 -어 있다	공공기관 업무 신청서	하이코리아
11	안전 1	경고하기 경험말하기 가능 표현하기	위험 경고하기	-거나 -(으)르 수 있다 -(으)르/적이 있다	안전 관련 어휘 (화재, 감전 등)	산업안전 표지판 1
12	안전 2	경고하기 설명하기	위험 상황 예방하기 위험 가능성 경고하기	-(으)르 것 -(으)면 안 되다	작업장 위험 관련 어휘	산업안전 표지판 2
13	명절	비교하기	명절의 의미 이해하기 고향과 한국의 명절 비교하기	-게 -(으)면서 -기로 하다	명절 관련 어휘	특별한 날의 음식
14	기숙사	요청하기 부탁하기	기숙사 규칙 익히기	-기 -(으)르	규칙 관련 어휘	공동 생활 문화
15	모임	거절 표현하기	약속 취소하기 제안 거절하기	-(으)르 수밖에 없다 때문에	모임 관련 어휘	회식 문화
16	우체국	요청하기	우체국에서 소포 보내기	-으로(목적지) -(으)려고 하다	소포/택배 관련 어휘	한국의 주소
17	병원	설명하기	증상 설명하기	-(으)르/는 -는 것	치료 관련 어휘	119 이용법
18	실수/사과	사과 표현하기	실수에 대해 사과하기	-는 동안에 -기 때문에	실수, 사과 관련 어휘	'우리'문화
19	초대와 방문	요청하기 권유하기	초대하기	-(으)르래요? -(으)르 데/는데	초대/방문 관련 어휘	방문 선물
20	복습					

<표 58>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중급1(3단계)

단원	주제/상황	기능	과제	문법	어휘	문화와정보
1	교환/환불	설명하기 요청하기	물건 교환하기 환불하기	-(을)르 만하다 -아/어 가지고 -느라고	교환/환불 관련 어휘	한국 소비자 원
2	면접	소개하기	자기소개하기 경력 말하기	(이)라고 하다 -기 위해서	면접 관련 어휘	면접 옷차림
3	정리 정돈	지시하기	정리 정돈하기	-아/어야 -아/어 두다 -자마자	작업 지시 관련 어휘	안전 보건 공단 자료 이용법
4	고장과 수리	설명하기 추측하기 요청하기	문제점 해결 방안 설명하기	-았/었더니 -나 보다 -고 말다	고장, 수리 관련 어휘	품질보증서
5	음식과 요리	설명하기 소개하기	요리 방법 설명하 기 요리 소개하기	-(으)니 다음에 -고 나서 만큼	음식 관련 어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6	고민과 상담	조언하기 조언구하기 걱정 표현하 기	고민에 대해 조언 구하기 고민 표현하기	-(으)려던 참이 다 -자마자	고민 관련 어휘 상담 관련 어휘	외국인노동 지원센터
8	부동산	설명하기 권유하기	주거 환경 설명하기	-아/어 가지고 -(으)면 좋겠다	주거 환경 부동산 관련 어휘	한국의 이사 문화
9	소비와 절약	조언하기 조언구하기	소비와 절약에 대 해 조언하기, 조언 구하기	이나/밖에 -는다고 하다	수입과 지출 소비 관련 어휘	가계부 앱
10	대인 관계	조언하기 조언구하기	고민에 대해 조언 하기 대인관계에 대해 조언 구하기	에 대하여 -(으)면 되다	선배, 후배, 동 료 등	나이와 높임 말
11	표준근로계 약서	설명하기 작성하기	표준근로계약서 작 성하기 계약서 내용 이해 하기	-기 위해서 -도록 하다	표준근로계약서 구성 항목 어휘	외국인고용 관리시스템
12	성격	소개하기 설명하기	성격에 대해 설명 하기 성격 소개하기	-어지다 -(으)니/는 대 신에	성격 관련 어휘	성격과 직업
13	취업	조언하기 조언구하기	구직 활동에 대해 조언하기 이력서 작성하기	-기 위한 -아/어 놓다	구직 관련 어휘	급여와 세금
14	분리 배출	설명하기 요청하기	재활용품 분류 요 청하기	-(으)르 테니까 -(으)르텐데	분리 배출 관련 어휘	재활용 실천 방법
15	이직/구직	비교하기	구직 정보 찾기 고용 조건 비교하기	-(으)면 좋겠다 -아/어야겠-	이직 및 구직 상 담 관련 어휘	고용노동부
16	안전	확인하기 주의주기	안전 수칙 익히기	-도록 하다 -는 것이 중요 하다	안전 수칙 관련 어휘	위기 탈출 안전보건 앱
17	작업	질문하고 답 하기 주의주기	작업 내용 물어 보 기	-(으)니/는 게 좋다 -아/어도	작업 관련 어휘	주요 재해 사례 및 예 방법
18	보험 가입	확인하기 설명하기	필수 가입 보험 확 인하기	-에 대하여 -아/어 드리다	보험 가입 관련 어휘	4대 보험
19	취업 교육	설명하기 기대 표현하 기	프로그램 등록하기	-는 중이다 -고 싶어 하다	귀국예정자 재 직지원 교육 및 훈련 관련 어휘	직업 훈련 참여 신청서
20	복습					

<표 59>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중급2(4단계)

단원	주제/상황	기능	과제	문법	어휘	문화와정보
1	보험	요청하기	보험금 청구하기	-다면 -는 바람에	보험금 청구 관련 어휘	산재 보험
2	사업장 변경	확인하기 설명하기 조언 구하기	사업장 변경 신청하기	-는 대로 -는다면서	사업장 변경 관련 어휘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EPS) 이용법
3	직장 생활	설명하기 조언하기 조언구하기	직장 업무 설명하기 직장 생활 조언하기	-든지 -더라도	직장 업무 생활 관련 어휘	한국인의 직장 생활
4	사건과 사고	설명하기 조언하기	사고에 대해 설명하기 사고 처리 조언하기	-(으)르 뻔하다 -(으)로 인하여	사건/사고 관련 어휘	긴급 전화 번호
5	문화 차이	설명하기	문화 차이 설명하기 문화 적응 경험 말하기	에 비하여 -아/어서인지	문화(생활습관) 관련 어휘 문화 적응 관련 어휘	한국의 배달 문화
6	법과 질서	조언하기 강조하기	기초 법질서 지켜야 하는 이유 말하기	-기 마련이다 -(으)르/는 탓에	질서/규칙 관련 어휘 각종 생활 표지판 관련 어휘	기초 생활 법규
7	휴가/병가	설명하기 확인하기	휴가/병가 요건 확인하기	-(으)로 인해서 -(으)르 뿐만 아니라	휴가/병가 관련 어휘	휴가/병가 신청서
8	환경 보호	설명하기 제안하기	에너지 절약 방법 제안하기	-다시피 -(으)므로	환경 관련 어휘	환경과 자연재해
9	한국의 의례	설명하기	한국인의 통과의례 이야기하기	-더니 -는 사이에	한국의 의례 관련 어휘	경조사 참석 예절
10	통신	비교하기 요청하기	휴대전화 개통하기	-(으)며 -(으)르수록	휴대전화 구입 및 개통 관련 어휘	휴대폰 요금제
11	후회	조언하기 위로하기 후회 표현하기	취업에 실패한 친구 위로하고 조언하기	-(으)르 테니까 -(으)르 걸 그랬다	위로 관련 어휘	한국인의 금기
12	취업	축하하기 감사하기 추측하기	합격 축하하기	-(으)르/는대로 -(으)르/는 줄	축하 관련 어휘	축하 선물
13	항의	항의하기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항의하기	-잖아요 (이)라도	항의 관련 어휘	각종 계약서 작성법
14	갈등	불평하기	화가 난 일에 대해 불평하기	-기에 -아/어 버리다	갈등 관련 어휘	여러나라의 음식 언어
15	건강	조언하기	건강에 대해 조언하기 건강 관리법 익히기	-아/어 그런지 -아/어 보이다	질병 관련 어휘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16	한국의 속담	비교하기 설명하기	속담 인용해서 말하기	-다더니 -르/는다더니	속담	관용어
17	작업	명령하기 의무 표현하기	작업 지시 내용 이해하기	-지 않도록 -어야지	작업 업무 관련 어휘	보호구
18	안전	명령하기 조언하기	안전 지시 내용 이해하기	-라고 하다 -고요	작업장 사고 어휘	작업장 재해 예방법
19	꿈과 미래	조언하기 희망 표현하기	목표 계획하기	-왔/었더라면 -는다면	노력, 성공과 실패 관련 어휘	이민자 멘토 소개
20	복습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및 작업 현장에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제 항목은 학습자인 외국인 근로자와 이해 관계자들(고용주 및 관리자, 한국어 교사)의 요구와 필요 정도가 높은 내용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주제와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언어를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나선형으로 배열하여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실제적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는 자연스러운 담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사소통 능력 배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다중 교수요목을 기반으로 주제와 기능·과제·어휘·문법 등의 범주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설계하였다.

예컨대 주제가 1급(1단계) 8과 ‘식당’이라는 주제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 의견을 묻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으로 ‘명령하기’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과제 활동으로는 ‘음식 주문하기’를 설정할 수 있다. 문법은 ‘명령하기’라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으)세요’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표 56> 초급 1(1단계)를 보면 ‘주제/상황’에서는 일반 목적 한국어와의 차별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직업 목적의 한국어와 일반 목적 한국어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어휘를 통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4과의 ‘하루 일과’를 예로 들면 실제 수업에서는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현장에서의 하루 일과, 결혼 이민자라면 가정 생활에서 일어나는 하루 일과, 중도 입국 자녀는 학교 생활 중심의 하루 일과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어휘나 표현을 배워야 할 것이다. 이처럼 주제는 같다고 하더라도 학습자의 집단에 따라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이 매우 다르므로 실제로 제시되는 어휘도 다를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주제가 ‘날씨’인 경우 근로자들이 계절에 따라 작업 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다. 봄에는 ‘춘곤증’<sup>187)</sup> 등으로 인한 안전 사고, 여름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작업장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의 내용으로 읽기나 담화 예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8> 중급1(3단계)의 경우에도 앞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제6과 ‘고민과 상담’의 경우에도 학습자 집단별로 고민의 내용이 다 다를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는 자신에게

187) 날씨는 초급 1의 주제로 선택했으므로 어휘는 숙달도에 맞게 어느 정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업무에 대해 참견하는 동료 때문에 고민하는 내용(인간 관계), 한국에 계속 남을 것인지, 회사를 옮겨야 할지, 비자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의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다<sup>188)</sup>.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본고에서 제시한 교수요목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도 전체 한국어 교육의 한 부분이므로 주제, 문법 등은 이민자들의 공통 학습 요소로 두고 교재로 구체적으로 구현 시, 학습자 집단에 따라 어휘 내용을 다르게 구성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 5.3.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방향

#### 5.3.1. 교재의 기능 및 개발 원리

교재는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수 학습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료로서 교육과정에 담긴 내용을 교육 철학과 함께 제공하는 물리적 실체를 말한다. 교재는 교육을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행위’로 볼 때 ‘무엇’을 담고 있는 총체물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민현식 외, 2014:892).<sup>189)</sup> 즉, 교재는 교육 내용을 구체화한 자료로서 교수·학습 목표, 방향, 내용, 교수법을 제공하고,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한다. 특히 언어 교육에서는 잘 조직된 교재가 교육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서종학 외(2017:9~16)에서는 언어 교수 학습 상황에서의 기능을, 교재의 사용자인 교사와 학습자의 측면에서 수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이를 기능적 관련성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88) 이 내용은 심층 면담 시 교사 b가 이야기한 사례로서 학습자가 교사에게 말한 고민의 내용이다. 이어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에는 ‘육아 문제’, ‘진로·취업 문제’, ‘집안 문제’, ‘인간 관계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등 모든 참여자를 고려하여 어휘를 제시하고 있어서, 학습자별로 관심 영역이 달라 효율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189) 교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교재와 좁은 의미의 교재로 구분한다. 넓은 의미의 교재는 교육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교육 자료, 즉 교과서, 워크북, 참고서, 어휘집, 비디오, 웹 교재, 그림, 사진, 광고 등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다. 좁은 의미의 교재는 교수요목과 내용의 대부분을 다룬 교재로서 수업에서 중심적으로 쓰이는 주교재, 연습서, 참고서, 사전 등의 부교재와, 주 교재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는 보충 교재를 말한다.

<표 60> 교재의 4대 기능(서종학·이미향·박진옥, 2017:16) 재구성

기능 1	교수 학습 목표 제시	교수 목표 제시, 교육과정 구현, 학습 동기 유발
기능 2	교수 학습의 내용 규정	교수 내용 제공, 표준이 되는 언어 제공, 학습 내용 제공
기능 3	교수 학습의 전략과 방법 제공	교수법 제공, 학습 방법 제공
기능 4	평가의 대상과 자료 제공	교수 자료 제공, 교수 평가의 근거 제공, 평가 대비 자료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재는 첫째, 교재는 교수 학습의 목표를 제시해 주는 데, 교수-학습 목표를 고려한 교육과정이 교재를 통해 구현됨으로써, 교사는 교재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 내용을 제공받고, 학습자는 학습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동시에 학습 내용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또 교사의 변인이 학습자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좋은 교재는 교사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교재는 교수, 학습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교사나 학습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교수 내용<sup>190)</sup>을 제공하며,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다양한 방언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재를 통해 표준이 되는 언어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교재는 교수 학습의 전략과 방법을 제공하는데, 교재를 제작할 때 효율적인 순서를 반영하여 제작되는데 이것은 학습자에게 학습의 방향과 순서를 알려 준다.

넷째, 교재는 평가의 대상과 자료를 제공하는데, 교사는 교재에 실린 각종 자료<sup>191)</sup>를 수업을 하는 데 활용하며, 교육 목표에 따라 개발된 교재는, 수업의 평가자 및 피평가자는 평가의 근거를 교재에 둔다. 또 학습자는 성취도 평가, 형성 평가 등을 통해 자신의 학습 성취도를 확인하는데 교재를 통해서 평가에 대비할 자료를 제공받는다.

교재는 교수요목에 기반하여 구성되어야 하고, 단원 구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편찬되어야 하며,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는바, 교재가 ‘의사소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한국어 교재 개발 시 적용되는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박영순(2003:172~177)에서는 교재 개발 원리로서 철학이 있는 교재, 학습자 중심 교재, 흥미 유발 교재, 지적 호기심 자극 교재,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에 의거한 교재, 정확하고 표준적인 한국어 교재,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고 목표어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교재를 들었다. 김

190) 어휘와 문법, 본문, 읽기 텍스트, 문화 텍스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191) 교재 안에 포함된 그림, 도표, 사진 등을 비롯하여 연습 문제, 학습 과제 등을 말하며, 교재에 딸린 지침서 등도 포함된다.

정숙 외(2006)에서는 학습 목적을 비롯해 학습자의 연령이나 모국어, 출신 지역, 한국어 능력 수준, 한국어 학습 목적 등의 변인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밝히며, 기본 원리로 일곱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박영순(2003)과 김정숙 외(2006)의 주요 원리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육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학습자나 교육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학습자가 목표 언어로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 언어를 사용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교재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도구이므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과정, 교육 방법, 교육 절차를 설계하고 구성해야 한다.

여섯째,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은 함께 이루어지므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한국어 사용 능력이 실질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홉째, 학습자가 목표로 하는 담화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열째, 선행 과제와 후행 과제를 긴밀히 조직하는 등 단계적 과정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교재 개발의 원리에 따라 교수·학습의 핵심 사항을 교재에 반영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 내용을 확보하고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위에서 제시한 한국어 교재 개발의 원리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에 적용하여 교재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5.3.2. 교재 개발 방향

앞에서 살펴본 교재의 정의와 기능, 유형, 개발 원리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자 중심이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요구와 목표를 고려하고 실제 생활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학습 활동을 위한 기능과 과제까지 학습자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곧 교재가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와 목적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흥미나 관심 영역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인지가 발달하고 여러 사회 문화적 경험이 많은 성인 학습자이므로 그들의 일상이 담긴 내용이 주어질 때 의사소통 욕구가 증폭되는 물론이고 이것이 실제로 언어로 표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요구 조사를 반영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주 접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습자는 교재에 나오는 내용과 예문으로 언어 정보를 습득하는데 일반적으로 교재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단순화되고 인위적인 면이 있어 실제 발화 상황과 거리가 있는 내용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실제 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이 중심이 되는 교재라야 하며, 교재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직업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다양한 직업의 특수한 현장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교재를 개발할 수는 없더라도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제조업은 산업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최소한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일상생활 및 직장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한국 문화 교육 내용을 담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 문화 내용은 우선적으로 교재 내 주제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문화 요소를 선정하고, 그다음으로 주제와 관련하여 문화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4.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의 실제

### 5.4.1. 단원 구성의 모형

한국어 교육은 교수·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교실에서 배운 한국어를 여러 상황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재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도구(유수정, 2000:448)로서 목표어의 실제적인 담화 특징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절에서는 단원의 실재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단원 구성 모형 제시

단원의 구성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모형을 따랐으며, 본 연구에서는 중급 단원을 예로 제시하고자 한다. 중급은 20개 단원(복습 1개 단원 포함)으로, 각 단원은 10쪽으로 구성하였으며, 5-6시간 분량이다.

<표 61> 중급 2 단원 구성

1쪽	2쪽	3쪽	4쪽	5쪽	6쪽	7쪽	8쪽	9쪽	10쪽
도입	어휘	문법1	문법2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화와 정보

앞에서 제시한 4단계(중급 2) 교수요목의 제2과를 단원 구성의 예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 단원을 선택한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와 관련된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비용을 지불하고 행정사에게 의뢰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육 내용 범주도 일반 목적 한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원명은 해당 단원에서 배우게 될 문법과 주제를 포함한 문장으로 제시한다.

<표 62> 중급 2-2과 교수요목<sup>192)</sup>

주제/상황	기능	과제	문법	어휘/표현	문화
사업장 변경	확인하기 설명하기 조언 구하기	사업장 변경 신청하기	-는 대로 -는다면서	사업장 변경 관련 어휘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EPS) 이용법

### 5.4.2. 단원 구성의 실제

교재의 기본 단위는 단원으로서 교육 내용을 일정한 시간 안에 가르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놓은 일련의 계획이며, 수업은 단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중급 2(4단계)의 단원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2) 연구자가 행정사에게 확인해 본 결과, 비자 변경, 체류 기간 연장 신청과 같은 어렵지 않은 것 까지도 의뢰한다고 한다.

## 제2과 회사가 휴업을 한다면서요?19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영지 제13호제시 ) EPRS시스템(www.epr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변경신청서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양식)

+업수	업수연월일	업수번호	제리부서	+선발	발령지명(도)	과장	팀장	담당
-----	-------	------	------	-----	---------	----	----	----

\* [ ]에는 해당하는 것에 √표를 합니다.

①신청인 정보

성명(영어) \_\_\_\_\_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_\_\_\_\_  
 국적 \_\_\_\_\_  
 연락처 \_\_\_\_\_ 한국 내 거주지 주소 \_\_\_\_\_  
 휴대전화번호(없을 경우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_\_\_\_\_

②사업장 변경신청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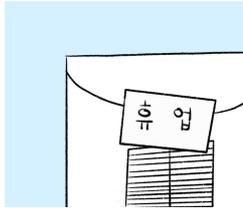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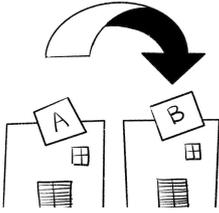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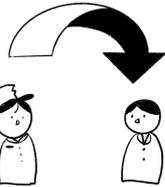
[ ] 근무계약기간 만료 [ ] 근무계약 해지  
 [ ] 휴업폐업, 고용위기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 ] 상해 등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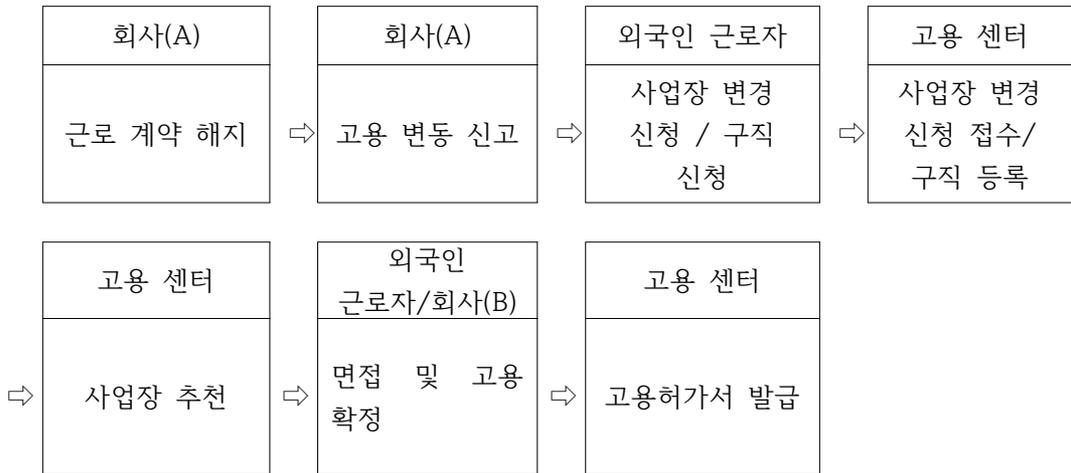
- 이 사람들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 회사가 휴업을 하게 됐어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93) 단원명은 이 단원에서 ‘회사의 휴업’에 따라 근로자가 해야 할 ‘사업장 변경하기’라는 기능 요소를 드러내 주고 있다.

**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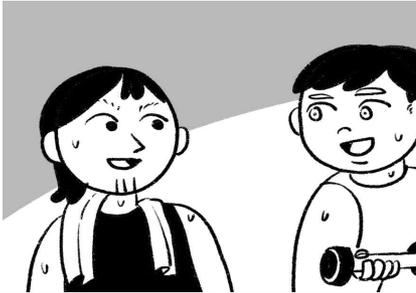
계약 기간 만료	계약 해지	휴업하다	폐업하다
			
사업장 변경 사유	고용 변동	계약 체결	발급
			

2. 사업장 변경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문법1 동 -는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곧바로 나타낸다.



출근하는 대로 기계를 점검해 주세요.

가: 산토스 씨, 가족은 언제 초청하려고 해요?

나: 비자를 받는 대로 초청하고 싶어요.

산토스: 잠시드 씨, 한국에 더 있을 거예요?  
 잠시드: 아니요,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가려고 해요.

받다	받는 대로
만나다	만나는 대로
만료되다	만료되는 대로
변경하다	변경하는 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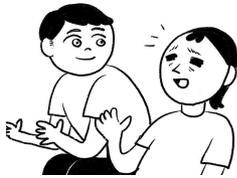
1. 그림을 보고 <보기>와 같이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잠시드 씨,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  
 네요.

네, 그래서 일이 끝나는 대로 기숙사  
 에서 쉬려고 해요.

**피곤해 보인다**

**일이 끝나다/기숙사에서 쉬다**



공용 센터에서 문자가 오다?

아직 못 받다. 문자를 받다/알려 주다

2. 어떤 일을 한 다음에 바로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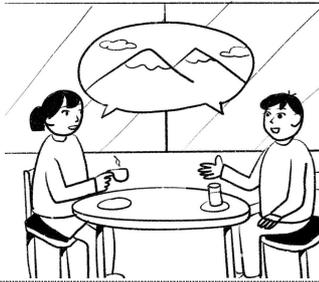
공구가 정리 정돈이 안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문법2 동/형 -는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확인하여 다시 물을 때 사용한다.



요즘 회사 일이 많다면서요?

가: 이번 주 일요일에 잠시드 씨하고 등산  
가기로 했다면서요?

나: 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오랜만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모헌 씨도 같이 갈래요?

가: 모헌 씨, 잠시드 씨한테 들었는데  
다음 달에 고향에 돌아간다면서요?

나: 네, 이번 달에 계약 기간이 만료돼  
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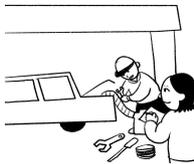
가다	간다면서
휴업하다	휴업한다면서
출다	출다면서
바쁘다	바쁘다면서

1. 그림을 보고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요즘 자동차 정비 교육을 받는다면서  
요?

네, 고향에 돌아가면 필요할 것 같아서  
받고 있어요.

자동차 정비 교육을 받다



고향에 돌아가면 필요할 것 같아서 받다



E-7비자를 취득했다



이번에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취득하다



2.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확인해 보세요.

요즘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서요?

네, E-7 비자로 바꾸려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 평가를 꼭 합격해야 돼서요.

**말하기** 

1. 두 사람이 사업장 변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 산토스 씨도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적이 있다면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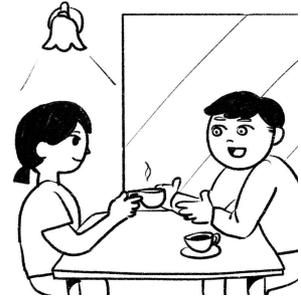
나: 네, 저도 작년에 회사가 폐업을 해서 회사를 옮겼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어요?

가: **사장님 건강이 안 좋아서** 회사가 **휴업을 해요**. 그래서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나: 그렇군요. 사업장 변경 신청하는 건 제가 도와 드릴게요.

가: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는 진짜 **바쁠 것 같아요**. 직장도 구해야 되고 고용 센터에 가서 신고도 해야 되고요.

나: 고용 센터에 안 가고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돼요. 그리고 고용 센터에서 회사를 소개해 주니까 문자 받는 대로 회사에 연락해 보세요.



1) 사장님 건강이 안 좋다/휴업을 하다/바빠다

2) 회사 사정이 안 좋다/폐업을 하다/신경 쓸 일이 많다

2. 사업장 변경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변동 신고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서(사업주용)	사업장 변경 신청서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서(근로자용) 외국인 등록증 여권 사본

듣기 

1. 고용센터에서 새로운 회사를 소개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 센터에서 소개해서 전화했습니다.

회사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 보세요

<듣기 지문>

근로자: 안녕하세요? 고용 센터에서 소개해서 전화했습니다  
 직 원: 네, 안녕하세요? 혹시 회사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 보세요.  
 근로자: 네, 급여하고 직무 이런 건 확인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교통이 좀 불편하다면서요? 혹시 기숙사가 있어요?  
 직 원: 네, 있어요. 그럼 내일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오시겠어요?  
 근로자: 알겠습니다. 버스 시간을 확인하는 대로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직 원: 네, 그럼 내일 이력서를 꼭 가지고 오세요

2.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 1)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궁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 2) 들은 내용과 같으면 ○, 다르면 × 하십시오.
  - ① 회사 직원은 지금 면접을 보고 있다.(                    )
  - ② 외국인 근로자는 지금 회사를 옮기려고 한다.(                    )
  - ③ 외국인 근로자는 지금 버스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

발음	직무[징무] 박물관[방물관] 한국말[한궁말]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직무는 확인했어요? 2) 직무는 뭐예요?
----	--------------------------------	---

**읽기 1**

1. 고용 센터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왼쪽에서 찾아 연결하고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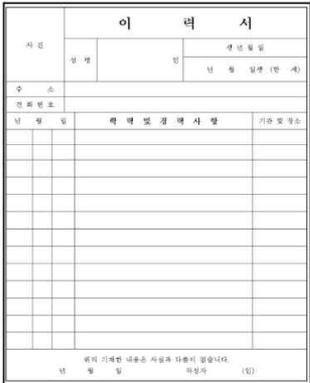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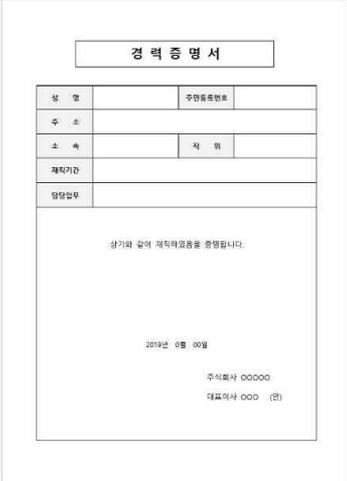
문의 .	. _____	내용: 가구 조립
직무 .	. _____	: 2,445,150원
급여 .	. _____	지역: 경기도 시흥시
채용 .	. _____	시간: 08:30~17:30
근로 .	. _____	(주)다원가구(031-123-4567)

<보기>

1) 어떤 일을 할 사람을 뽑아요?

2) 근무하는 지역은 어디예요?

2. 직장을 새로 구했습니다. 회사에 무엇을 제출해야 합니까?

<서류>	<경력 증명서>	<신분증 사본>
 <p>이 력 시</p> <p>사 진, 생 연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년 월 일 (만 세), 학 령 및 경 령 사 령, 기 관 및 직 소</p>	 <p>경 령 증 명 서</p> <p>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직 위, 재직기간, 담당업무</p> <p>상기와 같이 재직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2019년 0월 00일</p> <p>주식회사 00000 대표이사 000 (인)</p>	 <p>PASSPORT</p>

**읽기 2**

이제 같은 지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면서요?

앞으로 고용 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같은 지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바뀐다. 지금까지는 지역에 상관 없이 변경이 가능하였으나, 수도권으로 이동이 많아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가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회사를 옮기려면 고용 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반드시 근로 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하루라도 어기면 출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 센터에서 고용 허가서를 받는 대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회일보 김000

1. 앞으로 사업장 변경이 같은 지역 내에서만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윗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 ① 사업장 변경 신청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② 사업장 변경 신청은 계약이 끝나고 한 달 후에 신청한다.
- ③ 사업장 변경 신청 후 세 달 안에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야 한다.
- ④ 근무처를 변경한 후에 고용 센터에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3. 다음은 고용센터에서 받은 문자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p><b>सिफारिस भएको विवरण चेक जाँच</b></p> <p>विभिन्न भाषाको रोजगार प्राप्तको विवरण आफ्नै सल्लाह ।          दुपलमा नभन्दा आर्दिमान प्रयोग गरेर रोजगार स्वयंको डाटा बना लगाउन सकिन्छ ।          कुनैपनि व्यक्तिगत खातामा मात्र भन्ने सल्लाहको प्रयोगको लागि जानकारी प्राप्त हुने छैन ।</p> <p><b>कार्यस्थान इतिहास संधधुप्रमा कार्य स्थानान्तरण</b></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p>जम्मा:प्राप्तोत्तरमा</p> <p>जम्मा:प्राप्तोत्तरमा</p> <p>कार्य गर्ने समय/दिनांक क्षेत्र:</p> <p>क्यासी शिखर शिखर</p> <p>दाउम/गठम</p> <p>जम्मा (साल/दिनांक):</p> <p>1,745,150</p> <p>पिण्ड</p> <p>नम्र</p> <p>कार्यको लागि खुला भएको क्षेत्र:</p> <p>कुनैकुनैसकल सज्जोप: गिजे र्गु सज्जोप</p> <p>कार्यको लागि खुला भएको क्षेत्र:</p> <p>कुनैकुनै सज्जोप</p> </div>	<p>जम्मा:प्राप्तोत्तरमा</p> <p>कार्यको लागि खुला भएको क्षेत्र:</p> <p>क्यासी शिखर शिखर</p> <p>दाउम/गठम</p> <p>जम्मा (साल/दिनांक):</p> <p>2,010,580</p> <p>पिण्ड</p> <p>नम्र</p> <p>कार्यको लागि खुला भएको क्षेत्र:</p> <p>कुनैकुनैसकल सज्जोप</p> <p>कार्यको लागि खुला भएको क्षेत्र:</p> <p>कुनैकुनै सज्जोप</p>
---	--

- 1) 어떤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합니까?
- 2)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쓰기

1. 사업변경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QR 코드로 각 항목이 이미 기입된 사업장 변경신청서를 제시)
2. 다음은 사업장 변경신청서 양식입니다. 신청서를 써 봅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변경신청서

(앞쪽)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접수	접수연월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장(지청장	과장	팀장	담당
	일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① 신청인 정보

성명(영어)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국적	

연락처      한국 내 거주지 주소  
 휴대전화번호(없을 경우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② 사업장 변경신청 사유

[ ] 근로계약기간 만료      [ ] 근로계약 해지  
 [ ] 휴업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 ] 상해 등

3. 희망 취업조건

우선순위	희망 업종(분류번호)	희망 직무내용(분류번호)
1		
2		
3		

희망 근무지역      1.(      )시·도 (      )시·군·구  
 2.(      )시·도 (      )시·군·구 [      ]  
 관계 없음

희망 임금      월 기본급 (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 가능 기간 및 시간 등)

문화와 정보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EPS) 이용법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 허가 신청, 재고용 신청, 고용 변동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경력증명서 출력, 사업장 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용 허가제 소개, 취업 절차, 취업 가능 업종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EPS)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 양해 각서 체결을 한 국가의 언어로 제공되기 때문에 자신의 모국어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신청은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EPS)에 로그인한 후 '사업장 변경 신청'을 누른 후 작성하면 됩니다.

- 1) 이 사이트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 2) 이 사이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 6. 결론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없이는 안 될 냉엄한 현실에 처해 있으며, 이들은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부족의 원인으로, 특히 제조업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어 학습의 목적과 연령, 학습 배경 등이 다양한 사람들을 한 교실에서 하나의 교육과정만으로 교육한다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연구는 모든 이민자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는 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여러 연구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이제는 체류 자격, 체류 기간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고용주 혹은 관리자,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요구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재의 단원 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밝히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정책 관련 연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관련 연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개발 연구로 분야를 나누어 기존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장에서는 특수 목적 한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위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 배경 및 성과, 이민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호주의 사회 통합 교육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 언어 교육과정의 개발 절차 및 요구 분석·교수요목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국가 수준에서 진행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배경과 특성,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국 전후의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실제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입국 후에 체계적으

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 체계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재로서의 적절성 관점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고 교수요목 설계 시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하였다. 특히, 초급 단계부터 직장 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특히 산업 안전 관련 내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4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및 교재 개발 시 고려해야 할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학습자, 고용주 및 관리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요구 조사를 통해서 한국어 학습의 목적,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숙달도 정도, 희망하는 한국어 학습 시간과 한국어 학습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에서 한국어를 경험하는 상황, 공부하고 싶은 한국어 주제, 필요한 언어 기능, 학습의 장애 요인 등도 알 수 있었다. 이어 요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 논의 둘째, 외국인 학습자의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목표 설정 셋째, 한국어 교육의 시수 확대 및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논의 넷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유용한 한국어 교육의 주제, 즉 산업 안전 관련 등의 내용을 반영한 교재 개발의 시급함에 대한 논의, 다섯째, 초급 1단계 한국어 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5장에서는 앞서 진행된 이론적 논의, 한국어 교육 실태 분석, 요구 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교육과정은 제조업을 위주로 설계하되, 교육 내용은 직장 생활은 물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서 상황, 주제, 장소 등 학습자의 요구가 높은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구어적 요소와 문어적 요소도 균형 있게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등급 체계를 최종 단계를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고, 수업 시수도 단계마다 20시간씩 확대할 것과 초급 1단계 과정의 의무화를 제안하였다. 이어 교육 목적 및 목표, 그리고 각 단계별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1-4단계의 교수요목을 설계하고 교재의 단원 모형을 제시하였다.

2009년부터 시행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이민자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시행 초기 주 참여자였던 결혼이민자 외에도 다양한 목적과 체류 자격을 가진 이민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민

자의 유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에서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 능력을 체계적으로 함양시키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사회 통합으로서의 도구적 역할이 더욱 기대되는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참여자, 이주 배경 청소년 등 참여자들의 이주 배경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정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일하면서 한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 소비자로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 이웃이다. 또한 한국 사회의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이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이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고 권익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점이 전환되어야 한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는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의 다양성에 따른 한계가 있다. 즉,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하고 업종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을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필수 어휘 목록이 구축되어야 하는바,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연구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교수요목을 제시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 양적 연구 방법 외에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설문 대상자가 전국 단위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교재의 샘플 단원을 제시 후 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앞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체류 자격, 체류 기간, 출신 국가, 거주지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에 따라 이민자 유형을 반영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연구 논문 및 저서

- 강남옥(2018), 「한국어 교재의 구성 유형과 형성 과정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 15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36.
- 강민주(2019),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실질적 균등대우」, 『공익과 인권』, 19,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3-34.
- 강병석(2019), 「외국인 노동자 대상 사회통합정책의 개선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병훈(2019),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교육 연구 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수정(2019),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관련 현황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제언」, 『다문화와 평화』 제13집 1호, 139-162.
- 강수정(2020), 「이주민 대상 한국어 평가 연구의 발전 방향 모색」, 『교육문화연구』 제26권 2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887-911.
- 강신희(2017), 「이주 노동자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언어문화학』 제14권 제3호, 국제한국어언어문화학회, 1-27.
- 강정향 외(2020), 『외국인근로자(E-9) 교육·훈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 강정향·조영희(2021), 『단순기능인력에서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질적 확대- E-9에서 E-7-4까지의 교육체계 연계 방안』, 이민정책연구원.
- 강현화·이미혜(2011), 『한국어교육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강현화(2023), 『한국어 문법교육론』, 소통.
- 강현화·이미혜(2020), 『한국어교육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강현화(2021a), 『한국어 어휘 교육론』, 한글파크.
- 강현화(2021b), 『한국어 표현 교육론』, 한국문화사.
- 강현화 외(2022), 『한국어 교재론』, 한국문화사.
- 고용노동부(2022), 『2022년판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
- 공민정·홍원표(2023), 「성인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 탐색:

- 호주의 AMEP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6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5-42.
- 국립국어원(2020),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해설서』, 국립국어원.
- 권혁민(2021), 「외국인 노동자(E-9)를 위한 한국어 교육 정책 개선 방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현숙(2016), 「아랍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태 외(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이주노동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기태(2021), 「이주노동자의 노동 여건 및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95권, 8-24.
- 김명광(2011), 「국내외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대안-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권 2호,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0-225.
- 김명광(2017),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과정의 항목에 대한 일고」, 『현대사회와 다문화』 7권 1호,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134-160.
- 김명광(202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론』, 소통.
- 김명광(2023), 「고용허가제 E-9 경로에 대한 비판적 고찰-비정주에서 정주로의 관점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5권 6호, 한국문화융합학회, 399-412.
- 김명광(2023), 「EPS-TOPIK 기능과 효과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언어문화학』 20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61-87.
- 김도연(2021),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새국어교육』 129호, 한국국어교육학회, 599-633.
- 김미현(2016),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연구-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E-9근로자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선(2018), 「네팔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영(2018), 「K-Beauty 전문인의 직업 문식성 신장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권 17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493-517.
- 김상천(2018),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안」,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정(2015), 「해외 현지 자가 학습용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EPS-TOPIK 표준 한국어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1권 3호, 1-22.
- 김선정(2018),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제14권 4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33-54.
- 김성률·이원식(2017),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인권 문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고용허가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8권 1호, 231-252.
- 김수복(2021), 「국내 비즈니스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수요목 설계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현(201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 억양 교육 연구」, 『한국 문화연구』 1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69-87.
- 김연홍(2019), 「중장기 이민 정책 방향의 모색: 외국인력 정책의 성과분석과 미래방안」,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한국이민정책학회, 27-48.
- 김연홍·이성순(2020), 「중장기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 모색 -외국인력 정책의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3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7-42.
- 김영심(2016), 「표준 한국어 교재의 학습목표 진술 방식 분석」, 『한국어와문학』 37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65-94.
- 김재욱(2011), 「귀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7권 2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25-145.
- 김정숙(2003), 「통합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14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9-143.
- 김정숙 외(2006), 『한국어 교재론 개발 최종 보고서』, 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재단.
- 김정숙(2011),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연구」, 『이중언어학』 47권, 331-349.
- 김종세(2013),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한 정책적 소고」, 『법과 정책 연구』 13권 2호, 한국법정책학회, 599-618.
- 김중섭 외(2010),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 김중섭 외(2011),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 김중섭 외(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국립국어원.
- 김지은(2008),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한국어 과제기반 교수를 위한 교육적 과제 개

- 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2003), 「특정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과제 단위 학습자 요구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관준(2013), 「다문화사회의 갈등과 기여에 관한 고찰」, 『현대사회와 다문화』, 3권 2호,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7-237.
- 김혜선·정진주(2015),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사업장 변경의 딜레마」, 『산업노동연구』 21권 2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61-301.
- 김호정·강남옥(2020), 「한국어 교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설정 연구」, 『새국어교육』 123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27-269.
- 노지현(2015), 「산업재해를 경험한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라휘문(2015),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 사회통합기금 및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29.
- 라휘문 외(201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분석 및 추진방향-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권 1호, 한국지방자치학회, 1-23.
- 류영석(2008), 「이주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입국 예정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학습을 위해서」, 『언어와 문화』, 4권 3호, 77-102.
- 문병기·이향수·황민철(2016),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방안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민병곤 외(2016), 『다문화 시대 이주민의 한국어 의사소통』, 집문당.
- 민병곤 외(2020), 『한국어 교육학 개론』, 태학사.
- 민진영(2013),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원 학업 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진영·박소영(2019),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145-163.
- 민현식(2008),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39.
- 민현식 외(2014), 『한국어 교육학 사전』, 도서출판 하우.
- 박민정·장주영·김민경(2020), 『여성이민자 노동시장 참여 특성 분석』, 이민정책연구원.
- 박성수(2006), 「외국인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내용 선정을 위한 요구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신규(2017),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실태 및 정책과제-전북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11권, 한국다문화디아스포라학회, 99-118.
- 박영순(2003), 「한국어 교재의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 14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69-188.
- 박영순 외(2002),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박준석 외(2018),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사전취업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 박진철·박수연(2020), 「한국어교육에서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언어사실과 관점』 제50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377-397.
- 박하영(2023),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의 내용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혜숙(201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 개선 방안」, 『인문학연구』 44, 인문학연구원, 263-310.
- 박혜숙(2014), 「이주 배경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방성원(2000), 「통합 교수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11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69-295.
- 방성원(2003),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문법의 개발 방향」, 『어문연구』 31권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69-295.
- 방성원(2008),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9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9.
- 배두본(2013), 『외국어 교육과정론』, 한국문화사.
- 백아영·김영주(2013),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읽기 활동의 통합성 연구」, 『한국언어문학』 87집, 한국언어학회, 269-295.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8월호』
- 서종학·이미향·박진옥(2017), 『한국어 교재론』, 한국문화사.
- 설규주 외(2019),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 사회 이해 과정 개편방안 연구, 법무부.
- 설규주(2019),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 사회 이해> 과정 수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한 기초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2권 3호, 한국다문화교육학회, 1-36.
- 설규주·이미혜(2020), 『사회통합프로그램 특수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연구-외국국

- 적 동포 및 이주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설규주(2022),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재의 한국 사회문화 관련 내용 분석」, 『열린교육연구』 30권 3호, 한국열린교육학회, 21-49.
- 설동훈·송영호·한준성(2020), 『외국인근로자 재정착 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연계 방안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 송경옥(2017), 「카타르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찬우(202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의 말뭉치 기반 어휘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향근 외(2016), 『예비 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육론』, 도서출판 하우.
- 신석홍(2010), 「한국어 능력 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요목 연구-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경화·김민애(2014), 「한국어 교육과정의 목표 설계 연구」, 『어문논집』 59집, 중앙어문학회, 381-405.
- 안설희(2003), 「이주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학습자 요구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희은(2018),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정책 방안」, 『동남어문논집』, 1권 45호, 217-239.
- 양윤실(2020), 「한국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기본 소양 평가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영훈·하종천(2019),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 내에서의 문화갈등 사례 연구」, 『문화교류연구』 8권 3호,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125-146.
- 오지혜·심상민·이미향(2019), 「사회통합교육을 위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개발 방향 연구-호주의 AMEP 사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64권, 한국어교육학회, 227-262.
- 오인미(2012),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재 개발 방안」,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승희(2021),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의 정책불응에 대한 고찰과 정책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73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151-177.

- 유희연(2023),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국토연구원, 5-42.
- 윤영·손경애(2016),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법 연구」, 『언어와 문화』, 12권 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23-154.
- 윤자호(2021), 「고용허가제 흐름과 이주노동자 실태-비전문취업자(E-9), 방문취업자(H-2)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1(16), 1-38.
- 이경주(2018),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권,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77-100.
- 이규용(2012),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 정책 방향」, 『노동리뷰』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74-90.
- 이규용(2022), 「외국인력 및 이민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 『노동리뷰』 205호, 한국노동연구원, 30-34.
- 이래호(2015),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구성 체계와 내용 분석」, 『영주어문』, 29, 347-37.
- 이미향(2017),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표준교육과정」,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49-54.
- 이미향 외(2018), 「특수 목적 교육으로서의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 개선 방향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5권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47-174.
- 이미혜(2003), 「직업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133-158.
- 이미혜(2008), 「국내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 교육』, 19권 3호, 1-27.
- 이미혜(2015),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과정의 현 위치와 발전 방향』,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논문집, 210-219.
- 이미혜(2016a),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화와융합』 38권 5호, 한국문화융합학회, 461-486.
- 이미혜(2016b), 『고용허가제 특별한국어능력시험 문항 분석 및 TOPIK 문항과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 국립국제교육원.
- 이미혜(2016c), 「이민자 사회 통합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외국어교육』 23권 1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67-288.
- 이미혜 외(2018), 『2018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개발 기초 연구』, 국립국

어원.

- 이미혜(2019),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참여자 요구 분석」, 『문화와 융합』 제41권 5호, 한국문화융합학회, 805-834.
- 이미혜 외(2020), 『2019-20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개발: 2차 연도』, 국립국어원.
- 이성순(2010),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21권 4호, 165-187.
- 이수미(2021),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기반한 한국어 교재의 내용 선정 및 단원 구성 원리 연구」, 『우리어문연구』, 71집, 우리어문학회, 733-756.
- 이순애(2022),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어 교육의 실제와 개선 방안」, 『문화와 융합』 44권 9호, 한국문화융합학회, 937-952.
- 이영민·최고은(2016), 「외국인 취업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탐색」,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권 6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97-304.
- 이영주(2017), 「사통 한국어 교재의 어휘 교육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용화(2015), 「이주노동자를 위한 상황 중심 교수요목 설계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육진(2022), 「한국·독일·호주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분석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화(2018), 「EPS-TOPIK 한국어 표준교재 수정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2021),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의 문법 영역 특성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70권, 한중인문학회, 199-223.
- 이인혜·장미정(2021),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온오프라인 교육 방안 연구」, 『한성어문학』 제46집, 한성어문학회, 185-221.
- 이인혜·이준호(2021),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CEFR, ACTFL, WIDA의 숙달도 등급 체계 비교 연구」, 『어문논집』 93호, 민족어문학회, 415-445.
- 이종선(2009),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개발 방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호 외(2020),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인증제 운영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 이태정(2012), 「한국 이주노동자의 이주과정과 변형 아이덴티티」,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향수·이성훈(2016), 「이주 노동자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4권 5호, 디지털 정책 및 경영학회, 117-123.
- 이해영 외(2023), 『손에 잡히는 한국어 교육학 개론』, 도서출판 하우.
- 이혜경(2018),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와 정책적 함의」, 『철학사상문화』 제26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13-246.
- 이혜원(2019), 「외국인 선원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정(2021), 「특수 학문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동진(2019),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요인과 교육성과 분석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 비교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7권 4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83-317.
- 임승선(2006), 「이주 노동자 대상 취업 전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준영(2020), 「이주민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연구」, 『문법교육』 38호, 한국문법교육학회, 159-204.
- 장현수(2020),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 관련 어휘 분석과 교육 방안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경미(2019), 「한국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이해관계자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영기·최은수(2014), 「사회 통합을 위한 호주의 이민정책과 이민자 정착지원 프로그램-성인이민자영어교육프로그램(AMEP)을 중심으로-」, 『평생교육·HRD연구』 10권 2호,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HRD연구소, 51-75.
- 전영순·김경제(2021),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의 개선방안」, 『인문사회』 제21권 1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7-220.
- 전용일 외(2023), 외국인근로자의 산재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연구, 고용노동부.
- 전지양(2005),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지현(2015), 「특수목적영어 연구: 현재와 미래」, 『영어교육』 70권 5호, 아시아문

- 화학술원, 207-220.
- 정기선 외(2016),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조사체계 및 항목 연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정명숙(2003), 「비즈니스 한국어'의 교수요목 설계를 위한 연구」, 『한국어 교육』, 14권 2호, 403-421.
- 정명주·김소윤(2020),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변동에 따른 사회 통합정책대상으로의 포용 가능성 탐색: 단기순환원칙의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제1호, 한국거버넌스학회, 57-92.
- 정미혜(2012), 「공학계열 내용기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연·이나경(2022),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304권, 51-65.
- 정현경(2022), 「이주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에 나타난 학습과 변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혜란(2023),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호선(2016), 「한국 내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훈·정상우·이원선(202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0권 5호, 449-473.
- 제민영(202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재 대화문의 실제성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경(2006), 「이주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 『한국어 교육』, 17권 3호, 255-279.
- 조영희 외(2017), 『이민자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및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조영희 외(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모델 개선 필요성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조용진(2015), 「직무분석을 활용한 외국인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항록(2008), 「이주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실제와 과제-한국어 교육 정책의

- 관점에서」, 『사회언어학』 16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299-316.
- 조항록(2011),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실제와 과제」, 『다문화와 평화』 5권 2호,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5-31.
- 조항록 외(2011), 『사회통합프로그램 발전 방안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조항록(201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의 확대 실시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50, 이중언어학회, 235-267.
- 조항록(2013),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제와 개선 방안-주요 교육 실시 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4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37-268.
- 중소기업중앙회(2018),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종합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
- 진현·장은미·정기선(2016), 「일반 고용허가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만족과 이직의도」, 『중소기업연구』 제38권 3호, 한국중소기업학회, 1-23.
- 차용호(2008),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이민학회 정기학술대회, 1권 1호, 한국이민학회, 137-193.
- 차용호(2009), 「이민정책과 통합정책의 관계성 및 연계방안 연구-결혼이민자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3권 1호,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165-200.
- 차용호(2021), 「이주노동자 인권 및 소수자행정의 새로운 지향」,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4호,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33-270.
- 최경식(2019), 「저숙련 외국인근로자 통제제도 고용허가제의 제도개혁방안에 관한 연구-갈등의 구조적 폭력의 특징을 중심으로」, 『인권연구』 2권 1호, 한국인권학회, 145-182.
- 최배영·한은주(2012), 「이민자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30권 3호, 83-103.
- 최아영(2018),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개선 방안: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자특성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윤곤(2020), 『한국어 문법 교육』, 한국문화사.
- 최윤철(2014), 「다문화가족 지원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관계」, 『일감법학』 제28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409-450.
- 최윤철(2015), 「세계화와 한국의 다문화주의」, 『공법연구』 43권 3호, 한국공법학회, 21-50.
- 최윤철(2018),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공법학연구』 19권 1호, 한국비교

- 공법학회, 253-275.
- 최정순(2006),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교육과정과 평가」, 『이중언어학』 31권, 이중언어학회, 277-314.
- 최정순(2007),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언어 능력 기술」, 『한국어교육』 18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7-234.
- 최정순·윤지원(2012),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본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 연구의 실태와 제언」, 『어문연구』 74권, 어문연구학회, 131-156.
- 최진훈(2019), 「외국인근로자 불법 체류 완화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진(2011),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20년~2023년.
- 한국산업인력공단(2015),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한국어 표준교재1, 2』, 도서출판 하우.
- 한상미(2019), 「대학 기관 한국어 교재의 종적 분석 연구-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3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79-219.
- 한송화(200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8권,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331-362.
- 허용·김선정(2009),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국립국어원.
- 현희·남윤삼(2018), 「독일의 통합을 위한 사회통합강좌」, 『독어독문학』 제145집 221-243.
- 홍은혜(2022),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기반한 이주노동자 대상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난숙(2018),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사회통합정책 비교 연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민철(2017),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평가: 실무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보』 2권 1호, 한국이민정책학회, 105-128.
- 황민철·문병기(2017), 「체류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1권 제1호, 55-85.
- 황민철·임동진·김태환(2018),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 방안 연구: 삼각측정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다문화와 평화』 제12권 3호,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1-24.
- 황민철(2020), 「사회통합프로그램 만족도 영향 요인 연구」, 『생명연구』 56권,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1-30.
- 황인교(2003), 「국내외 한국어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8권,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87-329.
- Brown, H. D.(2007), 권오량 외 역(2008), 『원리에 의한 교수: 언어 교육에의 상호작용적 접근법(제3판)』,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 Borwn. H. D(2007), 이흥수 외 역(2008), 『외국어 학습 교수의 원리 제5판』, (주)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 Jack C. Richards(2001), 『Curriculum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s, J. C.(2001), 강승혜 외 역(2022), 『언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문화사.
- Richards, Jack C. & Renandya』, Willy A.(2002),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ane Larsen-Freeman(2003), 『Techniques and Principles in language Teaching』, 『외국어 교육의 교수 기법과 원리』, 방영주 역(2009), 동인.
- Flege, J. E. (1987), 『A Critical period for learning to pronounce foreign languages. Applied Linguistics, 8(2), 162-177.
- Flege, J. E. (1988), Factors affecting degree of perceived foreign accent in English sentences.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84(1), 70-79.
- Brian Tomlinson(2002), 『Materials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ith Harding(2012),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10th)』, Oxford University Press.
- Tony Dudley-Evans and Maggie Jo St John(2008), 『Developments i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10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 웹사이트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eps.go.kr](http://www.eps.go.kr)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https://epstopik.hrdkorea.or.kr>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

덴마크어 교육센터, <https://sprogcenter.aalborg.dk/english>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BAMF), <https://www.bamf.de>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https://www.socinet.go.kr>

혁신24, <https://www.innovation.go.kr>

호주 교육훈련부(DET), <https://www.education.gov.au/learn-english-for-migrants>

호주 AMEP

Affairs(<https://immi.homeaffairs.gov.au/settling-in-australia/amep/about-the-program>)

<https://navitas-skilled-futures.com.au/courses-and-programs/pathways-to-work-slpet>

<https://www.dewr.gov.au/skills-education-and-employment>

부록 1.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연구」를 위한  
설문지(학습자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비전문취업(E-9) 자격을 가진 여러분의 한국어 학습 및 교육과정과 교재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수연(jj2790@hanmail.net) 드림.

각 문항에서 해당하는 **1곳에만** √표를 하거나 내용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사항

1	성별	① 여    ② 남
2	국적	① 네팔   ② 베트남   ③ 스리랑카   ④ 우즈베키스탄   ⑤ 필리핀
3	결혼 여부	① 미혼   ② 기혼    4    학력
5	연령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기타
6	현재 단계	① 1단계    ② 2단계    ③ 3단계    ④ 4단계
7	한국 체류기간	① 1년 이하   ② 1년~2년   ③ 2년~3년   ④ 3년~5년   ⑤ 5년 이상
8	회사 이름	9    하는 일

■ 한국어 학습

1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얼마나 배웠습니까? ① 한국어 학습 기간: ② 한국어 교재:
2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였습니까? ① 0단계부터    ② 사전평가(    단계)    ③ 토픽 연계(토픽    급)
3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언제 어디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을 배웁니까? 가. 수업 요일 및 수업 시간: (    )요일, (    )시간 나. 수업 방식: 온라인(    ), 오프라인 (    )
4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비자 변경 등 체류허가 시 혜택을 받기 위해

	②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③ 귀국 후에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④ 한국인 직장 상사, 동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⑥ 기타: (직접 작성)
5	<b>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b> ① 교육기관이 멀어서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② 주중에는 일을 하고 야간/주말에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 ③ 모르는 것이 있어도 물어볼 사람이 없다. ④ 일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⑤ 기타: (직접 작성) (예: 개인적인 문제(게으름, 의지 부족), 집과 가까운 곳에 배울 곳이 없다.)
8	<b>한국어를 일주일에 언제, 몇 번, 몇 시간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b> ① 1회 2시간 ② 2회 4시간 ③ 3회 6시간 ④ 4회 8시간 ⑤ 기타: ( )요일, ( )회, ( )시간
9	<b>9.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맞춤형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b> ① 필요하다. → 9-1로 가세요 ② 필요하지 않다 → 10으로 가세요 <b>9-1.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b> ① 외국인 근로자들은 공부해야 하는 내용이 다른 이민자(결혼이민자, 유학생)와 다르기 때문에 ② 외국인 근로자들은 관심이 다른 이민자(결혼이민자, 유학생)와 다르기 때문에 ③ 외국인 근로자끼리 모여서 공부하면 직장 생활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④ 기타(직접 작성):
10	<b>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까?</b> ① 초급(1급): 자기 소개하기, 물건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할 수 있다. ② 초급(2급): 부탁하기, 전화하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우체국과 은행 등을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를 할 수 있다. ③ 중급(3급):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고,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한국어를 할 수 있다. ④ 중급(4급):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⑤ 고급(5급): 전문 분야의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⑥ 고급(6급): 전문 분야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다.
11	<b>11.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중급(4단계) 과정까지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고급 과정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b>

	① 매우 필요하다. → 11-1로 가세요 ② 필요하다. → 11-1로 가세요 ③ 보통이다. ④ 조금 필요하다 ⑤ 필요하지 않다.
	<b>11-1. 고급 과정이 필요하다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b>
	이유: (직접 작성)

## ■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 및 내용

1	<b>한국어로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b>					
	① 직장의 외국인 동료      ② 직장의 한국인 동료					
	③ 직장의 상사                      ④ 직장 밖의 한국 사람(이웃이나 친구)					
	⑤ 편의시설 직원(슈퍼, 식당 약국 등)      ⑥기타: (직접 작성)					
2	<b>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 기술은 무엇입니까?</b>					
		매우 자주 사용함	자주 사용함	보통	가끔 사용	거의 사용하지 않음
	말하기	5	4	3	2	1
	듣 기	5	4	3	2	1
	읽 기	5	4	3	2	1
쓰 기	5	4	3	2	1	
3	<b>직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 기술은 무엇입니까?</b>					
		매우 자주 사용함	자주 사용함	보통	가끔 사용	거의 사용하지 않음
	말하기	5	4	3	2	1
	듣 기	5	4	3	2	1
	읽 기	5	4	3	2	1
쓰 기	5	4	3	2	1	
4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한국어가 필요하십니까? 아래 각각의 항목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꼭 필요함: 5점 / 자주 필요함: 4 / 보통: 3 / 가끔 필요함: 2 / 별로 필요없음: 1)					
분류	내용	5	4	3	2	1
일상생활	1. 식당 등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할 때	5	4	3	2	1
	1. 전화로 음식 등을 배달시킬 때	5	4	3	2	1
	3.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5	4	3	2	1
	4. 옷 가게에서 옷을 살 때	5	4	3	2	1
	5. 가게(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살 때	5	4	3	2	1
	6. 키오스크 등 무인기기를 이용할 때	5	4	3	2	1
	7. 물건을 산 후 환불이나 교환할 때	5	4	3	2	1
	8.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 버스, 지하철, 기차 등)	5	4	3	2	1
	9. 전화로 수리나 서비스를 요청할 때	5	4	3	2	1
	10. 은행을 이용할 때(예금, 인출, 환전, 송금 등)	5	4	3	2	1
	11. 병원을 이용할 때(의사, 간호사와 대화)	5	4	3	2	1

	12. 우체국을 이용할 때(택배 보내기 등)	5	4	3	2	1
	13. 약국에서 약을 살 때	5	4	3	2	1
	14. 부동산을 이용할 때(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	5	4	3	2	1
	15. 일기 예보 등을 읽거나 검색할 때	5	4	3	2	1
	16. 미용실 등을 이용할 때	5	4	3	2	1
	17. 가전제품 등을 사용할 때	5	4	3	2	1
	18. 전자 제품의 수리를 요청할 때	5	4	3	2	1
	19. 이메일을 보낼 때	5	4	3	2	1
	20. 관공서를 이용할 때(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5	4	3	2	1
	21. 공공질서를 지켜야 할 때(경로석 양보, 재활용 실천 등)	5	4	3	2	1
	22. 집(기숙사)에 문제가 생겨 불편함을 말할 때	5	4	3	2	1
직 장 생 활	1. 구인 구직 광고 읽을 때	5	4	3	2	1
	2. 이력서 쓸 때	5	4	3	2	1
	3. 취직을 위해 면접을 볼 때(자기소개 등)	5	4	3	2	1
	4. 월급 명세서 내역 확인할 때	5	4	3	2	1
	5. 일하는 방법을 듣거나 질문할 때	5	4	3	2	1
	6.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5	4	3	2	1
	7. 작업 도구의 이름과 사용 방법을 물어 볼 때	5	4	3	2	1
	8. 위험한 상황에 대처해야 할 때	5	4	3	2	1
	9. 작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5	4	3	2	1
	10. 기계가 고장이 나서 설명할 때	5	4	3	2	1
	11. 기계 작동법에 대해 말할 때	5	4	3	2	1
	12. 안전에 관한 내용을 읽을 때	5	4	3	2	1
	13. 기계 작업 시 주의사항을 말할 때	5	4	3	2	1
	14. 안전 수칙, 주의사항을 익혀야 할 때	5	4	3	2	1
	15. 산업 안전 표지판을 읽을 때	5	4	3	2	1
	16. 직장에서 공지사항을 읽을 때	5	4	3	2	1
	17. 직장에 휴가, 병가를 낼 때	5	4	3	2	1
	18. 직장에 결근, 조퇴를 해야 할 때	5	4	3	2	1
	19. 동료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배울 때	5	4	3	2	1
	20. 동료에게 일을 부탁할 때	5	4	3	2	1
	21. 작업을 하다가 다쳤을 때(산업재해 등)	5	4	3	2	1
	22.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5	4	3	2	1
위의 목록 이외에 한국어가 더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써 주십시오.						
일상생활:						
직장생활:						

## ■ 한국어 교재

1	현재 배우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에 대해 만족합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조금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	2. 현재 배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도움이 된다. ⑤ 도움이 되지 않는다 → 2-1로 가세요.
	2-1. 현재 배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내용이 부족하다. ②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휘가 많다. ③ 교재의 내용과 실제 생활의 대화가 다르다. ④ 내용이 많고 어렵다. ⑤ 기타:
3	<b>3. 현재 배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가 직장생활에 도움이 됩니까?</b>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도움이 된다.    ⑤ 도움이 되지 않는다 → 3-1로 가세요.
	<b>3-1. 현재 배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가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b> 이유: (직접 작성)
4	<b>현재 배우고 있거나 배웠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b>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도움이 된다    ⑤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b>현재 배우고 있거나 배웠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b>
	① 문화의 내용이 현실에서 접할 수 없는 것이다. ② 문화의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 ③ 일상 생활 문화가 부족하다. ④ 꼭 필요하지 않은 문화 내용이 많다. ⑤ 기타:(직접 작성)
6	<b>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 학습은 무엇입니까?</b>
	① 말하기                  ② 듣기                  ③ 읽기 ④ 쓰기                    ⑤ 어휘                  ⑥ 문법                  ⑦ 발음
7	<b>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를 만든다면 교재에서 많이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b>
	① 생활 정보(의료, 쇼핑, 은행, 법률, 여행, 관광, 건강) ② 취업 및 직장 생활(면접, 이직, 입사 및 퇴사, 체류 자격 변경 등) ③ 한국의 일상 문화                                  ④ 한국의 전통 문화 ⑤ 기타:(직접 작성)

## ■ 한국어 교육의 주제

1. 다음은 한국어 교육의 여러 가지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 중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꼭 필요함: 5점 / 필요함: 4 / 보통: 3 /조금 필요함: 2 / 별로 필요없음: 1)**

주제 범주	주제 항목	5	4	3	2	1
개인 신상	이름, 전화번호	5	4	3	2	1
	가족	5	4	3	2	1
	국적, 고향	5	4	3	2	1

	성격	5	4	3	2	1
	외모	5	4	3	2	1
	연애	5	4	3	2	1
	결혼	5	4	3	2	1
	직업	5	4	3	2	1
주거와 환경	장소	5	4	3	2	1
	숙소, 방	5	4	3	2	1
	가구, 침구	5	4	3	2	1
	주거비	5	4	3	2	1
	생활 편의 시설	5	4	3	2	1
	지역, 지리	5	4	3	2	1
	동식물	5	4	3	2	1
쇼핑	쇼핑 시설	5	4	3	2	1
	식품	5	4	3	2	1
	의복	5	4	3	2	1
	가정용품	5	4	3	2	1
	가격	5	4	3	2	1
식음료	음식, 음료	5	4	3	2	1
	배달	5	4	3	2	1
	외식	5	4	3	2	1
공공 서비스	우편	5	4	3	2	1
	전화	5	4	3	2	1
	은행	5	4	3	2	1
	병원	5	4	3	2	1
	약국	5	4	3	2	1
	경찰서	5	4	3	2	1
여가와 오락	휴일	5	4	3	2	1
	취미, 관심	5	4	3	2	1
	라디오, 텔레비전	5	4	3	2	1
	영화, 공연	5	4	3	2	1
	전시회, 박물관	5	4	3	2	1
대인관계	친구, 동료, 선후배 관계	5	4	3	2	1
	초대, 방문	5	4	3	2	1
	편지	5	4	3	2	1
	모임-회식	5	4	3	2	1
건강	신체	5	4	3	2	1
	질병	5	4	3	2	1
	치료	5	4	3	2	1
	보험	5	4	3	2	1
기후	날씨	5	4	3	2	1
	계절	5	4	3	2	1
여행	관광지	5	4	3	2	1
	일정	5	4	3	2	1
	짐	5	4	3	2	1
	숙소	5	4	3	2	1
교통	위치	5	4	3	2	1
	거리, 길	5	4	3	2	1
	교통수단	5	4	3	2	1

	운송		5	4	3	2	1
	택배		5	4	3	2	1
일과 직업	취업	구직	5	4	3	2	1
		면접	5	4	3	2	1
	직장 생활	근로계약서	5	4	3	2	1
		급여명세서	5	4	3	2	1
		복지	5	4	3	2	1
		수당	5	4	3	2	1
		상담	5	4	3	2	1
		야근/잔업	5	4	3	2	1
		야유회	5	4	3	2	1
		결근/조퇴	5	4	3	2	1
		입사/퇴사	5	4	3	2	1
		휴가/병가	5	4	3	2	1
		사업장 변경	5	4	3	2	1
	작업 도구	5	4	3	2	1	
	안전	안전수칙	5	4	3	2	1
		안전표지판	5	4	3	2	1
		주의 경고 금지	5	4	3	2	1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외국인등록	5	4	3	2	1
		재입국	5	4	3	2	1
		사업장 변경	5	4	3	2	1
체류 절차		5	4	3	2	1	
체류 연장		5	4	3	2	1	
체류 자격 변경		5	4	3	2	1	

## ■ 한국어 교육의 기능

1. 다음 기능 중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꼭 필요함: 5점 / 필요함: 4 / 보통: 3 / 조금 필요함: 2 / 별로 필요없음: 1)

대범주	기능 항목	5	4	3	2	1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설명하기	5	4	3	2	1
	묘사하기	5	4	3	2	1
	서술하기	5	4	3	2	1
	확인하기	5	4	3	2	1
	비교하기	5	4	3	2	1
	대조하기	5	4	3	2	1
	수정하기	5	4	3	2	1
설득하기와 권고하기	질문하고 답하기	5	4	3	2	1
	제안하기	5	4	3	2	1
	권유하기	5	4	3	2	1
	요청하기	5	4	3	2	1
	경고하기	5	4	3	2	1
	충고하기/충고구하기	5	4	3	2	1

	조언하기/조연구하기	5	4	3	2	1
	허락하기/허락구하기	5	4	3	2	1
	명령하기	5	4	3	2	1
	금지하기	5	4	3	2	1
	주의주기/주의하기	5	4	3	2	1
	지시하기	5	4	3	2	1
태도 표현하기	동의하기	5	4	3	2	1
	반대하기	5	4	3	2	1
	부인하기	5	4	3	2	1
	추측하기	5	4	3	2	1
	의도 표현하기	5	4	3	2	1
	바람/희망기대 표현하기	5	4	3	2	1
	가능/불가능 표현하기	5	4	3	2	1
	능력 표현하기	5	4	3	2	1
	의무 표현하기	5	4	3	2	1
	사과 표현하기	5	4	3	2	1
	거절 표현하기	5	4	3	2	1
감정 표현하기	만족/불만족 표현하기	5	4	3	2	1
	걱정 표현하기	5	4	3	2	1
	고민 표현하기	5	4	3	2	1
	위로 표현하기	5	4	3	2	1
	불평 불만 표현하기	5	4	3	2	1
	후회 표현하기	5	4	3	2	1
	안도 표현하기	5	4	3	2	1
	놀람 표현하기	5	4	3	2	1
	선호 표현하기	5	4	3	2	1
희로애락 표현하기	5	4	3	2	1	
사교적 활동하기	인사하기	5	4	3	2	1
	소개하기	5	4	3	2	1
	감사하기	5	4	3	2	1
	축하하기	5	4	3	2	1
	칭찬하기	5	4	3	2	1
	환영하기	5	4	3	2	1
	호칭하기	5	4	3	2	1

설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연구」를 위한  
 설문지(관리자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비전문취업(E-9)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연구'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답변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수연(jj2790@hanmail.net) 드림.

각 문항에서 해당하는 **1곳에만** √표를 하거나 내용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사항**

1	회사명	
2	직위	① 사장/대표      ② 부장      ③ 과장 ④ 대리      ⑤ 기타
3	회사 내 외국인 수	(    )명
4	회사 내 외국인 국적	(    )개국

■ **한국어 교육**

1	회사 내 외국인 근로자들과 의사소통은 어떻게 합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한국어로 한다. ② 사전이나 번역기 등을 사용한다. ③ 회사 내 통역이 가능한 직원을 통해서 한다. ④ 기타(직접 작성):
2	2-1 외국인 직원들에게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 2-2로 가세요 ② 아니요. → 3으로 가세요
	2-2. 외국인 직원들에게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② 외국인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③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서

	④ 기타(직접 작성)
	<b>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종 도달했으면 하는 한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b>
3	① 초급(1급): 자기 소개하기, 물건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할 수 있다.
	② 초급(2급): 부탁하기, 전화하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우체국과 은행 등을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를 할 수 있다.
	③ 중급(3급):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고,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한국어를 할 수 있다.
	④ 중급(4급):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⑤ 고급(5급): 전문 분야의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⑥ 고급(6급): 전문 분야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다.
	<b>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b>
4	<b>필요한 순서대로 써 주십시오.</b>
	① 말하기      ② 듣기      ③ 읽기 ④ 쓰기      ⑤ 어휘      ⑥ 문법      ⑦ 발음
5	<b>외국인 근로자들과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b> 직접 작성
6	<b>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많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b> 직접 작성
7	<b>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우는 교재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b> 직접 작성
8	<b>외국인 근로자들이 꼭 배웠으면 하는 한국의 문화는 무엇입니까?</b> 직접 작성

※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써 주십시오.

## ■ 한국어 교육의 주제

1. 다음은 한국어 교육의 여러 가지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 중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꼭 필요함: 5점 / 필요함: 4 / 보통: 3 /조금 필요함: 2 / 별로 필요없음: 1**

주제 범주	주제 항목	5	4	3	2	1
개인 신상	이름, 전화번호	5	4	3	2	1
	가족	5	4	3	2	1
	국적, 고향	5	4	3	2	1

	성격	5	4	3	2	1
	외모	5	4	3	2	1
	연애	5	4	3	2	1
	결혼	5	4	3	2	1
	직업	5	4	3	2	1
주거와 환경	장소	5	4	3	2	1
	숙소, 방	5	4	3	2	1
	가구, 침구	5	4	3	2	1
	주거비	5	4	3	2	1
	생활 편의 시설	5	4	3	2	1
	지역, 지리	5	4	3	2	1
	동식물	5	4	3	2	1
일상생활	가정 생활	5	4	3	2	1
쇼핑	쇼핑 시설	5	4	3	2	1
	식품	5	4	3	2	1
	의복	5	4	3	2	1
	가정용품	5	4	3	2	1
	가격	5	4	3	2	1
식음료	음식, 음료	5	4	3	2	1
	배달	5	4	3	2	1
	외식	5	4	3	2	1
공공 서비스	우편	5	4	3	2	1
	전화	5	4	3	2	1
	은행	5	4	3	2	1
	병원	5	4	3	2	1
	약국	5	4	3	2	1
	경찰서	5	4	3	2	1
여가와 오락	휴일	5	4	3	2	1
	취미, 관심	5	4	3	2	1
	라디오, 텔레비전	5	4	3	2	1
	영화, 공연	5	4	3	2	1
	전시회, 박물관	5	4	3	2	1
대인관계	친구, 동료, 선후배 관계	5	4	3	2	1
	초대, 방문	5	4	3	2	1
	편지	5	4	3	2	1
	모임-회식	5	4	3	2	1
건강	신체	5	4	3	2	1
	질병	5	4	3	2	1
	치료	5	4	3	2	1
	보험	5	4	3	2	1
기후	날씨	5	4	3	2	1
	계절	5	4	3	2	1
여행	관광지	5	4	3	2	1
	일정	5	4	3	2	1
	짐	5	4	3	2	1
	숙소	5	4	3	2	1
교통	위치	5	4	3	2	1
	거리, 길	5	4	3	2	1

일과 직업	교통수단		5	4	3	2	1
	운송		5	4	3	2	1
	택배		5	4	3	2	1
	취업	구직	5	4	3	2	1
		면접	5	4	3	2	1
	직 장 생 활	근로계약서	5	4	3	2	1
		급여명세서	5	4	3	2	1
		복지	5	4	3	2	1
		수당	5	4	3	2	1
		상당	5	4	3	2	1
		야근/잔업	5	4	3	2	1
		야유회	5	4	3	2	1
		결근/조퇴	5	4	3	2	1
		입사/퇴사	5	4	3	2	1
		휴가/병가	5	4	3	2	1
		사업장변경	5	4	3	2	1
		작업 도구	5	4	3	2	1
	안전	안전수칙	5	4	3	2	1
		안전표지판	5	4	3	2	1
		주의 경고 금지	5	4	3	2	1
출 입 국 외 국 인 사무소	외국인등록	5	4	3	2	1	
	재입국	5	4	3	2	1	
	사업장 변경	5	4	3	2	1	
	체류 절차	5	4	3	2	1	
	체류 연장	5	4	3	2	1	
	체류 자격 변경	5	4	3	2	1	

## ■ 한국어 교육의 기능

1. 다음은 한국어 교육의 여러 가지 기능입니다. 다음 기능 중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꼭 필요함: 5점 / 필요함: 4 / 보통: 3 /조금 필요함: 2 / 별로 필요없음: 1

대범주	기능 항목	5	4	3	2	1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설명하기	5	4	3	2	1
	묘사하기	5	4	3	2	1
	서술하기	5	4	3	2	1
	확인하기	5	4	3	2	1
	비교하기	5	4	3	2	1
	대조하기	5	4	3	2	1
	수정하기	5	4	3	2	1
설득하기와 권고하기	질문하고 답하기	5	4	3	2	1
	제안하기	5	4	3	2	1
	권유하기	5	4	3	2	1
	요청하기	5	4	3	2	1

	경고하기	5	4	3	2	1
	충고하기/충고구하기	5	4	3	2	1
	조언하기/조언구하기	5	4	3	2	1
	허락하기/허락구하기	5	4	3	2	1
	명령하기	5	4	3	2	1
	금지하기	5	4	3	2	1
	주의주기/주의하기	5	4	3	2	1
	지시하기	5	4	3	2	1
태도 표현하기	동의하기	5	4	3	2	1
	반대하기	5	4	3	2	1
	부인하기	5	4	3	2	1
	추측하기	5	4	3	2	1
	의도 표현하기	5	4	3	2	1
	바람/희망기대 표현하기	5	4	3	2	1
	가능/불가능 표현하기	5	4	3	2	1
	능력 표현하기	5	4	3	2	1
	의무 표현하기	5	4	3	2	1
사과 표현하기	5	4	3	2	1	
거절 표현하기	5	4	3	2	1	
감정 표현하기	만족/불만족 표현하기	5	4	3	2	1
	걱정 표현하기	5	4	3	2	1
	고민 표현하기	5	4	3	2	1
	위로 표현하기	5	4	3	2	1
	불평 불만 표현하기	5	4	3	2	1
	후회 표현하기	5	4	3	2	1
	안도 표현하기	5	4	3	2	1
	놀람 표현하기	5	4	3	2	1
	선호 표현하기	5	4	3	2	1
희로애락 표현하기	5	4	3	2	1	
사교적 활동하기	인사하기	5	4	3	2	1
	소개하기	5	4	3	2	1
	감사하기	5	4	3	2	1
	축하하기	5	4	3	2	1
	칭찬하기	5	4	3	2	1
	환영하기	5	4	3	2	1
	호칭하기	5	4	3	2	1

※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에 대한 의견을 써 주세요. (수업 시간에 있었던 특별한 경험도 괜찮습니다)

설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3.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연구」를 위한  
 설문지(교사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비전문취업(E-9)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연구'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답변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수연(jj2790@hanmail.net) 드림.

각 문항에서 해당하는 **1곳에만** √표를 하거나 내용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사항**

1	성별	① 여      ② 남
2	학력	① 학사      ② 석사수료      ③ 석사 ④ 박사수료      ⑤ 박사      ⑥ 기타(예 석사과정 중)
3	한국어교원 자격증	① 1급      ② 2급      ③ 3급
3	사회통합프로그램 경력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4~5년      ④ 5~10년      ⑤ 10년 이상
4	연령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5	현재 수업 단계	① 1단계      ② 2단계      ③ 3단계      ④ 4단계
6	현재 수업반의 근로자 인원 및 비율	① 전체 인원: ② 외국인 근로자 인원:

■ **한국어 교육**

1	수업 시, 외국인 근로자들을 가르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요구와 맞지 않는다.
	② 수업 시수만 채우기 위해 참여하므로 의욕이 부족하다
	③ 숙제나 복습을 하지 않는다.
	④ 학습자 간의 능력 차이가 크다.
	⑤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다.
	⑥ 기타(직접 작성):

2	2-1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맞춤형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 2-2로 가세요 ② 아니요 → 3으로 가세요
	2-2.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② 외국인 근로자들의 학습 목적과 동기가 다른 이민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와 달라서 ③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④ 기타(직접 작성)
3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할 경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직접 작성
4	4-1.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하루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8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많다. → 4-2로 가세요 ② 적절하다. → 5로 가세요
	4-2. 하루 최대 8시간 많다고 생각한다면 적절한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가. 일일 최대 ( )시간 나.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
5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나 기능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써 주세요.) ① 말하기                      ② 듣기                              ③ 읽기 ④ 쓰기                              ⑤ 어휘                              ⑥ 문법                              ⑦ 발음

## ■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 및 내용

4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시 각각의 항목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꼭 필요함: 5점 / 자주 필요함: 4 / 보통: 3 /가끔 필요함: 2 / 별로 필요없음: 1)					
분류	내용	5	4	3	2	1
일상생활	식당 등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할 때	5	4	3	2	1
	전화로 음식 등을 배달시킬 때	5	4	3	2	1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5	4	3	2	1
	옷가게에서 옷을 살 때	5	4	3	2	1
	가게(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살 때	5	4	3	2	1
	키오스크 등 무인기기를 이용할 때	5	4	3	2	1
	물건을 산 후 환불이나 교환할 때	5	4	3	2	1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 버스, 지하철, 기차 등)	5	4	3	2	1
전화로 수리나 서비스를 요청할 때	5	4	3	2	1	

생활	은행을 이용할 때(예금, 인출, 환전, 송금 등)	5	4	3	2	1
	병원을 이용할 때(의사, 간호사와 대화)	5	4	3	2	1
	우체국을 이용할 때(택배 보내기 등)	5	4	3	2	1
	약국에서 약을 살 때	5	4	3	2	1
	부동산을 이용할 때(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	5	4	3	2	1
	일기 예보 등을 읽거나 검색할 때	5	4	3	2	1
	미용실 등을 이용할 때	5	4	3	2	1
	가전제품 등을 사용할 때	5	4	3	2	1
	전자 제품의 수리를 요청할 때	5	4	3	2	1
	이메일을 보낼 때	5	4	3	2	1
	관공서를 이용할 때(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5	4	3	2	1
	21. 공공질서를 지켜야 할 때(경로석 양보, 재활용 실천 등)	5	4	3	2	1
	22. 집(기숙사)에 문제가 생겨 불편함을 말할 때	5	4	3	2	1
직장 생활	구인 구직 광고 읽을 때	5	4	3	2	1
	이력서 쓸 때	5	4	3	2	1
	취직을 위해 면접을 볼 때(자기소개 등)	5	4	3	2	1
	월급 명세서 내역 확인할 때	5	4	3	2	1
	일하는 방법을 듣거나 질문할 때	5	4	3	2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5	4	3	2	1
	작업 도구의 이름과 사용 방법을 물어 볼 때	5	4	3	2	1
	위험한 상황에 대처해야 할 때	5	4	3	2	1
	작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5	4	3	2	1
	기계가 고장이 나서 설명할 때	5	4	3	2	1
	기계 작동법에 대해 말할 때	5	4	3	2	1
	안전에 관한 내용을 읽을 때	5	4	3	2	1
	기계 작업 시 주의사항을 말할 때	5	4	3	2	1
	안전 수칙, 주의사항을 익혀야 할 때	5	4	3	2	1
	산업 안전 표지판을 읽을 때	5	4	3	2	1
	직장에서 공지사항을 읽을 때	5	4	3	2	1
	직장에 휴가, 병가를 낼 때	5	4	3	2	1
	직장에 결근, 조퇴를 해야 할 때	5	4	3	2	1
	동료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배울 때	5	4	3	2	1
	동료에게 일을 부탁할 때	5	4	3	2	1
작업을 하다가 다쳤을 때(산업재해 등)	5	4	3	2	1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5	4	3	2	1	

## ■ 한국어 교육의 주제

1. 다음은 한국어 교육의 여러 가지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 중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꼭 필요함: 5점 / 필요함: 4 / 보통: 3 / 조금 필요함: 2 / 별로 필요없음: 1)

주제 범주	주제 항목	5	4	3	2	1
개인 신상	이름, 전화번호	5	4	3	2	1
	가족	5	4	3	2	1
	국적, 고향	5	4	3	2	1

	성격	5	4	3	2	1
	외모	5	4	3	2	1
	연애	5	4	3	2	1
	결혼	5	4	3	2	1
	직업	5	4	3	2	1
주거와 환경	장소	5	4	3	2	1
	숙소, 방	5	4	3	2	1
	가구, 침구	5	4	3	2	1
	주거비	5	4	3	2	1
	생활 편의 시설	5	4	3	2	1
	지역, 지리	5	4	3	2	1
	동식물	5	4	3	2	1
일상생활	가정 생활	5	4	3	2	1
쇼핑	쇼핑 시설	5	4	3	2	1
	식품	5	4	3	2	1
	의복	5	4	3	2	1
	가정용품	5	4	3	2	1
	가격	5	4	3	2	1
식음료	음식, 음료	5	4	3	2	1
	배달	5	4	3	2	1
	외식	5	4	3	2	1
공공 서비스	우편	5	4	3	2	1
	전화	5	4	3	2	1
	은행	5	4	3	2	1
	병원	5	4	3	2	1
	약국	5	4	3	2	1
	경찰서	5	4	3	2	1
	휴일	5	4	3	2	1
여가와 오락	취미, 관심	5	4	3	2	1
	라디오, 텔레비전	5	4	3	2	1
	영화, 공연	5	4	3	2	1
	전시회, 박물관	5	4	3	2	1
대인관계	친구, 동료, 선후배 관계	5	4	3	2	1
	초대, 방문	5	4	3	2	1
	편지	5	4	3	2	1
	모임-회식	5	4	3	2	1
건강	신체	5	4	3	2	1
	질병	5	4	3	2	1
	치료	5	4	3	2	1
	보험	5	4	3	2	1
기후	날씨	5	4	3	2	1
	계절	5	4	3	2	1
여행	관광지	5	4	3	2	1
	일정	5	4	3	2	1
	집	5	4	3	2	1
	숙소	5	4	3	2	1
교통	위치	5	4	3	2	1
	거리, 길	5	4	3	2	1

일과 직업	교통수단		5	4	3	2	1
	운송 택배		5	4	3	2	1
	취업	구직	5	4	3	2	1
		면접	5	4	3	2	1
	직장생활	근로계약서	5	4	3	2	1
		급여명세서	5	4	3	2	1
		복지	5	4	3	2	1
		수당	5	4	3	2	1
		상담	5	4	3	2	1
		야근/잔업	5	4	3	2	1
		야유회	5	4	3	2	1
		결근/조퇴	5	4	3	2	1
		입사/퇴사	5	4	3	2	1
		휴가/병가	5	4	3	2	1
		사업장 변경	5	4	3	2	1
		작업 도구	5	4	3	2	1
	안전	안전수칙	5	4	3	2	1
		안전표지판	5	4	3	2	1
		주의 경고 금지	5	4	3	2	1
	출입국외국 인사무소	외국인등록	5	4	3	2	1
재입국		5	4	3	2	1	
사업장 변경		5	4	3	2	1	
체류 절차		5	4	3	2	1	
체류 연장		5	4	3	2	1	
체류 자격 변경		5	4	3	2	1	

## ■ 한국어 교육의 기능

1. 다음은 한국어 교육의 여러 가지 기능입니다. 다음 기능 중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꼭 필요함: 5점 / 필요함: 4 / 보통: 3 / 조금 필요함: 2 / 별로 필요없음: 1)

대범주	기능 항목	5	4	3	2	1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설명하기	5	4	3	2	1
	묘사하기	5	4	3	2	1
	서술하기	5	4	3	2	1
	확인하기	5	4	3	2	1
	비교하기	5	4	3	2	1
	대조하기	5	4	3	2	1
	수정하기	5	4	3	2	1
	질문하고 답하기	5	4	3	2	1
설득하기와 권고하기	제안하기	5	4	3	2	1
	권유하기	5	4	3	2	1
	요청하기	5	4	3	2	1
	경고하기	5	4	3	2	1

	충고하기/충고구하기	5	4	3	2	1
	조언하기/조언구하기	5	4	3	2	1
	허락하기/허락구하기	5	4	3	2	1
	명령하기	5	4	3	2	1
	금지하기	5	4	3	2	1
	주의주기/주의하기	5	4	3	2	1
	지시하기	5	4	3	2	1
태도 표현하기	동의하기	5	4	3	2	1
	반대하기	5	4	3	2	1
	부인하기	5	4	3	2	1
	추측하기	5	4	3	2	1
	의도 표현하기	5	4	3	2	1
	바람·희망·기대 표현하기	5	4	3	2	1
	가능/불가능 표현하기	5	4	3	2	1
	능력 표현하기	5	4	3	2	1
	의무 표현하기	5	4	3	2	1
	사과 표현하기	5	4	3	2	1
	거절 표현하기	5	4	3	2	1
감정 표현하기	만족/불만족 표현하기	5	4	3	2	1
	걱정 표현하기	5	4	3	2	1
	고민 표현하기	5	4	3	2	1
	위로 표현하기	5	4	3	2	1
	불평 불만 표현하기	5	4	3	2	1
	후회 표현하기	5	4	3	2	1
	안도 표현하기	5	4	3	2	1
	놀람 표현하기	5	4	3	2	1
	선호 표현하기	5	4	3	2	1
	희로애락 표현하기	5	4	3	2	1
사교적 활동하기	인사하기	5	4	3	2	1
	소개하기	5	4	3	2	1
	감사하기	5	4	3	2	1
	축하하기	5	4	3	2	1
	칭찬하기	5	4	3	2	1
	환영하기	5	4	3	2	1
	호칭하기	5	4	3	2	1

※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에 대한 의견을 써 주세요. (수업 시간에 있었던 특별한 경험도 괜찮습니다.)

설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